

경부철도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노선으로, 교통체계의 변화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특히 철도가 지나가는 연변과 역(驛) 주변은 기존 도시체계와 다른 중심성을 만들어 내면서 지역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전통적인 교통로에서 빗겨간 곳이 철도체계로 흡수되면서 중심으로 성장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 안양이다.

# 안양

近代史

# 산책



안양시립석수도서관



RF010177



---

공업화를 통한 도시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안양은 노동자의 도시로 출발했다. 거대한 공장은 거대한 노동자 집단을 필요로 했고 특히 안양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중심이었기에 대규모 노동력의 집중이 불가피했다. 다시 말해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동반한 도시화 과정은 공업화의 필수적 현상이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공장의 노동력이자 도시의 거주민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다만 공장에 취직만 한 것이 아니라 도시로 삶의 기반 전체를 옮겨야 했다.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공업도시였고 그들은 도시의 공장 노동자였다.

---

제2의 안양 부흥을 꿈꾸며 안양시가 내세운 선진 구호는 '사람 중심, 인문도시' 안양이다. 원도심의 낙후 지역을 재생하고 도시 외곽 지역을 정비하는 한편, 평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다 친근하게 홍보하고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다. 안양시 전체의 노력에 동안구 구민의 협력, 더 깊이 들어가 동안구 내의 각 동네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 뿐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찾고 싶고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로 안양은 분명 거듭날 듯하다.

# 안양

近代史



# 산책



## 발간사

안양은 천년 역사의 시간이 담긴 도시로 지역과 인문의 환경은 전근대와 근현대의 중심인 만안구와 신시가지인 평촌으로 구분되어 도시민의 유기적인 삶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21세기는 문화적 가치가 도시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 융성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인문학 중심도시 안양'을 위해 지역 내의 인문, 지리, 역사, 문화, 산업 등 제반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안양 근대사 산책』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애환과 정서, 그리고 낭만과 해학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길가의 돌, 마을 앞 나무, 길가의 작은 보에도 사람들의 이야기와 가뭄과 흉년을 이기고 험난한 삶을 헤쳐 온 우리 조상들의 삶에 대한 애착과 설움,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들이 알알이 맺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우리네 조상들의 터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흩어지고 잊히기 십상입니다.

특히 안양은 20세기 이후 변화와 성장을 보인 지역으로 근대사의 기록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이번에 20세기 안양의 각 분야별과 주민생활의 변천을 정리함으로써 근대도시 안양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우리 고장의 살아 숨 쉬는 역사를 알리고 후학의 학습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안양 근대사 산책』 책자 발간을 위해 도와주신 안양시와 지역의 숨은 이야기 등을 증언하여 주신 지역 원로님,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며 현지조사와 집필을 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22일

안양문화원장 신기선

제1부

안양 근대 100년의 변화

발간사

제1장

**경부철도, 안양을 달리다**

류현희

1. 움직이는 검은 쇠덩이가 나타난다 / 11
2. 안양역, 그 공간의 기억 / 19
3. 안양역 일대, 안양의 중심지가 되다 / 26
4. 열차는 꿈과 희망을 싣고 / 35

제2장

**일제 말기 안양지역의  
강제 동원과 수탈**

박철하

1. 식량배급의 실시 / 50
2. 근로보국단의 결성 / 53
3. 안양경방단의 조직과 운영 / 55
4. 현금 및 헌납 / 57

제3장

**안양 사람들의 한국전쟁 경험**

이동현

1. 전쟁의 발발과 안양 / 62
2. 수복과 또 한 번의 후퇴 / 69
3. 전후 복구와 다시 시작되는 일상들 / 77

제4장

**중심지를 따라 이동하는  
안양의 시장**

홍현영

1. 안양 최초의 시장, 군포천장 / 86
2. 안양 읍내에 세워진 안양장과 안양시장 / 94
3. 뭇든지 다 있는 시장, 안양중앙시장 / 104

제5장

**안양의 공업화와 노동자들의 삶**

황병주

1.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노동자 / 130
2. 안양의 공업화 과정과 공단의 형성 / 136
3. 노동자들의 일상과 노동 / 146

---

제6장

**안양 1번가의 역사  
그리고 기억**

안종수

1. 안양의 대표 상업지구 '안양 1번가' / 168
2. 안양역과 1번가, 안양의 운명을 바꾸다 / 171
3. 1960~1970년대 공업도시 안양과 안양 1번가 / 172
4. 1980~1990년대 침상도시와 소비문화 / 181
5. 2000년대 이후 첨단 소비문화의 등장 / 186
6. 기억의 공간으로서 안양 1번가 / 187

---

제7장

**너른 들, 벌말이었던 평촌의  
상전벽해**

이진희

1. 옛날에 옛날에 벌말이라 불렀던 평촌 / 196
2.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평촌 신도시의 탄생 / 203
3. 새로이 편성된 안양과 평촌 신도시의 초창기 / 207
4. 평촌 학원가와 먹거리촌 그리고 걸기 좋은 곳 / 210
5. 제2의 고향, 사랑하는 나의 평촌 / 214
6. 부흥을 꿈꾸는 안양시에서 평촌이 갖는 의미 / 217

---

제2부

**사라진 안양 전통 가옥에 관한 짧은 기록**

김지석

- 제1장 이재락 가옥 / 228
- 제2장 장순태 가옥 / 247
- 제3장 김인태 가옥 / 262
- 제4장 송채남 가옥 / 276
- 제5장 이관구 가옥 / 295
- 제6장 이길자 가옥 / 307
- 제7장 오천교 가옥 / 321









경부철도,

---

안양을

---

달리다

---

제1장 경부철도, 안양을 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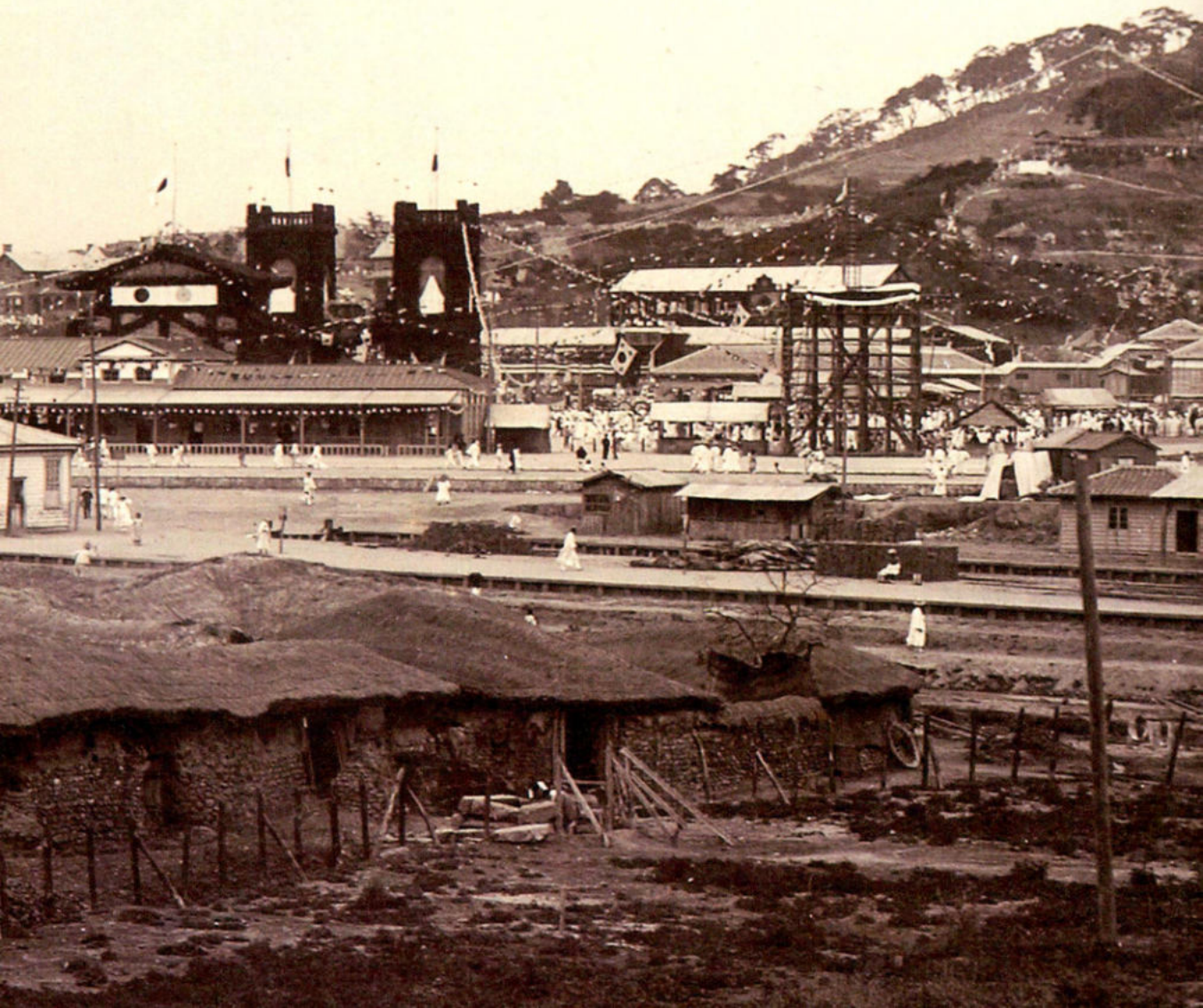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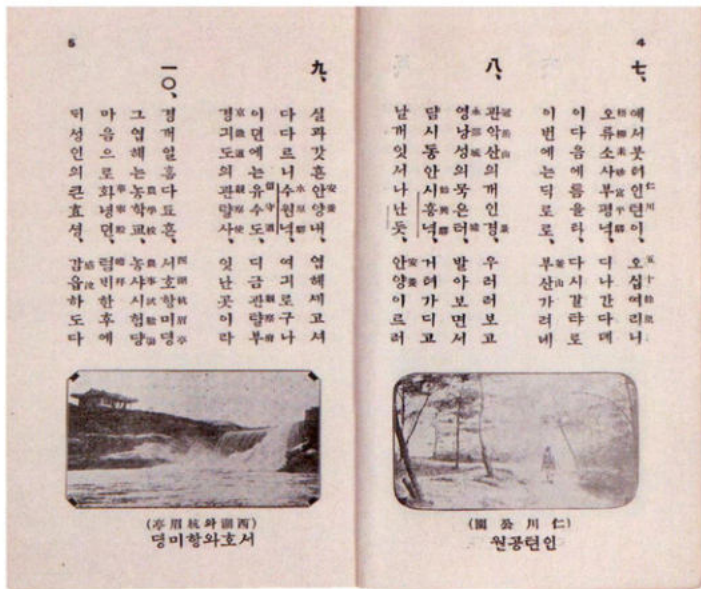
1905년 경부철도 개통식(김영준 제공)

1905년(광무 9) 5월 25일 서울 남대문역에서 열린 경부철도 개통식 사진이다. 경부선은 1901년(광무 5) 개공되어 1904년(광무 8) 12월 27일 완공되었으며 1905년 1월 1일부터 전세 도선의 영업을 개시되었다.

## 1. 움직이는 검은 쇳덩이가 나타나다

경부철도는 조선시대 이래로 서울에서 방사선으로 확장된 육대로(六大路)를 근간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변화시킨 교통로이면서 교통수단이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노선으로, 교통체계의 변화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특히 철도가 지나가는 연변과 역(驛) 주변은 기존 도시체계와 다른 중심성을 만들어 내면서 지역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전통적인 교통로에서 빗겨간 곳이 철도체계로 흡수되면서 중심권으로 성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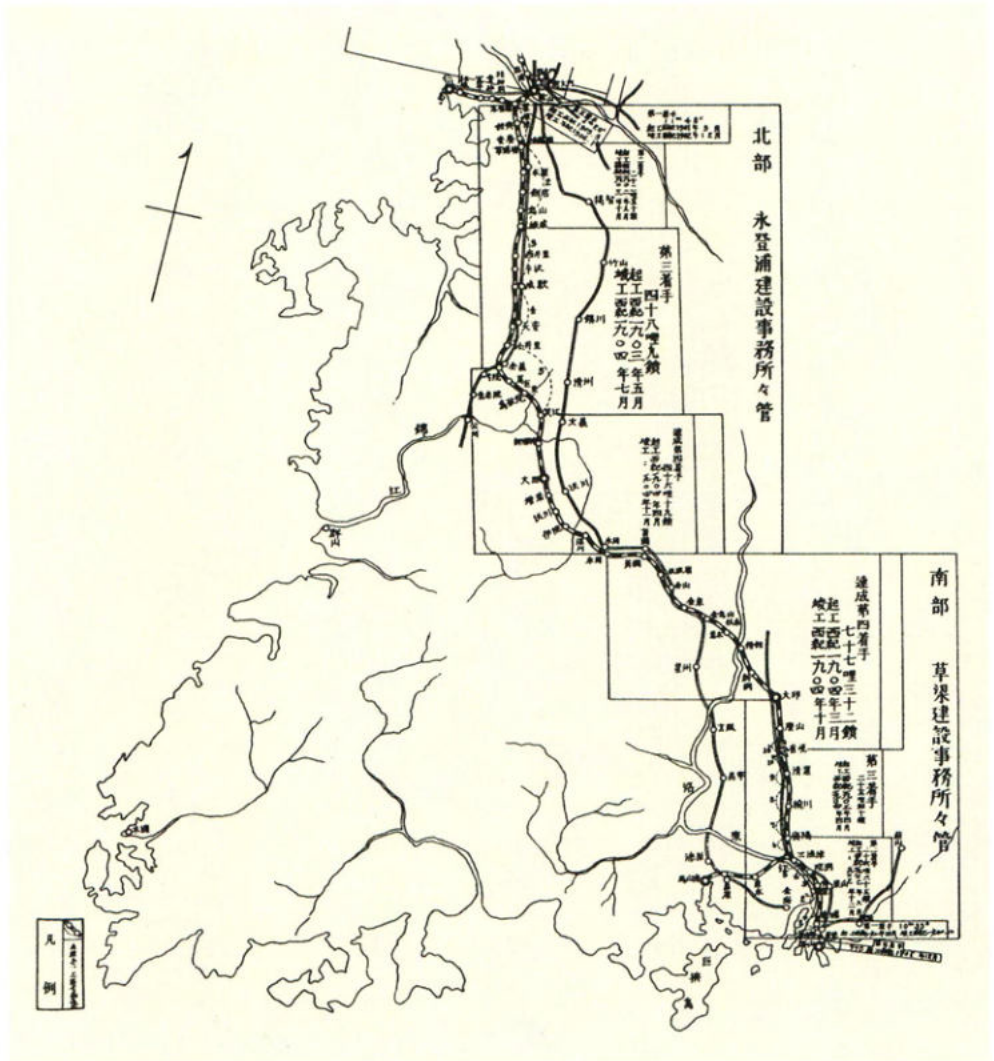
최남선의 「경부철도노래」 중 안양 부분(김영준 제공)

도 했는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 안양이다.

안양은 높고 넓게 펼쳐진 관악산 자락과 수리산을 두 축으로 하고 아래쪽에 청계산, 백운산 산지로 둘러싸인 좁고 긴 형태의 땅으로, 전근대 시기에는 제주로와 주요 교통로의 지선에 위치하였다. 큰 산을 에둘러 돌아 평지로 이어지는 길을 사용하던 이전 시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1905년 경부철도가 개통되면서 안양은 근대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다. 안양지역 내에는 중초사지, 안양사지, 정조 때 만들어진 안양주필소행궁지와 만안교가 있었으나, 지역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것은 경부철도 개통 이후이다.

철도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제 시간에 도착해서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운송수단이였다. 하지만 요란하게 움직이는 검은 쇳덩이인 기차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근대라는 큰 변화와 맞물려 불안한 미래를 상징하는 징표였을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편리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기차가 주는 안락함으로 대체되어 갔고, 어느덧 일상을 파고들어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생긴 것도 이상하고, 소리도 요란하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기차의 등장은 한국사회의 변화, 작게는 이와 연결해 있는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였다. 특히 안양지역은 이전 시기에 점유했던 지리적 이점보다 더 큰 변화를 경부철도를 통해 극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경부철도 건설공구 약도(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사』, 1929)

안양지역에는 안양리와 호계리 두 곳에 역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노선 변경에 따라 호계리에 설치될 예정이던 군포장역은 시흥군 남면 당리에 세워졌다.

경부철도는 서울 영등포와 부산 초량까지 연결된 철도노선으로 1901년 8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1904년 12월에 완공되었다. 1905년 1월 1일부터 전 노선의 영업이 개시되었고, 그해 5월에 남대문정거장, 지금의 서울역 광장에서 성대한 개통식이 진행되었다.<sup>1</sup>

경부선 노선은 5차에 걸친 현장답사를 통해 결정되었다. 1차와 2차 답사 때는 서울-용인-



경부철도노선약도(김영준 제공)

경부선 선로와 주변의 주요 지형을 표시하고 선로 상에 각 역을 표기한 지도로 1905년(광무 9) 경부선 부설 직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수료로 공제하였다. 또한 나머지 금액도 보상금 지불 과정에서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땅주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철도 건설 과정에서 노선 주변의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강제 동원한 사례가 발생함에 주민저항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1904년 9월 15일 시흥군민의 대대적인 항거가 발생하였다.<sup>5</sup> 이 사건의 발단은 군용역부(軍用役夫) 80명 모집에서 시작되었다. 군민들 수천 명이 역부모집 철회를 요구하며 군청에 항의했고, 위기감을 느낀 군수 박우양(朴鵬陽)은 모집 역부를 30명으로 줄여 받았고 각 동마다 1명씩 차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역부 출역에 필요한 고가(雇價)나 비용을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액수는 1,500냥에서 3,000냥이 넘는 액수였기에 민심은 동요하였다. 게다가 군수와 수서기(首書記)가 역부들의 식비를 착복했다는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민심은 폭발하였다.

이 봉기에 시흥군 관내 1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군수 입회하에 관리와의 언쟁 중에 일본인들이 장검과 철봉을 휘두르며 군민들을 공격했고, 이에 격분한 민중들은 군수를 타살하고, 관사와 서기들의 가사집물을 파괴하였다. 이를 틈타 도망가는 일본인을 추격하여 두 명을 살해하였다. 군민은 연일 집회를 열고 43개 동리 집강(執綱)의 연서로 군수의 좌상 10여 개조를 열거한 소장(訴狀)을 만들어 관찰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정부에서 파견한 안핵사(按察使)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일본군 수비대가 급파되어 주동자를 체포해 재판에 회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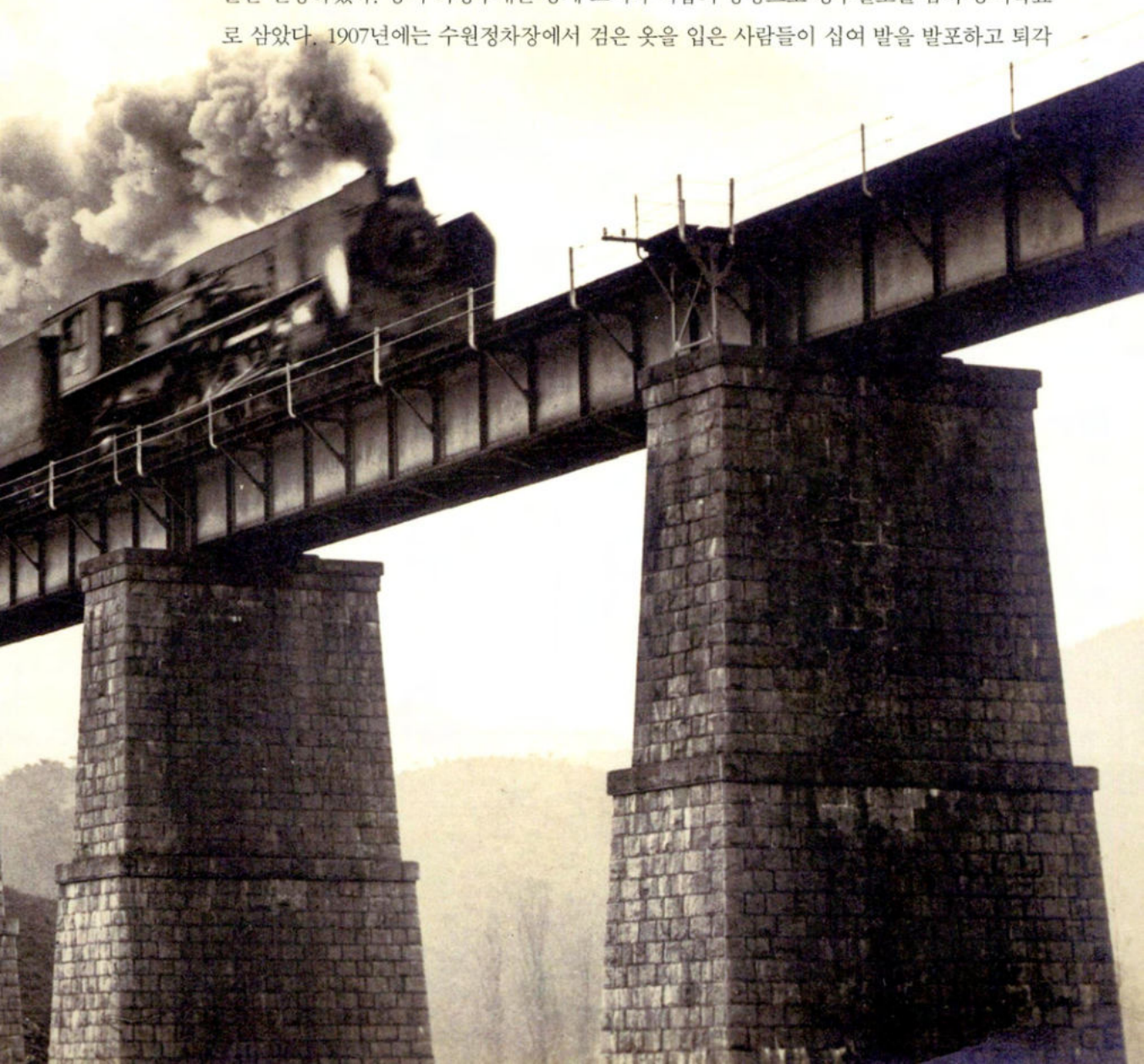
경부철도 특급열차(수원광교박물관 제공)

1936년 12월 1일부터 운행된 경부선 특급열차 '아카츠키'다. 이 특급열차는 서울과 부산 사이를 6시간대에 주파했다.



탁지부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904년 9월은 철도공사가 완료되기 3개월 전으로 전 구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시흥군 전역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3개리 집강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시흥군의 철로 부근 주민의 상당수가 저항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이 있은 후 안양역 부근에서 의병 100여 명이 습격해 올 거라는 소문만으로도 일본인 들은 긴장하였다. 당시 의병부대는 강제 노역과 억압의 상징으로 경부철도를 쫓아 공격목표로 삼았다. 1907년에는 수원정차장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십여 발을 발포하고 퇴각



한 사례가 있었다.<sup>6</sup> 이 때문에 의병 습격설은 안양역과 주변 군포장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불안하게 했고, 이들을 영등포로 대피시키게 했다.<sup>7</sup>

빠르게 달려오는 검은 기차는 식민 지배의 고통을 예고하는 동시에 근대의 편리함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존재였다. 낯설고 공포스런 존재였던 기차는 곧 익숙하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체계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과 물자를 실어날랐다. 이에 1936년 늘어나는 물류를 감당하기 위해 철도 복선화가 추진되었다. 1936년 4월부터 영등포-대전 구간에서 순차적으로 복선화 공사가 시작되었고 전시체제기에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 1945년 3월에는 전체 구간이 완공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 철도의 중심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 2. 안양역, 그 공간의 기억

안양역은 1905년 경부선 개설 이후 1912년 안양으로 역명이 표기된 이후<sup>8</sup> 안양을 지켜 온 산증인이다. 안양역 최초의 사진은 1906년 9월 27일 독일인 헤르만 산더가 찍은 것이다. 헤르만 산더는 안양역에 정차해서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모습을 찍었다. 기차 사이로 보이는 건물이 안양역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안양역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진이다.

다음으로는 1934년 10월 8일 『동아일보』에 기재된 「露積峯 밑에 展開된 三百婦女의 王國」에 부인습속대회를 치르기 위해 안양역에 도착한 사람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다. 그러나 도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안양역의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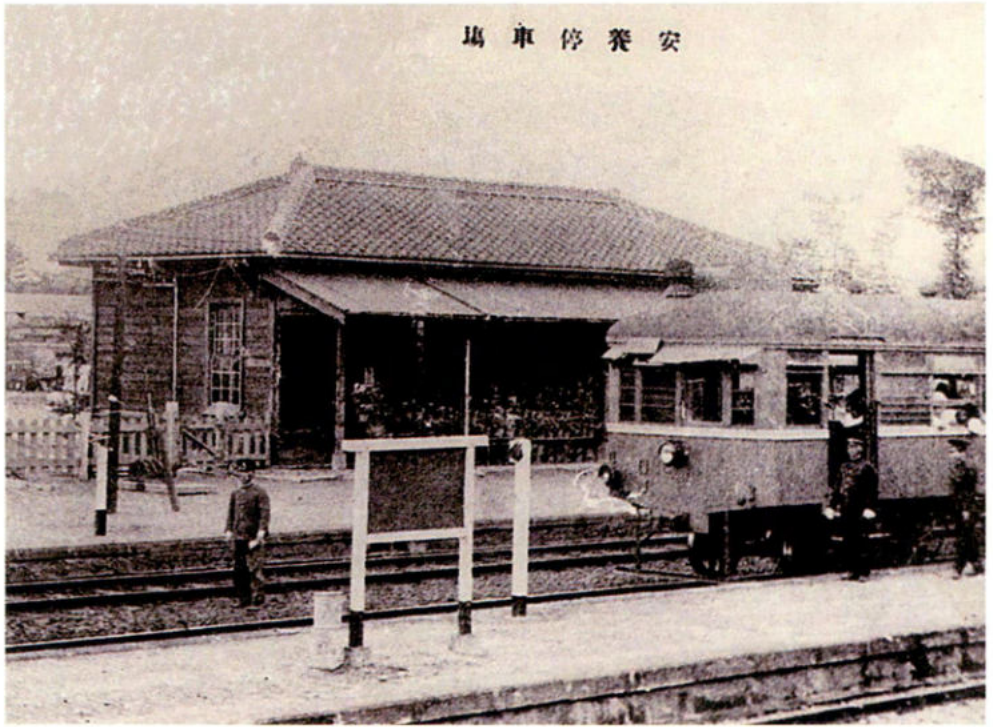
1906년 안양역에 도착한 열차와 승객(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온전한 형태의 안양역 모습은 1930년대 후반에 촬영된 사진이다. 사진의 형태로 보아 1938년 8월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안양 철로 복선화가 완공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물의 형태로 보아 10월 안양역사의 신축시점이 아닌가 추측된다.

안양역사는 복선공사를 진행하면서 개통한 이래 30년이 경과해 노후한 건물을 1938년에 신축했다고 한다. 공사비 4만 원을 들여 건평 88평의 목조콘크리트 슬레이트 식의 건물로 완공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1930년대 안양역 사진은 1938년에 신축 기념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51년 1·4 후퇴 때 완전히 소실되었다가, 1956년 6월 공사비 1,300여 만 원의 금액을 들여 건평 95평으로 준공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3년 만에 응급 복구에 목적을 둔 것이어서 규모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십여 년이 지난 1974년에 수도권 전철 개통되면서 이에 맞춰서 선로 위에 선상역을 증설하였다. 관악산과 삼성산 남쪽 계곡에 위치한 안양유원지가 1969년 국민관광지로 지정·개발되면서 인기가 높아져 수도권 주변 피서객이 몰려 안양유원지에 임시역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유동인구가 늘어난 안양역은 좁고 협소해질 수밖에 없었다. 1976년에는 민수용 무연탄 도착취급역으로 지정되었고, 1980년에는 수소화물 취급 중지, 1993년에는 무연탄 화물 도착취급역 지정 취소, 1994년에는 화물 취급이 중지해 이른다. 안양역은 무연탄이나 화물 운송기능은 이미 1990년대 사라졌고, 대체로 여객 운송을 위한 역으로 기능이 전환되었다. 수원역의 경우 2006년에 소화물 취급 중지된 것에 비해 안양역은 상당히 빠른 시기에 기능이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안양역은 2001년 12월 13일 민자역사 개통식을 갖고 재탄생해 다음 날인 14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1995년 (주)안양민자역사와 철도청이 1,100억 원을 들여 안양1동 88-1번지 일대 2만 8,047㎡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현대식 복합 건축물로 착공하고 이는 LG건설이 시공하였다. 역무시설은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8,693㎡ 규모로 시민 편의시설인 대합실과 개찰구·승강장으로 이루어졌다. 역 주변에는 롯데백화점과 주차장 등을 갖춘 건물이 완공되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sup>9</sup>

안양역은 탄생 순간부터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람들이 모이고 통행이 많은 곳에는 늘상 여러 가지 사안들이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역이 설치된 이후 안양역 일대에서는 기차 탈선과 충돌사고 등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흥군청 유치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정치·사회적 행사가 벌어졌다.



1938년경 안양역사(시흥시청 향토사료실 제공)



1968년 안양역사(닐 마살로프)

1927년에는 열차가 안양역에 도착하기 전 뛰어내린 50세가량의 남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sup>10</sup> 1928년 2월 15일에는 안양역기차 전복사건이 있었다. 대전에서 용산으로 향하던 화물차가 안양역 구내 들어오다가 탈선되어 다른 열차에 수하물과 승객을 나눠 태우는 통에 혼잡이 일어나기도 했다.<sup>11</sup> 1931년 11월 13일에도 경부선 열차가 안양에서 탈선되었고,<sup>12</sup> 1933년 5월에는 철도운전 계통 변경으로 시흥군 우편이 지연되었다.<sup>13</sup> 1933년에는 안양역 철도 길목을 청년 2명이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sup>14</sup>

또한 안양역은 시흥군청 유치 군민대회가 개최되는 주요 행사장이기도 했다.<sup>15</sup> 1936년 경성부 구역 확장에 따라 시흥군청 소재지였던 영등포가 시흥군에서 제외되었고 행정시설 등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다. 이에 군청이 북쪽에 위치해 있어 업무를 보기에 불편했던 군민들은 군의 중심에 있는 안양으로 군청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기성회는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공장장을 회장으로 선정한 후 맹렬하게 활동을 했다.

한편 한국전쟁기에 안양역 일대는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sup>16</sup> 1·4후퇴 때 탄약열차가 고장 나서 안양역 이남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자 피난민들을 내리게 하고는 폭파시켰다. 이로 인해 안양읍내가 모두 파괴되었고, 역 주변에는 탄약열차 파편이 오랫동안 널브러져 있었다.<sup>17</sup> 이 사건은 폭격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폭파시켰다고 하기도 하는데 원인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탄약을 실은 열차가 적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폭발한 기차 조각을 뜯어서 고물상에 가져가 엿 바꿔 먹었다는 주민들도 있다.<sup>18</sup>

전쟁의 기억은 장소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에게도 상처로 남아 있다. 한국전쟁 당시 안양역 근처에는 안양피난민수용소가 설치되었는데 전쟁 후에 안양의 소골안(小谷內)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하였다. 대개 강원도 철원 등지에서 온 피난민들이 태평방직지급의 진흥아파트단지에서 수용소 생활을 했었는데, 당시 읍장이었던 조한구가 주선해서 소골안으로 이주시켰다고 한다. 소골안 땅은 원래 이해범(李海範)의 소유였는데, 소유주의 양해를 받아서 이주를 추진할 수 있었다.<sup>19</sup> 태평방직에 피난민수용소가 있었던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53년에 설립된 삼흥방직을 태평방직이 인수해 1954년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니 아마도 1954년까지 피난민수용소가 이곳에 있었다가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안양3동 피난민촌은 1977년 대흥수로 무너져<sup>20</sup>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을목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박수근 화백의 피난기에도 안양피난민수용소가 등장하는데,<sup>21</sup> 안양피난민수용소는 식량 배급표와 피난민증을 발급하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박수근 화백이 청량리에 도착했을



1968년 안양역 앞 로터리(닐 마살로프)



1968년 안양역 앞 천안행 시외버스(닐 마살로프)





1970년대 안양역 로타리(안양시청 제공)



안양역사 내부(안양시청 제공)

2001년에 새로 개통한 안양역사(안양시청 제공)



때, 안양에 가서 피난민증을 받아야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피난민을 관리하는 중간 거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안양역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중간 관리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이후에는 직장인들이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출근하기 위해, 또는 안양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교차하는 곳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래서 안양역 주변에는 유명한 음식점인 화진정이나 새마을식당과 같은 큰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성업하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소비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에 걸맞은 각종 소비와 관련된 서비스 시설들이 들어섰고, 문화시설 등도 안양역 주변에 갖춰져 갔다. 1970년대 초반에 안양시의버스터미널이 들어와 있어서 안양 유원지로 가는 행락객을 실어 나르거나, 인근 도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이후 안양역의 변화는 안양 1번가로 대표된다. 안양중앙시장이 안양4동으로 옮겨오면서 커졌다고 한다. 이처럼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당시 한 차례 확장했지만, 비좁아져서 2000년에 대대적인 신축을 했고, 이곳에 롯데백화점이 함께 입점하여 현재에 이른다.

### 3. 안양역 일대, 안양의 중심지가 되다

경부철도는 안양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안양역, 안양1동, 안양 1번가로 이어지는 안양 중심가의 성장은 철도 부설에 따른 안양 지역사회의 변모를 반영한다. 안양 1번가 일대는 정조시기 안양주필소가 있었던 곳으로, 왕의 행차 시에 쉬어 가는 용도로 마련된 숙박시설이 있었다. 시흥대리가 개설되고 안양행궁이 설치되었으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sup>22</sup> 하지만 안양역이 설치된 후 역 주변에 주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이 포진하면서 중심지로 등장하였다.

1914년 당시 안양은 과천군 서이면에 속해 있었고, 서이면사무소는 호계동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서이면사무소 설치 3년 만인 1917년에 현재 위치한 안양리로 이전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은 일제가 식민지 경영의 기초를 마련하고 지배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 것이다.<sup>23</sup> 1917년에 호계리에서 안양역이 들어선 안양리로 이전한 것은 이곳이 먼 행정을 추진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인 입지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즉 기차는 지방과 도시를 연결하면서 사람과 물자를 교통하게 만들고, 근대적 삶의 방식을 지방에까지 전파하는 구실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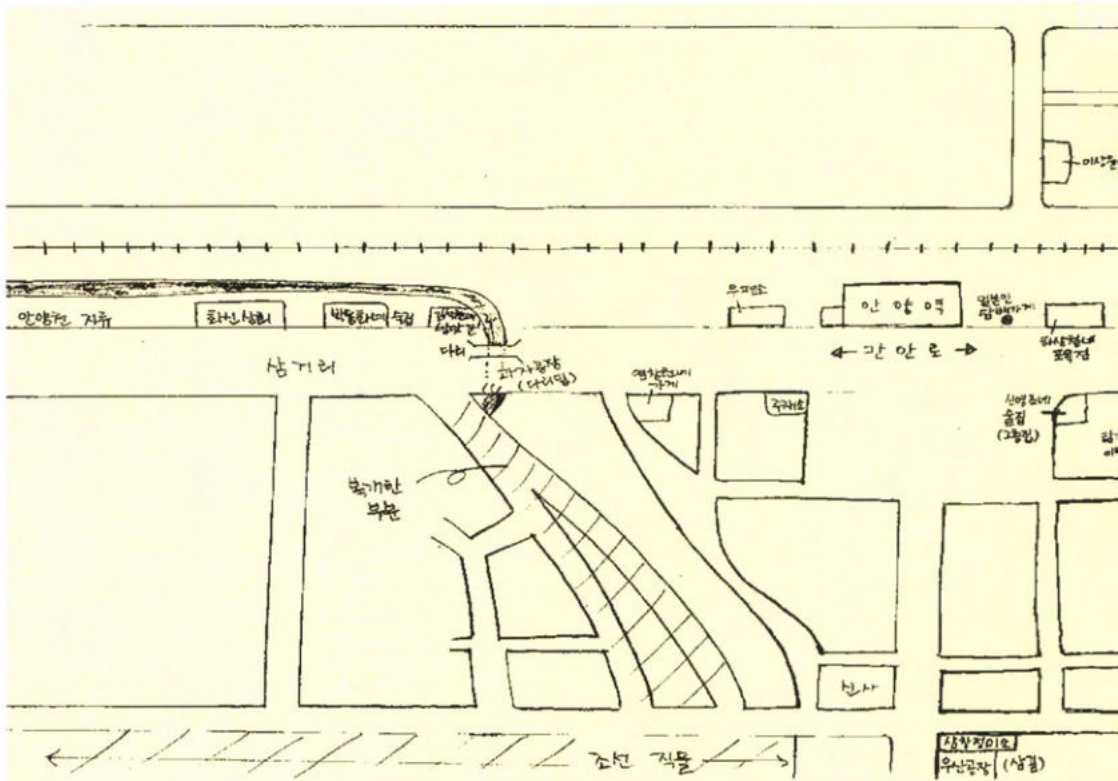
일제시기 안양 중심지의 이동(『朝鮮五萬分一地形圖』, 1918)

1920년대 시흥군 지역은 이른바 '신문화'의 수입이 가장 빠른 곳이었다. 수도인 경성과 인접해 있는데다 철도까지 부설되면서 인구 증가, 산업과 교육의 발전, 종교적 변화, 각종 사회단체의 활성화 등 근대적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1920년대 중반에 안양역 일대는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1924년에는 안양금융조합의 설립, 안양우체국과 안양연초조합이 들어섰다. 그리고 면사무소가 이전하고 10년이 채 안 된 시점인 1925년에 홍수 피해를 입은 군포장은 폐지되고 안양역 뒤쪽 시대동에 안양시장이 개설된다. 또한 1926년 12월 17일에는 그간 군포장우편소 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었던 호계리를 안양우편소로 편입시켰다. 1929년에는 안양공립보통학교가 개교했는데, 시흥군 내 과천공립보통학교1911년 개교와 군포공립보통학교1920년 개교 설립 시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늦은 편이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안양역 주변으로 여러 기관과 시설이 이전 또는 신설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시흥군의 안양 시가지 확장 정책에 따른 것이다.

1926년에는 안양시장에 전기가 송전되었다.<sup>24</sup> 전기는 안양시장과 각종 공장시설의 운영에 동력이 되었다. 안양에는 1932년 조선직물과 조선견직, 1942년 고려석면, 1943년 제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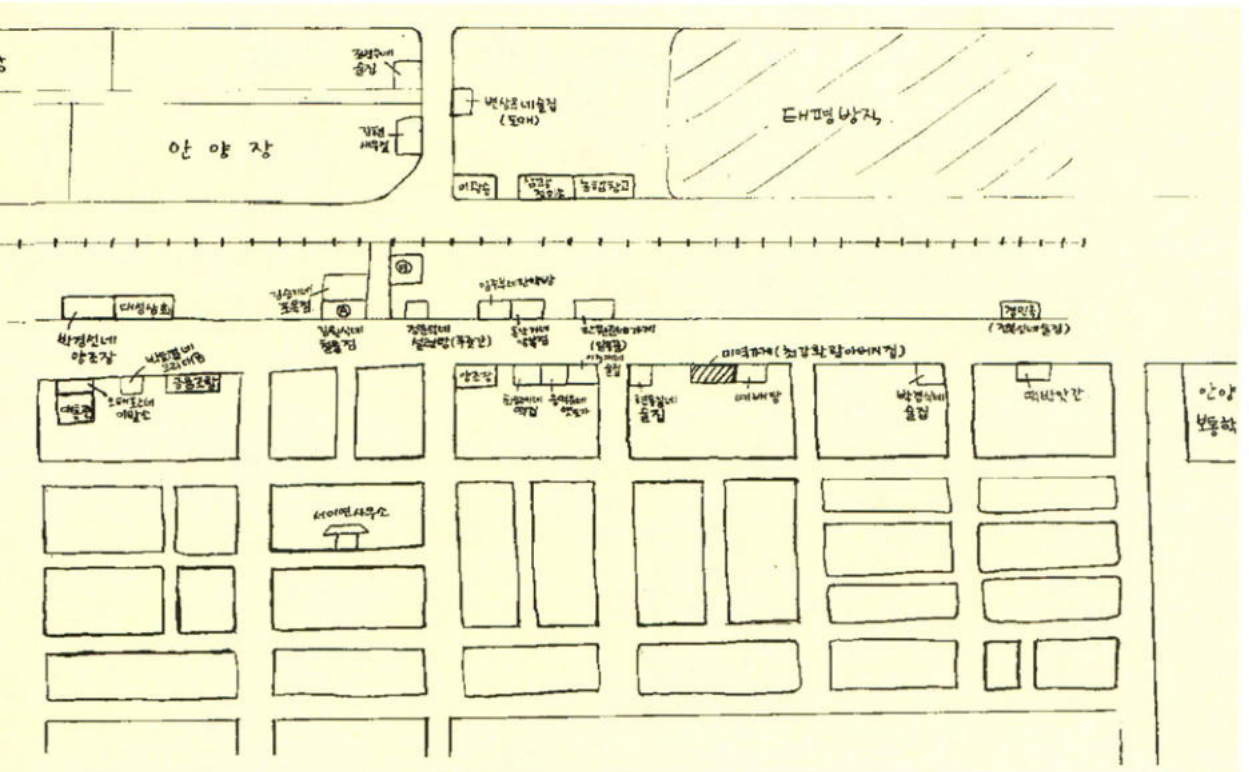
안양공립보통학교 제8회 졸업(1939년, 『안양시사 7권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안양』, 2008)



1930년대 안양역 일대(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권 :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참조)



서이면사무소 개축공사(2003, 안양시청 제공)





1946년 안양으로 이전한 시흥군청사(1975년, 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1965년 안양가로포장공사 기공식(안양시청 제공)



1970년대 안양읍사무소(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읍사무소에서 치러진 광복절 기념행사(1959년, 안양시청 제공)





1960년대 태평방직(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직과 삼덕제지 등이 설립되었는데, 서울이라는 배후시장을 두고 상품과 원료를 운송하는 데 편리한 철도가 있는 안양은 공장을 설립하기에 적지였다. 조선직물의 경우 공장 안까지 철도 지선을 설치해 물건을 싣고 나를 수 있도록 했다.<sup>25</sup> 또한 안양역 주변에는 안양천까지 흐르고 있어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산업이나 공장들이 이곳에 많이 몰려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안양역 일대는 안양읍을 넘어 시흥군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곳은 1917년 서이면사무소가 이전되면서 안양 행정과 정치의 1번지가 된 데 이어 1946년에는 시흥군청사가 안양1동에 들어섰다. 이와 함께 안양읍사무소, 안양경찰서, 의용소방대 등의 관공서가 설립되었고 양복점, 대서소, 다방, 식당 등의 편의시설들이 밀집하게 되었다. 시흥군청은 안양 1번가 삼원프라자호텔 자리에 있었는데 1978년 안양6동에 신축 이전하면서 안양 1번가를 떠났다. 안양경찰서의 경우 1945년에 금성방직현 대농단지 자리에 설치됐는데, 1960년대 중앙동으로, 1980년 안양6동으로 옮겼다가 신도시 건설 이후 평촌으로 이전하였다.

관공서 이외에도 산업시설과 상업시설들이 자리를 잡았다. 안양역 바로 뒤로는 1953년 설립한 삼흥방직이 있었다. 삼흥방직은 1954년 태평방직으로 변경되었는데 1956년 김성곤이 인수한다. 1967년에 김성곤이 쌍용양회에 매진하기 위해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을 대한농산



1970년대 안양역 일대와 한국제지(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에 매각하면서 주인이 바뀐다. 1973년 금성방직은 (주)대농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면방직 사업을 지속했으나 1997년 무리한 자금조달과 과잉부채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004년에 회사정리 절차가 종결되었다. 금성방직 시절에는 5년 만에 해체되긴 했지만 축구단이 있어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는 안양역 쪽으로 태진연탄공장과 삼일연탄공장이 들어섰으며 고려석면, 유유산업, 금성전선, 동아제약 등이 들어섰다. 그리고 방직공장의 전통을 이어 동일방직, 동양나이론, 한일나이론 등 섬유산업이 안양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문화공간도 안양역을 중심으로 발달한다. 1953년 화단극장이 안양역 북쪽으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생겼고 이후 안양극장, 삼원극장 등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1963년에는 대동서림이 1번가에 문을 열면서 전국적 명성을 얻었는데 지금은 본프라자로 이전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본프라자는 안양에서 명성을 떨치던 본백화점이 있던 곳으로 본백화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양중앙시장, 남부시장 등 재래시장이 상권의 중심이었으나,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백화점이 등장하자 상권의 중심이 바뀌게 된 것이다. 1976년 안양 최초의 백화점인 안양백화점이 설립되기도 했으나 부침이 심해 곧 폐업하고,<sup>26</sup> 본격적인 백화점 시대를 열어 간 것은 1983년 개장한 안양 본백화점이다. 본백화점이나 대동서림, 삼원극장 등은 안양 1번가



1970년대 안양극장(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1980년대 삼원극장 일대(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자 소비상품이었다. 하지만 안양역 일대에 롯데백화점과 교보문고, CGV, NC백화점, 김스클럽과 같은 한 단계 더 진화한 대형유통매장이 등장함으로써 그 명성은 교체될 수밖에 없었다.

1973년 안양 시 승격 이후 도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1974년 1호선 전철의 개통, 1976년 경수산업도로의 개통과 함께 더욱 커져 갔다. 하지만 안양은 점차 침상도시가 되면서 경부철도 안양역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산업시설이 빠져나가고 안양역 일대 원도심은 상업과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어 갔다.

안양지역은 1989년 평촌 신도시 개발 이전까지 도시공간에 큰 변화는 없었다. 경부철도 부설 이후 형성된 도시구조가 그대로 계승되어, 안양역 주변으로 기관이나 산업시설들이 모이고 그 주변으로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이 때문에 근대 초기 형성된 안양역 일대의 중심성은 1990년대 평촌 신도시 개발로 도시공간이 확장되기 이전까지는 거의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열차는 꿈과 희망을 싣고

경부철도는 근대 문화의 유입과 이를 수용하는 지식인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통로였고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근차'에 실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수단이기도 했다. 경부철도 통근열차는 천안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기차 통학생과 직장인을 싣고 다녔다.

경부선을 타고 일찍부터 미래를 찾아 떠난 사람은 근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서울로 통학했던 학생들이었다. 안양역은 인근 군포나 의왕에서 안양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안양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이 교차하는 구간이었다. 경부철도 부설 이후 기차 통학생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22년 수원과 인천에서 경성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격증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1927년 6월 7일 안양소년소인극회는 안양시장 구내 광장에서 「위험한 기차 통학생」이라는 극을 상연하였는데, 이는 당시 안양의 통학생 상황을 반영한 연극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서울로 진학한 학생들은 가정형편에 따라 하숙을 하거나 집을 얻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새벽밥을 먹고 기차로 통학을 해야 했다. 1960년대 통학 기차는 천안에서 오는 증기기관차였다. 동네가 조용하였기 때문에 멍학이나 군포 쪽에서 나





1988년 안양역 일대(안양시장, 풍토갤러리 제공)



1939년 안양통학생(이한수 제공)

는 기적소리가 들렸으며 이 소리를 듣고 시간에 맞춰 뛰어나와 열차를 탔다.<sup>29</sup> 천안에서는 새벽 2시 반이나 3시에 타야 하는 것에 비해서 안양 승차는 양호한 편이었다고 한다.<sup>30</sup>

이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는 통학생들 간의 세력다툼에 관한 내용이다. 일제시기에도 이러한 양상은 비슷했을 것이다. 전근대의 경우 고향이나 지역 근거지를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근대로 이행하면서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로 유학하는 등 타 지역으로 이동이 늘었다. 이때 학생은 교복이나 교포, 모자라는 상징을 달고 입게 되면서 구분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즉 기차를 타면 지역별로 학교별로 구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같은 역을 공유하는 집단 의식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기 통학하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축구시합을 벌이기도 했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면서 해방 이후는 통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결성되고 야학이나 동인지 활동, 기독교 청년 운동 등으로 이어져 지역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sup>31</sup> 이러한 지역의식은 타 지역에 대한 배타적 감정으로 표출된 듯하다. 통학생들은 기차를 타면 기차를 잡기 위한 크고 작은 다툼이 많았다. 안양 통학생들은 싸움 잘하기로도 유명하였다.



1941년 안양통학생(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7권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안양』, 2008)

안양 통학생 중에서 끼리끼리 같이 노는 애들이 있잖아. 십여 명이 돼요, 친구들이. 서울 역부터 시흥이고, 영등포고, 수원이고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알아 서로. 완전 패가 다르니까 싸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상대를 해 보면, 안양은 항상 이기는 쪽이었어. 수원 애들이 많았으니까 수원 애들이 상대가 좀 되는데, 다른 지역 애들이랑은 상대가 안 돼. 그래서 항상 이기는 건 안양 애들이지.<sup>32</sup>

지역에서는 느슨했던 사회적 관계가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선후배 관계가 더욱 확연해졌다. 그리고 통학을 하면서 위계질서가 분명해졌고, 여러 학생들이 섞이는 기차 안에서 지역 후배에 대한 보호의식 또는 지역 연대의식이 발현되었다. 게다가 젊고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기차라는 좁은 공간에 몰려 있다 보니 힘을 과시하거나 사소한 시비거리가 생겨도 패싸움이 벌어졌다. 학생들이 많이 타는 역에서는 특히 싸움이 심했는데 부곡에서 시흥까지는 안양 학생들이 꼭 잡았다고 한다.<sup>33</sup>





1974년 원거리 통학으로 안양역에 내려 등교하는 학생들(경향신문사 제공)

근데 안양에 그런 건 있어요. 일 년 차이라도 선후배 간에 그 예의를 갖춰서 해야지 돼요, 이상하게. 한 동네서 살면 두세 살 차이는 보통 친구같이 지냈잖아요. 그러다 이게 1년 차이를 따지는 거야. 나도 지금도 나이가 이런데도 1년이라도 말 못 놔요. 젊은 세대는 경직됐다고 그러지만 그 전통, 그건 난 참 좋은 것 같아요.<sup>34</sup>

안양 기차 통학생은 기차 내에서의 힘의 과시뿐만 아니라, 안양학생회를 만들어서 활동하였다.<sup>35</sup> 아마도 일제시기에도 통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회가 조직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안양의 원로 장석재와 김정대가 1950년대 말 서울로 통학하면서 학생회 활동을 했고, 이때 관악산의 맥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관맥』이라는 책을 만들기도 했다. 시기가 좀 흘러 1970년경에는 열차 모임에 가로등과 로빈이라는 모임이 있었다. 남자들만 모이는 모임과 남녀 혼합 모임이 있었다. 가로등은 읍민관에서 1년에 한번 연극발표회를 열고 노래장기자랑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기도 했다.<sup>36</sup>

통근기차에 얽힌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 4·19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이 새벽 5시 통근기차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기차를 놓치면 집에 갈 방편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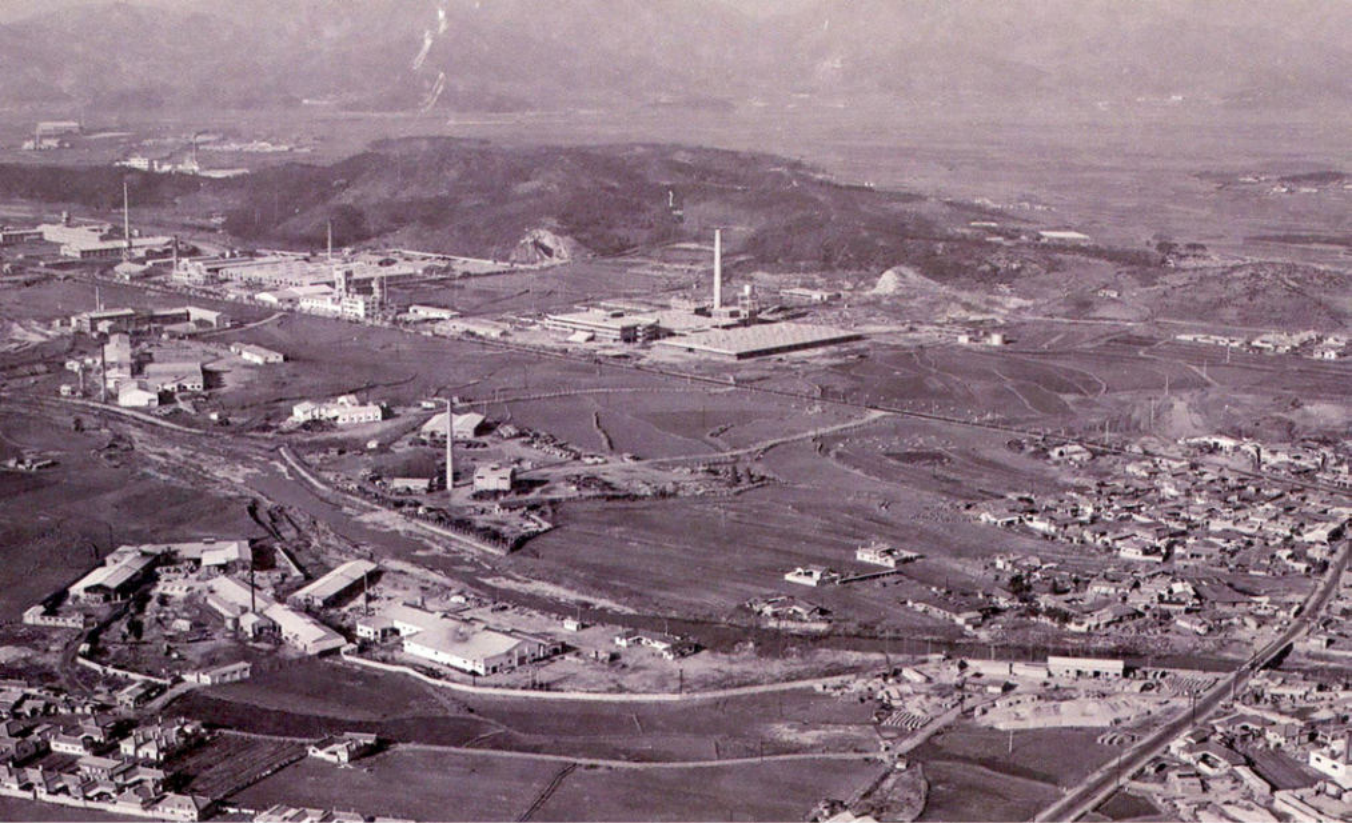


1961년 금성방직 노동자(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7권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안양』, 2008)

또한 남학생 칸과 여학생 칸이 나뉘어 있었지만, 젊은 혈기에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다. 여학생들 치마를 들추고 돈도 뺏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서울로 갈수록 학생들이 기가 세졌다고 하는데, 안양 학생들은 수원 학생들을, 시흥 가면 안양 학생들을, 그리고 영등포에서는 시흥, 안양, 수원 학생들을 때리고 했는데, 서울로 들어가면 주먹피나 쓰는 사람들은 용산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뛰어 내려서 다른 차를 얻어 타고 학교에 갈 정도였다고 한다. 이용웅은 부친이 철도국에 다녔기 때문에 철도패스가 있어서 공짜로 탈 수 있었다. 패스를 돌려가며 친구들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친구들 몇 명은 공짜로 기차를 탈 수 있었다고 한다.<sup>38</sup> 안양에서 통학열차를 타고 서울에 오갈 때 꼬박 1시간 30분가량을 서서 가야 하는 고된 일과였다. 한양공고, 성동고, 양정중학교, 중등학교 등에 다니곤 했는데,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때 인연을 맺은 친구들과 지금도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고 한다.<sup>39</sup>

일제시기부터 시작된 경부선 통학은 근대 문화를 적극 수용한 신지식인이나 엘리트들의 성장 과정이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서울로 유학갈 수 있었던 이들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1974년 1호선 전철 개통과 자동차의 증가로 기차의 매력은 점차 사라졌고, 그때의 추억과 낭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옛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경부선 통근열차의 또 다른 주인공들은 열차를 타고 직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이다. 열차의 시대는 새로운 꿈을 꾸는 청년들을 안양으로 모이게 했고, 일부는 서울로 가는 중간 기차점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일제시기에는 조선직물이나 삼덕제지, 조선비행기주식회사 등 직



1960년대 말 구 1번국도 주변 안양 공단(경기도청 제공) 안양 호계동과 군포 경계 지역으로 금성전선과 금성전선 등의 공장들이 들어섰다.



안양역 일대(안양시청 제공)

물산업이나 군수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기존 산업시설은 파괴되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재건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됐고 다시 금 안양에는 새로운 시설이 하나둘씩 들어섰다. 1960년대가 되면서 고려석면, 한일나일론, 금성전선, 현대양행, 동아제약 등이 군포와 안양 일대에 들어섰고, 이곳에 들어선 산업시설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노동력을 대거 흡수하였다.

이들은 안양 주변 인근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이곳 안양이나 군포, 수원 등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 이들은 안양이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였으며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모여 들었다. 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도시적 생활방식에 맞춰 가야 했다. 이러한 생소함과 어색함을 견디게 한 것은 삶에 대한 희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는 어려움에도 부딪히게 되었다. 즉 경부선 열차가 개통되고 타지와 연결되면서 지역에 대한 연대의식이나 정체성이 강화되었듯이, 도시의 삶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낯설음이었다. 번호별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도 다르고, 장터 풍경도 다를 것이며, 학교 규모도 다르고, 마을길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뭐하나 익숙한 것이 없는 곳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희망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많은 좌절과 안타까움을 극복해야 했다. 1960~1980년대 연탄가스 중독사건이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서울 중심의 연계도시의 집값 상승 등은 도시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는 요소였다.

연탄가스 사고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안락하고 따뜻해야 할 방안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한국전쟁 직후 산림 벌채를 금지하고 석탄으로 가정용 연료를 대체했는데, 석탄을 주재료로 하는 연탄은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스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많았다.<sup>40</sup>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값이 싸고 따뜻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였다. 겨울 초입에 김장 과 더불어 연탄을 창고에 가득 쌓아 두어야 마음이 편했을 정도였다.

안양 일대로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안양에도 복부인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공장 주변에 땅을 매입해 나갔다. 고구마밭, 포도밭, 논이었던 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형건물이 들어섰다. 좁은 땅에 대한 부동산 경쟁력은 강화되었고, 경쟁 대열에 참여할 수 없는 서민들은 점차 더 싼, 더 좁은 집



1980년 안양역 광장(안양문화원 제공)



1984년 안양역 앞 택시 정거장(안양문화원 제공)

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공장 기숙사나 집안이 넉넉하지 않으면 방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다. 그럴 경우 같이 근무하는 회사 동료와 함께 방을 얻어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팍팍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월셋방에서 점차 늘어가는 가산과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며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부선 철도가 역을 따라 서울로 나아가듯, 그들의 삶도 이전보다는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근열차를 타고 출퇴근하던 모습은 1974년 1호선 전철 개통과 함께 조금씩 달라졌다. 전철은 구간이 짧고 역이 많아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기차보다도 배차 간격이 짧았고, 가격도 싸서 통근열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이었다. 물론 도로의 확대와 자동차 보급으로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이했지만, 안양역을 통과하는 열차나 전철은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소중한 교통수단이었다.

## 주)

- 1) 철도청, 『사진으로 본 한국철도 100년』, 1999년, 1970쪽.
- 2)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47-58쪽 참조.
- 3) 정재정, 「경부철도 부설과 지역사회의 변화」, 『군포시사 2』, 2010; 김찬수, 「철도의 부설과 지역사회의 변동」, 『수원시사 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2014.
- 4) 조선총독부 철도국, 『朝鮮鐵道史』, 1929, 665-673쪽.
- 5) 卍 17147, 『始興稷山按察使奏本』; 『電信』 제75호, 1904년 9월 16일(김정명 편, 『日韓外交資料集成』 제5권, 1967, 288-289쪽); 『대한매일신보』, 1904년 9월 16일, 1904년 9월 17일, 1904년 9월 19일, 1904년 9월 20일, 1904년 10월 3일; 『황성신문』, 1904년 9월 16일, 1904년 9월 23일; 『시사신보』, 1904년 9월 18일; 『交渉局日記』, 1904년 9월 30일.
- 6)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8일
- 7)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14일.
- 8)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9쪽.
- 9) 「1978년 5월 안양역 광장의 거리질서 캠페인」, 『안양지역정보뱅크』(www.noganyang.or.kr).
- 10) 「文明利器에 犧牲된 사람」, 『동아일보』, 1927년 4월 6일.
- 11) 「안양역기차 전복사건으로 남북행이 모두 지연」, 『동아일보』, 1928년 2월 15일.
- 12) 「경부선열차 안양에서 탈선」, 『동아일보』, 1931년 11월 13일.
- 13) 「鐵道運轉系統變更과 郵便의 遲延」, 『동아일보』, 1933년 5월 28일.
- 14) 「昨夕, 安養驛附近서 靑年 두名 함께 轢死」, 『동아일보』, 1933년 6월 16일.
- 15) 「郡廳誘致 코저 郡民大會開催」, 『동아일보』, 1936년 3월 4일.
- 16)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46쪽.
- 17)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16 · 30쪽.
- 18)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34쪽.
- 19) 「안양의 역사와 각 동 지명유래(1)」, 『안양지역정보뱅크』(www.noganyang.or.kr).
- 20)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456쪽.
- 21)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17쪽.
- 22) 안양행궁은 『원행정례(園行定例)』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양행궁을 안양주필소라 칭하고, 비치물의 항목과 양(量)을 정해 놓고, 그 준비는 경기감영에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행정례』에 의하면 안양주필소는 대청과 방의 비품 7종, 종이와 기름을 합쳐서 7종, 방석 4종을 합쳐 도합 3개 항목 16종의 비품을 항시 비치할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조의 숙박지인 시흥행궁의 비치품목을 보면 대청과 방의 비품 34종, 종이와 기름 16종, 등촉 14종, 방석 10종 등 도합 10개 항목 111종의 배설물을 비치하고, 매 7년 혹은 10년마다 교체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치품목의 가짓수와 양으로 비교해보면 행궁과 주필소 사이의 용도와 규모 및 품격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다. 안양행궁은 정조 사후 행궁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되고, 민간인 소유로 된 후 1986년에는 수

어장이란 여관으로 신축되었다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 큰집이 있었다 하여 대궐 터라 불렀고, 그 집을 대궐이라 칭했다 하며 또 그 주변을 파면 행궁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장대석, 지대석 등이 흔하게 출토되었다 한다.

- 23) 김종혁,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경기도」, 『경기문화포털-경기도 이야기』(<http://gart.ggcf.or.kr>).
- 24) 「안양에 전동 불원간 가설」, 『동아일보』, 1929년 3월 7일.
- 25)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13쪽.
- 26) 동덕개발주식회사(대표 정덕한)에서 20년 사용조건부 투자하기로 안양시와 계약하고 시공하여 1978년 6월 24일 중앙시장 초입부터 삼원극장(현 중앙사거리) 앞까지의 중앙지하상가가 먼저 준공되고, 이어서 같은 조건으로 안양역전지하상가(중앙지하상가와 연결하여 안양역까지의 구간)가 1982년 6월 준공되었다.
- 27) 「激增한 汽車通學生」, 『동아일보』, 1922년 5월 29일.
- 28) 「기차 통학생」, 『동아일보』, 1927년 6월 7일.
- 29)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309쪽.
- 30)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357쪽.
- 31)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124쪽.
- 32)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105쪽.
- 33)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14쪽.
- 34)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105쪽.
- 35)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129쪽.
- 36)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473쪽.
- 37)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341쪽.
- 38)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433쪽.
- 39)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466쪽.
- 40) 「안양역 연탄공장이 있던 그때 그 시절」, 『안양지역정보뱅크』([www.noganyang.or.kr](http://www.noganyang.or.kr)).





祝  
出  
征

일제 말기

안양지역의

강제 동원과

수탈

## 일제 말기 안양지역의 강제 동원과 수탈

### 1. 식량배급의 실시

조선총독부는 식량을 배급할 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940년 8월 임시조선미곡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원회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 이외에 광공업 종업원에 대해서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때 배급에 대한 통제는 전매專賣 또는 국가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문제가 검토되었고, 국가가 감독하는 통제회사統制會社를 설치하여 집하, 배급을 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 국내를 비롯한 다른 지역과 구분하여 조선만을 대상으로 한 식량배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sup>1</sup>

일제강점기 도시지역 식량배급은 전표제와 통장제로 이뤄졌다. 안양지역의 식량배급과 관련되어 일제의 패망 직전인 1945년 7월 23일 발행된 식량배급통장이 남아 있다. 식량배급통장은 세대를 기준으로 발행되었다. 식량배급통장의 세대주는 경기도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 제3반의 애국반원 마쓰카와松川季和이다. 가족인명부에 따르면, 마쓰카와<sup>40</sup>세는 아내 홍○洪○, 36세, 희산熙山, 12세, 희봉熙奉, 10세, 희○熙○, 5세 등 세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마쓰카와의 한국 성씨는 1947년 안양공립학교 4학년 시절 박희산(朴熙山)의 수업증서를 통해 볼 때, 박씨朴氏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식량 배급소를 지정하였다. 마쓰카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정배급소는 안양면 안양리 소재의 삼정○○三井○○였다. 배급소의 관리번호가 52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배급소마다 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식량배급통장에는 가족수의 증명을 위해 구장, 애국반장 등의 6명의 확인 도장이 차례로 찍혀 있어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배급에서 확인절차 및 구장과 애국반이 중요하게 이용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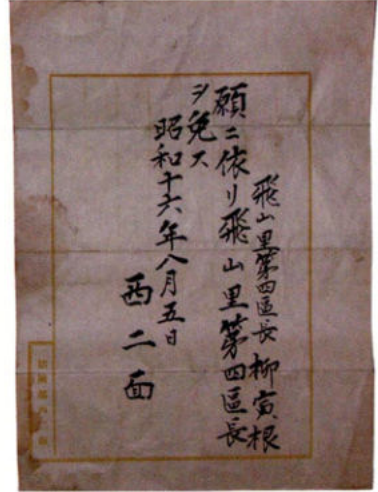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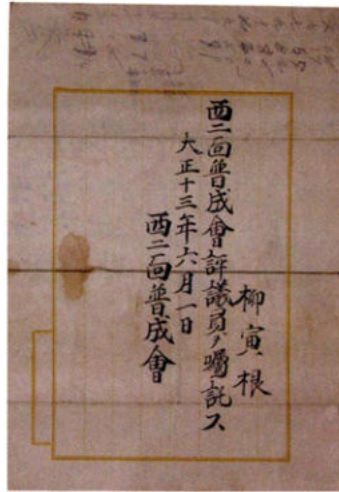


안양면 비산리 제3반 식량배급통장(독립기념관 제공)

음을 알 수 있다. 식량배급 대상은 대인<sup>大人</sup>과 소인<sup>小人</sup>으로 구분하였는데, 10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대인이고 그 미만은 소인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시흥군에서는 1940년 2월 10일 서이면 안양리 서이면공회당에서 군내의 정미업자와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식량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뒤 시흥군식량배급조합을 창립하였다. 임원으로는 조합장 박인영<sup>朴仁榮</sup>, 부조합장 이화순<sup>李華淳</sup>, 감사 김석기<sup>金錫基</sup>, 한원준<sup>韓元俊</sup>이었다.<sup>2</sup> 『동아일보』 1940년 3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3월 23일 시흥군식량배급조합에서는 절미<sup>節米</sup>와 혼식<sup>混食</sup>을 철저히 실시하고 식량배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이면공회당에 시흥군 내 곡물 소매상인 34명을 불러 모아 ‘소매상 제1회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조합장과 시흥군의 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식량배급 중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업자들의 요구사항 및 식량배급 실시에 관한 주의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의 편리를 고려’ 한다는 명분으로 네 가지 주의사항이 결정되었다.

서이면보성회 축탁 임명장과  
비산리 제4구 구장 임명장



1. 절미혼식의 장려를 철저히 여행할 것
2. 조합 외에서 부정○품을 매입하여 판매치 말 것
3. 해該지정구역 외 판매치 말 것
4. 공정가격을 엄수할 것

전시체제 시기인 1940년대에 식량배급 등의 통제경제 아래에서 구장區長은 ‘총력전總力戰의 정신부대挺身部隊’로서 총력운동을 전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이 시기에 구장은 면행정과 전시행정戰時行政에서 ‘행정의 기점이며 종결하는 곳’이라고 할 정도였다.

총력운동을 전후해서 구장은 부락연맹 이사장을 겸임하였다. 국민총력 황해도연맹에서 발행한 「국민총력운동 지도요항」을 통해 부락연맹의 조직과 활동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사장(구장 또는 촌락의 중심인물)

총무위원	훈련위원	방위위원	생산위원
궁성요배, 신사참배, 정오목도, 국기계양, 황국신민의 서사 제송, 납세독려, 상회 기타 회합, 장부 기재, 저축할당, 공판원천 저금의 여행(旅行), 사치품 폐지, 혼장제의 간이(簡易), 생활비 인하, 총후 원호의 강화(국방헌금·현품으로 군인에 대한 경의 표시), 기타 사항	국민체위의 향상, 단체훈련 철저	방공·방첩·방화·방범 기타 재해 방지 철저, 위생사상의 보급, 매점·매석과 암거래 배격, 공정가격 준수	근로애호, 잉여노동력의 활용, 각종 생산품의 개량 증식, 물자배급에 대한 협력, 출하(公출)·절미·혼식에 대한 여행(旅行), 노자(勞資)협조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발행한 기관지「애국반」 뒷면으로 징병대상자의 호적 신고를 강조하는 내용(수원박물관 제공)

조선총독부는 전쟁 말기로 가면서 촌락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 유력자를 면장 또는 구장에 임명하였다. 이른바 ‘거물구장’이 등장하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이들 부락연맹과 구장을 연결고리로 하여 농촌사회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행할 수 있었다.

부락연맹이사장과 구장이 조선총독부의 말단 행정책임자였다면 그 아래의 애국반(愛國班)은 말단행정지구의

세포조직, 부락연맹의 구체적 실행체였다. 즉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의 완성’에 기여할 실천활동의 기본이었다. 애국반은 총력운동과 지방행정의 첨병으로 부락연맹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실제 정책의 실행에서는 기동성에서 부락연맹보다 앞섰다. 그러나 구장과 함께 애국반장은 ‘말초배급기구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관계’로 배급을 둘러싼 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애국반장 역시 ‘중핵적인 유력자 또는 관공리’ 중에서 임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말단행정의 침투 강화를 위해 구장과 애국반장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였다. 안양이 속했던 시흥군은 1938년 8월 3일 각 면 각 부락에 부락연맹을 조직하기로 결의하였고, 서이면은 1938년 8월 10일에 결성하였다.<sup>3</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구장, 반장은 백성의 편에서 방어를 했다. 관의 편에서 활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현장조사 결과도 매우 많다. 할당된 공출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거나 단지 며칠 분의 식량을 제외하면 전량 공출이 강행될 정도가 되면 구장은 더 이상 나설 수 없었고, 이때는 군이나 면의 직원, 경찰, 경방당 등 관에서 전면에서 나서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 2. 근로보국단의 결성

조선총독부는 전시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조선 민중들에게 ‘내선일체’ 및 ‘황국신민화’를 위한 ‘별사봉공’ ‘진충보국(盡忠報國)’을 강요하였다. 조선민중이 일본정신으로 정신무장을

하여 전시정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총훈련國民總訓練을 전개하였다. 국민총훈련은 곧 조선민중이 인적·물적 동원 명령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근로보국운동勤勞報國運動은 바로 그 일환이었다.

근로보국운동은 1937년부터 부분적으로 전개되었다. 1938년 6월 11일 학무국 사회교육과 통첩으로 학교단위의 근로보국대가 결성되었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근로보국대는 6월 26일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정무총감 통첩 「국민정신총동원근로보국운동 실시요강」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실시요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의 목표는 국가 관념의 함양과 내선일체의 심화, 근로애호와 인고단련, 희생봉공의 정신 함양, 공동일치행동 훈련, 비상시국 인식의 철저 등이다.

둘째, 참가범위는 만 12세부터 40세까지의 남녀 모두이다.

셋째, 근로보국대는 청년단, 갱생공려부락, 갱생지도부락 등 어느 정도 통제의 소지가 있는 곳부터 결성하여 점차 통제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것이다.

넷째, 작업의 종류는 황무지 개간, 도로·하천의 개수, 저수지 또는 용배수로의 준설 등 공공사업을 주로 하되 농번기의 공동작업에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업은 잉여노동력을 이용하여 시작하되 서서히 근로량을 늘려 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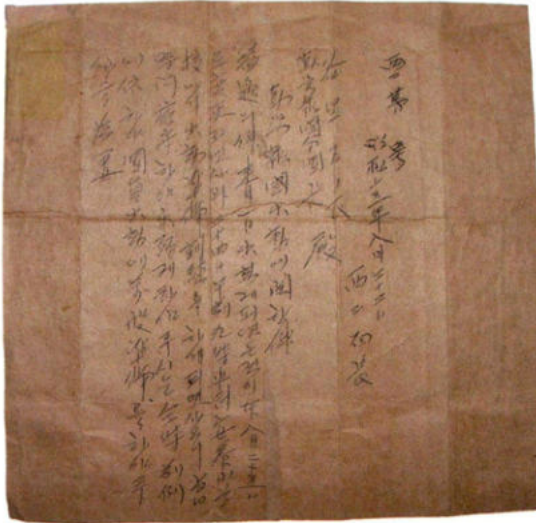
다섯째, 청년단, 향약, 진흥회 등을 단위로 조직된 보국대는 그 단체의 장이 출동을 지휘하며, 읍면 등 행정기관은 관할 구역 전반을 지도하게 되었다.

여섯째, 작업 개시를 전후하여 보국대원들은 궁성요배 등 일련의 의례를 거쳐야 한다.

일곱째, 보국대원은 작업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받을 때는 현금 혹은 보국대 비용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1938년 7월 7일 '지나사변', 즉 중일전쟁 1주년 기념일을 기해 도내 237개 면에서 일제히 근로보국단 결성식을 거행하였다.<sup>4</sup> 이 시기를 즈음하여 서이면에도 근로보국단이 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월 3일에는 시흥군근로보국단연합단이 결성되었다.<sup>5</sup> 경기도에서는 이들 보국단을 생업보국에 매진시키고자 도내 3개소에서 근로보국단지도자강습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도자는 1군읍면 1인으로 하여 군 20명, 읍면 237명이었다.<sup>6</sup>

근로동원운동에는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흥군에서는 1939년 5월 시흥부인근로보



근로보국 출동에 관한 공문

국단 발단식을 거행하고, 전시체제하에서 근로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시흥군내 부인근로보국단을 수립하여 부락별로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모내기 및 보리수확 집단 사업에 동원하기로 하였다. 시흥군의 일정에 따르면, 서이면에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수행하게 되었고 이 외에도 서면, 신동면, 과천면, 수암면, 군자면에서도 수행될 예정이었다.<sup>7</sup>

이 자료는 서이면장이 1940년 8월 22일부로 근로보국 출동 준비를 요구하기 위해 각 리의 구장과 근로보국

분단장 앞으로 보낸 문서로, 서이면의 근로보국을 위한 출동 시기는 본래 1940년 9월 1일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8월 25일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서이면에서는 근로보국단이 출동 나가기 전날인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안양소학교에서 '출근준비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각 리의 구장과 근로보국분단장들에게 '전례에 의하여' 단원들의 출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전례에 의하여' 라는 말로 보아 서이면에서는 근로보국단의 동원이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안양경방단의 조직과 운영

일제는 1939년 7월 1일 효과적인 전시동원체제를 구축하고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조선중앙방공위원회에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방호단(防護團), 소방조(消防組), 수방단(守防團)을 합하여 경방단(警防團)을 설치하기로 협의하였다.<sup>8</sup> 7월 3일 부령(府令) 제104호로 「경방단규칙」을 제정하고 기존의 방호단과 소방조, 수방단을 통합하고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1939년 10월 1일 전조선경방단을 결성하였다. 1945년 6월 경방단 편성을 일부 변경하여 정회(町會) 애국반을 단위로 하는 지구분단(地區分團)을 편성하였다.<sup>9</sup> 당시 경방단은 경찰의 보



조기관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20여 년 동안 존재하던 안양의 소방조와 방호단은 1939년 9월 29일 경방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발전적 해소'를 하였다. 1939년 10월 3일 안양신사安養神祠에서 안양경방단安養警防團결성식이 거행되었다. 결성식에서는 경기도지사의 고사告辭와 시흥군수, 경찰서장의 훈시가 있었다. 단원은 103명이었으며, 역원役員은 다음과 같다.<sup>10</sup>

團長：小林 渡，副團長：崔禹昌，副團長：長谷野嘉平，警護部長：金錫根，消防部長：任昌宰，警護管  
制班長：朴○載，第1防火班長：○東日，第2防火班長：金東勳，顧問：李基善，伊達武男，古瀬倉吉，桐  
田元次，石崎辛次郎，栗原次郎

각 도에서는 경방단 규칙을 근거로 하여 도지사 명의로 「경방단규칙시행세칙」을 발표하였다. 경방단의 명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읍면府邑面의 이름을 붙이도록 하였다. 경방단은 단본부團本部，분단分團，부部 및 반班으로 구성되지만 지역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생략할 수도 있었다. 분단은 지역별로, 부는 직업별로, 반은 인원별 또는 업무별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부部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호부, 소방부, 방독부防毒部，구호부 등을 둘 수 있는데 이 또한 지역 사정에 따라 증감하거나 기능을 통합할 수 있었다. 경호부에서는 경보전달, 등화관제, 경호, 교통정리 및 피난소 관리 등을 담당하고, 소방부에서는 수화소방水火消防의 경우 소방요원의 일부로써 특별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이면의 경우, 면面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서이면의 중심인 안양리의 이름을 따서 안양경방단이라 하였다. 안양경방단은 단장 1인, 부단장 2인을 두고 경호부와 소방부를 두었다. 부단장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각각 1인씩 2명을 두었다. 반으로는 경호등화관제반과 방화반을 설치하였으며, 방화반의 경우는 2개 반을 두었다. 각 부장 및 반장들은 모두 조선인이었다.

경방단에는 필요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었는데, 고문은 경방단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단장의 자문에 응하고 단무團務 수행을 원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안양경방단은 6명의 고문을 두었는데, 고문 가운데 유일한 조선인인 이기선李基善은 당시 서이면장이었다. 단장과 부단장, 분단장 및 부분단장은 도지사가, 단원들은 경찰서장에 의해 임면되었으며, 고문은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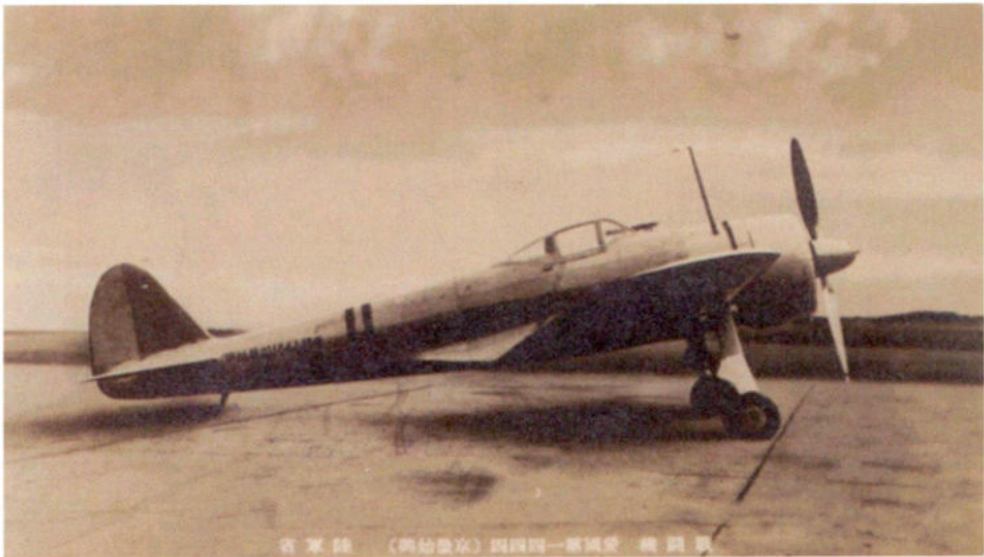
안양경방단 결성 기사『동아일보』, 1939년 10월 15일

#### 4. 현금 및 헌납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체제로 돌입하면서 시흥군에서 이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먼저 시흥에서도 시국강연회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1937년 9월 영등포에서 시흥군 문묘유림시국인식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시흥 문묘에서 현금을 모금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군수와 군 내무주임이 중심이 되어 각 면의 청년단체와 부인단체를 대상으로 시국인식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sup>14</sup>

할 경찰서장의 내신에 기초하여 도지사가 위촉하였다. 경방단원의 정수는 구역 내 인구의 0.5~1%를 표준으로 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었다. 경방단원은 설치구역 내의 주민들이 지원에 따라 임명하며, 18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로 제한하였다.<sup>11</sup>

안양경방단은 결성 이후 ‘단결과 훈련을 하며 발전에 노력’ 하던 중 경비 충당을 위해 1939년 10월 15~16일 이틀 동안 시흥군 농회 창고에서 단원들이 출동하여 소인극을 열기도 했다.<sup>12</sup> 안양지역의 경방단과 관련하여 1940년 2월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1940년 2월 19일 서이면 안양에서는 서이경방단西二警防團과 조직경방단朝織警防團, 조선직물회사 안양공장에 대한 경기도경찰부장의 검열이 있었다고 한다.<sup>13</sup> 서이경방단과 조직경방단이 안양경방단과 별개로 조직된 것인지 아니면 안양경방단이 분화된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애국기 '시흥호'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시흥의 애국기 헌납운동을 다룬 기사(『매일신보』, 1942년 11월 6일)

시흥군의 국방헌금은 1937년 9월 중순까지 총 5,100여 원에 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헌금 900여 원, 위문금 1,200원, 군사후원회비 1,500원, 비행협회비 1,500원 등이었다.<sup>15</sup> 특히 애국기 헌납 운동도 시흥군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 애국기 '시흥호' 헌납 기금이 군민으로부터 채도하고 있다는 신문의 보도는 주목할 만하다.<sup>16</sup>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의 군포농촌진흥회의 근로보국단원 30명은 본단장 차만성(車萬成)과 유지 김중제(金仲濟)의 앞선으로 1938년 8월 19일 국민정신총

동원 군포연맹(國民精神總動員軍浦聯盟) 결성식을 거행하고 단원들의 소원에 의하여 기념사업으로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부락 농가의 피땀작업 종사에 땀을 아끼지 않았는데 감격에 넘친 농장주는 사례금으로 15원을 진정하였으며 그 중 5원은 8월 23일 국방비로 헌납하기를 서이면장에게 의탁하였다고 한다.<sup>17</sup>

## 주)

- 1) 『동아일보』, 1940년 8월 9일; 『동아일보』, 1940년 8월 10일.
- 2) 「식량배급통제조합 안양에서 2월 10일 창립」, 『동아일보』, 1940년 2월 14일.
- 3) 『매일신보』, 1938년 8월 6일.
- 4) 「경기도근로보국단 237면 일제 7일에 결성식 거행」, 『동아일보』, 1938년 7월 3일; 「경기도근로보국 270단 결성 기념일 일제히 거행」, 『동아일보』, 1938년 7월 10일.
- 5) 『동아일보』, 1938년 8월 5일.
- 6) 『동아일보』, 1938년 10월 15일.
- 7) 『매일신보』, 1939년 5월 13일.
- 8) 『동아일보』, 1939년 7월 2일.
- 9) 『매일신보』, 1945년 6월 5일.
- 10) 『동아일보』, 1939년 10월 1일, 『동아일보』, 1939년 10월 5일.
- 11) 경방단의 조직 및 구성에 대한 설명은 『조선총독부관보』의 각 도 경방단규칙시행세칙을 참고하였다.
- 12) 『동아일보』, 1939년 10월 15일.
- 13) 『동아일보』, 1930년 2월 25일.
- 14) 『동아일보』, 1937년 9월 4일.
- 15) 『동아일보』, 1937년 9월 16일.
- 16) 『매일신보』, 1942년 12월 22일.
- 17) 『매일신보』, 1938년 8월 27일.



안양

---

사람들의

---

한국전쟁

---

경험

---

이동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 제3장 안양 사람들의 한국전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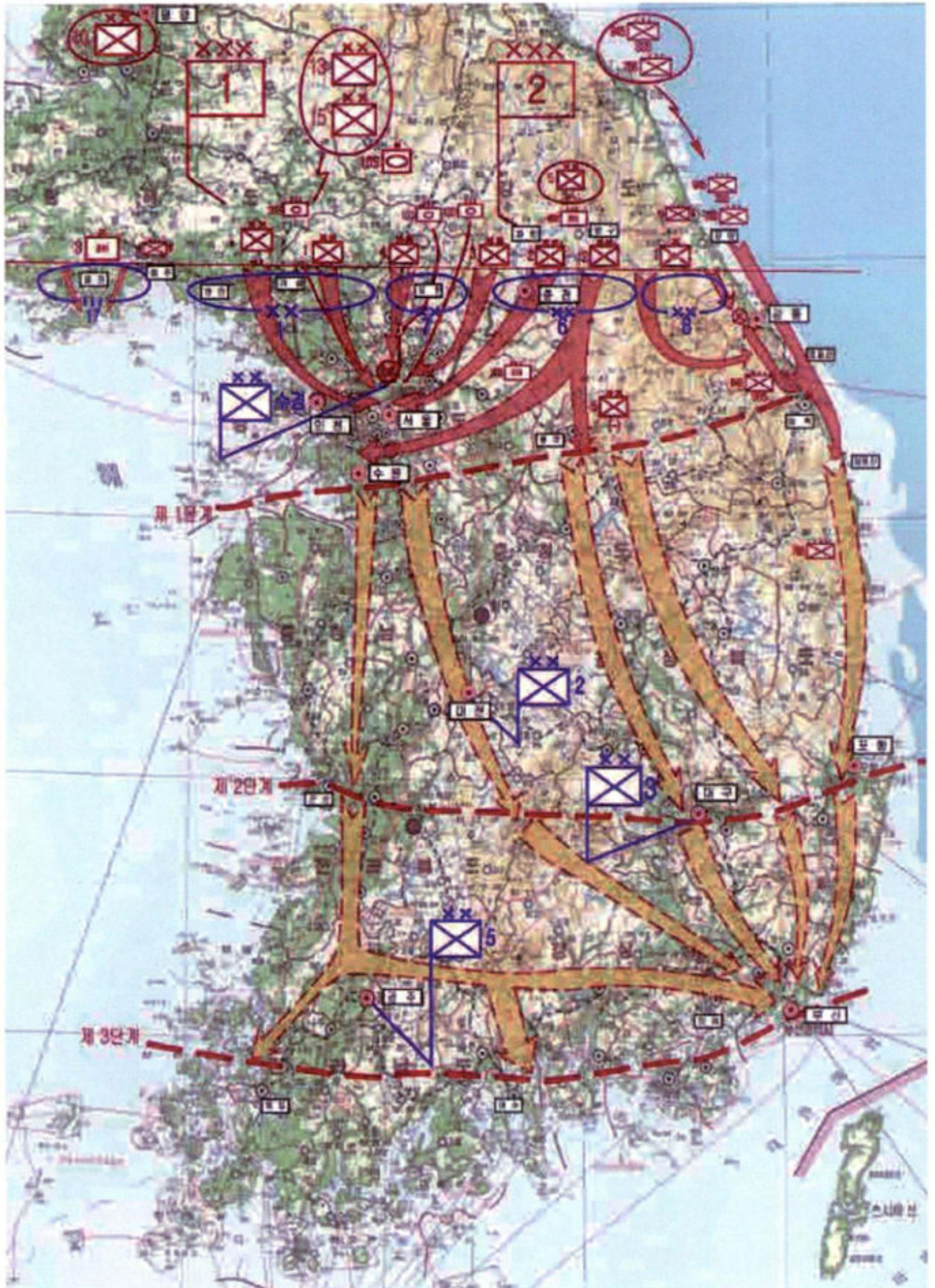
### 1. 전쟁의 발발과 안양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을 분할 점령하였다. 잠정적인 분할선이었던 38선 결국 남북 분단으로 귀결되었고, 38선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은 1950년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전후해 북한군의 전면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개시되었다.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는 전쟁의 발발에서부터 휴전에 이르기까지 공산군과 유엔군이 대치하는 최전선이 되었다. 북한군의 치밀한 계획과 압도적인 화력에 국군은 후퇴를 거듭하였고,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에는 수도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되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하루 평균 10km를 전진해 50일 이내에 남한 전역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수원-대전-대구로 남진하였다.<sup>1</sup>

서울을 점령한 후 3일을 지체했던 북한군은 미군 지상군이 참전하기 이전에 한강을 도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6월 30일부터 한강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군은 한강선 방어를 위해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고 6월 29일 한강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한강철교를 복구하고 전차와 병력의 도하를 감행하자, 국군은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하여 전면 후퇴하였다.

서울에 인접한 안양 일대는 전쟁 초기부터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였다. 안양 사람들은 북한군이 진주하기 이전부터 전쟁을 경험하였다. 전쟁을 실감하게 된 것은 북한군과 유엔군의 공중전과 전투기의 추락이었다. 안양에서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들은 전쟁 초기에



북한군의 3단계 작전 상황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10쪽)



북한군 전투기 추락을 가장 중요한 기억 중의 하나로 증언한다. 사람들의 기억에 따라 발생 날짜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6월 말에 북한군 전투기가 유엔군 전투기의 공격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은 대체로 일치한다.

6·25 초장에 6월 25일, 6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린 몰랐죠. 비행기 하나 떴는데 그게 우리나라 쌍발기가 썩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서초등학교 뒤에. 우리는 그걸 쫓아가서 내가 사는 교화동에서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그 사람이 권총을 차고 그 도로 위에 올라가서 막 쏘더라고요. 결국 잡혀갔고 갔죠. 끌고 오는데 걸어서 오고 가족으로 된 모자 비행사 모자 쓰고. 그리고 우리는 따라오면서 봤으니까. …… 쌍발비행기 우리나라에 미군이 탔는지 누가 탔는지 모르지만 교전을 해가지고 떨어졌죠.<sup>2</sup> 세이버전투기하고 북기(북한 전투기)하고 공중전을 해요. 기억에 남는 게, 공중전 두 대 왔는데 한 대는 도망가고 한 대는 격추가 됐어. 그러니까 불고 떨어지는데 애들이니까 참 구경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쫓아가니까는 그 조종사가 잡혔는데 우리 저 안양초등학교에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냥 이런 데가 시커멓게 타고 그런데, 양쪽에 부축을 하고 끌고 가는 것을 안양초등학교 입구까지 우리가 따라갔다고 구경했어요.<sup>3</sup>

개전 초기 서울을 내준 국군이 한강방어선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던 안양은 곧바로 전투지역이 되었다. 한강방어선에서 후퇴한 국군은 북한군의 남진에 맞서 시흥-안양-군포 축선에 3중 저지선을 구축하였으나, 105전차여단 소속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으로 국군의 방어선은 붕괴되고 말았다.

북한군이 안양지역에 입성한 것은 7월 초였으나, 그 이전부터 전쟁의 소용돌이는 지역을 강타하고 있었다. 해방과 분단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전쟁은 주민들의 생존과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미증유의 사건이었다. 전쟁으로 초래된 극단적인 적개심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였고, 적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학살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국민보도연맹’ 관련 민간인 학살이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였는데, 국군은 후퇴하면서 국민보도연맹 관련 민간인들을 집단학살하였다. 안양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49년 11월 말 현재 경기도 보도연맹원 숫자는 3,403명에 달하였다. 안양지역에서 조직된 국민보도연맹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의 검거와 즉결처분 강화

로 민간인 희생의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sup>4</sup>

보도연맹이 좌익운동하고 박헌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 전향시킨 거지. …… 그래서 안양에서 6·25사변 나고서 보도연맹 사람들을 죄 소집을 시켰어요. …… 일체 소집을 해서 안양경찰서 유치장에 쳐갔다 놓았거든. 그날 저녁에 군용지 가서 드르륵 드르륵 한 거야. 박달동 거기.<sup>5</sup>

보도연맹 사람들은 전부 지역별로 경찰서 명단을 가지고 안양도 그 여파 때문에 안양경찰서에 보도연맹이라고 전부 끌려가서 지금 박달동에 데려가서 무자비하게 죽였어.<sup>6</sup>

보도연맹이란 이런 거야, 해방돼가지고 좌익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약서를 쓰고 ‘나는 좌익이 아니다. 나는 민주국가에 충성을 한다.’ 하고 맹세를 하고 나온 사람들을 그것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든 거거든. 그게 우리나라가 큰 실수를 한 거야. …… 그 사람들이 부역을 했던 사람이 한번 했단지 그 사람들을 학살한 거지.<sup>7</sup>

주민들의 기억에 따르면 국민보도연맹 관련자들은 안양경찰서에 수용되었다가 박달동 군용지에서 학살되었다고 한다. 그 숫자는 증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80~100여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증언에서 ‘진짜배기는 다 날라가고’, ‘억울한 죽음’ 이 많았다고 전한다.<sup>8</sup> 국민보도연맹에 대한 학살은 그 자체로도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학살이 초래한 적대감은 또 다른 학살과 보복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7월 4일 국군이 수원 이남으로 후퇴하면서 북한군이 안양 읍내에 등장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지 10여 일 만에 안양 사람들은 북한군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다.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는 같은 것이었다. 개전 초기 서울을 비롯한 남한 주민들 대다수가 그러했듯이, 많은 안양지역 주민들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멀리서 포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음에도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북한군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피난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고 북한군 점령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피난도 못 가고 …… 1950년 그때인데, 그때만 해도 덩고 그러니까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서 쭉이나 이런 거해서 모깃불 피놓고 드러누워 있고. 그러는데 대포소리가 울리

는 거예요, 안양에서도. 그러니까 6·25가 일요일 새벽 4시에 남침한 거 아닙니까? 그 때 제가 라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그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걸 들었어요. 방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승만이가 북한 괴뢰군을 몰아내서 우리 국방군이 전부 진격하고 있으니까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바란다. 계속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미아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6동에 산에 북한 그 비행기가 하나 떨어졌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공군 괴뢰군이 그 산 꼭대기에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피란을 가라는데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 정말 괴뢰군이 온다고 피난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수리산 골짜기로 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더니 북한탱크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밥 데기 있는 대로 싸가지고 옷가지만 싸들고 수리산 골짜기로 간 거예요.<sup>9</sup>

한국전쟁 공식 전사에는 북한군이 7월 4일 정오 무렵에 북한군 제4사단 선두부대가 안양 읍내에 등장하였다고 했으나,<sup>10</sup> 주민들의 증언에서는 밤중에 마차를 타고 안양 읍내를 지났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전쟁 중에 여기서는 제일 먼저 북한에서 들어온 것은 탱크보다도 마차에 인민군들이 타고 킁킁한 밤에 짹 들어오는 거는 어려서 밤에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냥 마차 앞에 뒤에 보급 물건 싣고 사람 위에 타고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려서 인민군들 보기 시작한 그거죠.<sup>11</sup>

북한군이 점령하면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북한군의 점령으로 해방공간에서 활동하던 좌익세력들이 다시금 등장하였고, 좌익세력 및 동조자들에 의해 인민위원회와 사회단체, 당조직이 재건되었다. 북한군이 안양을 점령하면서 안양읍 내에도 북한군에 동조하는 좌익세력들의 인민위원회를 복구하고, 행정을 장악하였다. 주민들의 기억에 따르면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에 동조하였던 인물 중에는 중학교 선생들이 많았다고 한다. 인민위원회는 이장을 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한다. 북한군이 안양 일대를 점령하고 인민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주민들 중에서는 의용군으로 차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의용군 차출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피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주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안양초등학교에서 의용군들을 모아서 내보냈다는 기억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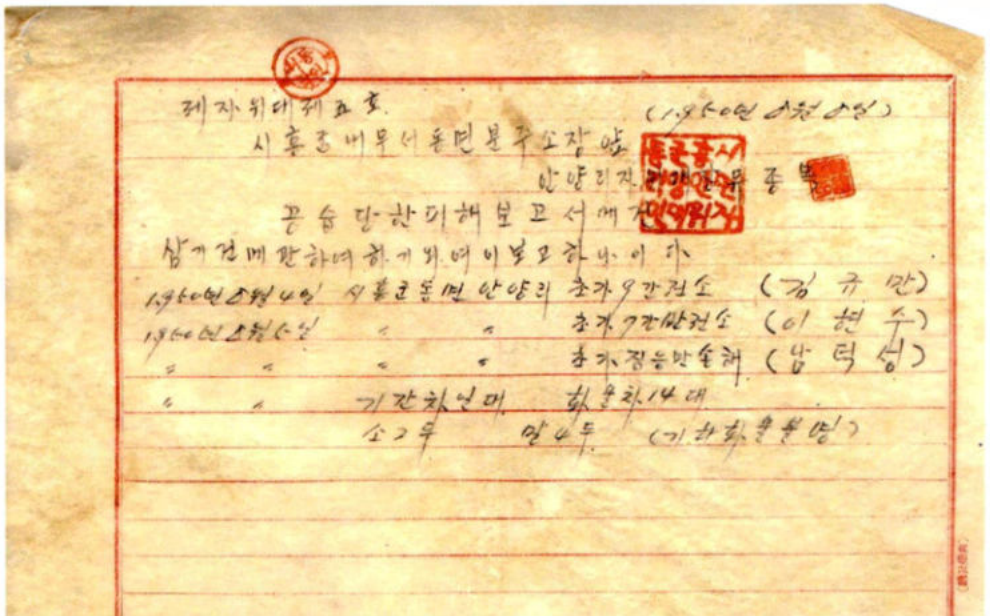
들은 북한군 치하에서 각종 노무동원이나 각종 협력을 강요받았다. 심지어 피난가지 못한 공무원 중에서도 북한군 치하에서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수복 이후에는 경찰에 의해서 부역 혐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그 중 일부는 협력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때는 경찰공무원, 일반 공무원, 부자들 아내들은 이게 (처내는 게) 일순위였다고. 그리고 완장을 주는데 그 사람이 최고야. 다 밀고하고 학살하고 그랬지. 놓고 총으로 싸죽이러는데 뭐, 완장 찬 개들이 다 밀고한 거야, 공무원들이 다 대상이 되었지.<sup>14</sup>

피난 나간 사람들은 나가 있었고 피난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근무를 했어. …… 그래가지고 다시 수복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군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은 경찰서에 전부 불러갔었어. 불러가 가지고 전부 다 아니깐 중한 몇 사람들은 처벌받았죠. …… 적극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지요. …… 제가 보기에는 전부 피동적으로 했어요. 저기한 사람이 오면 전부 도망가라 그러고 숨어라 했죠.<sup>15</sup>

북한군 점령 하에서 안양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군 치하를 견뎌야만 했다. 어떤 이들은 적극적인 지지로, 어떤 이들은 수동적 협력으로, 그리고 도망이나 저항의 길을 걷는 이들도 있었다. 당시 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동원하기는 했지만, 학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에 대한 다른 기억들을 전하는 사례도 있다. 북한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거나, 미군처럼 육각형의 비스킷이나 간식 같은 것을 나눠 주던 북한군의 색다른 모습을 기억하는 사례도 있었다.<sup>16</sup>

7월 하순에 북한군은 낙동강 일대까지 진출하였으나, 전세는 북한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유엔군에게 제공권을 상실한 북한군은 밤에만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군 점령 하에 있었던 주민들도 당시 북한군이 낮에는 집에서 쉬고 밤에만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기억한다. 전세는 유엔군의 반격으로 곧바로 역전되었다. 그것은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일순 역전되자, 북한군은 일거에 사라졌고, 북한군 치하를 견딘 사람들은 또 다른 전쟁을 경험해야만 했다.



유엔군의 공습에 따른 피해를 보고한 북한군(국립중앙도서관 제공)

## 2. 수복과 또 한 번의 후퇴

한국전쟁의 전세는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완전히 역전되었다. 연합군이 서울을 수복하면서 안양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이 진행되었다. 인천상륙작전에서 후속부대로 해상에 대기 중이던 미 7사단은 9월 17일부터 상륙을 시작해서 수원·오산 방향으로 진출했다. 미 제7사단 제32연대는 9월 21일 오후 4시에 수색중대와 1개 전차소대로 구성된 장갑 정찰대가 안양을 출발하여 오후 6시에 수원에 진입하였고, 다음 날에는 31연대 본대가 진출하여 수원 일대까지 완전히 장악했다.<sup>17</sup>

주민들의 기억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북한군은 커다란 저항 없이 후퇴하였다고 한다. 주민들의 기억에 따르면 안양역으로 진입한 미국 탱크가 망해암 근처의 북한군을 소탕하기 위해 포격을 가해 망해암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북한군은 후퇴하면서 청년들을 끌고 가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은 북한군을 따라간 이들은 심중팔구 죽었을 것이라고 한다.

내려갈 때는 그냥 막 내려간 겁니다. 무슨 저항이고 뭐고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올라올 적에 인천서 상륙작전 해서 박달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 시내로 들어왔어요. 탱크가. 내가 어려서 나가보니깐 망해암 뒤에서 내무서원 총 쏘다고 미군이 갑자기 열린 탱크 문 닫고 망해암으로 한 방 쏘버린 거야, 그래서 망해암이 날아간 거야.<sup>18</sup>

9·18수복 이후에 미쳐 못나가고 …… 인민군이 총을 들이밀고 동무 어디 가냐고 불러. 아이고, 배가 아파 죽겠다고. 수푸루지 건너 거기가 콩밭이야. 거기 들어가서 었드렸지. 같이 있으면 따라가는 건데, 여기 있으라고. 밤에 모기는 덤비고 죽겠더라고. 아침에 보니 망해암을 인천에서 함포 사격을 해가지고, 저 포 맞은 거야. 다시 증축한 거지. 그때는 그렇게 참혹했다고, 따라갔으면 …… 남태령 넘어가던 사람들 십중팔구 죽었어.<sup>19</sup>

북한군이 물러난 이후 북한군 치하를 경험했던 이들은 또 다른 생존의 위기를 경험했다. 북한군을 피해 후퇴하였거나 산으로 피신하였던 이들이 돌아오면서, 북한군 치하에서 협력하였던 자들을 심판하였다. 그것은 부역자 색출이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찰 사찰계나 헌병이 부역자들을 색출해서 사살했다는 얘기들이 전한다.

수복을 해가지고 올라와 설랑 …… 학교에다가 30명을 싸냈어요. …… 죽일 놈은 죽고, 나중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을 거기다 싸놓고 보복을 하는 거야. 참 무서웠어, 진짜. …… 산속으로 들어가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냥 숨어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을 이렇게 나가지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보복을 한 거야 나 죽을 뻔했으니깐, 니들도 죽어 봐라 이런 거야. …… 그 당시 경찰서에는 지금은 모르지만 사찰계가 있어.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역자 명단이 있어. 그래가지고 불러가면 있으면 산거고 없으면 죽는 거고.<sup>20</sup>

6·25 때만 해도 북쪽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장면을 많이 보았어요. 현재 2001아울렛 있는 부근에서 헌병들이 양복을 짝 입고 머리가 긴 사람들 …… 화가나 등등 동덕아파트 사이의 산골짜기가 수태골인데 그곳을 내려와서 30cm 정도 땅을 파서 쪽 세워놓고 지휘관이 발사 지시를 내리면 총으로 쏘서 죽이고 흙으로 가려만 놓고 영화 속에서 보는 것과 똑같았다. 어렸을 때이니 사람을 잡아가니 콩밭에서 숨어서 몰래 궁금해서 따라 가 보았는데 죽이는 곳 50여m 뒤에서 몰래 훑쳐보았는데 이런 장면을 목격하였다.<sup>21</sup>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였고, 10월 26

일에는 압록강변의 초산을 점령했다. 그러나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어, 12월 중순경에는 38도선까지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였다. 1951년 1월 공산군의 정월공세에 직면하자, 유엔군사령부는 서울 포기를 결정하고 평택-장호원-삼척을 잇는 '37도 방어선' 구축을 명령하였다. 이른바 1·4 후퇴'였다.<sup>22</sup>

1·4후퇴 때의 피난민 행렬은 전쟁 초기의 피난민 행렬에 비해 엄청난 규모였다.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피난길에 올랐고, 38도선 이북에서 많은 주민들이 남쪽행을 택했다. 안양 주민들 또한 피난행렬에 올랐다. 1·4후퇴 과정에서 안양역에서는 화물열차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양역 폭발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은데, 주민들은 군수물자를 실은 화물열차가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되자 폭발한 것이라고 하나, 의도적인 폭발인지 사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4후퇴 때 화물차에 탄약을 싣고 후퇴를 하는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 미군이 평택다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으니까. 내려가지 못 하는데, 당시에 그 화물열차 폭대기에 피난민이 억수로 많이 탔는데 외국 영화에도 보면 그렇게 많이 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평택에 다리를 끊어서 미군이 더 못 내려간다. 그러니까 피난민 보고 내려라! 그러니까 피난민이 안 내리니까, 미군이 탄약 그 화물차에 불을 질러서, 폭발시켜가지고 자연적으로 사람이 몇씩 죽어나가고, 자빠지니까 그냥 그때서 피난민이 전부 흩어져서 각자 자기 가고 싶은 쪽으로. (안양역) 거기서 박달동으로 해서 안산 쪽으로 피난 가는 사람, 군포 쪽으로 가는 사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서는 박달동에서는 다 들리고 그리고 파편에 맞아서 피가 흘리는 사람 지나가는 걸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sup>23</sup>

1·4후퇴 이후인 1951년 1월 26일의 일이었다. 당시 폭발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는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증언도 있으나,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폭발사고로 안양역 일대는 불바다로 변했고, 안양역도 완전히 소실되었다. 폭발현장에는 커다란 웅덩이까지 생겼다고 한다. 당시 폭발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보다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24</sup> 폭발사고 이후에도 안양역 일대에는 파괴된 기차가 방치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고철을 모아서 고물상에 엇과 바퀴 먹은 기억이 전하기도 한다.<sup>25</sup>





오산-한강선 진격작전 상황도(국방부, 『한국전쟁사』 제5권, 1972, 820쪽)

안양 사람들은 부산 등지로 멀리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인근 지역인 서해안, 용인, 안산, 평택, 화성, 수원 등지로 피난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았다. 피난을 떠나지 못한 이들이나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안전 지대로 생각되는 야산이나 가까운 시골마을로 피신하는 경우도 많았다. 산골짜기에 방공호를 파고서 한 달 가까운 기간을 살았다는 기억이 전해지기도 한다.

시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친척들이 와서. 인덕원사거리까지 왔는데 중국놈들이 막 썰라썰라하고 쫓아내잖아. 그래서 가면 고생만한다고 뭐냐고 집으로 왔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한 것도 없어. 피난 다녀오고 열 식구가 살고. 방공실 파놓고 살았으니까 그 난리에. .... 산 앞에 집이 있고, 뒤로는 산인데 그 산골짜기 있

는 곳에 흙거기를 팠지. 그래서 그 방공실로 팠지, 산 속에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다가. 오래 살았지, 한 달간 살았나. 쌀을 거기다 감춰놓고, 집에도 감춰놓고.<sup>26</sup>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도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한겨울 피난 행렬은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동반하였다. 피난을 떠난 사람들은 우마차를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걸어서 이동하였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쌀 2말을 지고 피난을 떠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sup>27</sup> 공산군의 남하를 피해 피난을 떠났지만, 피난 속도가 늦어서 중국 공산군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되어 피난을 가나마나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4후퇴 후 주민들은 처음으로 중국군을 만나게 되었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중국군의 특이했던 행동이나 이미지는 오래도록 주민들의 기억에 남았다.

1·4후퇴 때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인민군이 단 나흘 만에 들어왔다. 용인 수지면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차가 없어서 마차를 끌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하였다. 배낭에 쌀과 솥단지, 이불 등을 싸메고 가느라 시간도 걸렸는데 가서 보니깐 중국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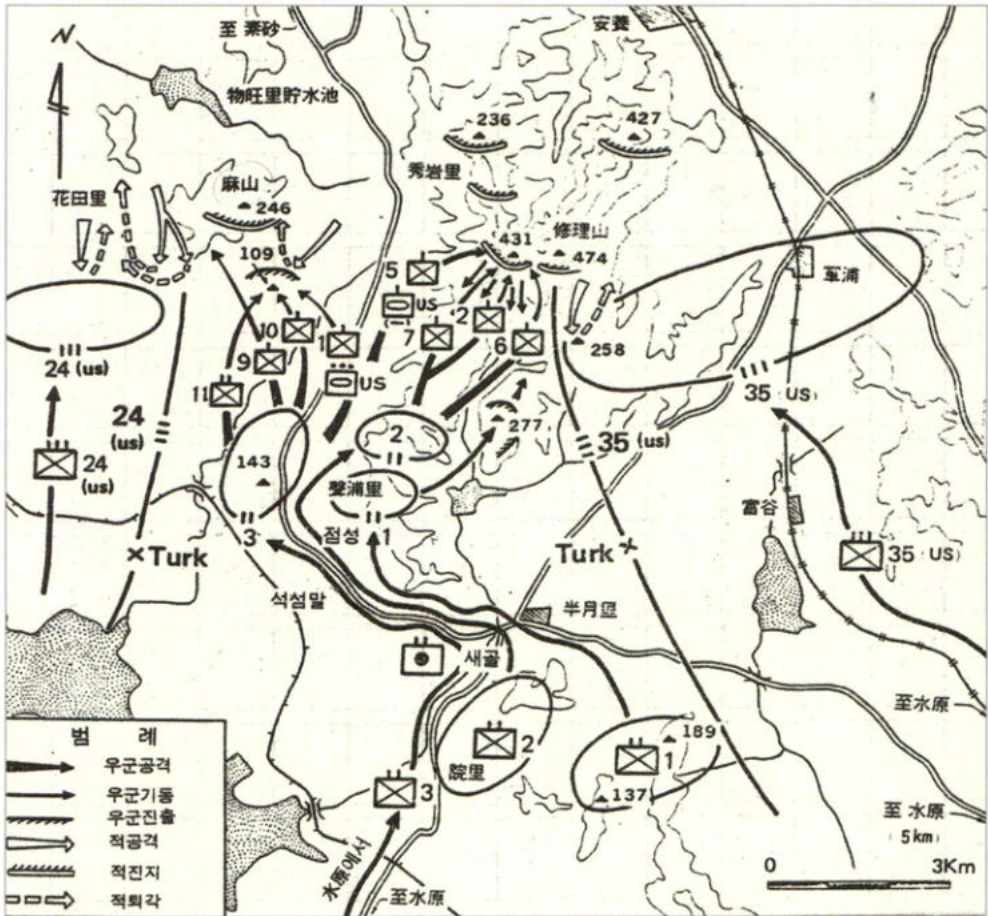
함께 들어가게 되어서 피난을 가나 마나였던 것 같다.<sup>28</sup>

1.4후퇴 때 반월에 육친들이 많이 살았어요. …… 거기서 저희 동네분들하고 다섯 집이. 가구가 한집이 마초마차가 있었어요. 그걸 끌고 가다가 1·4후퇴 때 눈이 왔어요. 반월 거기 가는데도 하루 종일 간 거야. 거기 무슨 고개가 조그만 게 있는데 수리산역 다음에 그 역인데 가니까 탱크가 두 대 있더라고, 미군. 밤에 한 열두시 넘으니까 철수를 하더라고. 거기 농업창고에서 벗가마가 그 길바닥에 전부 있는데 그거 지나가니까는 그냥 허영계 까진 거예요, 그날 아침에 가면 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벗가마 몇 개를 싣고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쪽 있는데 …… 보니까 뭐 중공군이예요. 중공군이 들어와서 …… 달래서 그걸 잘라서 쪼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해먹는데 밥을 해 먹는데 ……<sup>29</sup>

피난을 떠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엔군과 공산군 간의 전투지역을 무사히 벗어나야만 했다. 수리산 일대에서 전투가 치열했기 때문에, 안양 남쪽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공산군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비행기 공습으로부터도 무사히 벗어나야만 했다. 공산군의 공격을 피해서 떠난 피난길에서 유엔군의 공습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나혜석의 조카 나영균의 안양 피난기에도 유엔군의 기총소사와 폭격에 대한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 나영균은 “아군이지만 우리에게 마구마구 폭탄을 퍼붓는 비행기가 무서웠다.” 고 말하고 있다.

비행기는 귀가 쩌지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저공까지 거꾸로 내리꽂히듯이 내려와서는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그럴 때면 희군과 나는 서로 얼싸안고 무의식중에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또다시 도보로 피난길에 올랐다. 신작로는 걷기가 편했으나 유엔군의 기총소사를 피하기 위해 논두렁을 걸어갔다. 안양역 근처 철도에는 폭격을 맞은 기차가 나뒹그러져있고 길가에는 죽은 소와 사람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많은 시체들을 나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적이 없다. 아군이러지만 우리에게 마구마구 폭탄을 퍼붓는 비행기가 무서웠다. 그런 사정도 아랑곳없이 길가에 아름답게 한들거리며 서있는 코스모스가 원망스러웠다.<sup>30</sup>

안양대교 그거 끊을 때예요. 그제 이제 최종적으로 후퇴하면서 끊은게 안양대교인데, 그거 끊고선 피난을 같이 영커서 가는데 다리 부러진 놈, 팔 부러진 놈, 처음에 반월 우리 친척들이 거기 사니까 거기로 간다고, 마차에다가 먹을 거 뭐 다 싣고 끌고 나갔다고, 소 마



수리산 전투 상황도

차였으니깐. …… 그리고 간 데가 수리산 둔대리가 반월인데, 거기 가서 전쟁을 거기서 했어, 전투를 거기서 했어. 비행기가 와서 하루는 때리는데 같이 피난 와서 살던 사람들이 배를 맞고 죽은 놈, 이게 또 밤에 비행기가 소나무가 많고 그래서 거기다가 때린다고. 밤에 나오라 해서. 배어서 피난민들이 (나무) 그거 끌어내리다 보면 어느 구렁텅이에 송장을 갖다놓고 그냥 덮어 놓고, 말도 못해.<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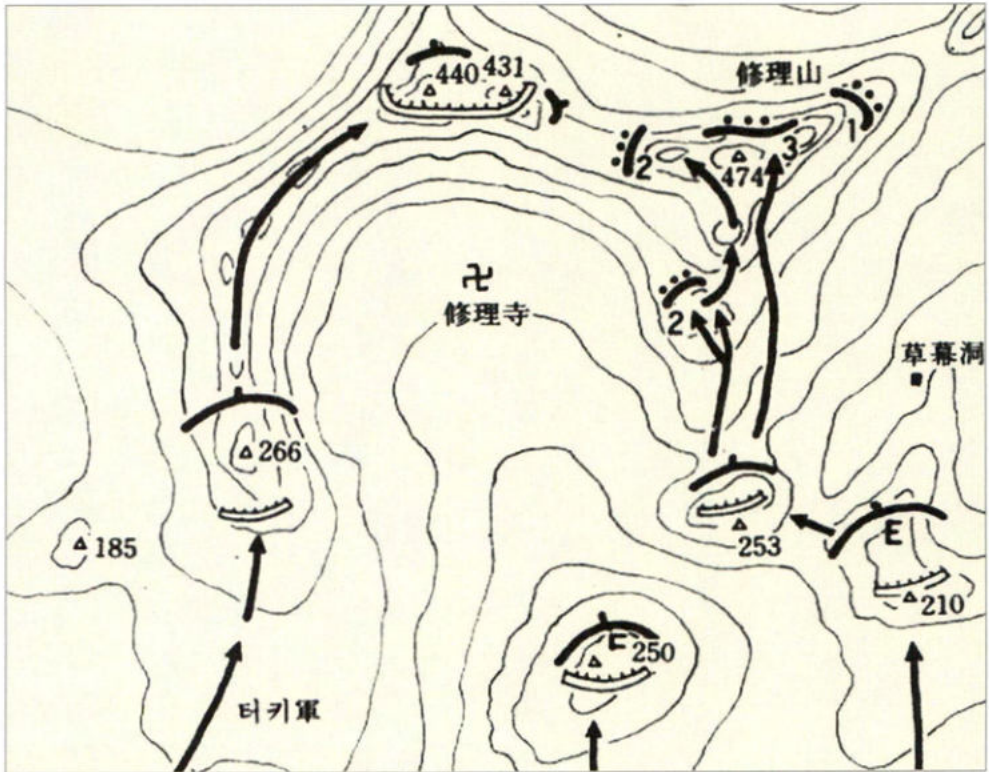
1951년 1월 중순을 기해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을 개시했다. 유엔군이 수원 일대에서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리산(475m)과 관악산(629m)을 넘어야만 했다. 수리산은 군포와 안양

의 남서쪽에 위치한 475고지의 바위산으로 수원-군포-안양을 경유해 영등포에 이르는 국도와 수원-안산을 경유해 부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감계고지였다. 그리고 관악산은 면적이 8km나 돼 공산군이 이 지역을 고수할 경우 유엔군이 측면 또는 배후에서 위협에 당칠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공산군 측에서도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sup>32</sup>

1951년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수리산과 관악산을 중심으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무수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1951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전개된 수리산 전투에서는 유엔군 산하 터키 여단이 주력이었다. 터키 여단은 수리산의 서부 능선에서부터 서해안까지를 담당하였다. 북한군과 중국 공산군은 수리산과 관악산, 모락산을 잇는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저항하고 있었다. 8일간 벌어진 수리산 전투에서 터키여단은 불리한 전투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수리산 대부분의 고지를 점령했다. 2월 3일 미군 25사단 35연대가 수행한 수리산 정상탈환 작전에서는 미국을 지원하여 태을봉과 관모봉을 되찾도록 도왔다. 수리산 전투의 승리는 당시 안양과 수리산을 점령하던 북한군과 중국 공산군을 격퇴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한강을 탈환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수리산 전투에 참여한 터키군은 대략 800여 명으로 추측되는데, 20명이 전사하고 83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sup>33</sup> 수리산 전투를 기억하는 이들은 당시 터키군의 희생을 기리며 '보은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또 다른 구술에서는 터키군인들에게 담배꽂초를 얻었다는 기억을 전하기도 한다.

22연대, 25연대는 안양, 인천 따라서 반월저수지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인천 쪽에서 들어온 미군이 수리산 때문에 시흥 일대로 진격을 못하니까, 그 저항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육박전 전투 능력이 강하다는 터키여단을 군포 쪽에서 접근을 시켰습니다. 접근 시켜서 싸우는데 아마 군포 사람들은 지금 터키 사람들한테 보은의 표시를 해야 할 거야. 터키연대의 거의 절반 이상이 수리산 일대에서 죽었어.<sup>34</sup>

밤이면 군대들이 진지를 하고 있는 게 야목 그 다리를 그 뚝을 중심으로 해서 수리산을 바라보고 포 시설을 다 해놓고 밤이면 중공군이 거기까지 오고 낮이면 여기서 다 넘어가고 그런 걸 반복되는 일을 계속하더라고. 우리는 낮에는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때 터키군대가 거기 있었어요. 터키군대들이 먹을 거 잘 주지도 않지만 가서 돌아다니면 담배꽂초라도 줬으니깐. …… 터키군들이 거기서 많이 다쳤죠.<sup>35</sup>



1951년 2월 2일 전투상황도(<http://www.army.mil.kr/history>)

수락산과 관악산을 점령한 유엔군은 2월 초순, 1·4후퇴로 서울을 내준 지 1개월 만에 한강선에 도착하였다.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전개된 수락산, 모락산, 관악산 전투 등으로 안양 일대는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재탈환된 지역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는데, 수원을 비롯한 서부전선 일대의 거의 모든 주택이 파괴되었고, 천안 이북의 수원, 안양, 시흥, 영등포 등지에는 식량이 전부 깡그리 약탈되어 심각한 식량난에 처했다고 했다. ‘돈이 있어도 쌀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이곳 도시와 촌락의 현실이라고 전하고 있다.<sup>36</sup>

「한국천주교사회복지역사」를 다룬 책에 따르면 수녀회가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서울시 사회과의 지시로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안양으로 소개시켰는데 ‘1951년 1월 20일 유엔군 비행기의 오폭으로 안양에 소개돼 있던 50명의 어린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sup>37</sup> 또한 1951년 3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사회복지차관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전쟁피해 및 피난민의 시찰담이 실려 있다. 당시 사회복지차관은 ‘안양, 김량장(金良場), 시흥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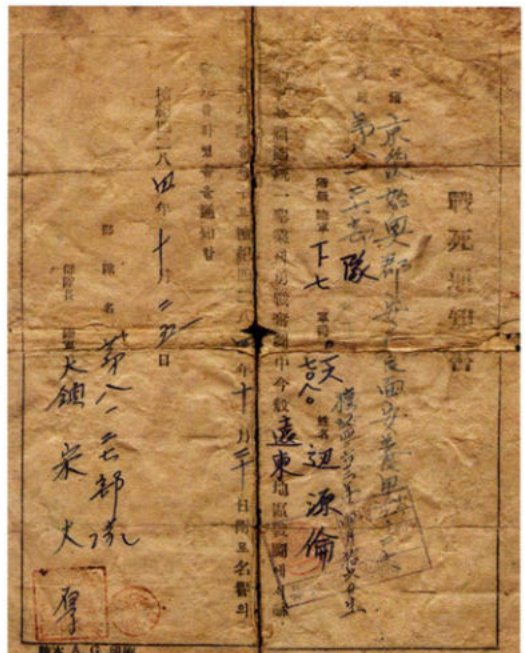
시는 완전히 폐허화 되었으며 수원도 그 대부분이 없어져 있다.' 고 피해상황을 전하고 있다.<sup>38</sup> 비슷한 시기에 이해익李海翼 경기도지사도 도내의 전쟁피해 실태를 시찰했는데, '경기도 내의 가장 피해가 막대한 지역은 안양, 여주, 이천, 김량장, 오산 등지로 이곳들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다' 고 도내의 피해상황을 전하고 있다.<sup>39</sup>

유엔군은 3월 16일 서울을 재탈환하였으며, 3월 말에는 38도선을 확보하였다. 이후 전선은 38도선 일대에서 고착화되었다. 38도선의 중심으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휴전이 제기되어 1951년 7월부터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이후 1953년 7월까지 만 2년에 걸친 지루한 휴전회담이 전개되었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해 전선에서의 전투는 계속되었다. 결국 3년 1개월간 진행된 휴전협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고, 전쟁은 막을 내렸다.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의 일시적인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 간의 적대행위와 긴장이 종식된 것은 아니었다.

### 3. 전후 복구와 다시 시작되는 일상들

1953년 7월 27일,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막을 내렸다. 3년여에 걸친 전쟁으로 안양 주민들은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를 경험하였다. 당시 안양읍의 통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시흥군의 통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시흥군의 인명피해를 보면 사망 1,888명, 납치 90명, 행방불명 165명, 부상 1,022명 등 총 3,165명이었다. 안양읍의 납치자수는 125명이었다.<sup>40</sup>

안양이 속해 있던 시흥군의 재산 피해는 1950년 이전에 1만 5,626호였던 일반주택 가운데 3,299호가 전파되었고, 1,245호가 반파되었다. 공공건물은 군청



전사통지서(변원신 제공)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경성보육원(좋은집 제공)

이 반파, 읍면청사가 완전 소실이 2곳, 반파가 6곳이며, 학교건물은 완전 파괴가 15개소(중학교 1, 국민학교 14)이며, 안양임업시험장이 전체 또는 반파가 12개소이고, 운수사업소 30개소, 농회창고 5개소, 금융조합건물 반파손 7곳, 종교단체 건물 전파가 16개소, 도정공장 전·반파가 6개소, 일반기업체, 공장의 전·반파가 19개소이다.<sup>41</sup> 당시 공공건물은 대부분 안양시에 있었던 것으로 그 피해의 대부분은 안양의 피해이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시설, 수리, 토목, 가축, 사방 등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sup>42</sup>

안양지역의 공업시설도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해방 이후의 극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안양의 공업은 오히려 발전하고 있었다. 1949년 안양지역에는 총 14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3개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방 이후에 건설된 것이었다. 이들 공장은 대부분 안양읍에 있었으며, 공장규모는 면적이 1,000여 평 이상이 되는 공장이 8개였다. 조선직물주식회사, 조선건직주식회사, 금성방직주식회사 안양공장, 제일방직 안양공장, 삼덕제지주식회사 안양공장 등은 모두 100명 이상이 일하는 대규모 공장이었다.<sup>43</sup> 한국전쟁으로 공업시설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으며, 전후에 복구되어 1960년대 이후 안양의 공업화를 이끌었다.

전쟁이 막을 내리긴 했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깊고도 넓었다. 인적·물적인 피해와 함께 수많은 이산가족과 전쟁고아를 남겼다. 전후에도 전쟁의 흔적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

데, 불발탄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어린이들은 호기심에서, 때로는 고철을 얻기 위해서 불발탄을 수집했기 때문이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나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탄피를 고물로 팔면서 점차 사라졌다고 한다.

한 사람이 수류탄을 잘못 만져서 손을 다쳤던 사건이 있었다. 운동장 뒤의 내리산에 위치하였었는데 수류탄인지 모르고 만졌다가 터져 버린 것이다. 전쟁 후에 폭탄, 다이너마이트, 총알, 수류탄, 탄피 같은 것들이 워낙 많았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런 거 만지면 위험하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근데 그 당시에 먹고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고물들이 값이 꽤 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이 주워다가 고물로 다 팔아서 어느 날 보니 탄피들이 보이지 않았다.<sup>44</sup>

6·25 때지 그런 탄환이 있었어. 비행기 철갑탄. 그거를 주워서 집에 와서 끝에 까만 게 있는데 집에 옛날 맷돌 이만한 게 있었는데 철갑탄 안에 강한 쇠가 있는데 그거를 뺀다고 도끼로 3번 쳤는데 터진 거라. 나는 쇠 소리밖에 안 났는데 형님들이(하하) 별령 자빠졌지. 파편 맞았으면 죽었지. 그런데 그게 안 터진 거예요.<sup>45</sup>

전쟁으로 나타난 새로운 풍경 중의 하나는 피난민촌의 형성이었다. 전쟁으로 발생한 대규모 피난민들이 안양 일대에 집단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피난민촌은 1·4후퇴 후 안양지역이 재수복된 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난민들은 처음에는 미군의 지원으로 안양역 인근의 임시 숙소에서 거주했다가, 구룡마을, 소곡마을, 율목동 등지에 피난민촌이 형성되었다. 소골안으로 불리던 소곡마을은 강원도 철원 등지에서, 율목동에는 강원도 평강 등지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집단 정착해 마을을 형성하였다. 피난민촌이 형성된 마을은 대부분 소규모 가구가 살던 한촌이었는데, 피난민촌이 형성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피난민이 어디 왔냐면 석수동의 구룡마을, 안양6동의 소곡마을 그 다음에 맨 먼저 내려온 게 안양경찰서에 있다가 하드보드 앞에 있는 타이루 공장에 있다가 안양5동에서 …… 수복 후에 미국에서 텐트를 실어다가 안양역에 갔다가 났어요. 안양역에 풀어 놓는데, 어디 숙소가 있냐? 양쪽에다가 임시 숙소를 세우고 정착을 시켜냈어요. 근 한 1년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배급생활을 했지요. 일부는 능곡지구에도 있어요. 능곡동 초입에 공동묘지가 있죠? 그 바로 옆에 피난민이 살았다고. 능곡지구는 규모가 아주 작고, 거기는 15~16세



대 돼요.<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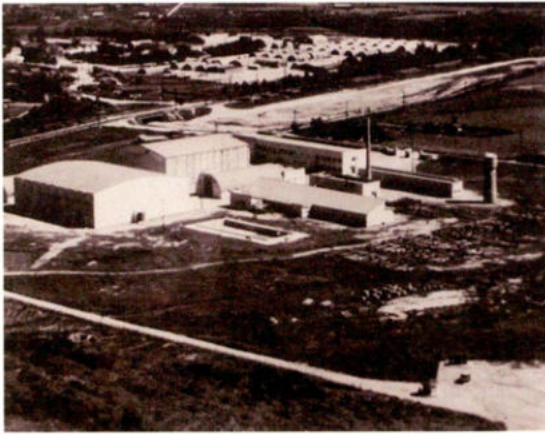
올목지구라고 해서 피난민촌. 그 사람들이 철원하고 어디야? 강원도 어디하고 같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처음에 안양경찰서 자리에 있다가 거기 금성방직, 처음에 거기에 있었다. 근데 읍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드보드 앞에 사기공장 있는데 거기서 좀 수용을 하다가 피난민촌으로 하천이 넓어졌잖아. 막아가지고 거기서 살아라.<sup>47</sup>

1952년 한 신문에는 월남 피난민들이 정착 1주년 기념으로 원호금을 기탁하였다는 기사가 전한다. 당시 기사는 안양읍 조선견직공장 내에 수용되어 있던 월남 피난민 1,000여 명은 안양에 온 1주년 기념으로 출연한 현금 25만 원을 수용소 대표를 통해 군경원호기금으로 써 달라고 시흥군 당국에 기탁하였다고 전하고 있다.<sup>48</sup> 월남민들을 비롯한 난민들이 피난민촌에 정착했으나, 전후에는 대부분 서울 등지로 떠나고 안양에 뿌리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 피난민 출신 중에는 인텔리 출신이 많았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전한다. 일부 이기는 하지만, 장사를 하면서 안양에 자리 잡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sup>49</sup>

1951년 중반 이후 38선 일대에서 전선이 고착화되고 휴전회담이 본격화하면서, 사람들은 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피난을 떠났던 이들도 다시금 안양으로 돌아와 새롭게 생계를 일구었고, 파괴된 시설도 점차 복구되기 시작했다. 1952년 7월에는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시내전화도 복구되었고, 안양역 폭발사고로 소실된 안양읍청사도 1952년 12월 새롭게 업무를 개시했다.<sup>50</sup> 학생들은 전쟁으로 파괴된 교실에서, 때로는 천막에서 학업을 계속했다. 전쟁의 폐허와 생계의 고통 속에서도 부모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열성이었다. 1952년 안양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 후원을 통해 2교실을 복구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안양중학교는 전란으로 인하여 대부분 파괴되어 그 후 수복한 550여 명 학생들은 임시천막을 사용하여 배워 오던바 학부형제씨에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수축공사비 2,500여 만 원을 들여 두 교실을 낙성케 되어 지금 사용 중에 있다.<sup>51</sup>

새로운 문화의 기운도 싹트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극장의 설립이었다. 1953년 3월 한국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안양 최초의 극장인 화단극장이 개관하였다. 당시 극장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도 있는 것이었는데, 소읍에 지나지 않은 안양에 극장이 개관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화단극장은 안양역에서 왼쪽으로 500여m 거리의 1번 국도변에 734



1950년대 안양영화촬영소



일상성을 찾은 1950년대 안양읍내(안양지역시민연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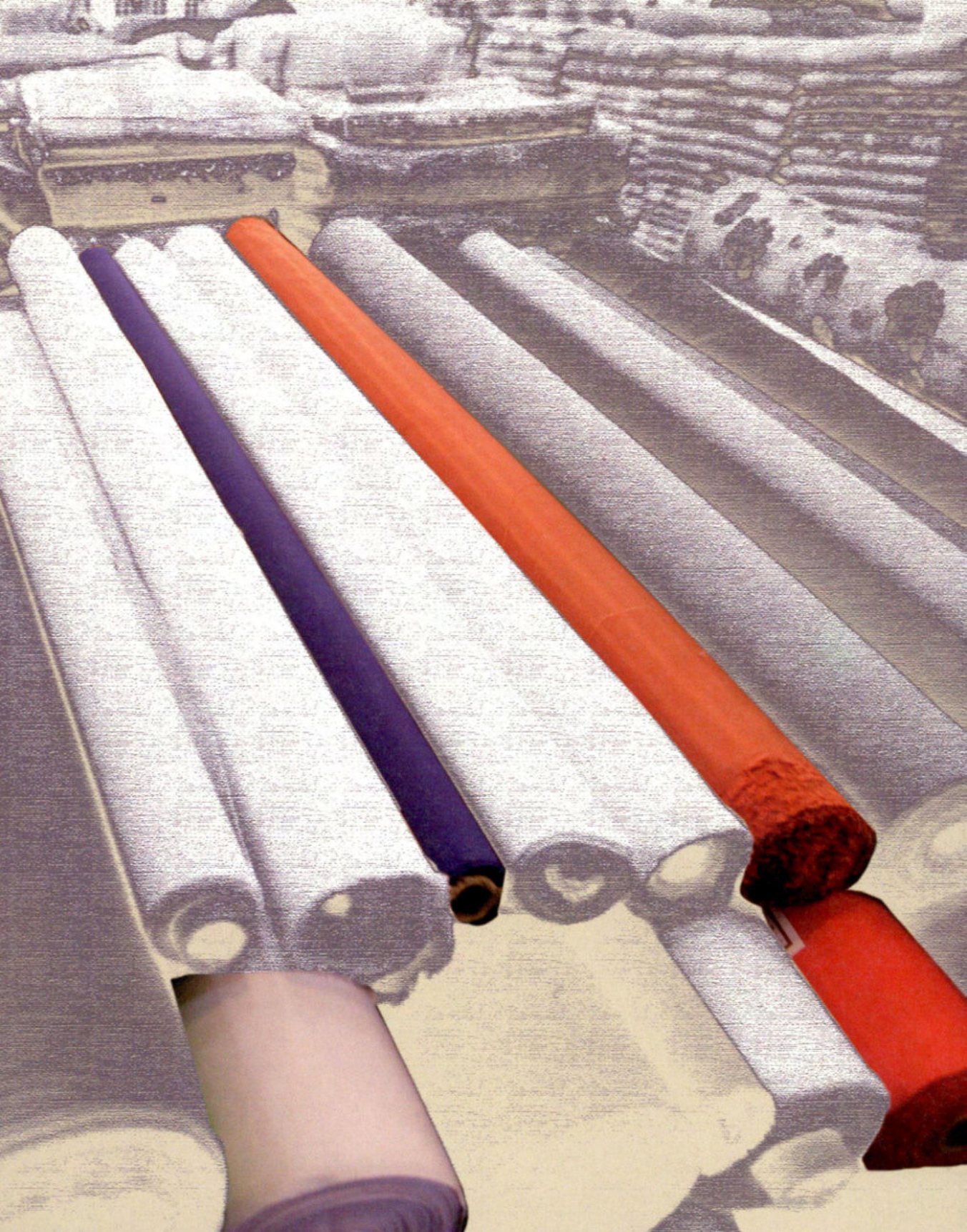
석 규모로 세워졌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극장이었다.<sup>52</sup> 안양에서 영화산업은 전후에 더욱 발전하였다. 1958년 수도영화사가 석수동에 한국 최초의 영화종합촬영소인 안양영화촬영소를 설립하였다. 3만여 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안양영화촬영소는 당시 동양 최대의 영화촬영소였다.<sup>53</sup>

안양 사람들은 3년여에 걸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고난한 일상을 일구어 왔고, 전후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갔다. 안양 사람들은 전후 복구를 통해 새롭게 삶의 기반을 형성하였고, 1960년 이후에는 근대적인 공업도시로서 탈바꿈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다.

## 주)

- 1)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제8권 해방시기』, 2005, 357쪽.
- 2)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342쪽.
- 3)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429쪽.
- 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I』, 2008, 273쪽.
- 5)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I)』, 2006, 35~36쪽.
- 6)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I)』, 2006, 56쪽.
- 7)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I)』, 2006, 117쪽.
- 8)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I)』, 2006, 202쪽.
- 9)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273~274쪽.
- 10)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I』, 2008, 274쪽.
- 11)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342쪽.
- 12)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I)』, 2006, 55쪽.
- 13)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I)』, 2006, 110쪽.
- 14)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339쪽.
- 15)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I)』, 2006, 111쪽.
- 16)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 (하)』, 2016, 342 · 430쪽.
- 1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제8권 해방시기』, 2005, 362~363쪽.
- 18)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I)』, 2006, 116쪽.
- 19)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I)』, 2006, 37쪽.
- 20)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I)』, 2006, 37~38쪽.
- 21)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490쪽.
- 22)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3』, 2007, 349쪽.
- 23)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136쪽.
- 2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VII』, 2008, 127쪽.
- 25)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226쪽.
- 26)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338쪽.
- 27)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491쪽.
- 28)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42쪽.
- 29)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124쪽.
- 30)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 황소자리, 2004, 252~255쪽(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16쪽 재인용).
- 31) 안양문화원만안지구마을지편찬위원회, 『만안의 기억』, 2012, 203쪽.
- 32)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3』, 2007, 353쪽.

- 33) 「6·25전쟁에서 수리산을 지킨 형제의 나라 '티키」, 『안양지역정보뱅크』(www.noganyang.or.kr).
- 34)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1)』, 2006, 116·128쪽.
- 35)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343~344쪽.
- 36) 『경향신문』, 1951년 2월 18일.
- 37) 『주간경향』 1255호, 2017년 12월 12일.
- 38) 『동아일보』, 1951년 3월 2일.
- 39) 『동아일보』, 1951년 3월 7일.
- 40)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279쪽.
- 41) 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 중, 1956, 302~313쪽.
- 4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1』, 2008, 279쪽.
- 43) 시흥군, 『금천지』, 1950.
- 44)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42쪽.
- 45)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368쪽.
- 46)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1)』, 2006, 143쪽.
- 47)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1)』, 2006, 207쪽.
- 48) 『동아일보』, 1952년 7월 25일.
- 49)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1)』, 2006, 143쪽.
- 50) 『동아일보』, 1952년 7월 25일; 12월 21일.
- 51) 『동아일보』, 1952년 12월 28일.
- 5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V』, 2008, 384쪽.
- 53)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59쪽.



중심지를

---

따라 이동하는

---

안양의

---

시장

---

## 제4장

## 중심지를 따라 이동하는 안양의 시장

## - 군포천장에서 안양시장으로, 그리고 다시 안양중앙시장으로

## 1. 안양 최초의 시장, 군포천장

## 1) 18~19세기 군포장의 개설과 변동

16세기 이후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장시의 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17세기 말경에는 읍치邑治에서 멀리 떨어진 산곡山谷이나 벽지僻地에서도 개시開市될 정도로 장시가 일반화되었다. 또한 대동법의 실시와 함께 등장한 공인貢人의 활동과 난전인亂壓人으로 지칭되는 사상私商의 활동은 물화유통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장시 발달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안양 지역에도 장시가 개설되어 장시권을 형성하였다.

안양지역에는 18세기에 이미 군포천장軍浦川場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매 3일과 8일에 서는 군포천장은 지금의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하였는데, 이곳은 한양에서 남서쪽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거치게 되는 교통상의 중요한 경유지였다. 또한 16~18세기에 걸쳐 호계리 일대는 전주 이씨 영산군파와 영웅대군파 후손, 함평 이씨와 경주 최씨, 풍양 조씨 등이 세거하면서 안양지역에서 주요 주거지로 성장해 갔다.

〈표 1〉 18~20세기 안양 인근 지역의 장시체계

장시명	뱀내	산대	도일	방축두	상직곶리	삼거리	안양	군포	금천	수원		
조선후기 지명	인천 新古介	안산 大月	-	안산 草山	안산 草山	-	과천 下西	과천 下西	과천 南	금천 邑內	수원	
현재 지명	시흥 신천	시흥 거모	시흥 거모	시흥	시흥 물왕	시흥 능곡	안양 안양	안양 호계	군포 당동	서울 시흥	수원	
東國文獻備考 (1770)	蛇川 1·6	山堡 3·8	-	防築頭 2·7	-	-	-	軍浦川 3·8	×	邑內 5·10	邑內 1·6	
林園經濟志 (1830)	蛇川 1·6	石谷 山堡 3·8	-	×	上職串里 2·7	-	安養 3·8	軍浦 1·6	×	×	北門外 2·7	南門外 4·9
朝鮮産業誌 (1909)	新峴 1·6	×	-	×	×	-	×	軍浦 1·6	×	×	門外 4	門內 9
朝鮮의市場 (1922)	蛇川	×	-	×	×	三距離	×	軍浦	×	×	城內	城外
市街地の 商圈(1923)	蛇川 1·6	×	-	×	×	三距離 5·10	×	軍浦 5·10	×	×	城內 4	城外 9
朝鮮의市場 經濟(1926)	蛇川 1·6	×	-	×	×	三距離 5·10	安養 5·10	×	軍浦 2·7	×	城內 4	城外 9
商工水産統 計 (1931)	蛇川 1·6	×	-	×	×	三距離 5·10	安養 5·10	×	軍浦 2·7	×	城內 4	城外 9
朝鮮의市場 (1938)	蛇川 1·6	×	-	×	×	三距離 5·10	安養* 5·10	×	軍浦 2·7	×	城內 4·9	城外 4·9
1977	신천리** 1·6	×	군자 3·8	×	×	×	안양** 3·8	×	×	×	영화동** 4·9	

① 1770년 자료는 『증보문헌비고』를 참고하였으나, 증보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국문헌비고』 단계의 서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문헌명 아래의 연도는 문헌의 출간연도가 아니라 문헌에 실린 자료의 조사연도이다. 1977년 자료는 『한국농촌시장의 제도와 기능연구 : 그 사적 고찰과 구조기능의 분석』(김성호, 1977, 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한 것이다.

② \* 원자료에는 장시명을 안권(安卷)으로, 소재지를 안권리(安卷里)로 적었으나 모두 안양(安養)의 오기일 것이다.

③ \*\* 표시는 1977년 당시 우시장이 설치되어 있던 장을 나타낸다.

④ 이 표는 『시흥시사 5』(2007)를 재인용한 것이다.





『1872년 지방지도』 「과천」지도(규장각 소장)의 군포장과 안양장

18세기 말 화성 건설과 시흥로의 개설은 안양 지역을 둘러싼 장시권의 변동을 가져왔다. 시흥로의 개설로 도로변에 시흥행궁현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831-6 부근과 안양행궁현 안양역 앞이 설치되었고, 정조는 원행 시에 이 행궁들에 묵게 되었다. 원행 행렬은 안양행궁을 지나면서 대략 오늘날의 국도 1호선을 따라 군포와 의왕을 거쳐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으로 향했다. 국왕의 행차에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법이며, 국왕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는 정비도 철저히 했을 것이니 당연히 사람과 물자가 모이고 상업이 발달할 여건도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에 1796년정조 20 조정에서는 군포천 부근에 개설되던 장시를 안양으로 옮기게 하고 매 3일과 8일에 장시를 열게 하였다.

그러자 군포장 근처에 거주하던 40여 호의 주민들은 군포천을 지나던 좌의정 채제공에게 군포천장의 재개설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모두 장시에 의지하여 생활하였는데, 군포장이 안양으로 옮겨지게 되자 생계의 기반을 잃고 장차 유리流離하게 되었다며, 다시 군포장을 열 수 있도록 청하였다. 이들은 군포장의 개시일을 1일과 6일로 정하여 안양장과 겹치지 않게 한다면 안양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하였고, 이에 채제공이 화성유수華城留守에게 군포장의 재개설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화성유수 또한 백성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날짜를 정하여 안양장과 군포천장을 모두 개장하도록 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자, 채제공이 이를 정조에게 건의한 것이다. 결국 정조는 화성유수에게 명하여 안양장과 군포장 양쪽 모두에게 장시를 개설하도록 허락하였다. 그 결과 군포장이 개장되던 3·8일에는 안양에서 장시가 개장하였고, 기존 군포장은 1·6일을 개시일로 하여 재개설되었다.

이같이 18세기 말 군포장의 개설 여부는 인근 40여 호 백성들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장시망의 변화에는 수원 북문밖장의 개설이 큰 영향을 끼쳤다. 북문밖장2·7일장은 수원부의 읍치가 새로 건설한 화성으로 옮겨지고 나서 개설되었다. 이렇게 되면 수원 북문과 가까운 군포장과 북문밖장의 연계가 강화되어 옛 군포장의 상업적 역할을 안양장이 새로 떠맡게 되는 셈이었다. 군포장과 안양장이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이런 이원적 장시체계가 나타난 것은 군포장이 북문밖장과 연계하면서 서울-수원 간의 남북도로망에 위치한 반면, 안양장은 금천-시흥-안산을 연결하는 동서도로망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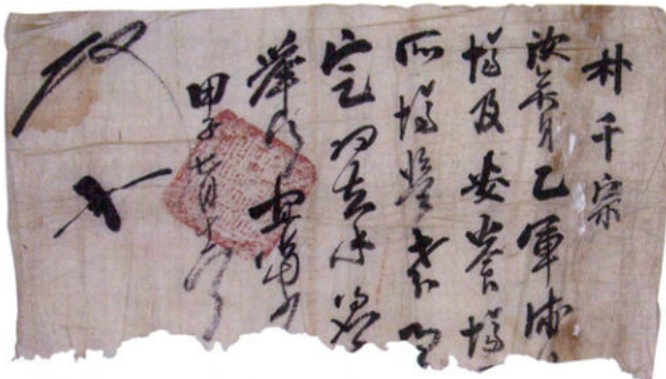
조선 후기 경기도 일대의 장시에서 유통된 상품들은 실학자 서유구徐有鑾, 1764-1845가 1830년 편찬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통해 대략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 일대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은 미곡·면포·어염·마포·소 등이었는데, 군포장에서는 미곡·면포·마

포·과일·어염·소·담배·철물 등이 거래되었다. 거래된 품목의 수나 종류를 인근 지역의 장시와 비교해 보아도 군포장은 일정한 규모와 세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군포장은 매 1일과 6일에 개설되었고,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민가도 모여드는 형국이 었다.

## 2) 군포장의 운영과 쇠퇴<sup>2</sup>

조선 후기 장시가 활성화됨에 따라 장시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는 장세<sup>場稅</sup>의 부과였다. 장세는 지방관아 재정수입의 일부로 충당되는 잡세<sup>雜稅</sup>의 일종으로, 지방관아 재정 보충책이나 진휼 비용의 명목으로 수세되었다. 1796년 호조에서 작성한 『부역실총<sup>賦役實總</sup>』에는 각 도 장세의 용도와 징수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과천현 군포천장의 경우, 매월 12냥을 징수하여 1년 장세액이 총 144냥이었음이 확인된다. 군포장은 1871년<sup>고종 8</sup>에 이르러서도 “매월 12냥씩 봉사<sup>奉上</sup>하되 관청에 부친다.”고 하여 수세액에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장세의 징수는 지방관아에서 임명한 도장<sup>都將</sup>, 장감고<sup>場監考</sup>, 시장감세<sup>市場監稅</sup> 등이 담당하였고, 때로 공방의 하리<sup>下吏</sup>나 군교<sup>軍校</sup>가 담당하기도 하였다. 군포장의 장세 수봉<sup>收捧</sup>은 감고<sup>監考</sup>, 場監考가 담당하였다. 1864년 작성된 전령<sup>傳令</sup>: 상급관원이 하급관원이나 백성에게 발급한 문서로, 특정 직책에 임명하거나 혹은 명령을 내릴 때 주로 사용되는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천종<sup>朴千宗</sup>을 군포장 및 안양장의 장감고로 차정<sup>差定</sup>하고 있어, 그가 두 장시를 함께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sup>3</sup> 이후 박천종을 대신하여 장금쇠<sup>張金錐</sup>가 새로 감고에 차정되었는데, 장금쇠는 1866년 장세 수봉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여, 관의 추쇄를 받기도 하였다.<sup>4</sup>



과천현에서 박천종에게 내린 전령(1864)

1866년 작성된 군포천장의 「장세전치부」에는 장세전<sup>場稅錢</sup>의 수봉액<sup>收捧額</sup>과 납부자의 성명이 월별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2·11·12월에는 월 5회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3·7·8월에는 개시기록이 보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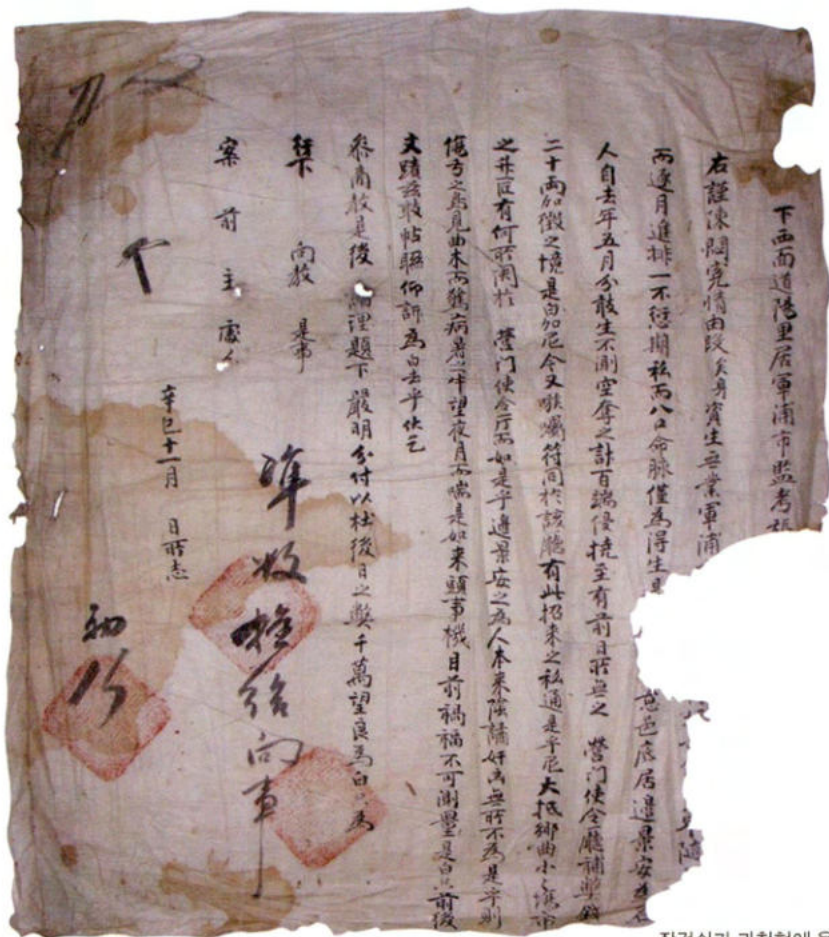
과천현 관정색이 발급한 지문 (1872)

과천현에서 장자근쇠(張者斤劄)를 군포천장 승장으로 차정하는 전령 (1880)

않는다. 한편 1·4·5·6·9·10월의 경우 개시일이 일정치 않다. 5일장은 대체로 1개월 6개월을 원칙으로 하는데, 「장세전치부」에 기록된 일자<sup>4</sup>가 일정치 않은 것은 아마도 장세를 받았던 경우에만 이를 치부<sup>5</sup>해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포천장의 장세는 주로 화폐로 거두었으나 때로 현물인 미<sup>6</sup>로 거두기도 하였다. 수봉액은 1인당 2냥 1전으로 보이는데, 치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당시 장세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장세전치부」는 장세 수봉을 직접 담당할 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감고는 매월 장세를 수봉한 후 그 내역을 일일이 치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두어들이는 장세를 관에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지문을 발급받았다. 1872년 5월초 군포천장의 장세는 총 4냥 2전이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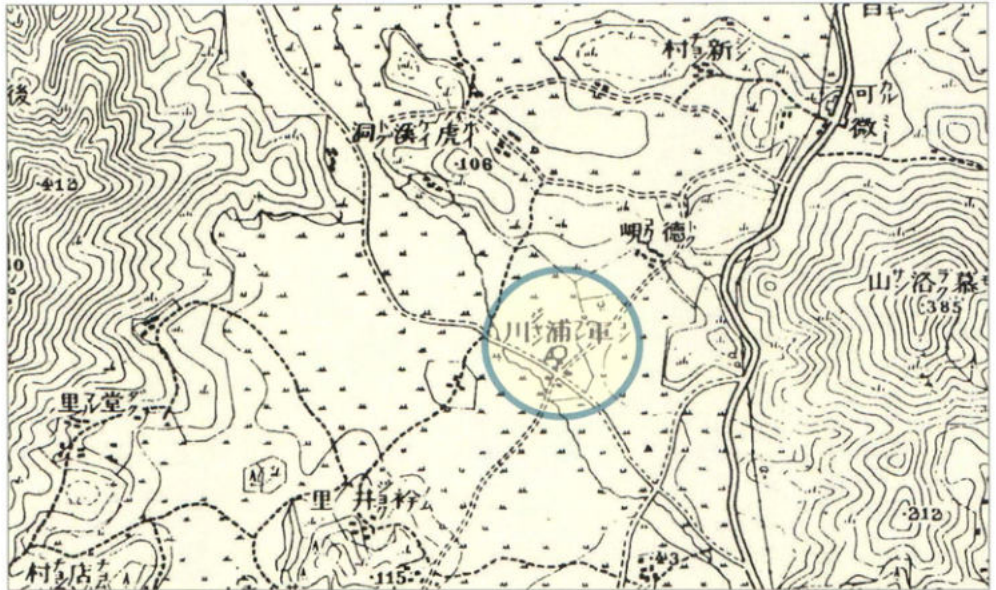
한편, 1880년 전령은 장자근쇠(張者斤劄)를 군포장의 승장<sup>7</sup>으로 차정하였음을 보여 준다.<sup>5</sup> 장자근쇠의 경우, 군포장의 승장으로만 차정된 것으로 미루어 안양장에는 또 다른 승장이 차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 및 관련 문서에서는 승장이 감고와 동일시되어 쓰이기도 했는데, 승장이 정확히 어떤 일들을 담당하는지 드러나지 않지만 시승<sup>8</sup>의 관리 등 도량형 감독의 일을 담당하였다고 추정된다.



장검쇠가 과천현에 올린 발괄(1881. 11.)

장시의 감고는 상당한 이권을 가진 직역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존재가 감고로 차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감관직 수행을 둘러싼 고소告訴·수발受發이 상당수 일어났다. 1880년 6월 군포장의 감고였던 장검쇠(張黔奎)가 갑자기 감고의 직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이월금 역시 돌려받을 길이 없음을 호소하면서,<sup>6</sup> 과천현에 발괄(白括: 사서민(士庶民)들이 관청에 올리는 일종의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를 올린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과천현에서는 장검쇠에게 이월금을 추급(推給)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그러나 과천현에 올린 장검쇠의 발괄이 잘 해결되지 않자, 장검쇠는 그해 8월에 도도의 순사도(巡使道)에게 의송(議送: 백성이 관찰사, 순찰사, 병사, 수사 및 암행이사에게 올린 탄원서나 청원서하여 자신



한말 지형도에 나타난 경부선 부설 이전 군포(구군포)와 군포천 주변

의 억울함을 다시금 호소하였다. 의송의 내용에 의하면, 지난번 과천현에 발괄하여 미리 관에 바친 전수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사를 받았는데도, 변경안邊敬安이 이를 무시하고 전수금을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악하고 못된 말로 추심推尋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장시 승장의 일을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으나,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전수금마저 받지 못한다면 결국 몰사沒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터이니, 전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sup>7</sup> 경기도 순사또는 장검쇠에게 전수금을 지급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장검쇠는 전수금을 돌려받고자 의송하여,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억울함이 밝혀지면서 결국 감관직을 유지하게 되었다.<sup>8</sup> 이같이 군포천장 감관직은 이권을 많이 가졌던 반면, 그만큼 많은 침요侵擾를 받던 직이기도 하였다.

한편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안양 일대의 지역구조와 장시는 큰 변화를 겪었다. 1913년 기준으로 군포장에서는 장날 하루 거래액이 200원 정도였고 장세場稅로 그 100분의 1인 2원 정도가 건혔다.<sup>9</sup> 이는 철도 중심으로 교통과 상업이 재편되면서 안양역 일대가 급속히 발전하고, 군포장의 세력이 약화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에 군포장 운영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자 일제는 시장규칙 제27조에 따라 1914년 12월 25일 서이면을 군포장의 경영자로 지정하였고,<sup>10</sup> 서이면은 1916년 12월 29일 군포장시장의 개시일을 음력 5월 10일로 변경하

日許可セリ  
大正十五年一月六日

朝鮮總督府京畿道知事 時實 秋穗

1926년 1월 6일자  
군포장 폐지 고시

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一號  
始興郡西二面虎溪里ニ設置セル軍浦市場廢止ノ件大正十四年十二月二十三

였다.<sup>11</sup>

1917년 서이면사무소는 호계리현 안양시 호계동에서 지금의 안양역 앞으로 옮겨 왔으나, 군포장은 한동안 서이면 호계리에 위치하였다. 서서히 장세場勢가 약화되던 군포장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흥군은 서이면과 남면 행정당국과 협의한 끝에 시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는 1925년 12월 23일자로 서이면 안양리에 안양시장을 매 음력 5일과 10일에, 남면 당리에 군포시장을 매 음력 2일과 7일에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또한 안양시장은 곡물, 수산물, 생우生牛, 잡화, 군포시장은 곡류, 수산물, 잡화를 취급하게 하였는데 이에 따라 안양시장에는 우시장이 개설되었다.<sup>12</sup> 그 후 1926년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시흥군 관내에는 영등포장, 안양장, 군포장, 삼거리장이 있었다. 그중 군포장은 3번째 규모였는데 이 시기 군포장은 이미 안양장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장세가 약화된 상태였다.

18세기 초 호계동에 개설되어 150여 년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유지되었던 군포장은 결국 1926년 1월 6일자로 최종 폐지되었다.<sup>13</sup> 이로써 안양 최초의 시장인 군포장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군포장은 비록 장세의 약화와 홍수 피해 등으로 폐장되었지만, 경부선 개통과 함께 업무를 시작한 역의 명칭이 군포장역이었던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안양지역에서 차지하던 의미가 상당히 컸다. 즉 군포장은 폐장될 상황을 이겨 내며 재개설되어 오랫동안 주어진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유지되었던 것이다.

## 2. 안양 읍내에 세워진 안양장과 안양시장

### 1) 조선 후기 안양장의 설치와 운영

수원 화성이 건설되고 시흥로가 개설된 후 조정에서는 안양 일대에 더 많은 사람들을 거주하게 할 방안으로서 안양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과천현 하서면에 있는 군포천장을 없애고 안양장만 두고자 하였으나 군포천장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안양장은 매 3일



『1872년 지방지도』 「과천」지도(규장각 소장)의 안양장  
안양장은 행궁지와 만안교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과 8일에 열게 하고 군포천장은 매 1일과 6일에 열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장시의 개설이 거민들의 자생(資生)과 안집(安集)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고, 장시의 개설 유무가 민인들의 취산(聚散)을 좌우할 정도로 이 시기 장시의 사회적 기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시는 본래 농민들에 의해, 농민들을 위하여 개설되었다. 그러나 점차 조정이나 지방관들도 모민(募民)이나 안집(安集) 또는 진휼을 위해 장시의 조성에 앞장서기 시작하였다. 장시의 조성을 위해 개장과 분장을 주선하기

나 관둔전을 장터로 제공하여 개시를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장과 겹치지 않도록 개시일을 조정함으로써 상권을 육성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안양에 많은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수원으로 가는 국왕 행차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안양장은 기대했던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1796년 호조에서 작성한 『부역실총(賦役實總)』을 보면 안양장은 “매월 4냥 2전씩 봉사하되 공방(工房)에 부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군포천장의 경우 매월 12냥을 징수하여 1년 장세액이 총 144냥이었던 것에 비해 안양장은 군포장에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장세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안양장의 규모가 그만큼 작았음을 알려 준다.

더구나 1896년 건양 원년 2월 24일 탁지부의 훈령에 따라 과천군 소재 장시의 거래물품과 거래량, 장세에 대해 보고한 내용에는 과천에 2개의 장시(현하장과 군포장만)가 개설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안양장의 내용은 빠져 있다.<sup>14</sup> 이것으로 보건대 안양장은 19세기 말경에는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거나 미미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00년 안양장시의 원태봉이 올린 청원서<sup>15</sup>와 1908년 1월 14일 의병 약 20여 명이 진위 죽동에서 일본군과 교전 후 안양장으로 퇴각하였다<sup>16</sup>는 내용을 보건대 그때까지 안양장이 명맥을 유지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1909년 『조선산업지(朝鮮産業誌)』에 안양장 내용이 없고, 1914년 시장규칙에 따라





1932년경 안양역과 안양시장 일대

시장 경영자를 지정할 때 안양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는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일제시기 안양시장의 설치와 진흥책

호계동의 군포장이 폐지되면서 1926년 1월 28일에 안양역 뒤쪽 안양천 주변서이면 안양리 92번지 일대에 안양시장이 개설되었는데, 안양시장의 개설은 시흥군의 안양 시가市街 확장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시흥군수는 안양을 우량면으로 성장시키고 시

흥군의 중심지로서 발전시킬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시장의 개설과 확장이었다. 이에 시흥군수는 지역 유지들을 직접 만나 시장 확장 경비를 부담할 것을 간청하기도 하였다.

안양은 시흥군의 중앙일 뿐만 아니라 산물도 상당하나 시가는 점점 쇠퇴하여 가므로 시가 확장책으로 신미神尾 시흥군수 알선으로 작년도에 시장을 설치하고 이내 발전책을 강구하여 오던 바 지난 19일에 신미 군수가 안양에 출장하여 동지 유지 수씨를 초청한 후 간담회를 동 면사무소 내에서 개최하고 협의한 결과 일반 유지로부터 시장 확장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후 다시 모씨로부터 300원을 연출하도록 신미 군수가 간청하였으므로 차此로써 20여 동의 암방巖房을 건축하고 대대적으로 시장을 확장하리라는 데 차가 실현만 되면 수년 후에는 수원시장보다 못하지 않으리라고 일반은 많은 기대를 한다더라.<sup>17</sup>

1920년대 후반 서이면은 경부선이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특산물이 풍부하여 시흥군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시장 확장은 물론 농사, 교육, 양잠, 축산, 임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발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양시장은 개장 첫해인 1927년 농산물 15만 6,000원, 잡화 21만 2,000원, 그 밖에 직물·축산물·수산물 등 모두 50여 만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올렸다. 상인들은

# 開市紀念盛況

年貿易五十萬圓

◇安養市場開始紀念

既報||始興郡西二而安養市場開市一週年紀念式을 지난 四日에 同市場構內廣場에 서舉行한 다함은 既報와 如하거니와 同日은 맛침 端午日임으로 各地로부터 數千의 觀客이 來到하여 實로 立錐의 餘地가 없시 二萬餘 群衆이 集合되여 空前의 大盛況에 豫定과 同 午後二時부터 閉會하고 發起人代表 田代氏의 式辭가 잇는 後 禮而 長의 經過報告와 神尾始興郡守의 告辭와 安養金組理事宗文雄氏와 本報始興支局記者曹喜哲氏와 安養公曹期成會長嚴基承氏의 祝辭가 잇는 後 同三時頃에 無事히 閉會한 後 餘興으로 妓生의 歌舞와 才人의 乘案 등으로 一般來客에 對하여 微喜를 弄기게 하였다는 데 同市場은 昨年一月二十八日에 開市를 한 後以來 貿易總金額이 農産物 十五萬六千餘圓과 雜貨 二十一萬二千餘圓을 筆頭로 雜物 畜産 水産物等合計 五十餘萬圓의 多額에 達하였다 함으로 開市以來 成績이 매우 良好할뿐 아니라 將次 安養發展上 前途가 有望함을 一般에 期待한다 더라

(始興)

안양시장 1주년 기념식이 성황리에 치러졌음을 알리는 기사(『동아일보』, 1927년 6월 7일)

개장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단오절을 기해 대대적으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동면同面에서는 작년 중에 안양시장을 설치한 후 이래 성적이 비상히 양호하던 바, 더욱이 안양 번영의 일책으로 오는 6월 4일 단오일을 기하여 전 시장 일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리라 하며 여흥으로 예기藝妓의 가무와 오산청년 烏山靑年의 소인극 素人劇 외 안양소년척후대 주최의 축구대회 및 동화동요회 등이 있어서 많은 흥미가 있으리라더라.<sup>18</sup>

1주년 기념식은 1927년 6월 4일 2시부터 안양시장 내 광장에서 개최되었는데 각지에서 2만여 명의 군중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다시로 田代 발기인 대표의 식사式辭와 당시 서이면장 조한구 趙漢九의 경과보고, 가미오 神尾 시흥군수의 고사告辭, 소 후미오 宗文雄, 안양금융조합 이사, 조희철 曹喜哲, 동아일보 시흥지국 기자, 엄기승 嚴基承, 안양공보교 기성회장의 축사에 이어 기녀들의 가무와 소인극 등이 공연되었다.<sup>19</sup>

장시의 번창은 곧 주민들에게 다양한 이익과 기회의 제공을 의미하였다. 장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장꾼의 운집 여하였으므로 보다 많은 장꾼을 모으기 위해 주민들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장시를 지역 축제의 장으로 만듦으로써 그 번창을 기원하였다.

안양시장 측에서는 이후에도 씨름·그네뛰기 등 대회를 열고 시장의 번영을 도모하였다. 1933년 8월 25일, 8월 30일, 9월 4일 등 장날에 안양역 광장에서 '안양씨름대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음력 7월 30일 장날부터 추석까지 장날마다 씨름대회를 열어 1등에 황소 1두, 2등에 광목 1필이 상품으로 수여되었다.



1970년대 태평방직과 구시장 일대(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 3) 안양시장의 성장과 쇠퇴

안양시장의 모습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이제 거의 없다. 그래도 안양시장의 풍경을 조금이나마 더듬을 수 있는 주민들의 기억들을 모아 볼 수는 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의왕 포일리 출신의 수필가 정진원이 남긴 글이다. 그 글에 따르면 ‘궁벽한 산골 촌놈’에게 안양시장은 별유천지(別有天地) 같았다고 한다. 시장을 맞닥뜨리기 전에 이미 하얀 연기를 뿜으면서 지나가는 검은 기차와 툽날 같은 모양을 한 태평방직 공장은 어린 소년을 압도해 버렸고, 곧 이어 나타난 안양시장은 없는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곳으로 느껴졌다.

수푸르지 다리임곡교를 건너면 바로 안양시장이 된다. 다리를 건너면서 왼편으로 태평방직공장, 오른쪽 작은 둔덕 아래는 소시장터였다. 소시장은 장날에만 열리고 여느 날에는 쇠말뚝만 땡그러니 군데군데 박혀 있고 쇠똥 냄새가 풍기는 곳이었다. 소시장 앞길에는 겨울철이면 마차에 땀나무를 잔뜩 싣고 와서는 구매자들을 기다리는 황소의 워낭소리에 하얀 콧김이 섞여 퍼져 나가고 있었다. 철길 쪽으로 나가면서 닭집이 있었는데, 먼 곳 시

끝까지 와서 닭을 사다가는 그곳 작은 닭장에 넣고 파는 집이었다. 그 닭집 아저씨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별의별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길가에 즐비했었다. '아이스케이크'는 작은 통에다 넣어서 짙어지고 다니면서 팔았었는데, 그 시장 중간 길가에는 테이블을 몇 개 놓고 그것을 공장도 가격으로 파는 가게가 있어서, 그것을 사 먹으려고 이십 리 밤길을 마다치 않고 걸어갔었던 생각이 난다. 철길과 경수국도京水國道 사이에는 간, 천엽, 순대 등을 파는 좌판이 있었고, 철길에 거의 붙어서는 만년필 가게가 있었다. 지금의 볼펜류가 나오기 전 만년필은 당시로써는 문방의 보배처럼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 가게 주인은 만년필 진열대 크기만큼의 작은 키의 아저씨였다.

종로의 육의전六美廛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안양시장이 안양 근동의 육의전이면서 시전이였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명, 본견과 인견, 모시, 베 등을 파는 피륙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한복을 지어 팔기도 했었다. 냉장시설이 요즘 같지 않은 때여서 생선을 파는 가게는 거의 없었고, 염장한 고등어나 아지, 콩치를 파는 가게와 건어물 가게들이 많았다. 과일전이라야 배, 사과와 고장 토산인 감, 밤, 대추 등을 파는 정도였다. 채소류 및 양념류를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파는 '사카린'인가를 사서 우물물에 풀어서 마시곤 했었다. 각종 술, 양은 냄비 등 주방 기구 등을 밑에서부터 크기순으로 쌓아 놓고 팔기도 했었다. 주로 창호지와 도배지를 파는 지전도 있었다. 여러 모양의 장독을 파는 가게는 시장 뒤편에 있었다.

시장 뒤편으로 들어가면 돼지 내장탕, 순대국 등을 파는 곳, 설렁탕집이 있었다. 뒷골목으로는 막걸리집 몇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비가 오면 시장 전체가 검은 흙으로 질퍽거렸는데, 그런 날이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보다 막걸리집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았다. 저녁 무렵 그 막걸리집들이 있는 시장 뒷골목에는 난전亂廛이 서서 난장판이 되곤 했었다.<sup>20</sup>

대개의 5일장들이 그렇듯 초기에 안양시장에도 번드레한 장옥이나 상점은 없었다. 그래도 장날이 되면 안양 인근에서 몰려드는 사람과 물건들로 가득 메워졌고,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로 넉넉해졌다.

해방 후 시흥군청사가 영등포에서 안양으로 이전해 오면서 안양시장과 안양역 일대는 시흥군 일대의 중심 상권으로 성장해 갔다. 즉 안양시장은 안양의 중심지역인 안양 1번가와 연결해 있는 곳으로, 지리적으로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수암, 군자 등을 배후지로 둔 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안양시장을 이용하는 시흥군 일대의 주민들이 점차 증가하였다.





1970년대 구시장 풍경(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일반화되기 전까지 시흥지역 주민들은 걸어서 안양시장을 오가야 했다. 주변 지역에서 안양시장을 가기 위해 주로 이용한 교통로를 살펴보면 현 시흥시의 매화동과 도창동 등 수인산업도로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안양으로 갈 때는 수인산업도로를 따라가다가 금이동 방죽머리에서 광명시 가학동 벌말과 장터말로 이어지는 소로를 이용했다. 이 길은 안양시 범고개로 연결되었는데 범고개에는 주막이 한두 채 있었다. 금이동 거벌마을에서는 마을 북쪽에 있는 구리넘어고개를 넘어서 방죽머리까지 갔다. 금이동 도리재마을에서 설고개 또는 솔고개를 넘어가면 방죽머리로 갈 수 있었다. 도리재에서 방죽머리로 연결된 길은 광석동 및 물왕동 월미마을 주민들도 이용했다. 물왕동 능골이나 산현동에서 안양으로 갈 때는 금이동 방죽머리에서 안양 범고개로 이어지는 길을 이용하지 않고, 원목감모감의 구녕지고개, 곤드레미고개, 안양 공군부대, 박달삼거리를 경유하는 길로 주로 다녔다. 곤드레미고개는 경사가 심해서 이 고개로 가는 것은 힘이 들었지만 질러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물왕동 능골과 산현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였다.<sup>21</sup> 군포의 금정동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거나 시장을 볼 때는 안양시장을 이용하였는데 군포시장에는 상품이 많지 않아 고생스럽더라도 안양시장까지 철길을 걸어서 갔다고 한다.

한편 1950년대 이후 시흥군 수암면·군자면과 군포읍남면 등지에서 생산된 참외를 비롯한 채소들은 상당수가 안양으로 팔려 나갔다. 당시에는 차로 운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외를 지고 가거나 소나 자전거에 싣고 가야 했다. 1950년대 후반에 장현동에서 광석동-물왕동-목감동을 지나 안양으로 가는 397번 지방도가 확장되고 안양까지 가는 버스가 다니기 시작해서, 이쪽 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었으나 짐을 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하면 잘 태워 주지 않아서 걸어서 가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sup>22</sup>

또한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팔러 갈 때는 새벽 일찍 집에서 출발하였다. 안양으로 가지고 간 소금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기도 하였으나, 안양역 근처에 있는 작은 철공소로 가지고 가기도 하였다. 안양역 앞을 지나 안양동 양짓말로 들어가는 길목에 미륵당이 있었고 이 미륵당 뒤에 철공소가 있었다. 충청도 사람들이 안양에 와서 소금을 많이 사 갔는데, 이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철공소에서 소금을 팔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금을 팔 때 역시 그 자리에서 현찰로 거래를 했다.<sup>23</sup>

안양시장 맨 끝 안양천 쪽에는 쇠전우시장이 있었는데 안양시장이 열리는 날인 5일과 10일에 같이 개장하였다. 이 쇠전은 안양시장 상권이 쇠퇴한 1970년대에도 운영되었는데, 1977년 자료를 보면 수원의 출장소두수는 500두이며, 안양은 120두, 소사는 80두, 신천리는 200



1970년대 구시장(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두, 황어장 130두로 나타나 있다. 출장소두수 중 수소 비율도 기록되어 있는데, 수원은 70%, 안양 80%, 소사 40%, 신천리 30%, 황어장 40%를 보이고 있다.<sup>24</sup>

한편 1953년부터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역의 공간구조가 변해 감에 따라 안양 시장은 입지상의 이점이 점차 사라져 갔다. 제1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53년 3월 11일부터 안양역을 중심으로 안양1·2·3·4·5동 지역 88만 9,808㎡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사업으로 현 중앙로폭원 35m가 개설되었으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1970년 7월 23일에 최종 사업이 완료되었다.<sup>25</sup> 제1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중앙로가 개설됨에 따라 안양의 도시구조와 교통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 사업으로 안양의 중심지역이 안양3·4·5동으로 확대되면서 안양의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교통체계가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인 버스 교통망으로 변하게 되었다. 즉 중앙로의 개설과 새로운 중심지의 등장은 안양시장을 위협하는 요소였다.

1960년 발생한 화재사건은 안양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9월 24일에 새벽 4시 15분경에 안양시장 내 금산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8개의 점포와 13세대가 삼시간에 연소되었는데 화재의 원인은 온돌 과열이었고 피해액은 500만 원이나 되었다.<sup>26</sup>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안양시장은 홍수 때문에 안양천이 범람하면 침수되기 일췌였기 때문에 시장 부지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던 차에 시흥군은 화재사건이 새로운 중심로인 중앙로 부근의 안양4동으로 공설시장 부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1961년 11월 안양중앙공설시장을 새로 개설하였고 안양시장에 있던 상인 중 일부는 새로 생긴 시장으로 옮겨 갔다. 안양시장은 강제로 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었지만 1960년대 중반에 자연스럽게 소멸되었으며, 그 후 안양 주민들은 안양시장을 구시장으로 불렀다.

### 3. 뭐든지 多 있는 시장, 안양중앙시장

시흥군 행정당국은 1961년 11월 6일 안양4동에 시장을 신설하고 안양중앙공설시장이라 이름 지었다. 주요 품목은 야채, 과일, 건어물 등 식품 관련 업종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의류, 한복, 생활잡화 등을 판매하였다. 1960년대는 상권이 구시장에서 중앙시장으로 넘어오는 과도기로, 구시장과 중앙시장의 상권이 공존하고 있었다.

5일장이던 안양중앙시장은 1970년에 들어 상설시장으로 변경되었는데 당시에는 인근 지

역인 수원, 과천, 안산, 안성, 영등포 등에 상품을 공급하는 도매기능으로 변창하였으며 경기 지역 최대의 농수산 집결지이자 유통망 중심지 역할을 하며 경기권 내에서 손꼽히는 시장으로 발전해 간다. 또한 1975년 안양시장상인회인 안양중앙공설시장변영회가 설립되었고 공설시장이 민영화되면서 기존의 공설시장에서 중앙시장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70년대까지 시장에는 두 건물만 있고 그 옆에는 전부 주거지역이었으나 상권이 커지면서 주거지역으로 안양중앙시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1984년 3월에는 20여 년간 사용한 낡은 시장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 개장하였다.<sup>27</sup>

### 1) 안양중앙시장 한복로 풍경

1960~1970년대 안양중앙시장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품목은 옷 장사였는데 그 중에서도 포목이 제일 잘나갔다.

입는 게 최고지. 옷 장사가 최고지. 우리 어렸을 적에는 양말 하나, 애들 것이 기본이야. 더 쓸 돈도 없지만, 지금은 양말이 패션이지만. 옷이 공산품이니까 옷하고 한복, 포목이 잘됐지. 포목 같은 것이 90년대 초까지 아무래도 중간서부터 많이 쇠약해지고 포목 쪽은 여기 3분의 1도 안 남았지. 옷도 그래. 지금은 먹는 것 그제 재래시장이 지금 거의 요기 시장 안에 18개.<sup>28</sup>

1960년대 중앙시장 주변의 주택에는 포목점과 바느질집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가정집에서 인맥을 통해 거래가 되었다. 그 후 '○○포목'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는데 이때는 가정집 건물을 개조하여 슬레이트지붕을 없애고 미닫이문을 뜯어서 내부를 공개한 형태였지만 지금의 쇼윈도와 달리 물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점포 밖에 물건을 진열하였다. 그러다가 포목집들이 가정집에서 나와 가게의 형식을 띠기 시작했고, 일종의 '포목로'가 형성되었다. 그때에는 이화포목 앞에 좁다란 수선집 골목들이 없었으나, 포목로가 형성되면서 포목집을 하면 부자가 된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업종을 포목으로 바꾸기도 하고, 수선집이나 한복집처럼 포목에서 좀 더 세분화한 업종을 만들어 가게를 차리기도 했다.

당시 포목점들은 층층이 진열장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의 동선을 감안해 가장 쉽게 닿을 수 있는 문가의 가까운 가판대에 수요가 가장 많은 물품을 진열하였다. 유아용품과





1968년 안양4동 일대(닐미살로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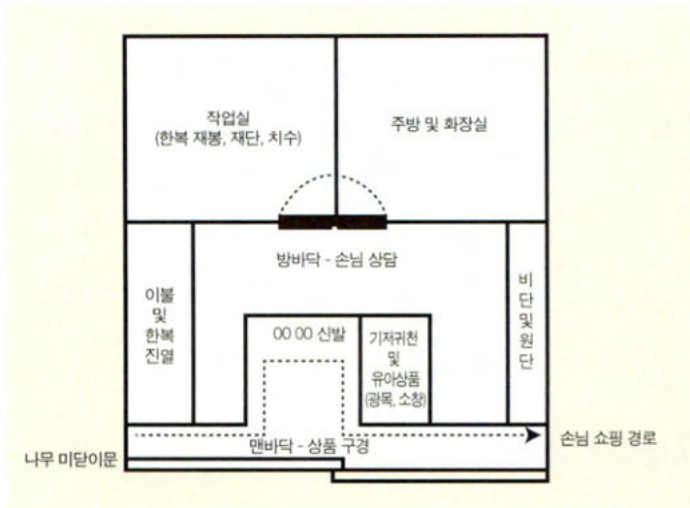


안양중앙시장 입구(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관련된 소창, 기저귀천 또는 의료의 주재료가 되는 광목이나 옥양목 등은 개시를 할 때 산같이 쌓아 놓아도 금세 팔려 나갔다고 한다. 1960년대 포목점은 지금의 주단점·한복집·이불집·수외집·출산용품점 등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물론 주거래는 넓은 폭의 원단이나 비단 등 의료 전반을 다루는 것이었지만 한복을 맞추는 일도 포목점에서 이루어졌다.

손님이 원하는 용도의 옷을 주인에게 의뢰하면, 주인은 손님과 함께 비단이 쌓인 선반에서 맞출 옷의 색을 고르고 몸 치수를 잰다. 그런 다음 따로 바느질만하는 이를 두고서 옷을 생산했다. 포목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따로 바느질을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화포목처럼 가게 안에 바느질을 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든 포목점이 있는가 하면, 방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가정집 안에서 바느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 주문을 맡기는 곳도 있었다. 그때는 집에서 한복 만들기를 점차 하지 않던 시기였고, 지금처럼 한복만을 전문으로 하는 한복집도 없었다. 또 한복을 일상복처럼 편하게 생각하던 세대가 많던 때였으므로 바느질감이 밀려 날을 새는 일이 많았다.

당시 포목점에서는 수의가 가장 큰 거래였다. 주로 삼베로 수의를 해 입었고, 한 번 수의



1960년대 이화포목 실내도(안양 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권 :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21쪽)

를 주문해서 맞추게 되면 상주와 상제 등 단체 주문이 들어왔다. 수의 주문은 큰 액수의 돈이 오갔기 때문에 상주를 생각해서 장례가 끝난 다음에 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포목점의 단골 고객은 임산부들이었다. 일회용 기저귀가 없던 시절이라 기저귀천을 다른 의류와 따로 분리해서 한곳에 높이 쌓아 놓고 팔았다. 또한 가판대의 광목이나 옥양목은 기성품이 없던 당시 모든 섬유 제품의 필수 재료였으므로 동선이 짧은 곳에 보이기 쉽게 진열해 놓았다. 비단은 칠순·환갑·돌·명절 등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을 맞출 때 주소재로 쓰였는데, 100% 실크 본건은 일반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의 소재였고, 화학섬유인 나일론이 유행처럼 포목점의 한복 의류 소재를 휩쓸었다.

1986년 현대주단에 의해 안양 중앙시장에 새로운 주단 골목이 형성되기도 했다. 현대주단은 인테리어 면에서 양강점이나 양복점에 비해 뒤처지고 있던 포목 상가에 새로운 일례를 만들었다. 규모 면에서는 대형화되었고, 영업이 끝날 때 밖에 내놓았던 물품을 안에 들이는 일이 없도록 공간 활용을 잘했다. 진열장을 설치해서 이불을 놓는 공간과 비단이 놓이는 공간, 일반 목면이 놓이는 공간, 그리고 한복이 놓이는 공간 등 새로운 인테리어를 추구하게 됐다. 지금 현대주단이 들어서 있는 골목에는 본래 목욕탕이 있었고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주변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저녁이면 사람들이 다니기조차 꺼려했다는 이 골목은 1986년 이후 변화하게 되었다.<sup>29</sup>

1970~198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리던 안양중앙시장은 도시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때문에



매



삼성주단  
02-448-2928

수제  
임마누엘  
공작선

남 영

한복로(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명동혼수  
☎ 466-9358

이화주단

중남포복

631-44



점차 침체일로를 걷게 된다. 과거 유교식으로 치르던 혼례식이 예식장에서 서양식으로 치르는 것으로 바뀌면서 전통혼례의 모습에서 서양식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객들의 패션 역시 한복이 아닌 양장 위주로 점점 변화되었다.

또 중매보다는 연애결혼이 점차 증가하면서 혼주 보다는 결혼 당사자인 신랑·신부의 의견이 중시되었는데, 젊은 층은 한복을 번거롭고 비실용적이며 예식 때 한 번 입고 마는 옷이라고 여겼다. 젊은이들의 실용적인 가치관에 맞추어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대여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노년층에서도 한복을 한 번 입는 일회성 옷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접 구입하는 대신 대여점에서 하루 정도 빌리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장례문화에도 변화가 생겼다. 윤달에 수의를 마련해 두면 집안 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속설이 있기에 미리 수의를 지어 놓는 풍습이 있었다. 과거에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관을 짜고 뭇자리를 준비해 두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점차 병원 장례식장, 장례문화원 등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곳에서 수의와 관을 한 번에 구입하는 풍토가 확산되었다.

1990년대로 결혼과 장례문화의 변화로 한복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의류 관련 일체를 판매하던 포목점은 점차 그 기능을 분화하기 시작한다. 이불집이 따로 분리되어 나가고, 수의·아기용품·비단만 취급하는 주단, 한복만 디자인하는 한복집 등 각기 기능을 분화하였다. 그러면서 주변 골목으로 이불가게·신발가게·의상소모품가게 등 의류와 관련된 가게들이 자리를 잡았다. 한복을 취급하면서 골무, 바늘, 고무신 등 부수적인 품목까지 함께 다루던 이들은 예전에 비해 더 적은 물품을 취급하고 있다.

중앙로를 들여다보면 포목로는 현대주단의 포목로와 이화주단이 있던 포목로로 나뉜다. 현대주단이 있는 자리는 타올집·신발집·현대주단·기성복집·이불집·속옷가게·양장점·포목집 등 의류와 관련된 다양한 상가들이 들어차 있다. 한편 이화주단 포목 골목은 여전히 거미줄처럼 얽힌 골목에 수선집과 포목집이 1.5평의 작은 규모로 옹기종기 모여 있고, 명동혼수·충남포목·대양상회 등 오래된 포목점들이 낡은 간판을 걸고 늘어서 있다.<sup>30</sup>

한복거리의 과거 포목로라는 명칭이 어려워 고객들로 하여금 부드럽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복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최근 한복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따라 안양중앙시장 내 한복거리의 한복집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안양중앙시장 내 한복집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 중에는 한복거리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였던 곳도 한



함북로 상점과 상품(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안양중앙시장 상인회는 중앙시장 내외부에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상인들도 내부 개별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한복로 활성화 방안으로 한복로 상인들과 상인회의 협조를 통해 한복로에 이동식 전통혼례식장을 설치하고 주말에 전통혼례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전통혼례라는 볼거리와 함께 한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2) 안양중앙시장 순대곱창골목 풍경

1960~1980년대 안양은 공업도시로 발전해 갔으며 서울의 인구와 도시 활동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서울의 공업기능과 거주기능을 분담하는 지역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안양시의 지속적 성장으로 안양중앙시장의 상권은 더욱 커져 갔는데 특히 서민들에게 싸고 질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명성을 높여 갔다.

삼덕공원 부근에 있는 삼덕집순대국은 1960년대 초 삼덕제지 앞에서 포장마차를 열고 공장노동자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내장과 머리고기, 오소리감투가 푸짐한 국밥을 팔기 시작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중앙시장 안에 점포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주머니가 가벼운 노동자들의 허기를 채워 주던 순대국과 곱창은 이제 중앙시장의 명물이 되었다.<sup>31</sup>

1980년대에는 중앙시장에 순대곱창골목이 형성되었는데 골목길을 마주 보고 양쪽으로 순대와 곱창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큰길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가게가 왼쪽에 있는 가게보다 조금 큰 평수이다. 오른쪽 가게들은 대개 8~9평 정도 되고, 왼쪽 가게들은 5평 남짓 된다.



1970년대 안양중앙시장(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광주대명식당’은 1980년대 초반에 개업하여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이다. 그 세월의 깊이라도 느끼듯이 들어서면 입구는 당시 페인트로 쓴 ‘광주대명식당’이라는 글귀가 그대로 있어 옛 맛의 정취를 더한다. 이 순대곱창골목이 대부분 그렇지만, 하



삼덕집(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광주대명식당과 안양집, 목포집 등 급창골목 점포(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루 이를 장사할 게 아니므로 모든 재료는 가장 좋은 국산으로 사용한다. 순대는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게 손질을 하여 썰고, 곱창은 초벌 삶은 것을 공급받아서 다시 물로 여러 번 씻어서 모든 냄새를 제거한다. 양배추, 썩갓, 깻잎과 갖은 양념, 들깨가루로 맛을 내는데 각 식당마다 자신들만의 양념을 개발하므로 같은 순대곱창 볶음이라도 맛은 제각각이다.

순대곱창 골목은 연중 전체 휴일이 딱 3일이다. 추석과 설, 봄철 야유회 가는 날이라 한다. 개인별로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화, 수요일에 반씩 식당 문을 닫는다. 2주에 한 번씩 규칙을 정해서 쉬는 이곳 사람들은 단합이 참 잘 된다. 자신이 한가한 시간에 다른 가게에서 손길이 필요하면 기꺼이 그 식당의 도우미가 된다.<sup>32</sup>

왕별집 아주머니가 이 골목에 들어온 것도 1986년이다. 그 무렵에는 곱창골목이 거의 형성되어서 이미 서른 가구가 들어와 있었다. 지금은 모두 서른두 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곱창골목은 서로 알음알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맥 없이는 여간해서 들어오기 힘들다. 실제로 왕별집과 실비집은 서로 동서지간이다. 이들 외에도 곱창골목에는 인척이나 친척 사이인 집들이 많다. 가게 자리가 나오면 서로 알려 주기 때문이다. 왕별집 아주머니 내외가 장사를 시작한 것은 1986년 10월 3일이다. 남편은 원래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해외도 가고 지방도 다녀야 해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고모한테 안양 중앙시장 쪽에 곱창골목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부가 함께 골목에 와 본 뒤 나중에 남편이 혼자 와서 계약을 했다. 원래 이 골목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지만, 남편이 혼자 와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이런 가게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가게 나는 거 없느냐고 물었더니, 마침 그 가게를 하던 주인이 그러면 우리 가게를 인수해서 해 보라고 권유해서 우연찮게 쉽게 가게를 얻었다.

곱창골목은 대부분 부부가 경영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앞에서 볶아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는 주로 남자들이 도맡아서 한다. 그리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장사를 준비하는 것도 남자들 몫이다. 순대와 곱창은 순대·곱창공장에서 아침에 가게 앞으로 가져다준다. 손질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가게에서는 물로 몇 번만 깨끗하게 씻어서 썰기만 하면 된다. 채소는 남부시장에서 도매로 가져다준다. 이처럼 재료 대부분이 손질되어 배달되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준비하는 일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왕별집 아주머니는 이 음식이야말로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식당에 가면 많이 달라는 소리들을 잘 안 하지만, 손님들이 이곳에 오면 으레 많이 달라고들 한다. 그



순대곱창골목(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2001아울렛(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E-마트(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리고 학생들도 밥 볶을 때 밥 좀 많이 넣어서 비벼 달라고 주문한다. 곱창골목은 주걱으로 그냥 퍼서 주고 채소도 저울에 재서 주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냥 담아 주고, 또 내가 좀 더 쥐야겠다 싶으면 거리낌 없이 더 주기도 하니까 양이 푸짐하다고 아주머니는 생각한다.

맨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처음 해 보는 것이라 어렵기는 했지만, 손님들이 더 많아서 재미있기도 했다. 그때는 고등학생·대학생 뿐만 아니라 주변에 군부대가 있던 때라 군인들도 많이 왔다. 주말이면 군인들이 외박을 많이 나왔고 또 방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장사를 했었고, 경기도 훨씬 나왔다.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에도 1~2년은 괜찮았는데, 그 후 3~4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이어서 지금은 경기가 어렵다고 느낀다.<sup>33</sup>

### 3) 안양중앙시장의 위기와 대응<sup>34</sup>

1990년대에 안양중앙시장은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유통시장 전면 개방<sup>1996년</sup>이 허용되어 벽산쇼핑센터의 건설을 시작으로 2001아울렛, 롯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안양중앙시장의 근처에 들어서게 되고 수많은 편의점과 할인마트가 안양중앙시장 인근으로 유입되면서 시장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 점포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안양중앙시장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IMF경제위기로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과거 안양중앙시장 근처의 주변경쟁 상권으로는 남부시장과 박달시장만이 존재했으나 1996년 WTO 가입으로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2001아울렛<sup>1997년</sup>, E-마트<sup>1997년</sup>, 롯데백화점<sup>2002년</sup> 등과 대형유통마트가 안양중앙시장 근처에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2001아울렛은 안양중앙시장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고객층과 구매품목이 상당수 겹쳤다. 또한 전통시장인 안양중앙시장과 달리 환경 면에서 청결하고 편리한 서비스



롯데백화점(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홈아APT

↑ 안양시 • 동부지역

- 가나공인중계사
- 숯불바베큐
- 신용주차장
- 빠다거점지당
- 축산물유통전문점금천가

- 미스미마
- 안양성모약국
- 행커피숍
- 관음현역
- 도경사(2층)
- 선호수신
- 일신건어물
- 대명고전가구마트

### 상인회관



- 점마트
- 가구점터(2층)
- 중앙민물장터
- 대아민물장터
- 신도달강정
- 안산쌀야채

- 오수백미용실
- 대원식품공판장
- 혁성떡방앗간
- 대박통들
- 대구농림영양안전문
- SK텔레콤(스마일)
- 고향농산 고추방앗간
- 2080노래방
- 전주식당
- 현우일번가
- 이흥호떡방앗간
- 연교2층음식점

### 장내 1로

- 한일호텔
- 오복떡집
- 인진꽃집
- 중앙불교사(2층)
- 철학원(2층)
- 대박유전회포자
- 한일가구
- 중앙가구할인마트
- 부신자갈치
- 중앙건강원
- 삼우달
- 화성고추기름집
- 부산할매떡집
- 소명산방
- 연수내전복
- 보리법피계전문
- 중하추동

- 영원고추상회
- 삼성가구
- 고사리식품
- 부평상회
- 중앙수신
- 대원상회(고추/기름)
- 간여물송이식품
- 우리집산치
- 영동식품(김치)
- 학주상회
- 우리집김치
- 살비집
- 귀걸이애
- 미도홍어
- 오향떡방
- 돼지김밥
- 제일고추기름집
- 소문난김밥
- 농부김밥전문점
- 낙원떡집
- 공주떡(죽방)
- 강경직방점
- 군자간여물
- 한방왕죽방
- 경기지정한우판매점
- 보성떡집
- 현대반찬
- 형자수신

### 명물순대곱창골목 곱창골목

- 노란꽃대지집
- 제일닭집매물
- 한우전문(삼미정육점)
- 중앙닭집
- 목포집
- 보성만물상회
- 고기나라
- 시은소방
- 원도말패션
- 맛나식품
- 당진떡집
- 콩시우방시루
- 제일식품
- 만물상회(해물전문)
- 중앙정육점
- 장춘떡방
- 한우정육점
- 중앙닭집
- 목포집
- 보성만물상회
- 고기나라
- 시은소방
- 원도말패션
- 맛나식품
- 당진떡집
- 콩시우방시루
- 제일식품
- 만물상회(해물전문)

### 김밥로

- 만물상회(간지음식)
- 미성한복(한복)
- 88상회(BYC/TRY 속옷)
- 지평모드/여성시대의류
- 은혜내과일
- 무주건(정육)
- 진신미화점(신발)

### 유치원로

- 종로곱창떡방
- 손길죽석떡방
- 오리지남죽석떡방
- 경상도제유
- 서천상회
- 소명이내정
- 따봉김밥
- 개고기총판(장수촌건강원)
- 이조떡전문점
- 늘푸른수산
- 가희내수산
- 안양떡집
- 비야김밥
- 무안국산개고기
- 동우상회
- 종로약국
- 소정축산
- 충남떡집
- 홍두깨손칼국수
- 금산간여물
- 부부떡집
- 삼흥떡집
- 충남총신회
- 공주나물야채
- 부흥상회(해물/BC/축산/연호문)
- 중앙정육
- 유향상회
- 중앙한식부페(2층)
- 시은양행(BYC)
- 대우커피(커피)
- 해피몬(이불)
- 한방왕죽방
- 농축산물직거래장터

- 정일DC마트
- 정일떡방
- 부흥상회(해물/BC/축산/연호문)
- 중앙정육
- 유향상회
- 중앙한식부페(2층)
- 시은양행(BYC)
- 대우커피(커피)
- 해피몬(이불)
- 한방왕죽방
- 농축산물직거래장터

- 명오스종합화장품
- 경화상회
- 행이 가득한집
- 양말관재리할인매장
- 대도패션
- 제일사
- YJ상사
- 태성오리
- 다은정
- 중앙교회
- 송희분식
- 유영패션할인매장
- 부라더미싱
- 중앙수족관
- 고려컴퓨터학원
- 백종근홍패션
- 미소
- 다나패션
- 시글죽집
- 삼흥다방(차하)
- 달성명궁
- 농축산물직거래장터

### 화신로

- 할아버지야채
- 노래광장 조은님(차하)
- 호자만두
- 장삼이
- 여의도떡집
- 한독안경
- 아리따움
- 로얄커피
- 사랑이 꽃피는 현역
- 현대주단
- 최종호의원(2층)
- 정자한고기총각네
- 골드피아
- 유빈이네꽃
- 정자한고기총각네
- 한국유니
- 하이패션할인매장
- 트라이
- 화장품홍보매장
- 남일사
- 김산고려
- 충남김비
- 인성도매
- 세마을금고(안양중부점)
- 은경한복(한복)
- 미성사(한복)
- 교동버지락갈국수(음식)
- 명동타운(의류)
- 최은희한복
- 국제안경

- 정일DC마트
- 정일떡방
- 부흥상회(해물/BC/축산/연호문)
- 중앙정육
- 유향상회
- 중앙한식부페(2층)
- 시은양행(BYC)
- 대우커피(커피)
- 해피몬(이불)
- 한방왕죽방
- 농축산물직거래장터



중앙교회



2001 아울렛





아케이드가 설치된 안양중양시장(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를 제공하며 시설 면에서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안양중양시장의 식품상품보다 의류나 잡화류 제품의 매출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안양중양시장과 400m 정도 떨어진 안양역에 위치하여 전철역이라는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안양은 물론 의왕, 군포, 과천 및 수도권 남서지역 주민들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쾌적한 시설과 백화점 특유의 고품격 서비스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일부 의류나 잡화 품목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고객층이 겹치지 않아 안양중양시장과는 약간의 경쟁관계를 보인다. 비산동에 위치한 E-마트 안양점은 안양 구시가지와 평촌 신시가지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도 발달되어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안양중양시장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안양중양시장의 오래된 시설과 낙후된 시장 환경의 개선이다.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안양중양시장 상인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도에 신관과 별관의 개보수를 기점으로 2004년부터 4년 동안 안양중양시장 전체에 아케이드 공사를 실시하였다. 아케이드의 설치로 전통시장에 반원형 지붕을 씌워 눈과 비를 차단하여 시

장 이용객들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아케이드에는 보안등도 설치하여 시장 이용객들이 밤 시간대에도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협소하면서도 채광마저 안 되어 어두컴컴했던 기존 시장의 모습은 리모델링을 통해 각 상점의 간판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새로운 시장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아케이드의 설치는 안양중앙시장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양중앙시장을 이동 통로로 이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안양중앙시장은 아케이드 설치 외에도 안양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자가용 운전자 고객들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며 안양중앙시장 내부에 5개의 화장실 공간을 만들어 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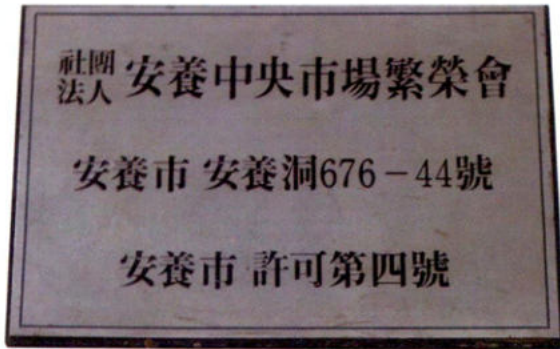
전통시장은 일반적으로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과 정도가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안양중앙시장 상인회도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부족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중앙시장 내 공간에 고객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고객휴게실, 수유실, 컴퓨터실, 고객불만센터 등을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고객들과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시장 홍보를 위해 중앙상인방송국을 2009년 10월에 개국하였으며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와 안양시청의 연계를 통한 택배운송사업 추진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안양중앙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함께 바뀌고 있는 것이 상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활동의 실시이다. 안양중앙시장 상인회는 상인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맞춤형 상인친절교육과 위탁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안양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안양대 평생교육원을 통해 상인들의 소비자 중심적 경영마인드를 고양하기 위하여 시장 교육 및 CEO 교육을 하는 상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인들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선진시장 탐방 해외연수, 인터넷 활용 및 OA 프로그램교육과 같은 IT정보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고자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다. 안양중앙시장은 안양대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특성화, 전



시장 홍보책자



안양중앙시장번영회 간판



시장상인회 등록증

문화 교육을 통한 고객 끌어들이기 전략, 체계적인 홍보 전략, 효율적인 판매 기법,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 현대화 전략 등 각종 경영 마케팅 기법을 제공받고 있으며, 안양대학교는 안양중앙시장을 통해 캠퍼스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실물 경제 자연학습장을 제공받고 있다. 이 외에도 안양중앙시장은 기존 고객을 앉아서 기다리는 방식에서 직접 발로 뛰어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으로 다양한 이벤트전통한복 축제, 무료전통혼례, 순대볶음 빨리 먹기 대회, 품바공연, 풍물놀이, 척사대회, 장터 가요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양중앙시장은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소개책자인 '뭉든지 다 있는 시장'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안양중앙시장은 현재 등록시장 상인조직인 번영회안양중앙시장번영회, 인정시장 상인조직인 상인회안양중앙시장 상인회, 노점상 상인조직인 안영회안양중앙시장 영세상인연합회 등 3개 상인조직이 안양중앙시장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안양중앙시장번영회는 안양중앙시장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등록시장 상인조직으로 안양중앙시장의 출발과 함께 이어진 명맥이 있는 상인조직이나 다른 상인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대부분이 안양중앙시장 내의 가운데에 위치한 본동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주변의 인정시장과 노점상들이 거대해지면서 번영회 상인들의 안양중앙시장 내에서의 위상이 많이 축소되었고 인정시장 상인조직인 상인회와 정부의 지원과 이벤트 행사 문제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등록시장 상인들은 주변 상인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아일랜드 현상을 겪고 있다. 번영회 상인대표는 등록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아일랜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인들이 주로 장사하고 있는 본동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안양중양시장(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건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한 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양중양시장 상인회는 등록시장의 10배 규모에 이르고 있는 인정시장 상인조직으로 현재 안양중양시장의 많은 상인들이 가입되어 있다. 상인회는 1995년 처음 발족하였으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4에 의해 등록시장 주변의 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인정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다른 상인조직에 비하여 역사는 짧으나 안양중양시장 내의 많은 상인들이 가입된 거대 조직으로 안양중양시장 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이벤트와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혁신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영회는 안양중양시장 영세상인연합회의 줄임말로 안양중양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인들의 상인조직이다. 안영회가 언제 처음 발족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등록시장이 처음 생긴 시점부터 그 맥을 같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에 강력한 노점상 단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노점상들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의 노점상 단속완화정책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시기가 겹치면서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노점상들이 전통시장 내에 부분별하게 자리 잡으면서 시장의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노점상

은 수도와 전기의 사용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다른 점포상인들과 첨예한 갈등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 수도와 전기, 배수사업으로 노점상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인 청결문제가 해결되고 무분별하게 자리 잡고 주변 상인들과 겪던 갈등문제는 노점상인들 스스로 구획된 자리를 준수하는 방안으로 일정 부분 해결되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설치된 아케이드 공사는 노점상인들에게 굶은 날씨에도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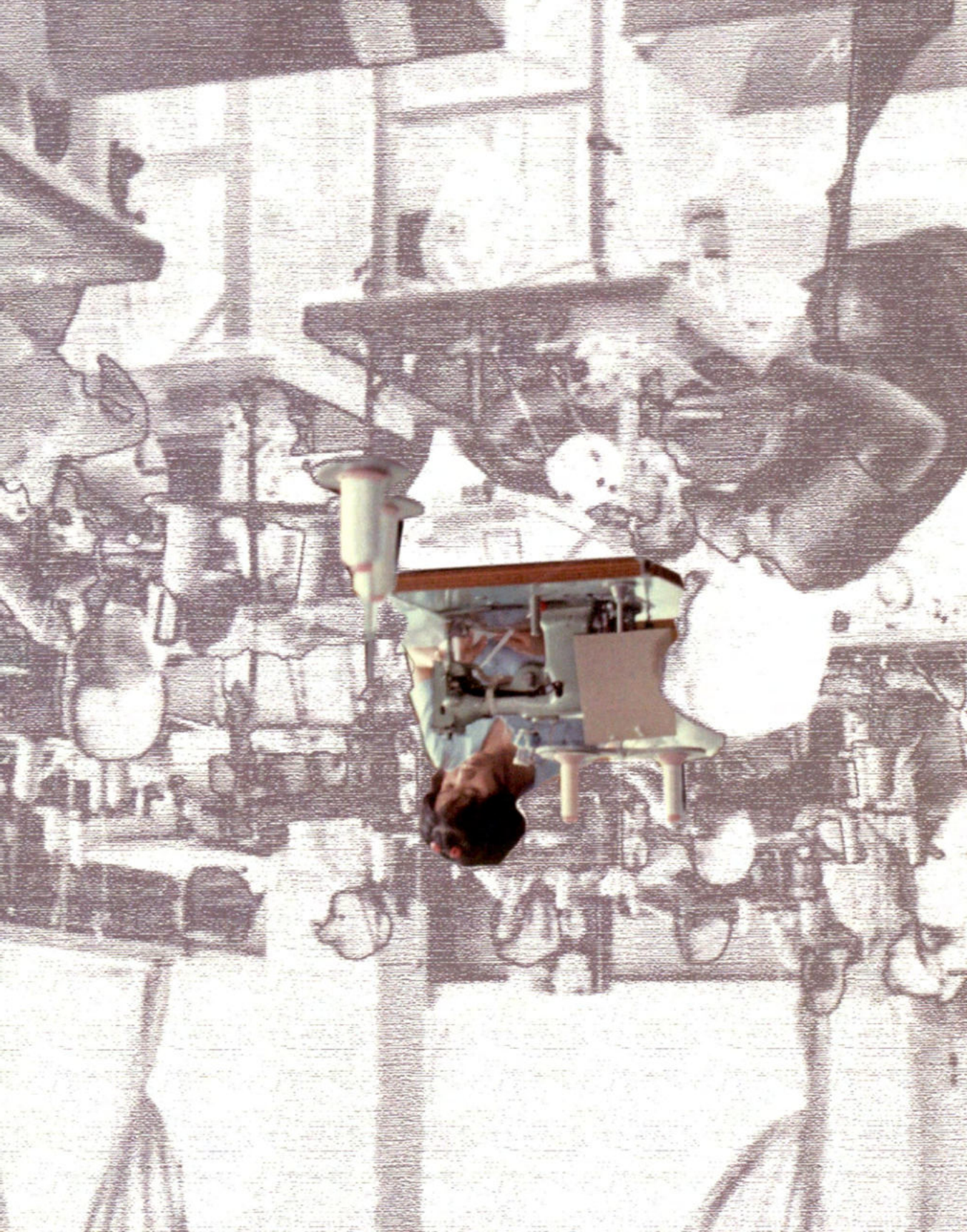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지속되던 상인조직들 간의 갈등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안양중앙시장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외부경쟁업체에 대한 공동적 대응을 통해 상인조직들 간의 결속이 강화되었고 안양중앙시장에 대한 유대감이 일시적으로 형성되면서 수면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와 영세상인연합회가 통합되어 상인연합회를 구성하였고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의 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충돌 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아 있다.

## 주)

- 1) 군포시사편찬위원회, 『대야동 마을지』, 2008, 73쪽.
- 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5권 : 자료로 보는 안양』, 2008, 331-345쪽 참조.
- 3) 朴千宗 汝矣身乙軍浦川場及安養場○所場監考差定爲去乎着○舉行宜當事. 甲子 七月 十一日.
- 4) 下西面主人 場稅納數甚夥然當此推納者挫以舉行減極可○杖同誓捧○監考張今金身乙火速捉來宜當事. 丙寅 三月初九日.
- 5) 張者斤金 汝矣身乙軍浦川場升匠○差定爲去乎着實舉行宜當向事. 庚辰 正月 日.
- 6) 「果川縣下西道陽里居張黔金 白活(庚辰 六月).
- 7) 「道內果川縣居張黔金 議送(庚辰 八月).
- 8) 「下西面道陽里居軍浦市監考張黔金 白活(辛巳 十一月).
- 9) 조선총독부철도국, 『朝鮮鐵道驛勢一斑』 상권, 1914, 434-435쪽.
- 10) 「會社又ハ個人ノ經營ニ屬セサル市場ノ經營者指定」, 大正 3年 12月 25日, 『조선총독부관보』 제 723호, 1914년 12월 29일.

- 11) 「軍浦場市場開市日變更許可」, 大正 5年 12月 29日, 『조선총독부관보』 제1327호, 1917년 1월 10일.
- 12) 「市場設置ノ件」, 大正 14年 12月 23日, 『조선총독부관보』 제4016호, 1926년 1월 12일.
- 13) 「軍浦場市場廢止」, 大正 15年 1月 6日, 『조선총독부관보』 제4016호, 1926년 1월 12일.
- 14) 「과천군 소재 場市 관련 보고와 지령」, 건양 원년 2월 24일, 『報告書』.
- 15) 안양장시 원태봉의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십 년 동안 토지의 세금을 수원영(水原營) 집사(執事)가 거두어 오던 중 올미던 세금부터 내장원에서 각 둔토에 세금을 거두는 감독을 파견하였는데, 안양둔에 파견된 감독 현학규가 이 토지를 둔토라 하여 새로운 규정을 정하고 올(밤) 10말과 땀감 15묶음을 거두어 납부도록 하고 해마다 이대로 도조를 납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작년에 파견된 감독은 새로운 규정을 정하였는데 밤 10말을 더 납부하게 하고 땀감은 100여 묶음을 더 내게 하였다. 이에 사실을 조사하여 조치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 16) 『황성신문』, 1908년 1월 19일.
- 17) 『동아일보』, 1926년 12월 23일.
- 18) 「安養市場一週紀念」, 『동아일보』, 1927년 6월 1일.
- 19) 『동아일보』, 1927년 6월 7일.
- 20) 『안양광역신문』, 2010년 11월 12일.
- 21) 양선아, 『시흥시사 5 : 시흥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228~229쪽.
- 22) 양선아, 『시흥시사 5 : 시흥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243쪽.
- 23) 양선아, 『시흥시사 5 : 시흥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 251쪽.
- 24) 김성호, 『한국농촌시장의제도와기능연구 그 사적 고찰과 구조기능의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1977.
- 2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4권 : 살기 좋은 환경도시 안양』, 2008, 7쪽.
- 26) 『동아일보』, 1960년 9월 27일.
- 27) 『경향신문』, 1984년 2월 21일.
- 28) 『만안의 기억』, 안양문화원, 2012, 194쪽.
- 29)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권 :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20~22쪽.
- 30)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권 :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33쪽.
- 31) 『만안의 기억』, 안양문화원, 2012, 176~177쪽.
- 32) 『만안의 기억』, 안양문화원, 2012, 169~170쪽.
- 33)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권 :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26~27쪽.
- 34) 최인혁·김재철, 「“뭉든지 多 있는 시장” : 안양중앙시장의 도전과 대응」, 『KBR』 제15권 제3호, 한국경영학회, 2011년 11월, 141~168쪽 참조.





안양의

---

공업화와

---

노동자들의

---

삶

---

## 제5장 안양의 공업화와 노동자들의 삶

### 1.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노동자

오늘의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산업화와 경제개발이다. 산업화는 도시화, 대중사회화와 인과율적으로 결합되어 사회 전체를 비가역적으로 변모시킨다. 산업화는 자연경제에 가까운 농업을 대신해 기계와 공장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생산력을 구성해 냈다. 역사상 산업경제에 견줄만한 생산력을 달성한 사례는 없다. 생산력의 폭발로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단지 경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를 위시하여 삶의 거의 모든 부면을 변모시킨다.

이른바 ‘개발연대’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근대화가 곧 ‘농업사회를 뜯어고쳐 공업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주도한 경제개발은 곧 공업화를 의미했다. 안양은 바로 이 공업화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 낸 도시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구 2만의 전형적인 소읍에 불과했던 안양은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서울 인근의 대표적인 위성 공업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안양의 공업화는 방직공업과 같은 경공업에서 시작해 전기전자와 기계와 같은 중화학공업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산업으로 발 빠르게 변모해 왔다. 또한 제조업 등의 2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3차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전형적인 산업화 이후 현상도 보여 준다. 즉 대규모 제조업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가고 그 자리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변모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21세기 들어와 안양은 더 이상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공업도시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공업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안양의 특성은 여전히 오늘날의 안양에도 커다란 흔적

을 남기고 있다. 안양시가 다시 과거의 농촌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공업화의 영향 역시 오늘날의 안양을 구성하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인다. 즉 오늘의 안양지역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업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업화를 통한 도시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안양은 노동자의 도시로 출발했다. 거대한 공장은 거대한 노동자 집단을 필요로 했고 특히 안양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중심이었기에 대규모 노동력의 집중이 불가피했다. 다시 말해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동반한 도시화 과정은 공업화의 필수적 현상이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공장의 노동력이자 도시의 거주민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다만 공장에 취직만 한 것이 아니라 도시로 삶의 기반 전체를 옮겨야 했다.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공업도시였고 그들은 도시의 공장 노동자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이중의 낯선 세계로 진입한 셈이었다. 공장과 공장의 노동도 낯설었지만, 공장 밖의 삶도 이전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공업화는 곧 이촌향도의 역사다. 노동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시골로 불리는 농촌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촌향도는 단지 거주공간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간의 이동을 매개로 한 삶 전체에 걸친 총체적 변화과정을 의미했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가치관과 관습, 문화와 언어생활, 심미적 감각과 몸짓조차 변모해야 했다. 나아가 종교와 내면풍경조차 과거의 그것과 확연히 달라지기도 했다. 도시 '물'을 먹은 그들은 이미 고향에서조차 낯선 타인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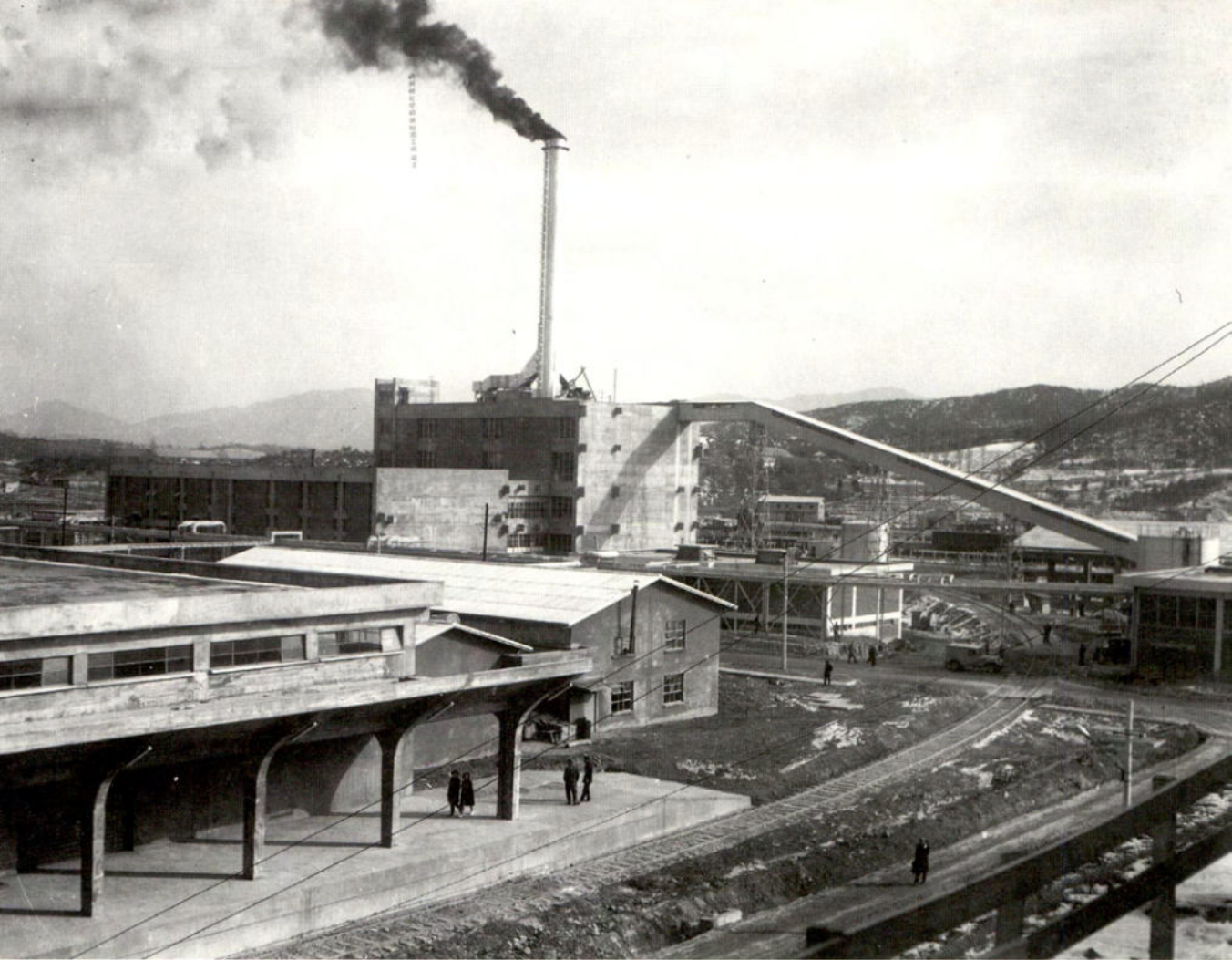
도시는 성공과 출세의 화려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버리는 곳' 이기도 했다. 도시로 가 출세한 존재는 곧 시골이 부여한 정체성 대신 도시의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몸과 마음에 각인시킨 존재들이다. 그들의 성공은 시골의 시각으로 보자면 화려하지만 타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즉 도시는 출세와 타락이 공존하는 위험한 시공간이다. 도시의 삶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성공을 위해 타락해야만 하는 곳일 수 있었다.

공업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은 공장 밥을 먹고 도시물을 먹으면서 촌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었다. 공장의 노동도 힘들었지만 도시민으로서의 삶도 만만치 않았음이 분명하다. 도시는 시골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수직적 질서가 분명하고 계층적 차이가 선명하며 공간적 분할이 극심한 곳이다. 주체하기 힘든 거대한 부가 온갖 풍요와 사치를 현시하는가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버거운 삶들이 도처에 있었다.



1968년 안양3동 대농방직(닐 미살로프)





1966년 흥한비스코스 공장(경기도청 제공)

전국에서 모여든 다양한 지역 출신들 속에서 크고 작은 차이들이 차별과 갈등으로 불거지는 곳이기도 했다. 입에 붙은 자연스러운 사투리가 어느새 천형처럼 열등감의 상처가 되기도 했고 시골 출신이라는 것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낙인처럼 들러붙어 괜히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곳이 도시였다. 좀처럼 마음을 주고받을 친구와 동무를 만들기도 힘들었다. 곳곳이 낯설고 위험하고 싸늘한 것들로 둘러싸인 곳이 도시였다.

특히 돈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곳이 도시였다. 도시가 주는 모든 고통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돈처럼 보이는 곳이 도시였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 도시였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돈이었고 공장과 도시로 이주해 온 결정적 이유도 돈이었다. 도시와 공장이 주는 모든 고통과 위험은 오직 돈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다.



1968년 퇴근하는 노동자들(날 미살로프)

노동운동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집합적 노력이 집약된 거대한 사회운동이었음이 분명했다.

1980년대 노동운동이 돈도 돈이지만 인간다운 대우와 인간적인 삶을 갈구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화폐량으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전망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가 된다. 노동운동은 단지 돈 몇 푼 더 받자고 하는 경제행위 이상의 것을 보여 주고자 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행위가 그러하듯이 노동운동 역시 진공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현실의 모든 모순과 질곡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자본운동을 떠난 노동운동이 따로 있을 수 없었기에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한 운동조차 현실의 압력과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 2. 안양의 공업화 과정과 공단의 형성

### 1) 해방 이후 공업 상황

한국의 공업화가 처음으로 본격화된 것은 일제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안양지역의 근대적 산업시설도 일제시기에 최초로 등장했다. 현재 안양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산업시설은 1932년 안양1동 구 대농터에 설립된 조선직물주식회사였다. 이 회사는 당시 안양의 대지주였던 일본인이 1만 평의 토지를 공장부지로 하여 자본금 100만 원으로 창립되었다. 뒤이어 석수동에 조선견직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sup>1</sup> 안양지역은 경부선이 통과하고 서울, 특히 영등포 지역과 인접해 있기에 산업시설이 입지하기에는 좋은 지리적 조건이었다.

해방 이후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의 공업은 오히려 발전하고 있었다. 1949년 기준으로 안양지역에 총 14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그 중 3개의 공장만이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것이었고 나머지는 해방 이후에 건설된 것이었다는 점을 통해 안양 지역의 공업이 해방 직후에도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느리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안양의 공업은 한국전쟁을 통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 복구 과정을 통해 안양의 공업화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 초반에는 전쟁 피해를 극복하고 전쟁 이전보다 더욱 확대된 공업 현황을 보여 주었다.



〈표 1〉 해방 전후 안양지역 기업체 현황

(1949년 자료)

공장명	창업일	공장 면적 (평)	생산품		종업원		
			종류	생산량	계	남	여
조선제도공업합작회사	1937.11.12.	1,200	제재(製材)	156,000材	9	9	-
삼길양산제조소	1945.07.	400	양산, 우산	10,000본	6	5	1
조선견직주식회사	1945.10.01.	1,026	본건 및 인건물	91,430마	165	32	133
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	1945.10.03.	5,741	석면시트박킹 박작용 고무로루 굽동박킹	37,000kg	77	64	13
안양직물공장	1945.10.30	351	본건 및 인건물	15,518마	36	9	27
삼덕제지주식회사 안양공장	1945.10.	4,784	모조지·선화지	803,446파운드	103	80	23
조선직물주식회사	1945.	5,853	본건 및 인건물	192,476마	298	144	154
낙랑실업공사	1946.02.	61	본건 및 인건물	100,000마	37	15	22
제일방직공장 안양공장	1946.12.07.	10,810	모직물	500마	117	60	57
남해산업공사 안양공장	1947.09.	10,529	건축공업렉쓰 철도침목	10,000평	43	43	-
조선특자기주식회사	1948.09.10.	240	도자기 제품일반	70,000개	12	12	-
금성방직주식회사 안양공장	1948.10.05.	5,600	면사	850곤	138	88	50
삼신제도공업사	1949.09.15.	120	도자기 제품일반	40,000개	15	12	3
조선빠이루직공업유한회사	1950.03.18.	700	시루, 메리아쓰	-	12	9	3
14개		47,415			1,068	582	486

출처 : 시흥군, 『금천지』, 1950(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008에서 재인용).

〈표 2〉 1961년 안양읍 안양리 소재 기업체 현황

사업체명	창업일	공장면적(평)	생산품	종업원수(명)		
				계	남	여
유한산업 안양공장	1941.02.28.	405	제약	92	18	74
삼덕제지 안양공장	1945.11.25.	5,817	모조지·선화지	130	107	23
금성방직 안양공장	1948.10.05.	16,051	면사포	2,844	506	2,338
태평방직 안양공장	1953.11.13.	3,406	마직물	328	84	244
고려석면 안양공장	1956.04.13.	1,635	석면 및 고무제품	113	78	35
한국특수제지 안양공장	1960.04.01.	12,018	모조지	180	154	26
6개		39,332		3,687	947	2,740

출처 : 시흥군, 『시흥군 통계연보』, 1962.



1960년대 안양시가지 전경(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에는 대규모 방직공장이 속속 들어섰고 종업원 수도 전쟁 전 1,000여 명에 불과했던 것이 네 배 가까운 3,600명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산업화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1961년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안양지역의 공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61년 6개에 불과하던 기업체 수가 1966년에는 32개로 늘어났고, 1971년도에는 64개가 되어 10년 만에 무려 10배가 증가했다.

업종별 성장 추세를 보면 식료품 제조업은 1961년 전무상태에서 1971년에는 9개로 증가했고, 섬유업은 1961년 2개에서 71년 8개로 늘어났다. 제지업도 1961년 2개에서 1971년 13개로 급증세를 보였다. 화학업은 1966년 2개가 1971년에는 13개로 5년 동안에 무려 11개가 늘었고, 의약업도 1961년 1개에서 1971년 4개로 크게 늘어났다. 기계·금속과 전기·전자는 1966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4개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기타 제조업은 1966년 3개에서 1971년 7개로 늘어났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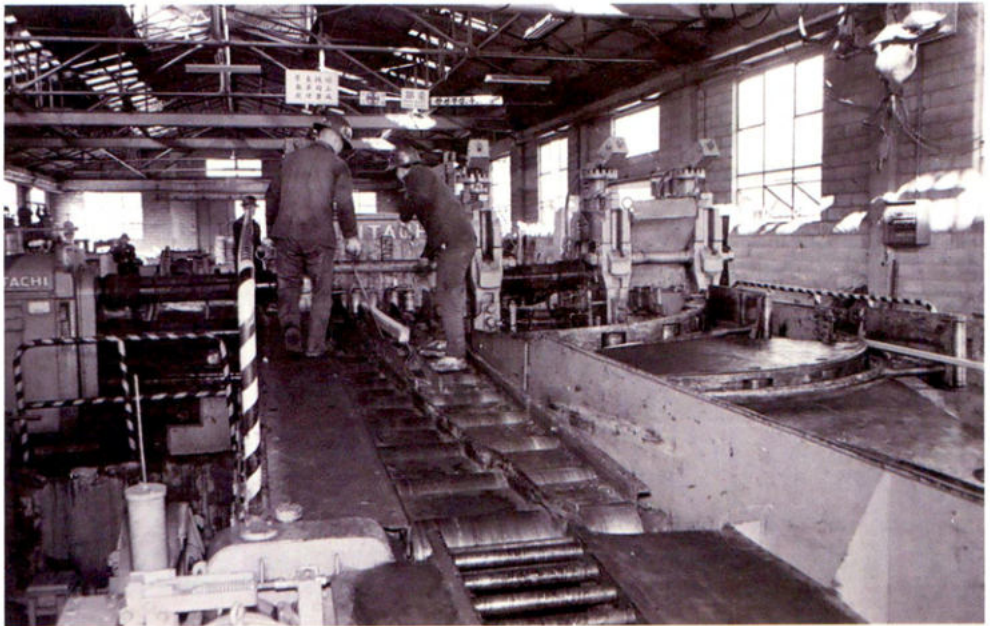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안양의 기업체는 금성방직이었다. 금성방직이 들어선 곳은 대농단지라 불리는 안양3동과 박달동 일대였는데, 담장 둘레만 십 리라 했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



1966년 동양나일론(안양상공회의소 제공)



1960년대 후반 삼양하드보드(안양상공회의소 제공)



1969년 금성사(경기도청 제공)

다. 이곳은 일제시기인 1932년 조선직물회사가 처음 공장 터로 자리를 잡았다가 1944년 친일 재벌로 유명한 박흥식이 인수하여 조선비행기주식회사를 세우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적산으로 규정되어 미군정 소유가 되었다가 김성곤이 방적기 431대를 불하받아 1948년 10월 금성방직을 설립하고 1949년 3월에는 공장을 완공하게 되었다. 공장 완공 당시 종업원 규모는 138명이었다.<sup>3</sup>

## 2) 1970년대 이후 안양의 공업화

1960년대 안양의 공업이 어느 정도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1973년 안양의 시 승격은 공업발전의 결과이자 새로운 차원의 공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달러가치 하락, 오일쇼크로 세계경제 위기와 함께 한국경제도 위기에 빠져들게 되었고 안양 지역도 그 영향을 피해 갈 수 없었다. 1974년 9월경 안양지역에는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해 700명에 1,6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다.

1973년 안양상공회의소가 관내 200여 공장을 대상으로 평균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상반



1970년대 인덕원 부근(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기 가동률이 전년도의 71.9%보다 5.1%가 떨어진 69.8%를 나타냈다고 하며, 특히 섬유업계와 전자업계의 피해가 심각해 각각 5.4%와 10.2%씩 하락했다.<sup>4</sup>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조업을 중단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끼쳐 '박달동 소재 삼아 알미늄 공장과 삼진 펌프공장 등 많은 공장들이 유훈공급이 끊겨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 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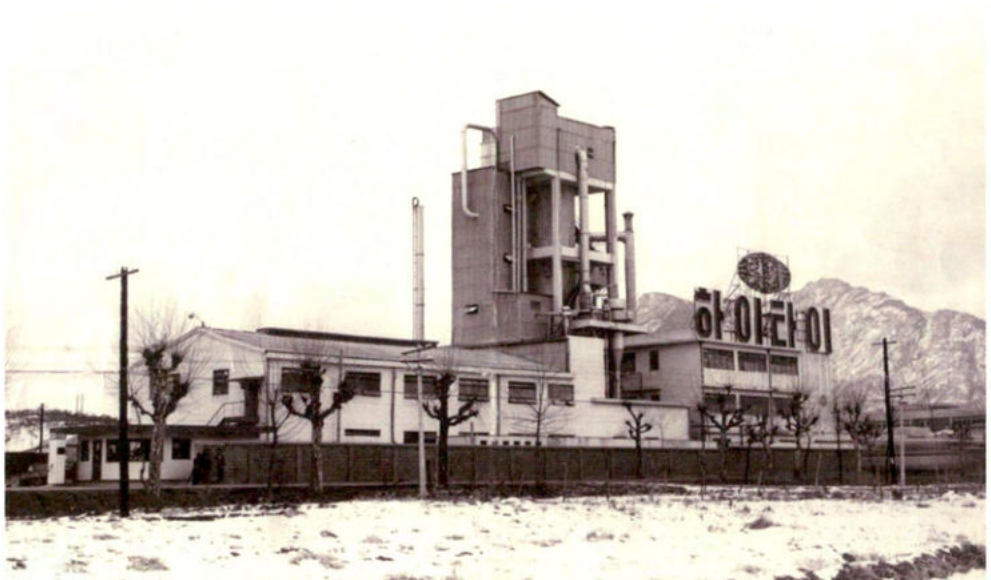
그러나 오일쇼크의 충격 속에서도 안양의 공업은 확대일로를 걷게 되었다. 1971년 64개였던 기업체 수가 1975년에는 169개로 증가했고 1979년에는 369개까지 폭증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는 2차 오일쇼크에 이은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지역의 기업체수는 1981년에 409개를 기록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가히 기업과 공장설립의 폭발이라 할 만했다.<sup>6</sup>

1970년대 안양의 공장 분포를 보면 안양7동과 호계동 그리고 박달동이 눈에 띈다. 1970년대 10년간 안양에서 창립된 기업이 가장 많은 동은 안양7동이 62개, 호계동이 47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박달동이 42개소였다. 평촌동은 창립기업이 33개로 좀 적었지만 기업 규모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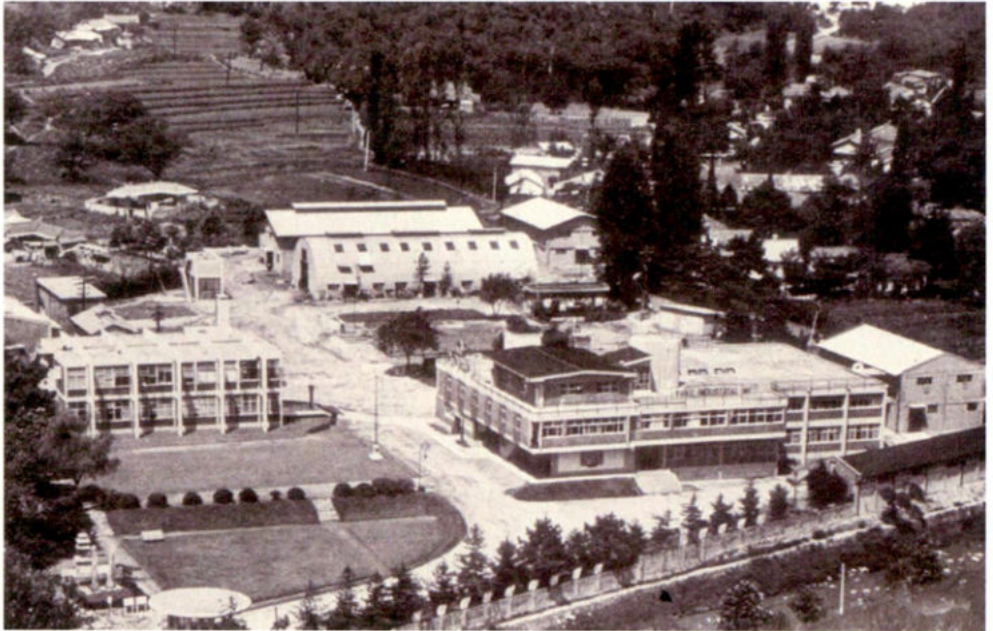
규모가 큰 기업을 보면 호계동의 동양나일론, 평촌동의 동일방직, 동양섬유, 안양1동의 대



1970년대 관양2동 흥안로 오뚜기식품(안양상공회의소 제공)



1970년대 럭키화학 안양공장(안양상공회의소 제공)



1980년대 유유산업(안양상공회의소 제공)



1970년대 기계조립공장(안양상공회의소 제공)



농, 안양2동의 삼풍, 안양7동의 태흥무역 등이었다. 이중 대농과 삼풍을 제외하고 서울과의 인접성보다는 공업용수, 수송 등이 유리한 경부국도변에 주로 밀집되어 있었다. 1960년대 말까지는 안양 1·2동이 중심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으로 가면 식료품, 제약공업은 서울과의 근접지역인 석수 1·2동에 유리공업은 박달동에, 섬유공업은 평촌동에 전기전자공업과 화학공업은 호계동에 각각 치중된 상황이었다.<sup>7</sup>

한편 종업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1971년 1만 2,975명에서 1976년에는 2만 6,914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1979년에는 3만 7,069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경제불황으로 말미암아 1981년에는 3만 4,308명으로 약간 감소 추세를 보여 주었다. 물론 이러한 노동력의 감소경향에 설비자동화 등이 기인한 바도 컸다고 할 수 있다.<sup>8</sup>

기업 규모별로 보면, 1981년의 경우 300명 이상의 대기업체가 21개로, 이 중 1,000명이 넘는 업체도 7개나 되었다. 중소기업체는 총 388개로 이 중 100명 이상이 47개, 50~100명 미만 이 73개, 50명 이하가 268개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94.9%로 전국 평균인 97.3%<sup>1982년</sup>와 비슷하게 나타났다.<sup>9</sup>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는 10·26사태와 그 이후의 정치적 격동, 투기, 인플레이션, 임금인상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 유명한 3저호황으로 불황으로부터 완전하게 탈출하게 되었다. 안양지역도 이에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업화가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1981년 409개이던 기업체 수가 1985년에는 602개로, 다시 1990년에는 1,118개로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중화학공업화의 영향으로 전기·전자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27%로 가장 높았고 기계·금속업도 연평균 13%를 기록했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1990년 말 대기업이 31개, 중소기업이 1,087개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97.2%로 1981년보다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도 1961년 614명이었으나 1966년에는 219명, 1971년도에는 199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이는 역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입주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었다.<sup>10</sup>

한편 1980년대 들어 안양지역의 산업구조는 일정한 변화를 보여 주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종의 빠른 성장이었다. 1981년 안양지역의 제조업 종업원 수의 증가율을 보면 36.19%를 기록해 전국 평균 28.55%는 초과했지만 경기도 평균 58.08%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곧 안양지역의 기업체들이 타 지역에 비해 영세한 규모였음을 반증해 준다 하겠다. 이와 달리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급속한 성장을 기록해 대조



1988년 안양시가지(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1980년대 후반 안양은 서울 외곽의 공업도시적 성격에서 점차 주거와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위성도시적 성격으로 변화한다.

를 이루었다. 즉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51.92%, 73.43%, 88.20%를 기록했다.<sup>11</sup>

이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양지역의 산업화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제조업 대신 부동산, 금융, 보험 등 각종 서비스업과 도시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숙박업, 요식업 등 각종 개인 서비스업도 활발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곧 안양지역이 서울 외곽의 공업도시적 성격에서 점차 주거와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위성도시적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1990년대 들어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고 안양지역의 주거단위 성격이 강화되면서 공업보다는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양지역 공업 발전의 방향은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첨단산업, 벤처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특징된다고 할 수 있다.

안양지역 공업화의 특성은 먼저 한국 전체의 공업화 과정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즉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섬유, 음식료업 등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하다 197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 전자 등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어 발전한 양상을 보여 준다. 이러한 안양지역의 공업화는 서울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울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교통편의 등이 안양지역의 기업 입지조건을 유리하게 한 핵심적 이유였다고 할 수 있었다.

### 3. 노동자들의 일상과 노동

안양의 공업 발전과정은 한국 전체의 산업화를 축약한 모습이었다. 1960년대까지 한적한 서울 근교의 면단위 농촌지역에 불과했던 안양이 불과 몇 십 년 만에 수십 만 명의 인구를 거느리는 대도시로 성장한 것은 한국의 압축 고도성장을 그대로 닮았다. 이와 같은 모습은 개발과 성장의 과정이었지만 각종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과정이자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양산하기도 했다.

공단의 건설은 농업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매우 낮은 풍경임이 분명하다. 공장 하나 들어서는 것도 커다란 일인데 하물며 수십 개의 공장이 밀집한 풍경이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낮은 풍경으로서 등장한 공단은 주변에 거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먼저 수천수만의 노동자가 밀집한 주거지가 형성된다. 공장을 통해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먼저 공장 하나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금성방직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안양 최대 공장이었던 금성방직은 안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953년 설립된 태평방직과 함께 금성방직의 여성 노동자들은 ‘삼천궁녀’로 불리며 안양 지역경제의 큰 손 역할을 했다. 금성방직 정문 앞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전표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대규모 상점이 등장했는가 하면 금성방직의 월급날이 안양에 돈이 풀리는 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금성방직의 여성 노동자들 상당수는 대구 달성 출신이었다고 한다. 창업주인 김성곤이 대구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역 여성들을 대거 채용했기 때문이었다. 한때는 금성방직 취직이 어려워 이른바 ‘뺨’이 동원되기도 했다고 한다. 회사마다 출신지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동양나일론은 조흥제 사장의 고향인 경남 함안 출신이 많았다고 한다.<sup>12</sup>



1958년 금성방직 노동자들(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8권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안양』, 2008)

당시는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밀집된 곳이 흔하지 않을 때였다. 이러한 낯선 상황에 대한 기존 사회의 반응은 먼저 성 규율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 삼천궁녀에 비유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성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으로 환원되는 인식이 나타났다. 여성과 노동자 두 가지의 호명 중에 먼저 여성을 호출한 셈이었고 이것은 그들을 손쉬운 관리 대상으로 배치하는 효과를 냈다고 보인다. 1950~1960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가장 낮은 사회적 지위를 배정받은 약자 중의 약자였다.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통해 안전한 가정 안에 머물러야 되는 존재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그런데 가정 밖으로 나온 금성방직의 여성 노동자들은 그 자체로 기존 성 규율을 위반하는 존재일 수 있었다. 가부장의 통제를 동반한 보호가 사라진 사회적 공간에서 독립적 개체로 살아가게 된 이들이 기존 가부장적 시선에게는 불안하고 위험한 존재로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이들을 다시 규율화하는 것은 기존 가부장제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편 가부장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농촌지역으로부터 벗어난 여성 노동자들에게 공장은 일종의 해방구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경제적 독립이 거의 불가능한 농촌과 달리 도시의 공장은 개인의 노동력 판매를 통해 독립적 경제생활이 가능했다. 이는 가부장적 농촌 가정을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1966년 흥한비스코스 노동자(경기도청 제공)



1973년 금성통신 노동자들(경기도청 제공)

박완서는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경제적 급부가 식모 생활보다 낮지 않음에도 공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유와 사람대접'이라는 답변을 듣는다. 그의 결론은 '식모보다 나으려는 그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건 스스로 인간화하려는 건강하고 간절한 소망'과 '잘 먹고 잘 입는 것 말고 인간다움에 대한 각성'이다.<sup>13</sup> 가부장제 탈출이 또 다른 인간적 모범인 '하녀'와 같은 직종이 아니라 '사람대접'이 가능한 공장으로 연결되는 것의 의미를 강조한 셈이다.

또한 도시의 공기는 시골이 제공할 수 없는 자유의 냄새를 진하게 풍겼던 것도 사실이었다. 안양지역에서도 1970년대 이후 음악다방, 나이트클럽 등이 젊은 노동자들이 주로 찾던 유흥공간이었다고 한다. 중앙시장 청바지 골목 지하에 처음 생긴 나이트클럽은 안양 청년층이 애용하던 곳이었다. 새로운 청년문화의 공간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사회의 문화적 취향과는 뒤섞이기 힘든 새로운 젊은이들의 감수성과 감각이 구성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장이 과연 사람대접을 해 주었는지는 큰 의문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공장을 둘러싼 지역사회는 수천의 밀집한 여성을 성적 규율화 대상으로 여겼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과 겹쳐진다고 보인다. 실제 여성 노동자를 둘러싼 성폭력의 문제는 공장 안팎으로 드물지 않은 사건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을 성적 착취와 폭력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다른 한편 그 책임을 그들의 성 도덕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모순적 대응은 여성 노동자들을 이중으로 억압하는 기제가 된다.

요컨대 공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되 그 이익의 주체인 여성 노동자들은 기존 남성 위주 도덕률로 옴아매고자 하는 전략이 구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공장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이중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경제적 변화를 모색하되 사회적 변화를 최소화하겠다는 이 전략은 사실상 박정희 체제의 그것과도 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그대로 관철될 수는 없었다. 거대한 경제적 변화는 그 자체로 기존의 사회적 질서 변화의 가장 큰 추동력이기 십상이었다.

한편 공장의 등장은 인근 농촌지역과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산업화는 기존 중심 산업이던 농업을 약화시키거나 해체시면서 대규모 공업을 지배적 생산양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농민, 농촌, 농업이 가장 커다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산업화의 혼란 모습이었다.

이것을 잘 보여 주는 사건이 1966년도에 발생한 한일나일론과 인근 농민들 사이의 충돌이었다. 모내기철에 충분한 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1년 농사 전체를 망칠 수 있기에 농민들 입



1971년 안양지역 공장들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경기도청 제공)

장에서는 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런데 한일 나일론 공장이 들어서면서 대량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게 되었기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1966년 4월 농민들이 한일 나일론을 찾아가 수로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격렬하게 항의했고 결국 몸싸움과 돌이 날아다니는 물리적 충돌로까지 비화되었다.<sup>14</sup>

물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공장과 농민들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공장 사이에서도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한강 물을 공업용수로 끌어오는 방법과 노선을 둘러싸고 각 공장의 위치에 따른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불거진 것이었다. 즉 금성방직, 태평방직 등은 안양천 노선을, 럭키화학은 양재천을 이용하는 것이 서로 유리했기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었다. 결국 양재천 라인이 선택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물이라는 자연물이 산업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쟁탈 대상이 된 셈이었다.<sup>15</sup> 지역 간의 물 문제가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되었다.

나아가 공장 한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공장 밀집은 주변 환경에 거대한 재앙으로 다가왔다. 공단의 형성은 주변 지역 전체를 새로운 위협에 내몰리게 했는데 환경오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안양은 농촌지역의 풍모를 간직하고 있었고 심각한 환경문제는 드물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각종 환경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1975년 안양대교 위에서 바라본 안양천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물이라기보다 개펄 같은 폐수 찌꺼기가 가득 되어 느릿느릿 흐른다. 군데군데 가스가 물방울처럼 솟아나고 이따금씩 직경 50~70cm 폭의 거품이 몽클 위로 떠오르며 물을 뒤집어 놓기도 한다. 뚱뚱 떠내려 오는 검은 찌꺼기, 그것은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내보내기 때문이란다.<sup>16</sup>

생명의 근원이라는 물이 이렇게 죽음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풍경이 곧 공장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모습이었다. 공장 안에서의 삶은 그렇다 치고 공장 밖에서의 삶조차 공장의 그늘을 피해 갈 수 없었다. 공장의 노동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공장 밖에서 또 다른 공장의 산물과 부대끼며 살아야 했다. 자신들 삶의 젖줄인 공장이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역설적 상황 속에 공업화가 전개되었다.

환경오염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1974년 2월에는 '비산동에 위치한 오색초자공업사는 공장시설이 불완전하고 매우 허술한 시설을 갖추고서 …… 병커C유를 때는 연기가 매캐하고 자욱해 집안까지 날아들어 주민들이 진정을 할 정도' 였다고 하며, 같은 해 8월에는



## 너무늦기前에 公害對策을

### 「廢水川」別名불은安養川

「안양」은 수려한 산천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시의 아름다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도시의 뒷골목에는 '廢水川'이라는 이름의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 하천은 안양시내의 각종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모아 흐르는 하천이다. 이 폐수는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 유기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은 마치 '불'이 타는 듯한 냄새를 풍긴다. 이 '불'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은 마치 '불'이 타는 듯한 냄새를 풍긴다. 이 '불'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은 마치 '불'이 타는 듯한 냄새를 풍긴다.

### 第一部 汚染의實態

## 「말을來日」을 위하여

안양시내의 각종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 유기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은 마치 '불'이 타는 듯한 냄새를 풍긴다. 이 '불'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은 마치 '불'이 타는 듯한 냄새를 풍긴다.



(안양시내의 한 하천에서 채취한 폐수 샘플)

### 下流로 갈수록混濁

안양시내의 각종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 유기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은 마치 '불'이 타는 듯한 냄새를 풍긴다. 이 '불'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은 마치 '불'이 타는 듯한 냄새를 풍긴다.

안양시내의 각종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 유기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은 마치 '불'이 타는 듯한 냄새를 풍긴다. 이 '불'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은 마치 '불'이 타는 듯한 냄새를 풍긴다.

안양지역 폐수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기사(『동아일보』, 1975년 9월 18일)

‘안양동에 자리 잡은 안양제빙공장에서 …… 암모니아 가스가 새어나와 주민 30여 명이 채채기와 구토를 일으켜 이중 5명이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소동’을 빚었고 ‘석수동에 위치한 모피공장에서 동물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여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해가 바뀌어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론보도는 계속되었다. 75년 5월에는 평촌동에 위치한 삼양염직공업사가 ‘가성소다를 이용해 염직물을 생산하는데 병커C유를 때는 매연으로 인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양젖물을 사용한 유독성 폐수를 방류해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가 나타나고 있었다.<sup>17</sup>

시 승격 직후부터 환경문제는 이미 안양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환경문제가 집약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안양천 문제였다. 안양천은 한강의 중요한 지천으로 맑은 물을 사랑하고 인근 주민의 젖줄 역할을 해 왔는데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거의 죽음의 하천이 되어 갔다.

안양시대 중심가를 흐르는 안양천은 축적된 오염도 높은 각종 폐수가 섞어 악취를 풍기는 등 무서운 각종 전염병을 유발시킬 병균의 배양처로 변해 가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치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해할 뿐 아니라 버스나 열차를 타고 이 지점을 지나는 승객들마저 악취로 인상을 찌푸리게까지 하고 있고 마치 공해와 방역의 무방비 지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안양천변에는 크고 작은 100여 개 업체가 난립해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공업용수를 많이 사용하고 폐수도 많이 배출하는 제지업체로서 하루 배출 폐수량만 2만 톤을 넘는다. 이중 K제지공장은 공해방지법에 의해 폐수처리시설을 해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폐수를 방류해 안양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낚시대를 드리울 정도로 맑았던 안양천은 폐수로 오염되어 위생상, 이미지상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sup>18</sup>

1975년 8월 26일자 『경인일보』에 보도된 이 내용을 보면 안양의 공업화가 어떻게 환경오염을 초래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물론 관에서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했지만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인다.<sup>19</sup> 그러나 무엇보다 당시 경제개발, 수출증대가 소리 높여 외쳐지던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업 등에서 환경문제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고 보인다.

환경파괴는 자연의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오기도 했다. 1977년 7월 발생한 안양 대홍수는



안양지역 봉제공장 노동자들(안양상공회의소 제공)

수도권 일대에 큰 피해를 가져왔으며 특히 안양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안양은 10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와 함께 시가지의 80%가 물에 잠겼었다. 이렇게 피해가 컸던 것은 안양시는 공업 인구의 급증으로 4년 만에 인구가 세 배로 팽창한 곳임에도 생활 기능은 도외시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대표적 피해 현장인 안양동 야산에는 무허가 건물이 마구 들어서 있었으나 축대는커녕 배

수로 하나 제대로 없었고 논을 택지화한 곳도 하수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사고 당시 안양시 인구 및 주택에 필요한 하수구는 110km였으나 30%도 못 되는 31.6km에 불과해 원천적으로 사고요인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안양의 저지대에는 각종 공장들이 무계획하게 마구 들어섬에 따라 폭 40m였던 수암천은 어느새 20여m로 절반이 줄어들어 배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당시 수해 상황을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이는 분명 '인재사(災)'였다.<sup>20</sup>

공업화 과정의 문제점은 이러한 환경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급속한 공업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공업화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언론에 보도된 예를 보면, '안양, 시흥지역 100여 개 공장에는 노동자 대상 복지시설이 거의 전무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박달동 소재 모 공장은 1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의무실은 아예 없고 식당은 창고를 개조하여 변변한 식탁조차 없는 상태이고 악취가 진동하여 파리 떼가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했다.<sup>21</sup>

1976년 11월에는 안양에 거주하고 있던 노동자가 탱크 속 페인트 작업 중 유독가스에 질식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sup>22</sup> 1988년 3월 11일에는 동양나이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과 16세의 여성 노동자 이기순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sup>23</sup>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장치도 매우 취약했다. '안양, 시흥지역에는 300여 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데 이 중 100여 개 업체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그 일단을 보여 준다.<sup>24</sup> 심지어는 10대 소년들을 고용해 혹사시키기도 하였다. '박달동 소재 효성산업사는 60여 명의 직원 중 15~16세의 소년들 10여 명을 고용하여 일당 300원을 주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혹사시키고 있다.' 는 보도를 통해서 당시 미성년자의 노동도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업체에서는 당연히 보건·안전시설도 미비하였다.<sup>25</sup>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공장 내로 국한되지 않았다. 공장 밖에서의 삶 역시 녹록하지 않았다. 저임금 노동을 기반으로 했던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고 노동자들의 의식주는 최저선 근처를 맴돌 수밖에 없었다. 1978년 안양의 한 노동자 가정은 벌써 맞벌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부인의 취업 의지에 노동자 남편은 '뎡도 약한 아내가 뎡을 흘린다는 생각과 엄마 없이 울고 있는 아이들 모습에 나는 가슴 아프다. …… 아내를 일터에 내보내야 하는 두려움과 못난 내 자신에 출근길의 내 마음은 무겁다.' 고 토로했다.<sup>26</sup>



1969년 유유산업 노동자(경기도청 제공)

노동자 혼자 벌어서는 먹고살기 힘든 저임금 구조 속에서 구로공단의 별집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우 한두 명이 기거할 수 있는 별집 형태의 노동자 주거지가 공단 주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안양지역에서도 구로공단의 별집과 똑같지는 않다 해도 값싼 주거공간이 대거 출현했다. 노동자들 대부분이 빈곤한 가정 출신 젊은이들이었기에 별다른 경제적 기반이 없었다.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집이란 공단 가까이에 있는 좁고 허름한 셋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넓고 허술한 집은 당시 일반적인 난방수단이었던 연탄을 사용하는 집이 대부분이었고 연탄가스 중독은 흔한 사고 중의 하나였다.

산업사회는 곧 위험사회이기도 했는데, 1960년대부터 안양지역에서도 각종 산업재해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1964년 3월 5일에는 모락산 한국 탄약공업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중경상을 입었는가 하면 심지어 500여m나 떨어진 안양교도소 재소자 70여 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1966년에는 삼영하드보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였다.<sup>27</sup>

공단 주변 노동자들의 삶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었는데 이른바 도시형 범죄의 주요 대상이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1975년 10월에는 안양 시내에서 열흘





그린힐봉제공장 참사사건을 다룬 김인순 작가의 작품(『한겨레』, 1990년 2월 9일)

업이 전개되었다. 섬유노조는 6월에 임금 28.5% 인상을 내걸고 대한방직협회와 협상에 들어갔으나 난항을 겪게 되었고 9월 9일에는 부분 파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사용자 측은 대한방직협회를 통해 16개 기업이 집단적으로 직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맞섰다.<sup>32</sup>

한편 안양의 금성방직에서는 지부장이 파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섬유노조는 지부장을 무기정권시킨 후 파업을 강행했다. 1969년 9월 12일 섬유노조 간부들과 금성방직 노동자 400여 명이 정문 밖에서 농성을 벌이다 회사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전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전면 파업으로 확산되었다.<sup>33</sup>

섬유노조의 파업은 전국적 사건이었고 『동아일보』나 『경향신문』 등 중앙 일간지들이 사설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할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컸다.<sup>34</sup> 섬유노조의 파업은 여론의 상당한 지지를 얻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재차 사실을 통해 면방업계의 비이성적 대응과 섬유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합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사실에 따르면 1968년도 섬유업계 실질 성장률이 26.3%이고 GNP 성장률도 26%를 넘었기에 임금 인상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닐뿐더러 몇 개 기업의 부분 파업에 15개 공장 전체의 직장폐쇄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사실은 또한 비생산적 스포츠팀 유지나 임원진의 호화로운 삶을 적시하면서 면방 사용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sup>35</sup> 결국 1969년 9월 17일 노사는 19% 임금 인상으로 타협



안양 근로자회관(전진상복지관 제공)



안양노동상담소 개소식(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8권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안양』, 2008)





1980년대 임금인상 투쟁(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8권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안양』, 2008)

하게 됨으로써 3개월여를 끈 분규사태가 마무리되었다.<sup>36</sup>

1970년대 들어서도 안양지역의 노동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78년 3월 1일 현재 도시산업선교 실무자가 안양에 4명이 있을 정도였고 동양나일론, 삼풍섬유, 유유산업, 삼화왕관 등에서 노조활동이 전개되었는가 하면 1970년대 말에는 소모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운동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었다.<sup>37</sup> 1980년대 들어 노조 활동은 물론 근로자회관, 노동야학, 노동상담소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동운동의 대중화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들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안양지역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운동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1985년 8월 16일 저녁 7시에 서울대생 70여 명이 안양1동 조흥은행 앞길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해 23명이 즉심에 넘겨졌다.<sup>38</sup>

제도정치권의 선거와 투표 이외에 정치활동 경험이 거의 없던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사회운동의 영향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노동자 대파업은 그 연장선상에서 가능했다고 하겠다. 안양의 6월항쟁은 최대 2만여 명의 군중이 모일 정도로 열띤게 진행되었다. 경찰의 물리력을 무력화시키고 거리를 해방구로 만들 정도로 6월항쟁의 파고가 높았는데,



1980년대 노동문화제(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8권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안양』, 2008)

이는 곧이어 진행된 대과업 투쟁을 위한 훌륭한 학교가 된 셈이었다. 7월부터 9월에 걸쳐 안양지역의 파업투쟁은 총 71개 사업장에서 벌어졌다. 안양지역의 주요 사업장 전부가 파업을 전개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정도였다.

물론 안양의 노동자들이 기존 질서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질서의 가치와 규율을 내면화하면서 삶을 도모하는 모습도 존재했다. 예컨대 동일방직의 노동자였던 이재선은 1976년 근로자 생활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수상을 계기로 방송 출연, 청와대 초청 등의 요란한 행사를 치르고 급기야는 1급 특진으로 사무직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는 공장새마을운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권과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sup>39</sup> 이는 역설적으로 생산직에 대한 차별과 하대가 확인된 셈이었다.

생산직을 살리는 길은 생산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으로 '승진' 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자본의 분할통치술이기도 할 것이며 생산직 자체의 삶의 질 개선에는 별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었다.



박창수 노조위원장 영결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이러한 기존 질서의 전략을 집대성한 것이 곧 공장새마을운동이었다. 1970년대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공장새마을운동의 시행이었다. 애초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 중반부터 도시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각 기업체에서도 거의 의무적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안양에서도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공장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다. 상공회의소는 1976년 사무국 내에 새마을과를 신설했고 1977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가 구성되자 각 시도 지부에도 지회가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공장새마을운동 전진대회 등의 각종 대회를 비롯하여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 등 주로 생산활동 장려운동과 각종 지역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sup>40</sup>

질풍노도와 같았던 1980년대를 보내고 난 후 1990년대 초 안양지역에서는 또 하나의 죽음이 기록되었다. 1991년 5월 6일 안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기부의 조사를 받던 박 위원장의 추락은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했다. 어쨌든 그의 죽음은 1980년대 이후 격렬하게 대립했던 노동과 자본-국가 간의 싸움이 어떠했는가를 웅변해 주었다. 그 싸움은 목숨을 걸어야 될 정

도로 거칠고 참혹한 것이었고 쉽사리 승부가 나기 힘든 것임을 말해 주었다. 안양의 노동자는 아니었지만 안양에서 삶을 마감한 박창수 위원장의 삶과 죽음은 어쩌면 안양의 모든 노동자들의 그것과 맞닿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1991년 6월 29일 안양1동 벽산쇼핑 앞 네거리에서 개최된 추모 집회에는 5,000여 명이 참가했다.<sup>41</sup>

## 주)

- 1)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1256쪽.
- 2)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1260~1261쪽.
- 3)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63쪽.
- 4) 『경인일보』, 1974년 9월 28일.
- 5) 『경인일보』, 1973년 11월 22일.
- 6)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1261쪽.
- 7) 한홍열, 『안양시 공업지역 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 지리학과 석사논문, 1980, 57~79쪽.
- 8) 안양상공회의소 편, 『안양지역의 상공업 현황과 전망』, 1980, 23쪽.
- 9)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1262쪽.
- 10) 안양상공회의소, 『안양권 산업구조 변화정책에 관한 연구』, 1993, 68~9쪽.
- 11)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1304~1306쪽.
- 12)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105쪽.
- 13) 박완서, 「어느 여성 근로자와의 이야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문학동네(『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 한길사, 1978 재편집본), 214쪽.
- 14) 『조선일보』, 1966년 4월 26일.
- 15) 성결대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현대사』 1, 2006, 162쪽.
- 16) 『동아일보』, 1975년 9월 18일.
- 17) 『경인일보』, 1974년 2월 12일; 『경인일보』, 1974년 8월 3일; 『경인일보』, 1974년 8월 23일; 『경인일보』, 1975년 5월 23일.
- 18) 『경인일보』, 1975년 8월 26일.
- 19) 석수동 삼막마을 주민 130여 명은 마을 내에 위치한 KC세업공장이 배출하는 폐수로 마을 우물물이 오염돼 각종 피부병은 물론이고 배앓이를 하는가하면, 물을 끓인 술이 녹이 나고 구멍이 뚫리는 심각한 오염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 업체는 조업중지 명령을 받았다.(『경인일보』, 1977년 2월 23일; 『경인일보』, 1997년 3월 16일)
- 20) 『매일경제』, 1977년 12월 12일.
- 21) 『경인일보』, 1975년 8월 18일.
- 22) 『경향신문』, 1976년 11월 29일.
- 23) 『매일경제』, 1988년 3월 11일.
- 24) 『경인일보』, 1975년 8월 11일.
- 25) 『경인일보』, 1976년 2월 11일.
- 26) 『경향신문』, 1978년 10월 13일.
- 27)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44쪽.
- 28) 『동아일보』, 1975년 10월 15일.
- 29) 『동아일보』, 1975년 11월 1일.

- 30) 『경향신문』, 1975년 12월 10일.
- 31) 『한겨레신문』, 1988년 5월 22일.
- 32) 『매일경제』, 1969년 9월 10일.
- 33)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45~46쪽.
- 34) 『면방과업도 대화로 해결하라』(사설), 『동아일보』, 1969년 9월 13일; 『면방업계의 노사분규와 직장폐쇄』, 『경향신문』 1969년 9월 12일.
- 35) 『면방경영의 문제점』(사설), 『경향신문』, 1969년 9월 17일.
- 36) 『동아일보』, 1969년 9월 18일.
- 37) 이시정,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48쪽.
- 38) 『경향신문』, 1985년 8월 19일.
- 39) 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138~139쪽.
- 40) 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의 30년사』, 328~341쪽.
- 41) 『한겨레신문』, 1991년 6월 30일.



한양

---

1번가의 역사

---

그리고

---

기억

---

안종수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원



## 제6장 안양 1번가의 역사 그리고 기억

### 1. 안양의 대표 상업지구 '안양 1번가'

안양 1번가는 안양역 주변, 즉 현재 안양1동에 위치한 상업지구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로 1980년대 후반 중앙로 일대를 둘러싸고 먹을거리와 입을 거리가 풍부해지면서 '안양 1번가'라는 별칭이 생겨났다고 한다.<sup>1</sup> 이러한 별칭이 시민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결과 1998년 시에서 정식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 매일경제

1994년 4월 4일

상권이 달라진다(35) 안양역 주변

서울의 명동이라 불리는 안양 1번가는 명동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젊음의 거리, 패션의 거리로 안양시 최대의 상업지역이다. 이곳은 소비도시의 상징인 술집과 음식점 유흥 오락시설들이 즐비, 오랫동안 먹자놀자판의 상권을 형성해 왔으나 평촌과 산본 등 신도시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패션의 거리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음식점과 술집호프 및 극장 등이 아직도 중심을 이루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편의점과 젊은이 취향의 캐주얼스타일 의류점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1990년대 안양 1번가는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안양역 주변은 물론이고 중앙시장 일대까지 상업시설들이 확장되었으며, 거리는 소비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는 의왕, 군포와 같은 주변 도시의 소비수요까지 흡수하여 상당한 규모의 상권으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개성 있는 간판과 상호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안양 1번가(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역과 안양 1번가

과거 산업화시대의 단순 유흥에서 벗어나 새롭게 등장한 1990년대 ‘소비문화’는 이른바 개성, X세대라는 코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패션과 프랜차이즈화된 먹거리, 영화와 음반 등 소비가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 준다. 당시 안양 1번가는 수도권 지역 소비문화의 표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안양 1번가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곳이 아니다. 1990년대의 화려한 시기를 거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안양 1번가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역사적 과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는 여러 세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놀이, 그리고 각종 감정들이 녹아들어 있다. 지금부터 그 역사적 과정을 짚어 보는 한편, 1번가에 대한 과거의 기억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한다.

## 2. 안양역과 1번가, 안양의 운명을 바꾸다

1905년 개통된 경부선 철도와 뒤이어 현 1번 국도에 해당하는 간선도로의 개통으로 자연촌락에 불과했던 안양은 서울과 수도권 남부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실제 1925년부터 1970년까지 경기도의 가구 및 인구증가율이 각각 91.4%와 87.1%인 데 반해 안양지역의 가구 및 인구증가율은 무려 1,475%와 1,368%로 나타나 서울 대도시권에 위치한 위성도시로서 안양지역의 급격한 인구 및 사회 변화를 시사한다.<sup>2</sup> 안양 1번가의 역사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번 국도는 현재 구도로로 불리는 관악역에서 안양역, 명학역으로 연결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안양대교에서 이어지는 현재의 중심도로는 1970년대에 개통된다. 따라서 1970년대 이전의 1번가의 풍경은 현재 우리가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중앙로 개통 이전까지 안양의 상업지구는 안양역 주변의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몇몇 점포와 안양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시장에 분포되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1905년 설치된 안양역은 안양이 공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기반으로 작동한다. 경부선 철도를 따라 철도역이 생기면서 안양천 서쪽 지역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초기 형태의 상권이 형성되면서 전형적인 시가지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경부선 철도가 1번 국도와 나란히 달리고 있어서 서울 및 수원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서울·부산 간의 여객 및 화물 수송을 분담하면서 역 주변의 시가지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안양역이 간선도로와 철도를 따라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어 나갔다.<sup>3</sup> 따라서 안양은 초기부터 유리한 운송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안양에는 1930년대에 이미 공장이 들어섰으며, 1960~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제조업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이에 발맞추어 공장 노동자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지구가 형성이 되었고 이것이 안양 1번가의 모태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서울과의 밀접한 거리로 인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침상도시로 변모한다. 매일 아침 안양역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 시기 안양의 주택 수는 급증했으며, 각종 사회·문화적 기반시설들을 갖추게 된다. 도시의 성격 변화와 더불어 1번가의 상권도 변모하였다. 과거 술집, 한식집 위주로 밀집되어 있던 1번가의 상점들은 양식, 옷가게, 액세서리점, 호프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나아가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여 1번가를 찾기 시작했고 각종 첨단유행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젊은이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에 이른다.



1990년대 안양역(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1980년대 이후 안양역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 3. 1960~1970년대 공업도시 안양과 안양 1번가

1960년대에 들어서 안양지역의 공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1961년 6개에 불과하던 기업체수가 1966년에는 32개로 늘어났고, 1971년에는 64개가 되어 10년 만에 무려 10배가 증가하였다.<sup>4</sup> 증가한 기업만큼 농촌에서 안양으로 이주해 오는 노동자들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순영가명, 68세, 여도 당시 이주해 온 노동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본래 대구 달성군 출신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1966년, 금성방직에 취직하면서 처음 안양 땅을 밟았다.<sup>5</sup> 그는 처음 마주한 안양 1번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순영** : 첫인상은 그냥 1번가도 그냥 시골이었어. 여기 오니까 다 시골이더라. 그냥. 여기 사방 돌아다녀 봐도. 중앙시장도 제대로 시장 형성도 안 됐고, 안양역이 쓸쓸히 있고 (중략) 안양역이 조그마하면서 특수제지 거기서 맨날 굴뚝에 연기 나고 (중략) 한참 그때 공업도시로 여기 안양이 발전했지 사방이. 그러니까 다 농경시대에서 완전히 그냥, 그대 한참 공업화로 막 그냥 발전하는 그 단계였으니까 안양이. 그래서 외지에서 다 못 먹고살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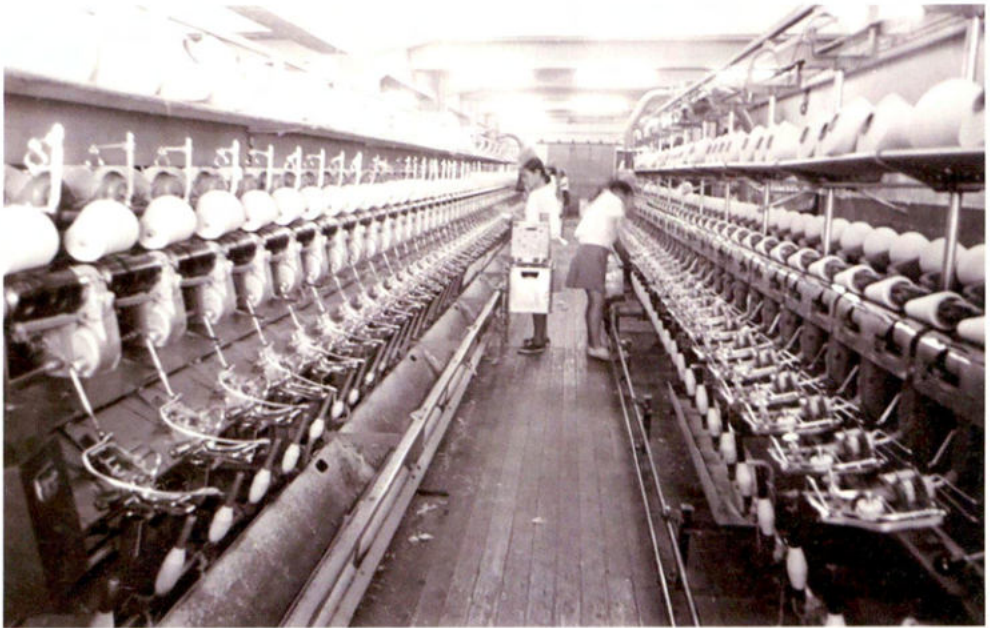
1968년 안양역 앞 풍경(경기도청 제공)

아?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그래서 다 올라온 거야. 그래서 여기 오니까 전부 공장이야. 처음에 와 보니까 분위기가 전부 안양은 공장이야 사방이.

1960년대는 안양에서 공장이 급증하던 시기다. 지금은 공장들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지만, 당시에는 안양 중심가에도 공장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었다. 이순영이 다녔다던 금성방직 역시 대농단지현재 1번가 사거리 국민은행 뒤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대농단지 부근은 막 안양으로 이주해 온 노동자들이 살던 판잣집들이 많이 들어섰다고 한다.

**이순영** : 당시에는 다 완행열차야. 기차가 역마다 다 선다고. 대구까지 가려면 열 몇 시간 걸리지. 그러니까 역 주변에는 다 여인숙이야. 밤이나 새벽에 내리면 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양역하고 남부시장 거기까지 여인숙이 많았지. 주변에 새벽장사가 많았지.

그가 이주해 온 당시 1번가는 이제 막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시기였다. 당시 완행 열차 위주로 운영되던 열차의 특성상 안양역 주변에는 여인숙이 많았다. 그 밖에도 공장 노



금성방직(1973년, 경기도청 제공)

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방과 선술집들이 주로 들어섰던 탓에 당시 중학교를 갓 졸업한 여공인 이순영이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순영** : 진짜 아침 8시 반 출근해서 9시부터 일 시작하고 보통 잔업하면 10시까지. 그래 가지고 그 시간 외에는 돌아다닐 일이 없지. 1번가? 그냥 술집, 여인숙 그런 거. 옛날에는 모텔도 없고 여인숙이 있었지. 미스가 뭐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이런 거 전혀 없지. 월급 딱 타면 부모 가져다주고. 극장은 많이 갔어. 안양극장이라고 큰 극장이 있었어. 안양극장으로 주로 많이 갔어. 잘 갔어. 옛날에 신성일, 엄앵란 나오는 그런 영화. 외식이나 그런 건 나중에 애들 데리고 가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외식도 없었어. 주로 보면 태극당을 갔어. 다과점이라 그랬어 옛날에는. 지금은 베이커리니 이런 체인점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 옛날에는 다과점 그래 가지고 생과자 팔고, 빵도 팔고 그리고 우유. 팔빵 같은 거 시키고 우유 한 잔 먹고. 그게 이제 고급으로 먹는 게 그거였지.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이스케키라 그랬지. 태극당 가면 거기서 파는 아이스케키가 맛있었어.



#### 여공과 학생들의 만남의 장소 '태극당'

1960년대 말 안양 1번가 중앙통 골목의 풍경으로 골목 끝에 태극당 간판이 보인다.

단팥빵과 아이스케키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1970년대까지 즐겨먹었던 간식거리임을 생각하면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간식이 아닐까? 1960~1970년대 안양 1번가에도 단팥빵과 아이스케키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태극당이다. 당시 태극당에서 학생들과 여공들은 넘치지 못한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가끔이나마 맛볼 수 있는 별식을 맛보곤 했다. 또 여름이면 태극당의 아이스케키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폭발이었다고 한다.

극장과 빵집은 1960~1970년대에 10~20대 여성이 즐길 수 있었던 유일하다시피 한 오락거리였다. 특히 안양 석수동에는 1950~1960년대 동양 최대의 안양영화촬영소가 위치해 있었다. 그 때문인지 일찌감치 안양에는 1953년에 문을 연 화단극장안양역 구도로 북쪽을 비롯, 1968년 안양극장으로 이름을 바꾼 읍민관현 2001아울렛사거리, 이어서 개관한 삼원극장현 CGV 자리까지 1번가에만 3개소의 극장이 운영되었다. 1960~1970년대가 극장이 흔치 않았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많은 숫자라 하겠다. 또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극장이 없는 주변 도시는 물론 서울에서까지 관람을 올 정도였다고 한다. 빵집에서 파는 생과자와 단팥빵, 아이스케키는 도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였다. 1977년까지 혼·분식이 장려되었음을 감안하면 당시로서는 나름 사치스러운 먹거리였던 셈이다.





안양에서 2번 째 문을 연 안양극장(1968년, 날 미살로프)

1965년 안양4동에 읍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가 1978년 안양극장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5년에 폐관되었다.





1970년대 삼원극장(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안양 최초의 극장은 1953년 세워진 화단극장이다. 화단극장은 당시 안양역 북쪽(구 도로 서울 방향)에 위치해 있었다. 안양역의 유동인구 덕분에 초기부터 극장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57년 안양 석수동에 동양 최대의 영화촬영소인 안양영화촬영소가 들어선다. 그 영향 때문인지 안양에는 화단극장에 이어 읍민관(후 안양극장)과 삼원극장까지 당시 안양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많은 수인 3개소의 극장이 운영되었다. 홍보 방식이 아날로그 시절이었던 그때에는 영화를 알리기 위해 대형 간판에 영화 타이틀과 출연진, 대표 컷을 그려 상영작을 소개하고 예고편을 '다음' 작으로 영화관 앞에 내걸었는데 어느 극장이 실감나게 그리는가도 주 관심거리로 그림을 잘 그리는 간판장이를 스카우트하기도 했다고 한다.<sup>6</sup>

**이순영** : 7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가 1번가 가는데 거기에 저 문화예식장이라고, 그게 1번가 도로를 끼고 있었지. 그리고 거기 (첫째 낳을 때는)산부인과는 거기 1번가에 있는 신영숙 산부인과에서.

1번가는 당시 거주민들의 생애주기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장소였다. 1960~1970년대 수도권 도시에는 취직을 위해 상경한 젊은 남녀들이 많았다. 이들이 결혼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예식장 문화가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번가에 위치한 문화예식장은 늘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결혼식 하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어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안양 1번가 중국집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1976년)

1950~1970년대 중국집은 가족 단위 외식은 물론, 회사 단위 회식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소였다. 당시 1번가에는 많은 중국집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순흥루와 동춘관은 큰 규모의 중국집으로 주말이면 결혼식 피로연, 회갑연 등의 행사가 벌어지곤 했다. 지금의 가족행사와는 달리 과거 대가족, 친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피로연과 회갑연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하객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다. 이 때문에 당시의 중국집들은 지금보다 규모가 큰 집들이 많았다고 한다. 또 당시의 중국집 주인들은 화교들로, 전족을 한 주인집 여성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앞서 여러 증언을 해 주신 이순영의 결혼식 피로연(1976년)도 1번가의 중국집에서 치러졌다.

세대들은 또한 본격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기 시작한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농촌 사회에서 주로 집에서 아이를 낳던 세대와는 다른 출산 풍토가 시작된 것이다. 이른바 도시민의 생애주기와 통과의례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안양 1번가는 이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던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찬홍가명, 69세, 남성은 1974년 회사 발령으로 안양에 오게 되었다. 1970년대의 안양은 1960년대와는 또 사정이 다르다. 1960년대 이후 안양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 결과, 1973년에는 인구가 11만 명에 이르러 읍에서 시로 승격이 되었다. 또 1972년 경수산업도로 확장과 더불어 1974년에는 수도권 전철도 개통되었다.

**박찬홍:**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신도로를 막 닦기 시작했어. 이제 다리 놓고(안양대교) 아스팔트 막 깔고, 도로공사를 막 하고 있었다고. 도로 공사를 하는 와중이라 비포장이었다고. 구도로는 이미 포장되어 있었고.

그가 목격한 광경은 현재 안양 1번가를 가로질러 군포로 이어지는 중앙로의 건설과정이다

었다. 안양역과 구도로 중심의 상권에 머물렀던 1번가는 이 중앙로 건설을 계기로 그 범위를 점차 확장하게 된다. 회사에 발령을 받은 이후 그는 1번가를 자주 찾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회식' 이었다.

**박찬홍 :** 내가 회사에서 안양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 74년 3월이니까, 그 과정에서 안양에서, 안양 공장이 생기면서 안양에서 주로 1번가 쪽으로 음식 먹으러 가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런 변천사가 그전에는 안양에 이런 큰 공장이 없었고, 만도기계밖에 없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만도기계 사람들이 안양 상권을 장악하다시피 했었거든. 인원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들어옴으로 해서 그 상권이 노루표가 다 그냥 쥐고 있다시피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됐고. (회식은) 1번가 쪽으로 많이 갔지. 그때만 해도 1번가에는 전부 술집이 많았고, 음식점이 많았어. 대부분 다 1번가 쪽에서만 회식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술집이 많았고, 우리 회식을 하러 가면은, 고깃집은 동남갈비 많이 가고, 그러다가 2차는 무조건 거기, 스탠드바 간 거야. 2차는 고정적으로 스탠드바. 노래방 같은 게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그러고 그 아가씨들은 자기 코너 있잖아. 그리고 가운데는 무대 비슷하게 비워 놓고 악단들 와 가지고, 보통은 아코디언 있고, 드럼 같은 거 치는 사람도 있고 보통 보면 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가며는 전부다 생음악이지. 그리고 거기서 노래 신청하고 노래 부르고, 2차 가면 몇 명에서 가면서 분빠이(나눠서 돈 내기)해 가지고, 외상, 외상해 가지고 봉급날 때 외상 지불해 주고, 그 다음날 또 이튿날부터 외상. 한 달 내내 외상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술 패턴이, 회식 패턴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

당시의 직장문화는 직장 구성원들 사이에 상하수직적인 관계를 비롯, 평생직장이라는 의식 하에 이루어지는 가족적인 관계, 즉 집단문화가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집단문화는 그 특성상 퇴근 후에 잦은 모임회식을 갖기 마련이다. 박찬홍과 그 동료들은 회식 장소로 1번가를 찾곤 했는데, 주변의 회식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상권은 당시 1번가가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직장 동료들과 주로 찾았던 곳은 스탠드바였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스탠드바는 1970~1980년대까지 1번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아직 노래방과 같이 기계를 통해 반주를 연주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탠드바에는 악단이 있었고 생음악을 연주하였다. 당시에는 월급도 넉넉치 못했고 또 신용카드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스탠



1970년대 초 1번가, 화진정과 신영숙 산부인과가 있던 골목(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화진정은 갈비집으로 유명하였다. 화진정 식당 출입문 왼쪽으로 유리로 둘러싸인 갈비를 굽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고소함은 골목으로 진동하였다. 초창기에는 수원의 유명한 갈비집인 화춘옥의 주방장 이원길을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해서 1970년대에는 화춘옥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은 당시 서민들이 먹기에는 꽤나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이순영도 “화진정이라고 있어 화진정. 화진정이라고 일반가에 진짜 컷거든. 거기 가서 갈비를 먹으면 거기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나 화진정 가지. 큰 요리집이라고 그랬어 거기는. 그계 요리집이었어 그계. 거기 가서 불고기 시키면 너무 맛있다고 그랬거든. 갈비탕도 있고.” 하며 화진정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드바를 비롯한 술집들은 외상을 받곤 했다고 한다.<sup>7</sup>

박찬홍의 증언에 따르면 197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흥이 안양 1번가 상권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글 첫머리에 인용된 기사에서 언급된 소위 ‘먹자놀자관’의 이미지<sup>8</sup>도 이 시기부터 형성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 4. 1980~1990년대 침상도시와 소비문화

안양의 1970년대가 2차 산업공장의 시대였다면 1980년대는 3차 산업서비스의 시대라 할 수 있다. 1979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중화학공업 공장의 신·증축이 제한되고, 도심

**안양 지하상가 조감도**



**안양의 심장이 새로 탄생됩니다.**

홍수가 탈피고난 안양에는 새로운 도시사의 면면을 위한 남쪽과 서면 여리봉의 뜨거운 열기와 용화포 동쪽 중앙포(경원시당~익수중학교)와 재덕포(변화죽장~동승학교앞 산업도로)의 전면 포상공사 비산코가도로 공사를 시인 속인 사람들이 주일하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것으로 바뀌는 안양의 중심부인 조흥은행앞~서울신촌은행 사이의 중앙포에는 면적 800여평에 점포수 132개의 대규모 지하상가가 탄생됩니다.

대형 자가발전 시설 완벽한 배수, 배기시설 배치한 겨울하우의 배설 시설은 갖추어져 안양 지하상가는 안양시 새로운 심장이 되어 시인 여리봉과 함께 발전 할 것입니다.

위 지도



**동덕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덕 한

안양 지하상가 분양광고 전단지(시흥시청 향토사료실 제공)

지의 지가 폭등으로 공장들은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늘기 시작했고, 1985년에는 안양의 3차 산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차 산업 인구 비율을 능가하였다.<sup>9</sup>

안양의 상업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1970년대부터 안양시가 서울의 공업기능을 분담하는 공업 기반의 위성도시로 빠르게 변모하면서 상업경제도 크게 성장하여 시 승격 당시 2개소에 불과하던 시장이 9개소로 늘었고, 1979년 처음으로 중앙지하상가가 개설되었다. 안양시의 주요 경제기반 변화에 따른 상업 활동의 번성은 도소매업의 성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973년 도매 및

소매 점포는 각각 264개소, 923개소였으나 1980년에는 591개소, 3,537개소로 크게 늘었다.<sup>10</sup>

안양은 서울과 통근·통학이 가능한 1시간대의 생활권으로 서울의 침상도시로 적합한 위치 및 교통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서울 시내버스의 연장 운행과 고속전철망의 확충, 그리고 자가운전의 증가로 인한 기동성의 증대로 더욱 뚜렷해졌다. 또한 서울의 부족한 주택보급률은 경제적·정책적으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분산을 촉진하였다. 그 결과 안양시의 주택 수는 1975년에 비해 1995년에 약 14배 증가하였다.<sup>11</sup>

이에 따라 안양시는 공업도시에서 침상도시라는 또 한 번의 성격 변화를 겪게 된다. 더불어 안양으로 이주해 온 농촌의 총각과 처녀들은 가족을 꾸려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 소득 또한 과거보다 증대되었다. 이는 안양 1번가 상권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흥업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백화점과 같이 가족단위의 수요를 소화하는 상가가 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 한식 위주의 외식에서 경양식, 패스트푸드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 안양 1번가(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이순영 : 그게 당시에는 경양식집인지 몰랐는데. 돈까스 팔고, 비후까스 팔고 그게 1번가 쪽에 있었어. 1번가 가야 먹었어. 그거는 기억날 정도니까 80년대 후반이야. 아는 사람하고 둘이 갔는데, 그러니까 돈까스가 뭔지 그때도 제대로 모를 때지. 근데 인제 그 사람은 많이 다녀본 사람이 돈까스를 시키니깐, 지금 생각하니깐 그게 돈까스야.

박찬홍의 경우는 변화를 좀 더 강하게 체험한다. 즐겨 찾던 가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갔기 때문이다.

박찬홍 : 그러다가 스탠드바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주변에 음식점들이 없어지고 젊은 세대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대농, 지금 국민은행 뒤에 그 골목으로 이사들을 오는 거야. 중심상가에서 함흥냉면도 그곳으로 이사 오고 큰 가게가. 중심상가에 있던 가게가 그곳으로 이사를 왔었어. 그러면서 아마 평촌 쪽이 개발하기 시작했을 거야 그때. 그때가 아마 음식점들이 자꾸 밀려 나가고, 뭐 이제 구똥방, 구두나 젊은 세대들 악세사리들 팔고 그런 것들이 서서히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음식점 이런 것들이 추방이 되



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부 악세사리로 다 바뀌어 있잖아? 지금도 보면 뭐 양식, 젊은 애들 먹는 그런 음식점만 있잖아. 옛날 그 사람들이 하는 데는 1번가 안에 아무데도 없어. 옛날 전통적인 것은 이제 1번가 안에는 없다고, 지금은 뭐 회식한다고 하는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 거기서 회식한다는 사람 없어.

안양 1번가의 유흥업소들이 점차 밀려나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도성장을 지속한 결과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민들이 상당한 수준의 소비여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상가 역시 다양화되면서 유흥업소들의 자리를 하나둘씩 차지하기 시작하였다.<sup>12</sup> 두 번째는 유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및 경계심과 더불어 사회적 캠페인이 유흥에 대한 소비수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향신문

1991년 9월 5일

### 안양시민들 귀가 빨라졌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출장소(소장 진종희)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1224귀가하기」 범시민운동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1224귀가하기」 운동은 안양시내 모든 유흥업소들이 밤 12시(24시)까지 영업을 끝내도록 계도하는 것으로 (중략) 음주 후에 서로 12(시비)하지 말고 24 이전에 반드시 귀가하여 가족에 돌아가자는 의미. (중략) “심야영업이 일소돼야 시민들의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착안해 낸 진소장의 말이다. (중략) 만안출장소 직원들은 매일 12일(12)과 24일(24) 심야 퇴폐 및 변태업소를 집중 단속하면서 「1224귀가하기」 홍보 스티커 6천여 장을 유흥업소 등에 부착했다. (중략) 「1224귀가하기」 운동이 정착단계에 이른 지난 7월부터는 업주와 시민들의 동참으로 위반업소가 30% 감소되는 효과를 거뒀다.

‘시민들의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다.’는 당시 파출소장의 말은 전형적인 핵가족 위주의 사회질서가 당시 안양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장은 일찍 귀가하여 단란한 가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의 일상사에 관심을 기울여 탈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번가의 소비수요가 다양해진 만큼 1번가를 찾



안양백화점 개점(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안양 본백화점(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중앙로 왼쪽에 보이는 본백화점 옥상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는 사람들이 도시노동자 중심에서 가정주부, 학생 등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이에 따라 주로 도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성업하던 유흥업소들이 점차 1번가에서 밀려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안양의 소비수요 및 성향이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더 확연하게 보여 주는 것은 백화점이다. 1976년 개점한 안양백화점은 규모도 작았고 당시의 소비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년 후에 폐업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1983년 개점한 본백화점과 뒤이어 1985년 개점한 벽산쇼핑센터가 성업하였다.<sup>14</sup> 당시 본백화점과 벽산쇼핑은 옥상에 모두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휴일과 명절에는 가족단위 손님과 선물을 사기 위한 이용객으로 북적이곤 하였다.

## 5. 2000년대 이후 첨단 소비문화의 등장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안양 1번가의 모습은 다시 한 번 변모한다. 상가들의 업종은 젊은 세대들의 유행을 반영하듯 패션열풍을 시작으로 PC방, 노래방, 화장품, 정보통신, 컴퓨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유흥일색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 지방자치체가 점차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1번가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속속 진행되었다. 1996년부터는 매년 10월에 젊음의 도시·패션의 거리 안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1번가 거리대축제가 열리고 있다.<sup>15</sup> 일번가 거리 대축제에서는 풍물놀이, 전통문화 공연, 개그 콘서트, 댄스 페스티벌, 연예인 축하공연,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태권도 시범, 대학 동아리 발표회, 가요 콘테스트, 헤어쇼, 패션쇼, 장거리 마라톤 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sup>16</sup>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도 시행되었다. 2006년 안양 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보행중심 가로보행자전용도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이미지를 개선하여 쇼핑거리에 문화가 자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양 1번가와 중앙로 일대에 광고물 정비사업은 자연발생적으로 난잡하게 늘어서 있던 도심경관을 크게 개선하였다. 그 결과 1980~1990년대의 복잡하고 어두운 이미지의 공간들이 밝고 정돈된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첨단화된 소비는 과거의 소비와는 질을 달리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유행의 속도와 방향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그 결과 해외의 유행이 국내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단순한 상품의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담겨져 있는 문화를 소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세련된 이미지의 커피숍들이 1번가에 들어서고, 음식점들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내놓고, 맛깔 나는 디저트 전문점들도 등장하였다. 또 개성 있는 간판과 가게 상호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상점들의 주요 전략이 되었다.

## 6. 기억의 공간으로서 안양 1번가

이순영에게 안양 1번가는 인생의 여러 주기를 함께한 공간이다. 여공 시절에는 달콤한 아이스케키와 단팥빵으로 노동의 고됨을 달래던 곳이었다. 이후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할 때는 결혼식을 올리는 공간이었고, 출산의 시기에는 1번가의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 처음에는 고향을 떠나 이주해 온 곳이었지만, 이제는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온 삶의 공간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삶을 함께했던 그 공간은 이제 다른 종류의 상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제는 수십 년씩 한 자리를 지키는 상점은 거의 없다. 유행은 인터넷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실시간으로 변화한다. 기억이 쌓일 만한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공간은 사라지고 생겨난다. 결과적으로 삶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의 상실, 이 또한 도시민의 애환이라 하겠다.

박찬홍에게 1990년대 1번가의 화려한 변신은 그들에게 그리 달가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화려한 변신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때 동료들과 함께 1번가를 주름잡았던 시절이 지나고 다른 세대들이 그 공간을 채우면서 그곳은 낯선 공간이 되어 버렸다. 이제 그에게 1번가는 간혹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르는 곳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물론 현재도 1번가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만의 기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1번가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 교차하며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며, 기억을 만들어 내고 있는 기억의 공간이다. 공간을 메우고 있는 상점과 사람들은 변했을지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순영과 박찬홍의 기억도 사라진 것이 아니다. 비록 1번가는 아닐지라도 그 시절의 친구들과 동료들, 즉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아직도 남아 있다. 현재 산본에 살고 있는 이순영은 친구들과 만날 때면 여전히 안양을 찾는다고 하며, 박찬홍은 인터뷰를 하던



프라자  
영흥·부페  
:469-8400

보스톤 치과  
-2875 4F

대동문고

죽  
Grass  
of  
Death  
비판대  
EAGLES  
간호  
학원

신성노래마당 PC

박준뷰티랩

병천이우대순대

중앙로

크리닉일번가

CGV  
일번가

농림  
자정  
산재 무료상담  
5층 1-886-22004

안양공고 → 창박예비군교장 →  
만안구청 Manan Dist. Office  
종합운동장 Sports Complex  
안양대학교 Anyang University  
안양역 Anyang Stn. ← 150m → 병곡안시민공원  
안양3.9동사무소  
안양과학대학

롯데백화점

인문대 444-4444

DR-OU

노무사 444-8328

노무사 자정  
비대선생연락

엘마트생화용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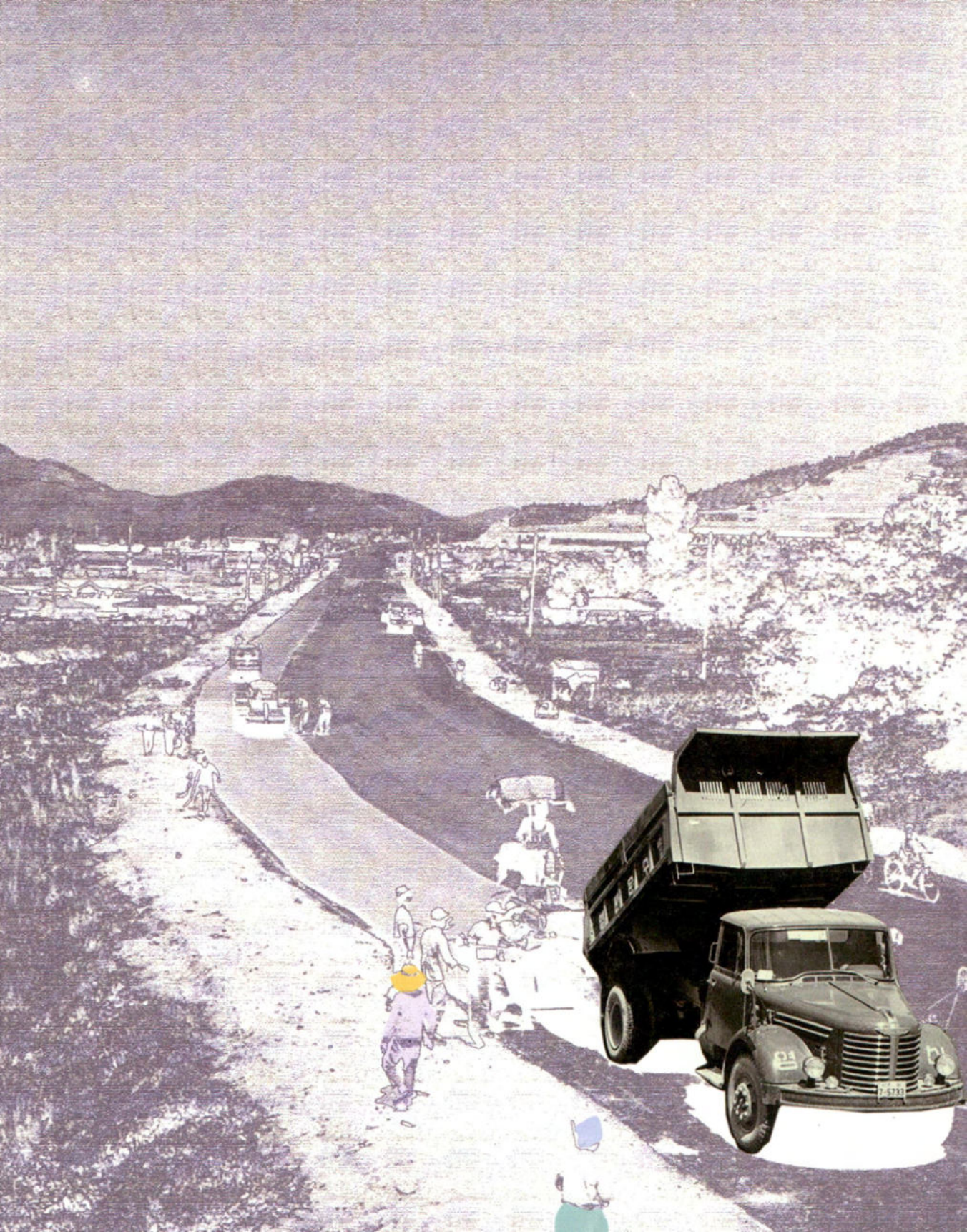


당일에도 인터뷰를 마치고 대농단지에서 과거 직장 동료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안양 시민들의 기억의 공간으로서 1번가는 오늘도 그 불빛을 밝히고 있다.

## 주)

- 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2권 :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 22쪽.
- 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1권 : 역사와 전통의 안양』, 2008, 53쪽.
- 3)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1권 : 역사와 전통의 안양』, 2008, 80쪽.
- 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1권 : 역사와 전통의 안양』, 2008, 298쪽.
- 5) 당시 수도권외의 공장들은 주로 사업주와의 인맥에 의한 입사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다음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에 따라 자기네 지역의 처녀, 총각들을 많이 입사시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금성방직이라고 하는 회사는 대구 달성군에서 많이 올라왔죠. 왜냐면 사주인 김성근 씨가 달성 출신이거든요.”(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상)』, 2016)
- 6) 안양지역시민연대/안양지역정보뱅크(<http://anyangbank.tistory.com/437>).
- 7) 이는 다른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시장에 술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타항 집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그 집 가서 술을 먹고 그랬죠. 4동이니까 집이랑도 가깝고 역전도 가깝고 그러니까 그땐 소주보다 막걸리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땐 돈이 없으니까 방아 짚어 가지고 심지어 6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노트에다 적어 놔다가 얼마다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쌀로 갖다 주고 농사지어서 방아 짚으면 쌀 갖다 주고 그런 생각이 나요.(원범례, 74세, 남성)”(안양문화원, 『안양지역사(하)』, 2016, 302쪽)
- 8) 기사가 작성된 당시인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여가’라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소비나 유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후술할 ‘1224쿠기하기’ 운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9)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4권 : 살기 좋은 환경도시 안양』, 2008, 61쪽.
- 10)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1권 : 역사와 전통의 안양』, 2008, 91~92쪽.
- 1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4권 : 살기 좋은 환경도시 안양』, 2008, 59~60쪽.
- 12) 이에 대한 자세한 상권변화의 양상은 문순배(『안양역 주변 상업지역에 의류상점의 공간적 분포 특성』,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3) 1985년 이전에는 15개소에 불과하던 안양 1번가의 의류상점은 1993년 이후에 이르러 78개소로 증가하였으며, 1번가와 연계된 상권으로 볼 수 있는 역전지하상가의 경우 1985년 31개소에서 1993년 이후 123개소로 증가한다. (문순배, 「안양역 주변 상업지역에 의류상점의 공간적 분포 특성」,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7쪽)
- 1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3권 : 성장 발전하는 안양』, 2008, 611쪽.
- 1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4권 : 살기 좋은 환경도시 안양』, 2008, 116쪽.
- 16)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1권 : 역사와 전통의 안양』, 2008, 192쪽.



너른 들,  
벌말이었던  
평촌의  
상전벽해

이진희 지역사 연구자

## 너른 들, 벌말이었던 평촌의 상전벽해

### 1. 옛날에 벌말이라 불렀던 평촌

1980년대 말까지도 평촌 들녘은 대부분 드넓은 평야였다. 봄이면 그 일대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내기를 하느라 하루가 길었고, 여름이면 푸른 벼가 들판을 가득 채웠다. 상상만 해도 눈앞이 탁 트이는 풍경이다. 평촌은 벌말, 그러니까 벌판에 들어선 마을이라는 순우리말을 한자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평한 땅이라는 뜻을 가진 평(坪)에 마을 촌(村)을 붙여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서울과 안산을 잇는 지하철 4호선의 평촌역 이름도 원래는 벌말역이었다. 벌말역이 평촌역으로 바뀐 때는 1996년 12월 16일이다. 평촌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었다고 한다. 어찌 되었든 너른 들판이었던 벌말을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평촌 신도시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저 평촌이라고 부른다. 그래도 '벌말'이라는 지명은 아직도 평촌의 거리에, 건물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조상 대대로 깃들여 살던 땅의 특징에 따라 토박이들이 자연스레 도출해 내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름은 쉽사리 소멸되지 않는 듯하다.





1960년대 평촌동(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의 남동쪽 방면이 평촌 들녘인데, 이곳 마을들은 인덕원이나 의왕과 오히려 가깝고 서쪽에서 본류인 안양천으로 합쳐지는 학의천이 안양시 동안구 남쪽 부분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다. 별말은 한때는 한강에서 과친, 안양에 이르는 모든 취락 중에서 가장 큰 동네였다고 한다. 조선 초기에 괴산 음씨가 최초로 그 마을에 살기 시작해서 음촌이라고 부른 적도 있는데, 음종인<sup>87</sup>씨는 현재도 안양에서 18대째 살고 있는 괴산 음씨 집안 후손이다. 음종인이 들려준 옛 평촌, 별말의 이야기는 뒤쪽에 이어진다. 평촌에는 음씨뿐만 아니라 밀양 박씨, 전주 이씨, 김해 김씨도 이곳에 터를 잡고 대대로 살았다. 넓은 벌판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하나 생겼고 이후 마을이 하나 더 생기고부터는 두 별말 또는 이평촌<sup>二坪村</sup>이라 했는데, 이를 줄여 이동리라고도 했다.

조선시대부터 이동리라 불리던 이곳은 1914년에 행정구역상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가 되었고, 시흥군 안양읍이었던 안양이 1973년에 시로 승격되면서 이동리도 평촌동으로 승격되었다. 평촌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구제를 실시한 안양시의 정책으로 인해 평촌동은 1992년에

동안구로 편입되는데, 1993년에는 평촌동이 평촌동과 평안동으로 나뉘고 이후 다시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으로 나뉘었다. 1989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평촌은 1992년 3월 말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서울, 과천, 수원, 안산을 연결하는 안양의 외곽 지역이었던 평촌은 1993년에 건설이 완공되어 7만 명이라는 인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되었다.

평촌이 도시로써 충분히 자리를 잡고 발전하면서 안양의 경제, 문화의 무게 중심이 동안구로 쪽으로 차츰 쏠리고 있는 듯하다. 물론 안양 시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안양 1번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안양의 경제와 문화, 안양 시민의 삶을 책임졌던 독특한 분위기를 사랑하며 안양 원도심에 거주하고 그곳을 찾고 있지만 새로웠던 것은 낡기 마련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쇠퇴를 온전히 막아낼 수는 없는 법. 때문에 옛 도심 지역인 만안구와 동안구와의 미묘한 갈등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눈치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18대가 살고 있다는 괴산 읍씨 음종인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그보다도 먼 옛날 평촌, 그러니까 벌말의 인심과 풍경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100여 호가 모여 살아서 '왜정 때부터 제일 큰 동네였다.' 는 그곳을 옛날에는 이동리라고 했다고 한다. 이동리는 의왕시가 코앞인 동네였다. 앞서 이미 언급한 내용인데 음종인의 증언도 그와 일치한다.

‘관양동은 일동리, 평촌동은 이동리. 100미터만 가면 의왕시였어.’

논농사, 밭농사를 짓던 시절, 마을 사람들은 인덕원 개울가에서 마을잔치를 치렀다. 인덕원 개울가라고 불렀던 곳은 행정구역상 안양시는 아니었다고 한다. 마을잔치 날은 밥은 반별로 먹고, 술은 한데 놓고 다 같이 마셨다. 10호를 한 개 반으로 묶어 모두 10개 반이 있었는데, 그때는 누구네가 어떻게 사는지 흰히 다 알 정도였다. 상을 당하면 모두 모여 내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장례를 도왔다. 누구네 집에 혼인이 있다는 소식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안내장이 필요 없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축하를 해주었다. 그때는 하천 물이 하도 깨끗해서 그 물을 떠다가 밥을 짓고 동네잔치를 했다. 한국전쟁 때는 폭격을 당해서 집들이 많이 상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많이 죽지는 않았다. 불이 난 집은 열 집 정도였는데, 그래도 사람은 많이 상하지 않았다.

1963년 당시 안양과 관련하여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 있다. 그해 10월, 그 당시 호계동과 평촌동 아이들이 다녔던 흥안국민학교의 5~6학년 학생들이 여주 신록사





1960년대 흥안국민학교(경기도청 제공)

로 소풍을 갔다가 조포나루에서 사고를 당해 교장과 학부형을 포함해 모두 마흔아홉 명이 물에 빠져 사망했는데, 그때 사망자에 이 동네 사람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시대지만 집집의 사정이며 형편을 훤히 알고 지내던 그 시절,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지내던 그 시절, 그 사건은 지역민들에게 크나큰 상처였고 충격이었다. 그 후 흥안국민학교는 학교 이름을 남국민학교남초등학교로 바꾸고 만다.

1969년에 평촌 동북쪽에 동일방직이 들어섰고, 1972년에 평촌 서남쪽에 오뚜기식품이 들어왔다. 또 대일제지라는 제지 공장도 평촌에 들어왔는데, 오뚜기식품 밑으로는 다 공장이었다. 공장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을이 발전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살던 토박이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스무 집 정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거의 행세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장사 치렀는데, 지금은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산다. 인심이 달라져서 이제는 누구네 집에 경조사가 있는지 다 알 수도 없지만 알아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공장이 생기면서 '아랫녘 사람들' 이 많이 왔다. 특히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많



1960년대 평촌 귀인마을(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농촌이었던 귀인마을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있는데, 친척 하나만 있으면 연줄을 달고, 달고 해서 다들 올라왔다. 동네에는 동일방직에 다니는 종업원들이 많았다. 동네 사람들은 집을 수리해서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숙을 치기도 했고, 집 안에 식당을 차려 밥장사를 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도 인근 공장에 많이 다녔다. 공장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때 그 일대는 논농사를 주로 지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공장에 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한 사람들은 품팔이를 했다. 마을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만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랫녘 사람들은 모내기철이면 일당을 받고 모내기를 했고,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를 경작하고 수확할 때도 품을 팔았다. 그 당시 농사를 짓던 사람들 중에는 공장에 땅을 팔아서 보상을 괜찮게 받은 사람들도 있다. 그곳의 논을 판 사람들은 의왕으로도 옮겨 가고 일부는 오산이나 시흥에 다시 논밭을 사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도 했다. 음종인의 기억으로 당시에 장남이 이사한 집이 열댓 집이었고, 차남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났다.

1960년대만 해도 하루에 버스가 1번만 다니던 동네였는데, 공장이 들어오면서부터는 교통이 좋아져서 다니기에는 좋았다. 하지만 집 근처에 삼양섬유라는 염색공장이 들어오고부

터는 공기가 나빠져서 아주 언짢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을음이 내려앉아 마당이 새카맣을 정도였고 빨래도 마음 편히 널지 못할 정도였다. 동북쪽 지역을 웃말 또는 상평촌(上坪村), 서남쪽 지역을 아랫말 또는 하평촌(下坪村)이라 불렀는데, 1973년 시제가 실시되면서 동 이름이 평촌동이 되었다. 그때는 한 동네가 3개통이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때 음종인 선생은 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마을 일을 많이 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마을 청소를 했고, 마을 안길 포장 공사며 화장실 개량에도 앞장섰다. 그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으러 수원에 있는 농촌지도소까지 다녔다.

## 2.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평촌 신도시의 탄생

# 坪村에도新都市 건설

## 아파트등 4萬2千가구... 92년 완공

【평촌】 평촌신도시 건설이 92년 말에 완공된다. 평촌신도시 건설은 1973년 시제가 실시되면서 동 이름이 평촌동이 되었다. 그때는 한 동네가 3개통이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때 음종인 선생은 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마을 일을 많이 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마을 청소를 했고, 마을 안길 포장 공사며 화장실 개량에도 앞장섰다. 그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으러 수원에 있는 농촌지도소까지 다녔다.

평촌 신도시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으로 생겨났다. 1988년 9월 13일, 당시 정부는 수도권 5개 도시에 대규모 물량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수도권 인구 팽창에 따른 주택난 해소, 치솟는 집값 문제 해결이 그 계획의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한 결과로 생겨난 도시가 고양시의 일산, 성남시의 분당, 부천시의 중동, 군포시의 산본, 안양시의 평촌이다. 이들 도시가 생겨난 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다. 이제 이들 신도시는 신도시라는 수사가 무색해질 정도로 도시의 기능이며 경제, 사회, 문화적 입지를 확실하게 자리 잡았으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꿈꾸는 중이다.

1970~1980년대 한국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이 급속하게 전국을 휩쓸던 시기였다. 자연을 경작하여 생산품을 얻던 1차 산업에서 천연자원을 가공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2차 산업으로 나라의 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과 인근 도시로 몰려들었다. 대형 기업부터 중소기업

평촌 신도시 건설을 다룬 기사  
 ("경향신문", 1989년 8월 23일)

1971년 서울-안양 간 도로 포장(경기도청 제공)



체, 소규모 가내수공업 수준까지 크고 작은 일련의 공장들이 도시화가 앞서 진행되었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시 한 귀퉁이에 어떻게든 삶의 등지를 틀러는 사람들로 인해 수도권의 인구는 급속하게 팽창했으나 물리적인 거주 공간은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기 벅찼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처방이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이었다.

서울에 인접한 서울의 위성도시 안양은 한때 구로공단 못지않게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서울의 금천구와 관악구의 일부분이 맞닿아 있는 안양은 서울의 침상도시<sup>Bed Town</sup>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지만 이조차 안양을 발전시킨 한 요소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안양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각종 공장이 들어서던 곳이었다. 그 당시 안양에 세워진 주요 공장은 섬유와 제지공장이었다. 안양은 공장이 들어서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안양천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어서 공업용수 확보가 용이했고 안양천을 따라 경부선 철도와 도로가 지나갔기 때문에 교통과 물품의 수송이 유리했다.

해방 후에도 안양에는 제일방직, 금성방직, 안양직물, 조선빠이루직<sup>織</sup>공업, 낙랑실업, 조선건직, 조선직물, 삼덕제지, 고려석면고무공업, 조선제도<sup>製陶</sup>공업, 남해산업, 삼길양산, 조선특수자기, 삼신제도<sup>製陶</sup>공업 같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 대부분의 공장이 파괴되기도 했으나 금성방직, 태평방직, 협신공업사, 삼덕제지, 고려특수자기, 삼화타일공업, 삼창건설사, 고려석면고무공업 등이 전쟁 직후 복구되거나 새로 건립되었다. 1960년대에는 전체 공장 수가 이전보다 줄어들기도 했다. 대신 가동되는 공장의 규모는 더 커졌다. 금성방직의 경우, 공장을 둘러싼 담장 둘레만 해도 10리<sup>4km</sup>에 종업원 수가 3,000명이 되는 큰 공장이었다. 금성방직이며 태평방직의 월급날은 안양에 돈이 도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을 정도였다.

안양의 공업지역을 더욱 확장시킨 것은 1968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와 1976년에 개통된 경수산업도로이다. 1980년대에는 전기, 전자, 중화학공업 공장까지 안양에 들어오게 된다. 대규모 공장들과 이들 공장에 딸린 무수한 협력업체들까지 합쳐진 공장지대가 된 안양은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한적한 촌락이었다. 안양천변을 따라 섬유와 제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안양은 1970년대에 본격적인 공업도시로 탈바꿈한다. 그렇게 안양은 한때 경인공업지대의 고용과 취업, 인구 건인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하였듯 인구가 집중되고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없던 문제가 발생했다.



1980년대 신도시 개발 직전 공장과 아파트로 포위되었던 평촌(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평촌 신도시 개발 현장(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 2008)

주거지가 부족해지고 교통난이 심각해졌으며,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로 인해 하천이며 환경이 견잡을 수 없이 오염되었다. 중화학공업이 들어온 이후 안양천의 오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1979년부터 안양시는 공업용수와 상수도 수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안양에 중화학공업 관련 공장의 신축이나 증축을 불허했다. 거기에 1983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안양의 공장들도 1990년대 중반부터 차츰 지방으로 이전해 가기 시작했다.

안양천의 오염이 어느 정도였는지 엿볼 수 있는 시를 일부 인용해 본다. 인용하는 시가 실린 시집의 발간연도가 1990년인 것을 보면 시는 아마도 1980년대 중후반 정도에 쓰이지 않았을까 싶다.

라면 봉지, 팔 꺾인 인형 따위를 띄우고  
 시꺼멓게 흐르는 안양천  
 천변의 바랭이 풀밭을 걷다가, 때를 잃은  
 메뚜기 한 마리를 보았다.  
 (이하 생략)

- 최두석, 『안양천 메뚜기』, 『성애꽃』, 문학과 지성사, 1990

사실 안양시는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발표 2~3년 전부터 '안양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우고 택지개발을 구상하고 있었다. 안양시는 이미 이곳을 개발하려고 토지이용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으나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때까지도 대부분 너른 벌판으로 남아있던 평촌은 1989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1차 분양은 1990년, 신도시 입주는 1992년 3월 31일부터 시작되었다.

### 3. 새로이 편성된 안양과 평촌 신도시의 초창기

평촌 신도시 건설은 안양시를 새로이 편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단위의 평촌 신도시가

생겨남으로써 안양은 1992년 10월부터 '구제'를 실시했다. 안양1번가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원도심을 포함한 서쪽이 만안구, 평촌 신도시를 포함한 동쪽이 동안구가 되었다. 1973년 시흥군 안양읍은 안양시로 승격되었다. 그때 5~6만 명이었던 안양의 인구는 2017년 12월 현재 대략 60만 명이다. 40여 년 만에 인구가 무려 10배로 늘었다. 1990년 당시 안양의 인구는 48만 명 정도였다. 평촌 신도시가 생기면서 안양으로 유입된 인구가 10만 명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보인다.

안양은 이를테면 분지형 도시이다. 관악산, 청계산, 수리산, 모락산 줄기가 안양을 둘러싸고 있다. 또 서울의 금천구와 관악구, 과천시, 의왕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가 안양을 감싸 안기라도 하듯 빙 둘러 서있다. 실제로 안양시는 1914년에는 시흥군 서이면이었는데 그때 서이면의 인구는 고작 3,500명이었다. 서이면은 1941년에 안양읍이 되었고, 1945년에 시흥군청이 안양면으로 이전하였으며 안양면에 안양경찰서가 개소했다. 1949년 기준 안양읍의 면적은 39.1km<sup>2</sup>이고, 인구는 2만여 명이었다. 그러다가 1963년에 시흥군의 동면 신안양리와 서면 박달리가 안양읍으로 편입되면서 안양의 면적은 58.16km<sup>2</sup>가 되었고, 1973년에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었다. 현재 안양시의 면적은 58.50km<sup>2</sup>이다. 시 승격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앞서 열거했듯 산과 도시들로 둘러싸인 안양은 일정한 면적과 공간 안에서 변화와 발달을 꾀해야 하는 도시임에 틀림없다.

평촌 신도시의 인구 밀도는 과천시나 목동 신시가지, 상계동의 평균 수준으로 설정되었다고 한다. 드넓은 논밭과 곳곳에 비닐하우스, 양계장, 돈사, 축사가 있던 평촌 들판에 대규모로 들어선 것은 고층 아파트 단지다. 저층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몹시 적은 편이다. 평안동 주민 안용선(60)의 말에 따르면 평안동의 경우, 상가지역은 없고 오로지 아파트 단지만 있는 주거지역이다. 물론 아파트 입구에 아파트에 딸린 자그마한 상가건물은 존재하지만 다양한 상점들이 대거 모여 있는 상가지역은 주거지를 벗어난 곳에 형성되어 있다. 평촌은 주거 중심의 신시가지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92년 건설부가 발표한 평촌 신도시의 개발 목적은 주택난을 해소하고, 도시 구조를 균형적으로 재편성하며,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평촌은 주거지에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섞여 있지 않다.

25년째 평촌에 살고 있는 안용선은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자마자 평촌에 들어온 초기 입주민이다. 서울 응암동이 친정인 안용선은 그 시절 호계동에 위치한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따라 안양으로 이사를 했다. 3~4년 정도 안양에 살고 있던 중에 청약 예금을 붓고 분당





1990년대 수리산에서 바라본 안양

안양은 관악산, 청계산, 수리산, 모락산 줄기가 둘러싸고 있는 분지형 도시이다.

과 평촌 두 군데에 청약을 넣었는데 평촌에 당첨되어 평안동에 있는 32평 초원성원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당 쪽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면 지금 분당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서울에서 30년 이상 살던 안용선은 안양 원도심을 거쳐 평촌으로 이주하기까지 서울만 구석구석 잘 알았지 그때만 해도 안양을 시골이라고 생각했다. 안양 원도심에서 몇 년을 살기는 했지만 그도 그럴 것이 평촌에 입주할 당시만 해도 아파트 주변은 보이느니 논이고 밭이었다. 저녁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창 너머로 멀리 관양동의 불빛이 보일 정도로 아파트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초반 4~5년은 적응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그 기간에 아파트 근거리에 상가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고 교통도 말할 수 없이 불편하였다. 그때 안용선 씨는 관양동 시장이나 호계동으로 장을 보러 다녔는데, 대중교통 노선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택시를 타고서 장을 보러 다니기도 했다. 지금이야 교통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교육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 1997이며 한림대학교성심병원1999,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검찰청수원지방법검찰청 안양지청, 2009도 다 나중에 들어온 것이라 초기 입주자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



1996년 평촌 신도시 전경

니었다. 살다 보니 25년이 지난 지금은 정이 들고 이곳이 정말로 좋지만 처음에는 이곳에 정 붙이기가 만만치 않았다.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토지를 구획, 정리하고, 민간업체에 주택 분양과 개발을 맡기는 방식이 당시 5개 신도시의 개발 방식이었다. 이는 민간업체가 일단 주택 분양과 개발을 맡고 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민간업체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방식이 차츰 보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건설 재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민간업체가 입주자들에게 사전 분양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 그렇다 보니 도로며 교통, 행정 서비스, 교육 등의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높은 기반 시설 확충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파생된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초창기 입주자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평촌 학원가(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 4. 평촌 학원가와 먹거리촌 그리고 걷기 좋은 곳

세 살 터울 남매를 둔 안용선이 평촌에 입주하던 당시 안용선의 둘째 아이는 다섯 살이었다. 그 아이가 올해 서른 살이 되었다. 둘째가 중학생일 때 이미 평촌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서 안용선도 중학생 아이들을 그곳 학원에 보냈다. 안용선은 질적으로는 강남의 대치동보다는 수준이 떨어질지 몰라도 규모 면에서는 전국에서 최고일 거라고 평촌 학원가를 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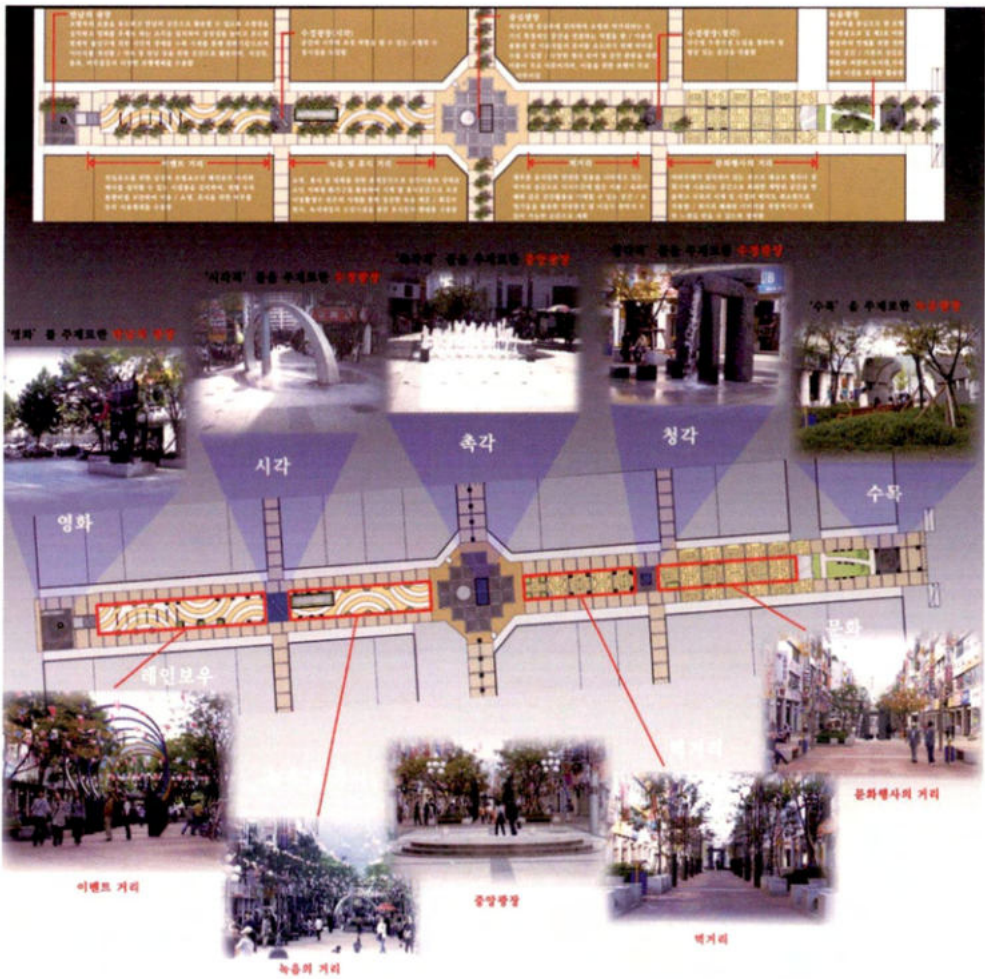
평촌 학원가는 1990년대 중반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왕복 10차선의 널찍한 평촌대로를 사이에 두고 신촌동과 귀인동이 마주하고 있는 길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빌딩에 촘촘하게 학원이 들어 차 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리에 밀집한 학원가는 수업을 마치는 밤 시간이면 학생들의 귀가를 책임진 학원 차량이며 자녀들을 태우러 온 학부모들의 자가용들이 뒤섞여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룬다. 4호선 범계역과 평촌역에서 10분 안팎의 거리에 있는 수도권 남부 최대라는 평촌 학원가는 안양뿐 아니라 과천, 군포, 의왕, 수원의 학생과 수험생들의 수

요까지도 흡수하고 있다.

학원가 뒤쪽 귀인동 쪽으로는 평촌 먹거리촌인,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1996년 10월에는 귀인동과 신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평촌 먹거리촌 문화축제'가 시작되었다. 이 문화축제는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먹거리촌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안양을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평촌 1번가의 사업자들과 관련 동호회, 지역 업체들이 힘을 모은 이 축제는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객들은 명성에 걸맞을 만큼 맛집의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곳을 드나드는 이들의 주요 연령대가 10대부터 30대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 먹거리 유행도 그만큼 빨리 변하는 것인지 새로 생겨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식당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식당이 많고, 그들 가운데에는 꾸준한 노력과 정성으로 꾸준히 살아남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식당들도 꽤 있다고 하니 그런 곳을 애써 찾아가는 재미도 있을 듯하다. 아쉬운 점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때문에 이곳의 식당을 이용할 때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평촌에 살면서 무엇보다 좋은 점은 걸어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잘 조성된 산책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걷기에 참 좋다고.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지만 평촌에는 공원도 참 많다. 평촌 한복판에 자리한 중앙공원을 비롯하여 평촌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소공원들이 무수히 자리하고 있다. 한겨울만 아니면 가볍게 입고 문 밖을 나서기만 하면 바로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공원 산책로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20분 정도. 걷는 데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몇 바퀴 돌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공원을 거쳐서 10~20분만 걸으면 범계역이며 평촌역에 도착한다. 역 근처에는 대형 쇼핑몰과 아울렛을 비롯하여 은행, 병원, 극장 등 생활편의 시설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시민대로를 따라서는 법원, 검찰청, 소방서, 세무서, 교육청, 시립도서관, 시청, 시의회, 전화국, 보건소, 구청, 청소년수련관, 경찰서가 일정 구역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계획도시의 장점이 여기에 있는 듯하다.

중앙공원은 안양시청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넓이가 3만 6,000평<sup>1만 2,000km</sup>에 이른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탓에 사방으로 아파트며 고층 빌딩이 보이기는 하지만 면적이 넓고 공원 외곽이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갑갑한 느낌은 전혀 없다. 철마다 다른 꽃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공원 곳곳에서 시원한 분수가 다양한 모양으로 뿜어져 오르는 데다 인공 냇물



평촌 1번가 문화의 거리

까지 흘러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까지 즐겨 찾는 장소가 중앙공원이다. 유아들은 아예 수영복까지 갖춰 입고서 이곳에서 물놀이를 한다. 유치원 행사며 사생대회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행사가 이곳에서 치러지고 한겨울만 빼고는 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나 공연이 벌어지는데, 2000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시민축제의 장소로 반드시 중앙공원이 이용된다. 공원에는 예술 조형물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놀이터를 비롯하여 간이 운동시설과 다목적 운동장, 그리고 작은 운동장도 여러 개 갖춰져 있다.

## 5. 제2의 고향, 사랑하는 나의 평촌

안용선은 다른 지역에 갔다가 평촌에 들어서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다고 한다. 물론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는 지역과 동네를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외지에서 이주한 사람의 경우, 자신이 태어나거나 유년기며 청년기를 보낸 곳을 더 그리워하기가 쉽다. 이제 나고 자란 곳에서 만큼 안양, 그리고 평촌에 산 안용선 씨는 평촌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 같다고 한다.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이 평안동이라서 그런 건지 평촌으로 들어와 살면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고도 한다.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평범하게 살기가 그리 쉬운 일일

까. 인생의 풍파를 겪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이루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평안동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해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발령받고 싶어 하는 동네가 평안동이라고 한다.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비슷해서 특별한 분쟁이나 대립도 없었다.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좋고 노년을 보내기에도 좋은 곳이 평촌이다.

어려움이 있다면 이곳의 아파트도 벌써 오래된 아파트가 되어서 주차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집에 차가 한 대 이상인 집들이 많고, 어떤 집은 식구 수대로 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나름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한 세대에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을 2대까지만 인정하는데, 1대는 무료이고, 나머지는 비용을 내는 것으로 했다. 미등록 차량은 아파트 안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세웠다가 위반 딱지를 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평촌에 없는 것을 굳이 언급하자면 고속버스터미널뿐이다. 물론 일부 고속버스는 안양을 경유한다. 고속버스터미널만 제외하면 평촌만큼 교통이 좋은 곳도 드물 것이다. 전철역이 가까운데 과천선이 1호선 전철과 안산선에 연결되며, 버스 노선이 잘 마련돼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가까워 대중교통에서부터 자가용 이용까지 모든 것



평촌 1번가 문화의거리 입간판



평촌 1번가 문화의 거리

이 편리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만 타면 성남시를 시작으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까지 30분에서 한 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다. 삼성산이며 관악산이 가까워서 등산을 하기도 좋다. 일반적인 등산 코스는 관양고등학교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국기봉이나 팔봉까지 오르는 코스라고 한다.

## 6. 부흥을 꿈꾸는 안양시에서 평촌이 갖는 의미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였던 안양은 평촌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경제, 문화, 복지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그 예로 2002~2004년까지 전국 지방자치 경쟁력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 안양의 지형은 도시 발전의 장점이자 약점으로도 작용했다. 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들이 인접하여 인근 도시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여 생산 조건은 물론 생활 조건이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거나 더 뛰어나



평촌 1번가 문화의 거리

지만 외곽으로 더 뻗어나갈 수 없는 지형적 조건은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도시 발전과 유지를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존재 기반을 모색해야 하는 난제를 제시한다.

평촌 신도시의 건설은 안양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새로이 조성된 도시에 대거 유입된 인구는 안양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거대한 지각 변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60만 안양의 인구 중에 평촌동과 평안동의 인구는 4만 남짓, 귀인동까지 포함하면 6만 가까이 된다. 동안구의 주거 지역 면적은 만안구와 비교하면 절반 남짓이지만 인구 밀도는 만안구에 비해 훨씬 높다. 주택의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인구 밀집 정도에 비해 생활환경은 쾌적하다. 계획도시이기에 주거지역과 상가지역, 공업지역이 분리되어 있고 도로와 산책로,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다. 수도권 남부에서 최고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학원가가 발달하여 교육에 필요한 조건 중 중요한 부분도 잘 충족되어 있다. 평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표현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안양은 청소년 인구와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세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의무 경비가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거기에 대기업과 공공기







한국의  
문화유산  
세계유산  
한국의  
문화유산  
세계유산



평촌 신도시 전경(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도시 경쟁력도 약화되었고, 원도심 지역이 낙후되어 만안구와 동안구 간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제2의 부흥을 꿈꾸며 도시를 발전 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도시 역시 유기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특정 지역의 발전만으로는 결국 한계와 난관, 갈등에 봉착한다. 안양 1번가가 한때 그 어느 곳 못지않게 번성한 곳이었듯 평촌 또한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한 시간의 때가 묻으면 낙 후된 도시가 될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요원해 보이는 일이지만 말이다.

안양시는 원도심 일대의 낙후 지역들을 선정하고 대대적인 도시 재생사업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재생사업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 지난 2004년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학의천을 둘러보고 극찬을 했다고 한다. 2006년에는 역시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폴 쿨먼이 학의천을 방문하여 환경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 했다. 한때는 공업지역으로 유명했던 안양, 그러나 그로 인해 안양천은 대표적인 오염하천 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대규모 공장들이 이전되고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민관단체의 힘에 보태져 안양은 안양천의 옛 모습을 찾고 쾌적한 생활환경, 문화환경을 만들었다. 안양천 복



안양시청과 안양시의회(안양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원과 더불어 평촌의 환경을 살펴보면 안양은 공업도시였던 안양을 환경도시로 부각시킬 자원이 풍부해 보인다.

제2의 안양 부흥을 꿈꾸며 안양시가 내세운 선전 구호는 '사람 중심, 인문도시' 안양이다. 원도심의 낙후 지역을 재생하고 도시 외곽 지역을 정비하는 한편, 평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다 친근하게 홍보하고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다. 안양시 전체의 노력에 동안구 구민의 협력, 더 깊이 들어가 동안구 내의 각 동네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 뿐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찾고 싶고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로 안양은 분명 거듭날 듯하다.

고운 모래, 백사장이 있던 안양천. 메기, 모래무지, 뱀장어, 피라미가 헤엄치던 개울가 옆에 향기롭게 포도가 익어 가는 포도밭이 있던 그 옛날의 안양, 푸르른 논이 드넓게 펼쳐 있던 평촌 들녘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절의 안양, 평촌을 기억하는 한 안양은 새로운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평촌 귀인동 전경













건축은 흙이나 나무, 돌 또는 벽돌 등을 이용하여 집, 성곽, 교량 등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만들어진 모든 건조물을 포함한다. 문화유산 측면에서 건축 자료는 고대의 선사 유적부터 시작하여 근현대까지 정신적 유무형의 예술성과 역사적 자산을 모든 건조물에 포함한다. 또한 유형별로는 선사 유적, 관방 유적, 불교 건조물, 유교 유적의 서원과 향교, 재실, 정려 등을 모두 포함하나 사람이 사는 가옥은 건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위적 구조물의 출발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되는 집은 인간이 사회적 환경을 이루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일정한 제도를 바탕으로 조성되며, 주변 환경이 지닌 여건 및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적용된 고유한 자신의 전통적 양식과 특성을 지니고 누대에 걸쳐 이어질 때 이를 전통 가옥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 역시 오랜 시간에 걸쳐 주변의 환경과 시대의 특성이 반영되며 가옥의 규모와 형식의 변화를 가져 왔다.

우리네 전통 가옥은 자연과 조화된 순응의 자연애를 바탕으로 하는 질서를 존중한다. 산을 등지고 너른 농지와 물을 마주한 후 문을 열어 햇볕과 바람을 맞아들이고 비와 눈을 피하도록 지어졌다. 이는 철저하게 계절의 변화, 즉 시간을 고려한 배치이다. 채와 마당으로 구분되는 집들의 내외 공간은 바깥마당에서 대문의 전후로 배치한 사랑채를 만나고 다시 안마당을 지나 안채를 바라본다. 안채는 기단들을 밟고 대청에 오르면서 안방과 건넌방으로 연결된다. 집안의 공간 구성은 남녀와 위아래의 구분이 뚜렷하다. 안채는 부부의 공간이기도 하나 본래는 안주인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부엌과 가장 짧은 동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사랑채는 바깥주인의 공간으로 외부와 연결되어 손님 접대와 휴게의 기능을 지닌 남성 전용의 공간이다. 그리고 마당으로 눈을 돌려보면 안마당은 집의 안과 바깥을 연결하는 접점이자 중심으로 생산과 분배, 모임과 흠어짐의 공간이며 자연의 순환을 가득 담은 빛의 상자이기도 하다. 또한 부엌과 연결되는 뒷마당은 장독대와 더불어 여성의 애환과 정성이 잘 남아 있는 공간이다. 이와 함께 신앙 공간으로 집을 보호해 주는 성주신과 터주신이 있고 큰 집의 경우 가묘<sup>家廟</sup>가 있어 중요한 토속적 믿음 행위 내지는 의례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양시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 속에 전통 가옥의 형태는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동편마을의 개발과 함께 전통적인 생활과 주거 형태가 잔존하던 마을은 사라지게 된다. 이 글은 2006년 조사된 비산동, 관양동 지역의 전통 가옥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은 남아 있지 않은 안양지역 전통 가옥의 구조와 형태 등을 알려 주는 자료로서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의 시점은 조사 시기인 2006년을 기준으로 한다.

〈표 1〉 전통건축 조사 현황

지역	소유	주소	건축연도	용도	출처	비고
관양동	이관구	동안구 관양동 461번지	1928	주택	안양의 전통가옥	再
	이길자	동안구 관양1동 신29-2번지	1932	주택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再
	오천교	동안구 관양1동 478번지	1964	주택		新
비산동	이재락	동안구 비산3동 35-2번지	1908	주택	안양의 전통가옥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再
	장순태	동안구 비산3동 107-2번지	1930	주택		新
	김인태	동안구 비산3동 123-6번지	1944	주택		新
	송채남	동안구 비산3동 107번지	1957	주택		新

비고 : 再는 기초사된 가옥의 재조사, 新은 처음으로 조사된 가옥이다.

안양시 관양동은 관악산을 주산으로 남쪽에 배치된 마을이다. 안양은 평촌 신도시 개발로 옛 마을이 거의 사라지고 전통가옥도 1900년대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개발구역에서 벗어나 옛 마을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남기고 있는 곳이 관양동 일대와 비산동 일대이다. 그러나 최근 관양동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관양동은 선사시대 움집들도 대량으로 발굴되었다. 서울 근교에서 이만한 움집들이 발견된 것도 드문 일이며 관양동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양동은 선사시대 이래 사람들이 살아온 유서 깊은 곳으로 그러한 맥락에서도 관양동 마을과 전통가옥 조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산동은 관양동과 이웃한 지역으로 조사된 가옥 유형으로 보았을 때 같은 문화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옥의 평면 및 구조적 특징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가장 오래된 집은 비산동의 이재락의 가옥으로 조사되었다. 1908년에 지어진 것으로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안채와 아울러 사랑채까지 원형이 잘 보존된 가옥이기도 하다. 그리고 1900년대 초 안양지역 가옥의 특징을 대변하는 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산동의 장순태 가옥과 관양동의 이길자 가옥, 이관구 가옥이 1930년대 전후로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진 집들이다. 이때까지도 큰 변화 없이 이재락 가옥과 같은 평면유형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1980년대 새마을운동과 난방방식의 변화로 평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만 20세기 중반까지는 대체적으로 초창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제1장 이재락 가옥

### 1. 가옥의 위치와 배치

이재락李在樂 가옥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5번지에 있다. 안양시의 주산인 관악산 아래에 있는데 관악산의 주봉<sup>629m</sup>과 삼성산 주봉에서 뺀어 내린 산맥으로 이루어진 협곡 남쪽 분지에 위치하였다. 이 협곡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남쪽을 내려오다가 서쪽으로 빠져 안양유원지 계곡을 이루며 안양천으로 빠진다. 물길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서쪽으로 꺾이는 것은 관악산 주봉에서 내려온 산맥 하나가 서쪽으로 뺀어 가기 때문이다. 서쪽으로 뺀어 가던 산줄기는 비산동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해발 200m 봉우리를 이뤄 끝나고 비산동과 관양동 사이에서도 남쪽으로 구룡을 이루며 뺀어 내려왔다. 남쪽으로 뺀어 내린 두 산줄기는 비산3동의 좌청룡과 우백호를 이루는데 이재락 가옥은 그 좌청룡 자락에 앉아 남서향을 하고 배치되었다.

안양시 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충의로를 타고 북쪽 관악산을 향해 들어가다가 충의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매천길을 따라 가장 안쪽까지 들어가면 된다. 매천길은 충의로에 고리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상형으로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재락 가옥은 그 고리의 안쪽 끝부분에 있다. 매천길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차량 2대가 겨우 교행하는 정도이다.



안채 대청마루 종도리에는 목서가 남아 있다. “崇禎紀元後五戊申四月十九日午時豎柱上樑寅坐申向家主戊子生 輪馬奘馬 歌斯樂斯 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이라고 하였다. 순정기원<sup>1628년</sup>로부터 다섯 번째 무신년은 1908년 대한제국시기에 해당한다. 목서대로라면 현존하는 안양시 민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집이다. 집을 지을 당시 집주인은 무자생이므로 1888년에 태어나신 분이다. 현재 이 집에 살고 계시는데 이재락조사 당시 69세 할머니의 시아버지 정도로 추정된다. 이재락 할머니는 이 집으로 시집와 줄곧 여기서 사셨다. 시집 올 당시 15마지기 정도의 농토를 소유한 소농 정도는 되었으며 비산여관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촌과 함께 시발택시 운수업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했고 시의원 출마하느라 많은 돈을 소모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300평 정도의 밭 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집은 207평이다.

초창 당시는 초가였는데 1970년대 지붕개량사업을 시멘트 평기와로 개량되었다. 그리고 기둥과 기본 골격을 제외하고 서까래 등은 이 때 많이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는 처음에는 초가였을 것이나 조사 당시에는 안채와 같이 평기와로 지붕이 안채와 연결되어 있다. 사랑채는 목서가 없어 정확한 초창 연대를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사랑채는 안채보다 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안채 대청마루는 단칸이었는데 어느 순간 대청을 두 칸으로 넓히고 건넌방을 동쪽으로 이동하여 덧달아 냈다.

집은 인좌신향<sup>寅坐申向</sup>으로 정확히 남서향을 하고 있다. 비산3동 충의로를 중심으로 본다면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자락에 올라타고 있는 것으로, 집 뒤로는 그리 경사가 심하지 않은 좌청룡의 산능선이 감싸고 있다. 그 능선과 평지가 만나는 분지에 지어진 집으로 집 뒷산에는 선조의 묘소가 있다. 사랑채 기단에 연결하여 전면에는 콘크리트 포장의 마을길인 매천길이 가로 놓여 있는데 폭은 3~4m가량이다. 이후 원고에서는 집을 기준으로 전면을 남쪽으로 설정하고 위치를 설명하기로 한다. 전면 길은 동남쪽 모퉁이에서 곡선으로 꺾여 앞쪽으로 내달려 다시 충의로에 연결된다. 도로 앞으로는 작은 텃밭이 있는데 지금도 이곳에서 작은 농사를 짓는다. 본채 서남쪽 길 건너에는 길에 면해 콘크리트 빈지널로 지은 별동의 화장실을 두고 있으며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원래도 여기가 화장실 및 잣간이었으며 재료만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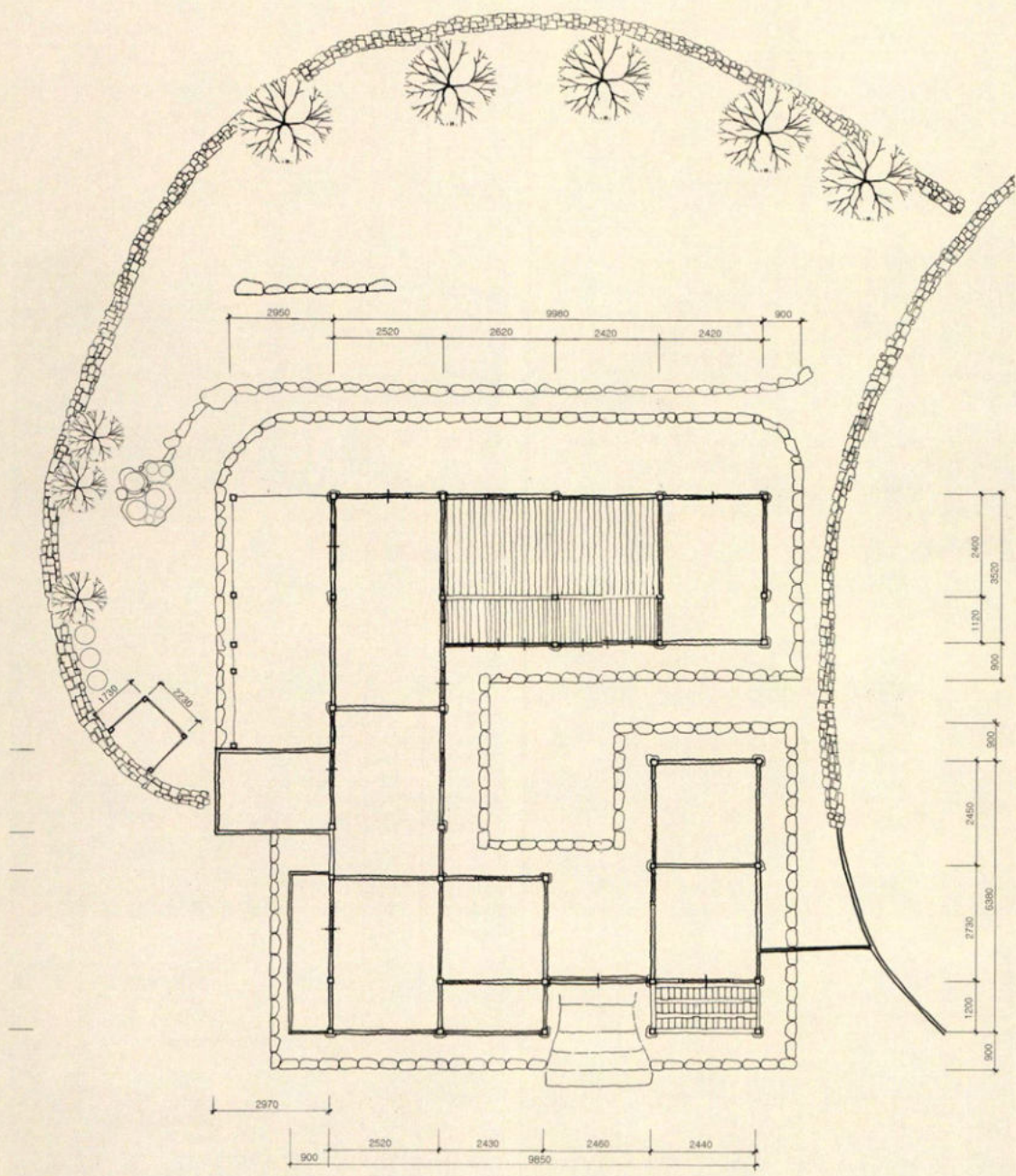


1. 문간채(남서측)
2. 이재락 가옥 정면 전경
3. 문간채(남동측)
4. 이재락 가옥 후면 전경
5. 안채 배면 전경
6. 안채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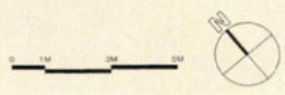
1	1	2
3	1	4
5	1	6







배치도



본채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담장 너머 외곽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실개천이 있다. 실개천 너머에도 많은 민가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민가를 활용 개조하여 식당으로 영업하고 있다. 본채 동쪽으로는 담장 너머 붉은 벽돌로 지은 2층 양옥이 배치되었다.

본채는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채는 화장실 이외에 별도로 없다. 좌우가 바뀐 ‘ㄱ’ 자형의 안채를 안쪽에 배치하고 좌우가 바뀐 ‘ㄴ’ 자 사랑채를 그 전면에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튼 ‘ㅁ’ 자 배치를 한 집이다. 사랑채 전면에는 도로가 바로 붙어 있으며 도로 건너가 텃밭이다. 안채 후원 담장 안쪽도 작은 텃밭이며 담장너머 묘지 아래에도 텃밭이 있다. 안채 좌우와 뒤로는 돌담이 둘러져 있는데 좌우는 가까이 붙었고 뒤쪽담장은 본채 앞뒤 폭 정도로 빠져 둥글게 원형으로 둘러쌌다. 돌담의 시작은 안채 부엌 측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쪽으로 약 3m 정도 빠지다가 북쪽으로 꺾여 약간 벌어지면서 올라가다가 크게 원을 그리며 뒤쪽을 감싸 돌다가 동북 모서리 쪽에서 이웃집 담장과 만나 끝난다. 지금은 2층 양옥으로 바뀐 동쪽에 위치한 이웃집 담장이 같은 돌담으로 일부 구간이 남아 이재락 가옥 담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웃집 담장은 이재락 가옥 본채 동북 모서리에서 일부 구간 밖으로 빠져 나가 있으며 그 반대편은 이재락 가옥을 치고 들어와 이재락 가옥의 동쪽 담장을 이루고 있다. 동쪽 담장은 서북 모서리에서 휘감아 방향을 선회하여 남쪽으로 빠진다. 본채 벽면과는 3m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다. 돌담의 끝은 중정 마당 앞선 정도에서 멈추었으며 그 앞쪽으로는 콘크리트 빈지널로 담장을 이어 댔다. 또 담장과 사랑채 측면 사이 통로도 역시 콘크리트 빈지널로 막았다. 그 빈지널 담장 앞쪽으로는 배수가 흠이 있고 집안에서 빠져나온 물은 여기에 집결하고 도로 아래에 설치된 배수로로 연결된다.

후원 담장 안쪽에는 남북으로 길게 놓인 밭고랑 흔적이 있으며 담장까지는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 그리고 담장 가까이에 이르러서는 자연석을 쌓아 한 단 정도를 높여 주어 화계로 삼았다. 안채 서북 모서리 쪽에는 방형으로 자연석을 이용해 단을 쌓고 장독대로 이용했으나 지금의 장독은 그보다 아래쪽에 내려와 있다. 후원 담장 안쪽에는 감나무 네 그루가 심어져 있고 동서에는 담장 안쪽으로 사철을 심었다. 그리고 서쪽 담장 밖으로는 담장에 면에 엄나무를 줄지어 심었다. 엄나무는 가시가 많아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담장 높이는 1.5m 정도이며 자연석을 이용해 쌓았는데 대각선으로 돌을 엇비슷하게 얹혀 쌓고 위단은 그 반대방향으로 얹혀 쌓아 마치 교살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러한 쌓기법은 기단에서도 나타나며 이 지역의 다른 집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 지역 돌 쌓기의 보편적인 양식으로 추정된다. 담장 중에 일부 구간이 무너져 다시 쌓은 곳이 있는데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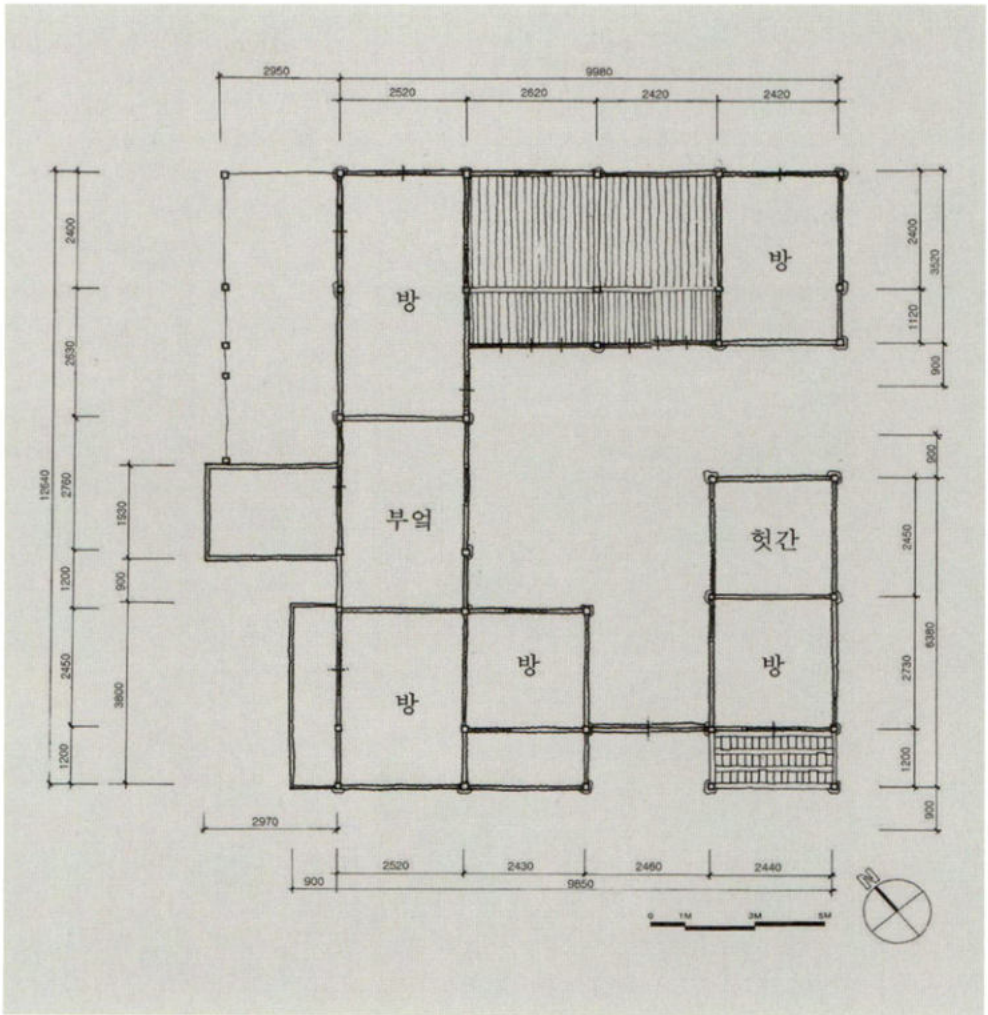
곳은 돌을 수평으로 넓혀 쌓았다. 오히려 이 구간이 원래 모습 같지만 이 지역에서는 대각선으로 엇비슷하게 넓혀 쌓는 것이 원형이다.

## 2. 가옥의 평면

### 1) 안채

안채 평면은 좌우가 바뀐 ‘ㄱ’ 자이다. 좌향은 대청을 기준으로 인좌신향인 서남향이다. 안채 중앙의 2칸은 대청마루인데 전퇴를 두고 있으며 대청과 퇴에 경계를 두지 않고 남북방향으로 장마루를 깔았다. 대청 두 칸 중 서쪽 칸은 기둥 간격이 2,620mm이고 동쪽 칸은 2,420mm로 차이가 있다. 앞뒤 기둥 간격은 2,400mm이며 퇴칸의 고주와 평주 간격은 1,120mm이다. 대청 동쪽으로는 정면 1칸, 측면 한 칸 반의 건넌방이 배치되었다. 방의 크기는 전퇴 부분까지를 방으로 꾸며 2,420×3,520mm 크기이다. 대청 서쪽으로는 앞뒤로 두 칸을 통합하여 안방으로 삼았으며 안방 전면에는 다시 한 칸 반을 남쪽 앞으로 뽑아 부엌을 꾸몄다. 안방의 기둥 간격은 동서가 2,520mm이고 남북이 뒤에서부터 2,400mm, 2,630mm로 서로 다르다. 그 앞쪽으로 부엌은 2,750mm으로 더욱 커졌으며 반 칸의 기둥 간격은 1,200mm이다. 평면 간살의 기둥 간격이 일정치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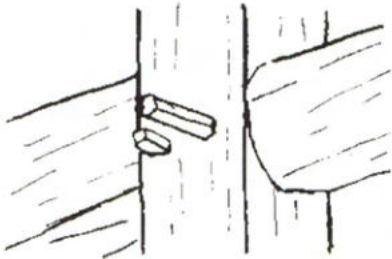
현재 안방 및 부엌 칸 서쪽 측면은 처마 밑까지 외벽이 확장되었으며 다시 여기에 남북으로 길게 실을 덧붙여 안방 쪽은 창고, 부엌 쪽은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다. 안방의 출입은 대청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출입문은 변형되어 현재는 외쪽 여단으로 합판으로 만든 플래시도어가 달려 있다. 툇마루 쪽에는 외쪽 세살여단이 창이 달려 있는데 이것이 바로 눈썹찌기 창이다. 이 창은 초창 때부터 있었던 고풍스런 것으로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눈썹찌기 창으로는 크기가 큰 편이지만 출입문이 아니라 단지 밖의 동태를 살피고 잠시 손님이 왔을 때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창이다. 안방 안에서는 창고 쪽으로 두 짝 미단이 유리창을 달아 채광을 하고 있다. 안방은 두 칸인데 서쪽으로는 처마선까지 늘려 확장하였다. 안방 북쪽 벽에는 장롱이 놓였으며 창문 쪽 확장된 부분에는 서랍장과 텔레비전, 전축 등이 놓였다. 주로 출입구 쪽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엌 쪽 벽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다. 예전에는 여기가 아랫목으로 부엌과 연결되는 쪽문이나 다락 등이 시설되어 있었을 것이나



안방

지금은 아무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않으며 벽으로 막혀 있다. 지금은 안방에서 부엌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청을 거쳐 뜰로 해서 별도로 난 부엌 출입문을 통해서야 가능하다.

안방 앞쪽 부엌은 현재 입식으로 모두 개조되어 있다. 뜰에서 외쪽 출입문을 통해 별도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올거머리가 있고 위에는 유리, 아래는 판재를 끼운 목조 문이다. 문 옆에는 바로 붙여 두 짝 여닫이 유리창문이 채광용으로 달렸다. 부엌은 출입문과 마주보는 위치에 보일러실과 후원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하나 더 달렸다. 안방 쪽 벽에는 싱크대와 찬장이 시설되었는데 예전에는 부뚜막과 아궁이가 있었을 위치이다. 입식으로 바



1. 안마당
2. 안채
3. 부엌 측
4. 문간채
5. 안채 상세
6. 안채와 헛간

1 | 2  
3 | 4  
5 | 6



꾸면서 아궁이와 다락 및 보조 출입문 등을 철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싱크대 맞은편 쪽 남쪽 벽면에는 냉장고와 서랍장 등이 진열되었으며 서쪽 벽면에는 텔레비전 등을 놓았다. 바닥에는 비닐장판지를 깔았으며 뜰과 높이가 거의 비슷하고 지금은 부엌 겸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뜰보다 바닥이 낮았으며 지금 냉장고가 놓인 위치의 반 칸에는 찬광이었다고 한다.

대청은 두 칸으로 전면에는 모두 4짝 알루미늄 미닫이 유리문이 달려 있다. 바닥은 대청과 퇴칸을 귀틀로 구분하고 모두 남북방향으로 쪽널을 이용한 장마루를 깔았다. 대청에서 안방으로 연결되는 출입문 위에는 원래 성주단지를 모시고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부적 한 장만이 붙어 있을 뿐이며 한쪽에는 책장을 놓았다. 대청 뒤편에는 상부에는 두 짝 아자살창을 달아 벽장을 만들고 아래쪽은 세살창 한 짝을 설치해 뒤뜰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벽장에는 주로 제사용구를 저장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나 원래는 신위를 모신 사당 성격의 시설로 추정된다. 서민들은 사당을 별도로 짓지 못하고 대개 대청마루 한쪽에 감실을 두고 신위를 모시는 사례는 많이 볼 수 있다. 대청 동쪽은 외쪽 세살 미닫이 유리창을 설치하여 건넌방으로 통할 수 있게 했다. 건넌방은 현재 퇴칸까지 방이 연장되어 한 칸 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한 칸만 방이었고 전퇴칸에는 방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아궁이가 시설되어 있었다고 한다. 안방 부엌의 아궁이는 주로 조리용으로 사용되었고 건넌방 아궁이는 주로 소여물을 끓이는 데 이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난방이 나무를 때는 아궁이에서 기름보일러로 바뀌면서 안방의 부뚜막은 싱크대를 설치하는 공간이 되고 건넌방 아궁이는 방이 되었다. 건넌방은 측벽에 두 짝 미닫이 유리창이 높게 달려 채광창 역할을 하고 있으며 뒷벽에는 두 짝 여닫이 판문이 달려 있는데 그 용도를 알 수 없다. 건넌방 앞 안마당에는 현재 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건넌방은 어느 때 썸인가 공간 확장을 목적으로 덧달아 났음을 알 수 있다. 대청과 방 사이 앞 뒤 평주 머리에는 추녀를 걸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지금도 불에 그을린 추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추녀를 그대로 둔 채 엇비슷이 서까래를 걸어 건넌방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건넌방 쪽 마루 아래를 조사해 보면 처음에는 온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건넌방은 어느 시기인가에 덧달아 증축한 것이고 원래 건넌방은 대청마루에 있었다. 즉 현재는 대청마루가 두 칸인데 원래는 한 칸이고 끝 쪽에 전퇴가 있는 한 칸 건넌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건넌방 아궁이는 측벽 쪽에 함실아궁이 정도로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2) 사랑채

사랑채는 좌우가 뒤바뀐 ‘ㄴ’ 자 형으로 초창<sup>初創</sup> 시기는 안채보다는 후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안채와 연결되어 동쪽 일부분만 뜬 ‘ㄱ’ 자 배치를 이루고 있다. 사랑채는 문간채를 겸하는 것으로 도로에 바로 접해 있다. 정면에서 보면 4칸으로 동쪽에서 두 번째 칸이 대문이다. 대문칸은 도리칸이 한 칸이며 보칸은 전퇴가 있어 한 칸 반인데 대문쪽은 고주열에 달려 있다. 대문 앞에는 도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연석을 이용해 5단의 계단을 만들었으며 계단 위는 시멘트로 발라 마감하였다. 계단 폭은 넓고 높이는 그리 높지 않다. 대문칸은 고주 사이에 문지방을 건너지르고 문지방 하부에는 문지방 받침석인 누임돌을 두었다.

재미있는 것은 누임돌의 일부는 엇비슷하게 물리게 하여 약간 트여 놓았는데 이는 빗질하여 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소지구멍이다. 기둥과는 별도로 문설주를 양쪽에 세우고 상인방을 걸어 걸구 했는데 문설주와 고주 사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는 빈지널을 세워 대고 가운데에는 띠장목을 두 줄로 보낸 관벽을 꾸몄다. 꽤 격식 있는 처리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문쪽은 두 짝 여단이로 안쪽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으며 빈지널을 띠장목에 못을 박아 고정한 판문이다. 위아래는 조각이 아름다운 감잡이 철물로 장식했으며 외부에서는 가운데 정도에 문고리를 달아 잠글 수 있도록 했다. 내부에서는 가운데 띠장목에 나무로 만든 빗장과 빗장둔테를 설치하였다. 빗장둔테는 크기가 일반적인 것 보다 크고 조각은 일반적인 모양으로 계자각처럼 조각하였다. 빗장에는 뒷부분에 턱을 두어 잠금장치를 했다. 그리고 대문 문상방 위쪽으로는 도리 아래로 세로살을 마름모로 꽃아 홍살을 삼았다. 이를 살롱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정려문이나 양반집 솟을대문에 설치되는 권위의 상징물이다. 비록 서민의 집이지만 격식을 높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대문칸의 기둥 간 간격은 2,450mm이다.

대문칸 동쪽은 사랑방이다. 정면은 단칸이고 측면은 2칸 반이다. 전면 반 칸은 퇴로 개방되어 있으며 안채 쪽으로 빠져 올라간 2칸이 사랑방이다. 사랑방의 주칸은 전면이 2,440mm이고 측면은 전퇴가 1,200mm, 다음이 2,730mm, 그 다음이 2,450mm로 차이가 있다. 전퇴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전면과 서쪽 대문간 쪽은 벽 없이 개방되어 있으나 동쪽 벽은 회벽으로 막았다. 동쪽 벽은 이웃집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각적인 차단을 위해 막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면을 개방한 것은 사랑채의 개방성을 나타낸 것으로 이 집과 마을 주민과의 의사소통과 공공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채는 사회성이 강조되는 것이 일반적으

로 도로 쪽에 퇴를 두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표현이다. 퇴와 사랑방 사이에는 두 짝 세살문이 달려 있는데 따로 머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출입문으로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퇴 안쪽은 두 칸 모두 방으로 꾸며져 있다. 두 칸에는 대문칸 쪽에서 각각 하나씩 외쪽여단이 출입문이 달려 있어 별도 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원래는 두 칸이 분리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굴뚝은 대문칸 반대쪽 외벽에 두었는데 안쪽 칸에 하나만 설치되었다. 퇴칸 쪽에서도 같이 사용한 것인지 퇴칸 쪽 온돌의 굴뚝은 없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 원래는 사랑방은 한 칸이고 뒤쪽 한 칸은 외양간이었으며 외양간 상부에는 전면 다락이 설치되었다고 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추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외양간이 외부에 접하지 않고 안채 안마당 쪽에 들어와 있는 것도 의심스럽다. 그러나 안채에서 건넌방을 덧달아 내고 앞 퇴 쪽에 여물을 쐼는 솔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바로 앞에 외양간이 있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건넌방이 덧달아진 시점에서 사랑채가 지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대문칸 서쪽 첫 번째 칸인 전퇴 부분은 보일러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뒤쪽이 방이다. 현재 전퇴전면 도로 쪽은 벽으로 막혀 있으며 작은 미단이 두 짝 유리창만 달려 있다. 보일러실의 출입은 방에서 이루어진다. 또 이 방으로의 출입은 중정 쪽에 난 외쪽여단이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 그 서쪽방과 내부에서 출입문이 연결되어 있다. 현재 보일러실도 원래는 사랑방 앞과 같이 방 앞에 난 텃마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서쪽 방은 마루방이다. 전면 도로 쪽에는 두 짝 미단이장이 달렸으며 출입은 온돌방에서 미단이문에 의해 이루어진다. 서쪽 벽면은 안방이나 부엌과 같이 추녀 밑까지 확장하였다. 이 마루방은 그 용도를 알 수 없으나 현재는 창고로 쓰고 있다. 도리칸은 2,520mm으로 다른 칸에 비해 약간 크고 추녀 밑까지 확장한 것은 900mm이다. 보칸은 전퇴를 합해 3,890mm이다. 사랑채는 대문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텃마루가 있는 온돌방이 꾸며지고 동쪽 온돌방 뒤로는 마구간이 오고 서쪽 온돌방 옆으로는 마루방이 덧붙은 평면구조가 원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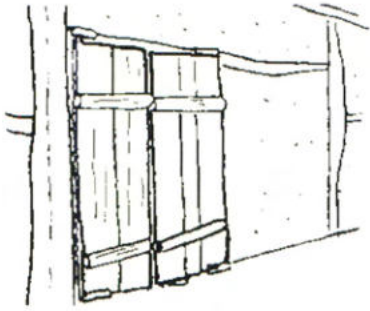
### 3. 가옥의 구조

#### 1) 안채

초석은 현재 기단이 올라와 위면까지 묻혀 있으나 대개 자연석을 이용해 약간의 가공을 했다. 기둥은 기본적으로 방형이며 기둥 굵기는 보통 4치 정도이고 높이는 7자 5치가량이다. 그러나 증축한 부분의 기둥은 방형기둥이라기 보다는 자연목을 약간 다듬어 대략 방형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방형기둥도 모서리가 각이 잡히지 않은 기둥도 있어 일정치 않다. 다만 대청마루 고주 정도는 정확히 방형이며 모서리는 평모 또는 둥근모로 모접기를 했다. 기둥머리는 사갈을 트고 보와 도리가 짜이도록 했다. 도리는 원목에 가까워 원형에 가까운 방형이며 보도 마찬가지로, 보머리는 직절했고 아무런 조각 장식이 없다.

가구는 고주가 사용된 대청 부분에서는 평사량이다. 다른 부분에서는 3량으로 추정되지만 모두 천장으로 가려 있어 증명할 수는 없다. 대들보와 퇴보는 같은 높이에서 고주에 통장부 맞춤을 했는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췌기를 박았다. 췌기를 박아 보를 고정하는 방식은 고주에 보를 고정할 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를 세우고 고주와 동자주를 연결하는 종보를 걸었다. 3분변작 정도이다. 동자주와 고주 머리는 역시 사갈을 트고 중도리와 종보가 맞춤되었다. 종보에는 대공을 세우지 않았으며 앞뒤 중도리에 수평으로 서까래를 걸었다. 고중에 따르면 서까래 위에 솔가지 등을 꺾어 올린 다음에 지붕 물매를 잡고 초가를 엮었다고 한다. 평사량의 구성법이다.

측면의 총량은 2개가 걸렸다. 총량의 한쪽은 동자주와 고주 머리에서 중도리와 함께 사갈로 맞춤되었으며 반대쪽은 측면 도리위에 얹었다. 총량은 말안장처럼 굽은 나무를 사용했으며 총량 중간쯤 등에는 외기를 구성하듯 멩에보(덧보)를 보 방향으로 걸었다. 멩에보는 총량에 맞춤으로 하지 않고 태워 올려놓았다. 그리고 멩에보와 총량이 만나는 지점에서 추녀를 걸었다. 그리고 추녀양쪽은 말굽서까래방식으로 서까래를 걸었다. 중도리 사이에 건너지른 수평한 서까래는 멩에보가 걸린 위치까지 연장되어 걸렸으며 측면에서는 멩에보에 의지하여 처마서까래를 걸었다. 서까래 간격은 한자 가량이고 서까래직경은 일정치 않으나 3치 정도이다. 서까래 위에는 꼬얌 잡목을 원새끼줄로 엮어 깔아 산자를 삼았다. 그리고 서까래 끝에는 평고대를 보내고 바로 기와를 엮었다. 지금은 기와지만 처음에는 초가였으며 초가였을 때도 지붕의 구조는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자 깔기 아랫면 서까래 사이에서는



1. 뒀안
2. 장독대
3. 안채 동측과 헛간
4. 안채 후면

1 | 2  
3 | 4



진흙으로 양토 바르기를 했으며 현재는 표면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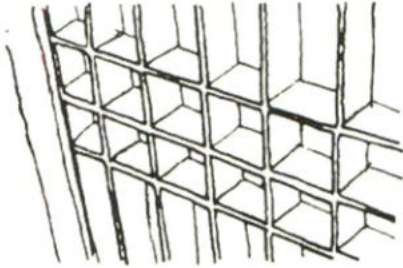
대청 부분의 천장은 서까래를 그대로 도배지로 싸 바른 소경반자로 했으며 방은 달대를 달아 반자들을 구성하고 천장지를 바른 지반자이다. 벽을 구성하는 인방은 자연목을 개략 방형으로 다듬어 사용했는데 기둥과 만나는 부분은 축을 만들 듯 다듬어 통장부로 하고 얇은 삼각형의 썰기를 만들어 통장부 위에 박아 고정하였다. 벽체는 맞벽으로 했는데 상하 인방재 사이에 얇은 소나무 원목을 이용해 중깃을 보내고 중깃 사이에는 더 얇은 잡목 원목을 힘살로 보낸 다음 가로로는 수수깡을 3~4가닥 함께 묶어 놀외로 삼았다. 중깃 및 놀외는 원새끼줄로 엮었으며 안팎으로 맞벽을 쳤다. 재벌 정도로 마감했는데 초벌은 짚을 3~4cm 정도로 섞어 이긴 진흙으로 두껍게 바르고 재벌은 진흙에 모래를 섞어 얇게 발라 갈라지지 않도록 했다.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는 안채 눈썹썰기창은 세살여단이인데 다른 어떤 곳보다도 격식이 있다. 문얼굴은 연귀맞춤으로 모서리는 평모를 접었고 중간에는 쌍사를 쳤다. 창문 살대는 끝을 구슬처럼 둥글게 여기서부터 달되 중간까지는 도톰한 곡선으로 잡아 나가다가 중간에서 안쪽 끝까지는 수평으로 처리하였다. 비교적 두꺼운 살대를 사용해 도톰한 곡선으로 접어간 방식이 고풍스럽게 보인다.

## 2) 사랑채

사랑채는 외부 도로와 면해 있기 때문에 기단이 살아 있다. 기단은 자연석인데 비교적 얇은 돌을 이용해 사선으로 엇빳쌓기를 하였다. 기단 상부는 흙이었겠지만 지금은 시멘트를 발랐다. 초석은 노출되어 있는데 편편한 자연석을 골라 사용하였다. 자연석은 화강석이 하나 정도이고 나머지는 편마암 계통으로 보인다. 기둥은 안채에 비해 정확히 방형으로 가공되었다. 모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평모를 접었으며 기둥의 직경은 안채와 비슷하게 4치정도이고 높이도 7자 5치 정도로 유사하다. 기둥머리는 사갈을 트고 도리와 보가 맞춤되었다. 보는 안채에 비해 방형으로 정연하게 다듬었으며 하부 모서리는 둥근모로 했다. 퇴보는 방형의 직선부재를 사용했는데 대문간채 양쪽은 방형으로 격식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자연목에 가까운 보를 사용하기도 했다.

도리도 대문간의 노출되는 처마도리 정도만 정확히 방형으로 다듬었고 나머지 부분과 중도리는 둥근 원목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사랑채는 대문간을 기준으로 종단을 자르면 전퇴가



1. 문간채 배면
2. 문간채 상부구조
3. 문간채 정면
4. 문간채와 안마당

1 | 2  
3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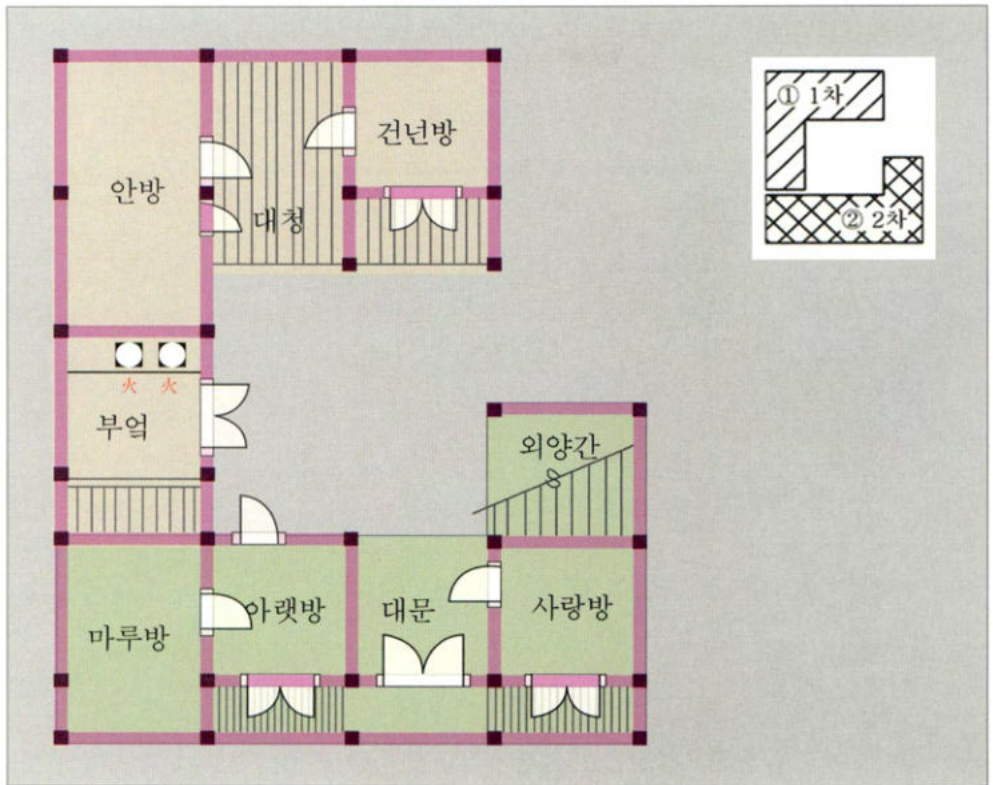
있는 구조로 1고주 5량가구이다. 동자주는 방형이며 동자주와 고주머리에서는 다시 사갈을 트고 중도리와 종보가 맞출되었다. 종보는 방형이지만 중도리는 원형 원목이다. 종보 위에는 동자형 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걸었다. 종도리도 중도리와 같은 굴도리이다. 서까래는 3치가량이고 간격은 한 자 정도이다. 서까래 끝에는 평고대를 걸었으며 서까래 위에는 안채와 같이 잡목을 쪼개 산자를 엮어 깔았다. 양토는 흙으로 했으며 현재는 흰색 페인트를 칠하였다. 벽체의 구성도 안채와 같으나 사랑채는 흰색 페인트를 칠해 마감하였다.

#### 4. 가옥의 특징

이 집은 초창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 골격과 형식에서 큰 변화는 없었으며 다만 현대식 난방 설비인 보일러가 설치되면서 보일러실이 블록구조로 증축되었고 마당과 뜰, 입구 계단 정도가 시멘트로 포장된 정도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크게는 2번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창 때의 모습을 추정해 보면 안채는 대청을 가운데 두고 서쪽에 안방 동쪽에 건넌방 한 칸이 있는 정면 3칸 집이었다. 대청과 건넌방 앞으로는 반 칸의 빗마루가 있었으며 안방은 앞으로 한 칸이 빠져 나와 2칸 방이었고 안방 앞에는 다시 부엌이 1칸 반 빠져나와 있었다. 건넌방과 안방은 대청 쪽에서 외쪽 여닫이문에 의해 출입했을 것이며 안방은 퇴칸 쪽에 지금도 잘 남아 있는 눈썹짜기창이 있어서 겨울에는 문을 열지 않고도 외부의 동태를 살피거나 외부손님과 간단한 대화에 이용했을 것이다. 건넌방은 전퇴 쪽에 쌍창이 달려 있었을 것이며 아궁이는 측벽 쪽에 함실아궁이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의 난방은 지금 싱크대가 설치된 부엌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며 부뚜막에는 가마솔이 걸려 있고 부뚜막 상부에는 안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락이 설치되어 있었다. 부엌 전면의 반 칸은 부엌살림을 보관하는 찬광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지 사랑채를 지으면서 그 사이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생긴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대청 한 칸에 안방과 건넌방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고 부엌이 안방 앞으로 붙으면서 이루어지는 ‘ㄱ’ 자형 간살이는 이 지역의 공통된 특징이다. 대청은 지금도 장마루가 깔려 있는데 장마루가 이 지역의 원형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우물마루를 깔지만 우물마루는 손이 많이 가는 것에 비해 이 시대 정도에는 쪽널을 구하는 것이 손쉽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추정복원도

대개 이 시기에 지어진 이 지역 민가에서는 장마루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면 이 지역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안채의 이러한 원형이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은 대청이 한 칸에서 두 칸으로 늘어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건넌방을 대청으로 바꾸고 대신 건넌방은 동쪽으로 한 칸 증축해 달아냈다. 지금도 추녀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증축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의 변화는 대청공간의 확대라고 볼 수 있으며 건넌방의 크기는 그대로였다. 건넌방은 한 칸이었고 전퇴가 있어서 여기에 아궁이를 들이고 솔을 걸어 불을 땀으며 소여물을 쭈었다. 즉 대청공간이 두 칸으로 늘어나면서 건넌방이 증축된 것이 첫 번째 변화이다. 이 시기에 안방과 부엌도 공간이 작아 서쪽으로 처마 밑까지 벽체를 늘려 증축되었다고 추정된다.

두 번째 변화는 나무를 때아 아궁이가 사라지고 난방이 보일러로 바뀌었으며 현대식 입식 생활이 도입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단은 보일러실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부

업 서쪽 측벽에 반 칸을 블록으로 덧붙여 보일러실을 꾸몄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안방 측벽에도 창고를 증축하였다. 내부에서의 변화는 우선 바닥이 낮은 부엌이 입식으로 개조되면서 바닥을 뜯 높기로 돌우고 난방을 했으며 부뚜막과 다락을 없애고 벽을 만들어 여기에 싱크대를 설치하였다. 찬광도 철거하고 냉장고 등 살림살이를 수납하였다. 또 건넌방 앞 퇴의 아궁이도 없애고 난방을 깔아 건넌방을 확장하였다.

사랑채는 안채와 초창에서 시기적인 편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안채공간이 증축되는 시점에서 사랑채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랑채는 현대식 보일러가 들어오면서 공간의 변화가 한 번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형은 대문간을 중심으로 동서쪽에 방이 각각 한 칸씩 배치되었으며 방 앞에는 툇마루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동쪽 방 뒤쪽북쪽에는 외양간 한 칸이 있었으며 외양간은 조금 낮고 상부는 다락이 마련되어 농기구와 살림살이들이 보관되었다. 또 서쪽 온돌방 옆으로는 마루방 한 칸이 있어서 물품보관에 사용되었다. 마루방은 전퇴까지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농사가 주업이 아니게 되면서 외양간이 없어지고 방으로 개조해 사랑방이 두 칸이 되었으며 대문간 서쪽 온돌방 앞의 퇴는 현대식 보일러가 도입되면서 보일러실이 되었다. 그리고 마루방은 처마 밑까지 공간을 늘려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도 마루방은 창고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1. 가옥의 위치와 배치

앞개천이 흐르고 고향가든 음식점 못미처에 놓인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 언덕으로 이어진 길을 100m쯤 올라가면 길을 딱하니 버티어선 집이 장순태의 집이다. 원래는 앞 전망이 시원하게 탁 트인 집이었으나, 이젠 괴물처럼 높게 집 앞을 가로막고 선 비산중학교 때문에 시야 막힌 자리에 터를 잡은 셈이 되었다. 남동향인 이 집은 대지가 82평이다.

집은 7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마루 천장 도리에 상량문이 써있다고 하나, 아쉽게도 지금은 반자에 가려 안보이니 집주인들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먹는 물은 현재는 지하수를 쓰고 있다. 그 전에는 밑에 집저금은 석당에 공동우물이 있어 길어다 먹었는데, 언젠가 고양이가 빠져죽어서 건져 내고 난 이후로는 우물을 폐쇄하고 말았다고 한다. 약간 경사진 터를 다듬어서 지은 집이다. 따라서 안채 뒤는 이쪽 일대가 관악산 남쪽 줄기라서, 조각조각 떼어지는 검은색 편마암류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건너편 매천약수터 골짜기에서는 구들장을 캐내어 썼다고 한다. 집 담장은 나뭇간과 외양간 사이의 기둥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빙 둘러 안채의 뒤를 감싸고 돈다. 집 뒤안 잣간에서 건넌방 경계까지 15m가량이 돌담인데 그중 중간 부분의 3,900mm쯤은 돌을 왼쪽으로 약간 삐딱하게 한 층을 쌓고 그 위층은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쌓으면서 1,900mm 정도 높이까지 쌓아 올린 원초형 돌담이 잘 남아 있다.

돌담이 끝나는 부분에서 옆집 담장까지는 대지의 경계에 탱자나무 울타리가 둘러있었다. 이 부근은 집 뒤편 땃돌은 240mm 높이로 두르고, 500mm 너비의 물골을 냈다. 안방모퉁이 방향에서 물이 흘러서 부엌 옆으로 빠지게 수채를 형성했는데, 집 뒤의 물골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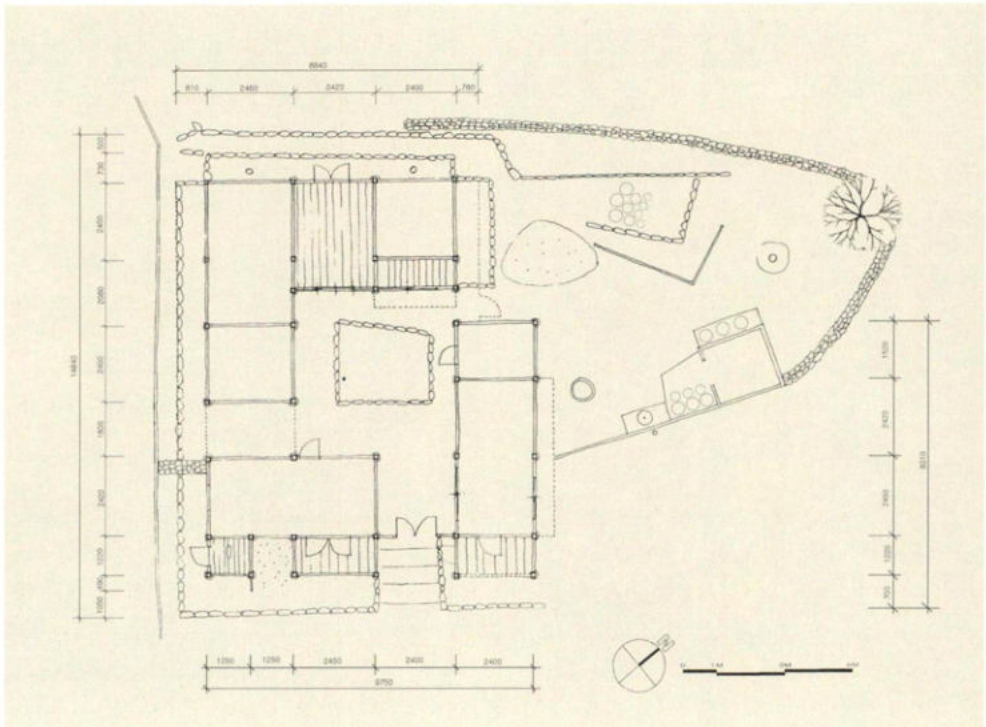


정순태 가옥 전경



1 | 2  
3 | 4

1. 남측 전경 2. 남동측 전경 3. 남동측 4. 동측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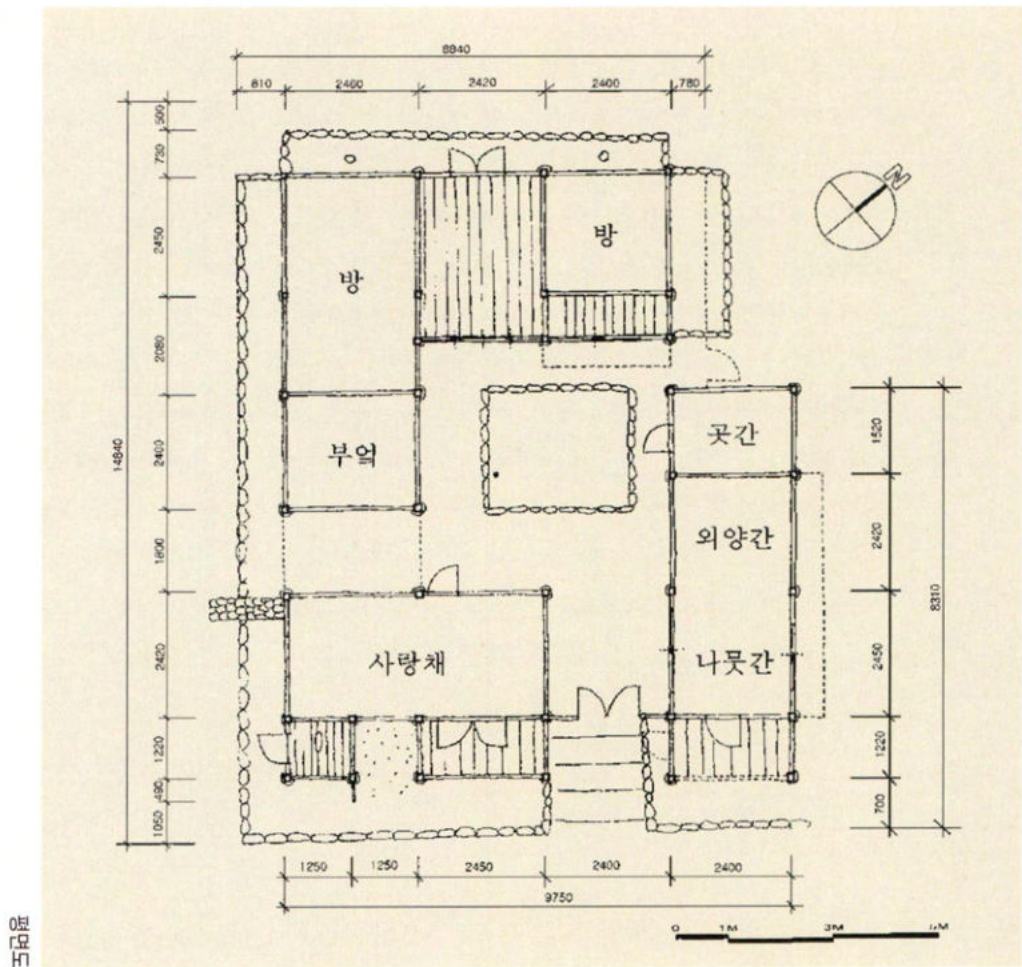
부엌과 사랑채 사이의 공간은 원래 트여 있었으나 지금은 막아서 부엌에서 쓰고 있다. 뒤안은 터가 넓다. 건넌방과 곳간 사이의 셋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다. 이상한 점은 보통 가사(家事)와 관련지어 장독대와 빨래터는 부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통례이나, 이 집에서는 아예 동떨어져 멀리 건넌방 옆 뒤안으로 죄다 옮겨 놓은 듯하다. 이것은 아마도 옆집과의 관 셋문을 들어서 오른쪽 담 쪽으로 빨래터를 두고 한데아궁이를 두었다. 콩을 쪄거나 간장을 다릴 때 쓰는 솥이 걸려 있다. 콩 2말 정도는 능히 들어간단다. 그 옆 담장 옆에는 지붕을 씌운 김치광에 땅을 파고 김칫독을 묻었다. 김치광에 붙여 잿간을 지었다. 잿간과 장독대 사이에 비닐을 덮어놓은 흙무더기가 무구덩이이다. 겨우내 먹을 무를 저장하는 창고로 깊이와 너비를 600mm 정도 되는 원통형 구덩이로 판재를 깔고 지름 250mm 되는 구멍을 내고 그 주위를 흙으로 북돋았다. 구덩이 속에 있는 무를 꺼낼 때는 낫으로 찍어서 올린다. 예전에는 판재 대신에 산에서 작은 생나무를 잘라 벗짚을 덮어 만들었다고 한다. 이 집의 명물은 뽕나무 뽕니 해도 큰 둥근 바위가로 3,100mm 높이 1,700mm이다. 그 바로 뒤로는 장독대가 있다. 비스듬히 배가 부른 큰 바위 덕분에 김장할 때 배추 200포기 정도는 능히 걸쳐 놓을 수 있다고 한다. 잿간 곁에 은행이 열리지 않아 폐사시킨 은행나무가 있다.

## 2. 가옥의 평면

### 1) 안채

‘ㄱ’ 자형 안채와 ‘ㄴ’ 자형의 대문간채로 구성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튼ㄷ’ 자형의 평면을 구성한다. 대문은 마당을 가로질러 건넌방과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 ‘ㄱ’ 자형 집을 경기도 일대에서는 ‘곱은자집’이라 하고, 평안도지방에서는 꺾음집, 충청도지역에서는 ‘고패집’이라 부른다. ‘ㄱ’ 자 집이란 용어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들어와서 쓰였다. 안채는 안양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ㄱ’ 평면 기본 형태로,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1칸 반의 장마루를 깔고 뒤편에 외쪽 바라지창을 달았다. 건넌방 앞의 뒹마루는 방을 크게 쓰기 위해 통합되어버렸다. 건넌방의 뒹마루는 방으로 흡수되는 대신에, 밖으로 너비 390mm 되는 쪽마루를 붙여 대었다. 마루높이는 540mm. 안방 앞쪽으로 1칸 부엌을 내었다.

주초는 자연석이나 둥글둥글한 것들은 없고 모난 것들이 주를 이루고, 간살이는 8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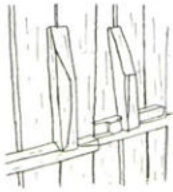


도면

2,400~4,460mm가 기본이다. 처마 밑의 덧돌은 내밀기가 마루 앞 1,200mm, 부엌 앞 1,400mm, 사랑채 앞 870mm, 외양간 앞 870mm. 서까래 내밀기가 700~830mm인 데 반해서 덧돌 내밀기가 긴 것은 서까래에 덧달아 낸 차양 길이 때문이다.

## 2) 대문간채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2칸×1칸 반을 붙이고, 오른쪽으로는 봉당, 나뭇간, 외양간, 곳간 등의 순서로 1칸×3칸 반을 뒤로 배치하여 'ㄴ'자 평면을 구성한다. 따



1. 문간채 내부
2. 안마당 전경
3. 문간채
4. 건넌방
5. 사랑방
6. 부엌

1	1	2
3	1	4
5	1	6



라서 왼쪽 텃마루가 보이는 곳이 사랑채이고, 실질적으로 2칸이다. 앞에 1칸×1반 칸 크기의 텃마루를 두고, 쌍여단이를 두었다. 안채에서 사랑방 출입이 용이하도록 부엌 쪽 댓돌 위치에 지계문을 두었다. 사랑채는 대문간채에 딸려 있다. 사랑채의 쌍여단이와 지계문은 떠살문인데 가로살은 위 3-가운데 5-아래 3개로 공통이나 세로살이 7개와 10개를 각각 두었다.

1 1 2  
3 1 4  
5 1 6

1. 뒤안
2. 뒤안과 안채
3. 뒤안 전경
4. 장독대
5. 무 구덩이
6. 안채 후면



대문 위에 살롱(箭籠)은 바람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누명을 쓰고 철거될 운명에 처할 찰나에 집주인에게서 은총을 베풀었다. 그 대안으로 살롱 앞으로 바람막이 베니어판을 대었다. 사랑방의 뒷마루 왼쪽으로 반 칸의 헛간을 두고 지게 따위를 두었다. 잿간인 듯 싶은데 잿간은 뒤안에 따로 지붕을 씌워서 만들어 놓았다. 450mm 폭의 시선차단용 나무담(遮面牆)

을 사이로 재래식 변소를 두었다. 변소의 문은 모퉁이를 돌아서 설치하였다. 이웃집 담장과 의 거리는 1,700mm이고 앞뒤에 2개씩 장선을 걸쳐 놓고, 그 위에 원목을 켜고 남은 피죽인 죽테기 8장을 깔아 바닥을 만들었다. 한가운데 볼록렌즈처럼 가운데가 볼록한 긴 구멍을 냈는데, 뒷벽에서 240mm정도 떨어져 파낸 걸 보니 부출을 닫고 집 정면을 보고 앉아서 일을 봐야 할 것 같다. 앉아서 일 보는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는 아마도 일을 보면서 감시까지 할 수 있게 한것이 아닌가 한다. 부출은 뒷간의 바닥에 놓아 올라서서 발을 던게 한 널빤지를 말한다. 한 구석 벽에는 아래 끝이 좀 지저분한 긴 작대가 기대어 있는데, 이는 한 구멍으로만 볼일을 보다 보면 그 밑에서만 볼록하게 쌓이게 되는데, 이럴 때 위에서 이것을 내려뜨려 지긋이 눌러 퍼지게 할 때 요긴할 게 쓸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인 듯 싶다. 어쨌든 변소와 사랑방이 벽을 대하고 있으니, 냄새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를 일이다. 변소의 하부 거름통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개조하여 쓰고 있다.

대문간 사랑채의 댓돌은 붉은 칠분기가 도는 제법 굵직한 돌로 3벌대<sup>650mm</sup>를 구성하였다. 안채로 들어서기 위해 대문을 올라서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760mm 높이의 5급(級)계단을 올라야 한다. 1급 맨 밑단 120mm, 2급 190mm, 3급 180mm, 4급 210mm, 5급 맨 윗단 60mm이다.

대문 앞마당 오른쪽에 앞 처마 밑으로 임시 야외 나뭇간을 마련하고 장작 한 무더기를 패어 가지런히 쌓아 놓았다. 대문을 들어서서 왼편으로 사랑방벽에 기대어 쪼든 나무도 잘 탄다는 '나무보일러'가 있다. 이 보일러가 6개의 방에 다 열기를 공급한다. 부친 살아생전에는 구들을 걷어 내면 큰일 난다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구들장 위에 보일러 배관을 해서, 기름을 평평 쓰고도 방바닥이 따뜻하지 않아 출게 지냈다는 말씀을 하신다. 1998년도에 비로소 제대로 난방공사를 하면서 나무보일러로 바꾸었다. 2시간 반 간격으로 나무 한 거름 넣어 주어야 되는데 450mm 크기로 자른 장작 20개비 내외이다.



### 3) 헛간채



사랑채 헛간과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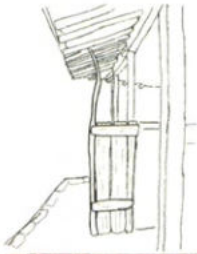
화장실 진입



화장실



화장실II



1. 화장실Ⅲ
2. 화장실과 간막이
3. 간막이
4. 화장실Ⅳ

1 | 2  
3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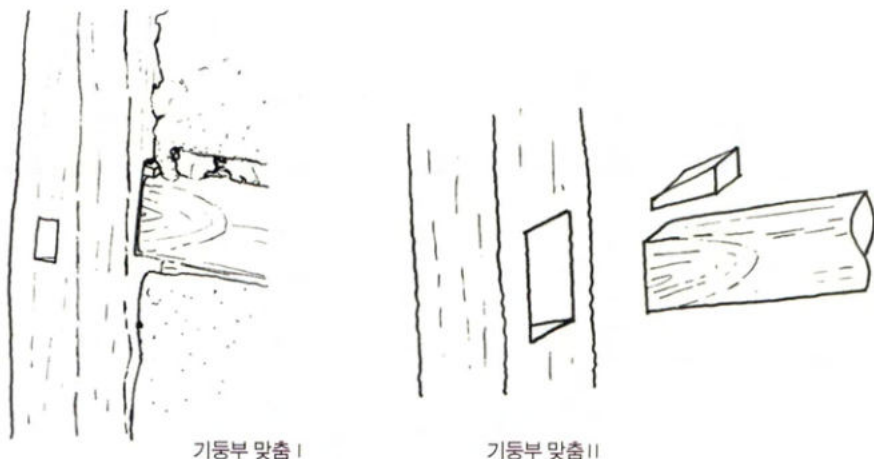
문간채의 오른쪽은 1칸×3칸 반이 길이 방향으로 안채를 향해서 놓여 있는데, 사랑방의  
뒷마루와 같이 1칸 반 크기의 앞으로 나온 공간의 기둥에서 뒷마루를 놓았던 부재구멍들이  
찾아지고 지계문을 내었던 문 흔적도 보이므로 나뭇간이라 지칭하는 공간은 과거에는 방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집에서는 이쪽 뒷마루 부분을 봉당이라고 한다. 외양간이었던 공간을 터서 2칸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방 뒤에는 간살이 1,530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이 있다. 안채와 이 공간 사이에 뒤안으로 나가는 외쪽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외양간에서 쓰던 구유통과 여물을 썰던 작두가 집 뒤편 처마 밑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과거 10마지기 농사를 대변하는 유물이다.

### 3. 가옥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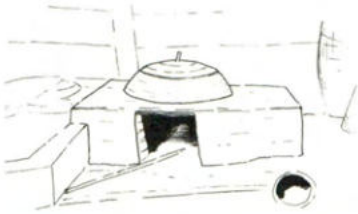
기본적인 가구의 구성은 1고주 2평주 4량 집으로 안채와 문간채의 가구구조가 4량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 일대에서는 안채는 4량인 데 반해서, 문간채는 3량이 기본이다. 즉 문간채에는 3칸으로 가운데 대문 1칸 좌우에 각각 외양간 1칸과 나뭇간 1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칸 사이가 넓을 필요가 없어서 3량 구조가 태반을 이룬다. 그런데, 이 집은 대문간채에 사랑방을 뒹으로써, 반 칸의 크기를 앞으로 빼내어서 뒷마루를 두어야 했기 때문에 칸살이 넓어져 4량 집이 되었다. 헛간채는 3량으로 구성하였다.

기둥은 전체가 네모기둥으로 110~120mm, 길이가 2,400mm이고 민흘림은 10mm 정도 차이를 두었다. 사랑채 기둥에서 시계방향으로 틀어짐이 보인다. 마루의 천장도 중도리 밑에 반자를 새로 대어서 도리가 보이질 않는다. 따라서 보가 얼마나 굵은지는 살필 방법이 없었다.



기둥부 맞춤 I

기둥부 맞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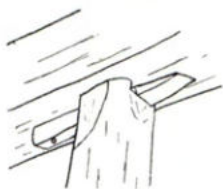


1. 사랑채 서측 벽면
2. 안채 후면
3. 사랑채 서측 수구
4. 안채 후면 전경

1 | 2  
3 | 4



서까래는 굵은 것은 지름이 100mm, 가는 것은 90mm이다. 안채의 뒤에 배열된 서까래는 마루 쪽 치마는 굵고, 양쪽 방의 서까래는 가는 것을 썼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보인다. 이곳도 엇선자인 마죽연이다. 이길자 가옥의 멋진 빗장둔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대문



1. 지붕 합각부 상세
2. 서까래 상세
3. 회첨부 상세
4. 인방 상세
5. 회첨부 산자 상세
6. 기초 상세

1	1	2
3	1	4
5	1	6



의 빗장둔테는 길이가 반쪽이다. 빗장을 걸친 가로띠장 밑으로는 둔테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잘렸다는 말이다. 처음에는 윗도리는 입고 아랫도리는 안 입은 듯하여 이상하였다. 대문판에 댄 위아래 가로띠장은 서까래를 잘라 댔다.

#### 4. 가옥의 특징

대부분의 집들이 제한적인 공간에서 최대한 내부 공간이 확장되는 과정을 겪었다. 조사된 수법을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실내공간을 한 통으로 만드는 것 두 번째, 마루를 방으로 만들기 세 번째,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막아 창고를 만들거나 실내화 네 번째, 처마부분까지 실내화 다섯 번째, 마에 채양을 덧달아 아예 마당을 실내화 여섯 번째, 댓들을 넓혀 다목적공간으로 활용 일곱 번째, 빈터에 창고를 짓기 여덟 번째, 단채 살림하기 등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변 잡화 증가 그리고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전자제품의 수용 측면이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즘의 전자제품은 크고 무겁다. 역할을 상실한 물건은 버리기 아까워 집안 이곳저곳을 떠돌다 결국은 창고나 처마 밑 신세를 지게 된다. 이쯤 되면 그곳에서 대개는 명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자들은 대상의 집들에서 대개가 복잡하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집의 안채 구조는 여느 ‘ㄱ’자 집과 같다. 그리고 사랑채와 헛간채는 그 규모에서 크기의 변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축된 부분은 대개 부엌이 중심이다. 즉 안방과 부엌을 실내에서 연결했고 이웃집 담장 쪽으로 댓들을 넓힌 다음 안방과 부엌을 처마 끝까지 확장시켰다. 변경된 부분은 대청 건넌방 할 것 없이 반자를 한 후 도배를 하였다. 건넌방의 툇마루는 방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따라서 없어진 툇마루는 외부로 쪽마루가 대신한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통로도 내부화가 되어 부엌에서 사용한다. 헛간채의 외양간도 방으로 둔갑하였다. 안마당의 바닥에 시멘트로 발라 흙이 안 일어나게 사용하고 있다.

## 제3장 김인태 가옥

### 1. 가옥의 위치와 배치

김인태 가옥은 동안구 비산3동 123-6번지에 위치한다. 관악산에서 서쪽으로 빠져 나온 산맥은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삼성산 줄기이고 하나는 비산동 주산을 이루는 줄기이다. 두 산줄기 사이에 현재 안양유원지 계곡이 있다. 비산동은 안양유원지 계곡 너머 남쪽에 있다. 유원지 남쪽 산줄기는 서남쪽으로 흐르는데 이 큰 줄기에서 다시 남쪽으로 두 개의 산줄기가 빠져 비산3동의 좌청룡과 우백호를 이룬다. 김인태 가옥은 바로 우백호 끝자락에 위치하며 정남향을 하고 있다.

안양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충의로를 따라 북쪽으로 800m 정도 들어가다가 안날미길로 좌회전한다. 안날미길이 끝나고 불당길과 만나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해 다시 100m가량을 오르면 된다. 여기서부터는 도로가 약간 경사져 있으며 구획도로가 끝나는 지점이다.

안채 대청마루 중도리 장여(長欄) 측면에 목서가 남아 있다. “甲申三月初十日亥時豎柱上樑家主丙辰生成造壬坐丙向”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갑신년은 1944년 갑신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해방되기 바로 전해에 지어진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격식을 갖춘 집으로서 비교적 오래된 집이다. 문간채는 원형이 모두 사라졌으나 고층은 가능하며 안채는 원형이 거의 살아 있고 평면이나 건축적인 내용이 이 지역을 대표하며 60년 이상 된 격식 있는 초가집이므로 지방문화재로 지정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양지역은 현재 고가가 거의 사라져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관양동과 비산동에 일부 남아 있는데 거의 1900년대 이후의 것들이다. 이 중에서 이재락 가옥은 가장 오래된 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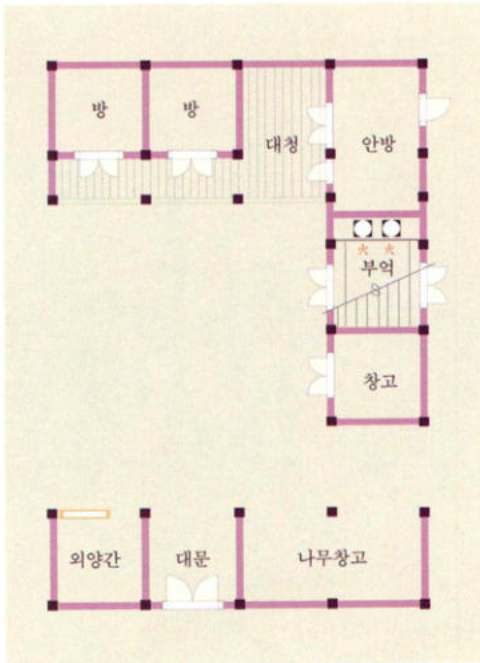
사랑채와 안채가 동시에 살아 있고 곱은자 평사랑구조의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집이며 김인태 가족은 곱은자 오량가구로 격식 있는 초가집으로서 원형이 잘 남아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는 이만한 집들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두 집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공간으로 제공해도 충분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집주인인 김인태는 1972년 1월에 관양동에서 이사 왔으며 원래 주인은 안양경찰서 경찰이었다고 한다. 이사 올 당시 관양동에는 100여 호가 살았으며 동장을 보는 등 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바퀴가 4개 달린 동네 우마차 수십 대가 이삿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줬다. 당시 이 집 가격은 40~50만 원 정도였으며 현재 땅은 다른 사람 소유이다. 그래서 300평에 대한 대토 값으로 매년 80만 원 정도를 납입한다. 집은 원래 초가였으며 1970년대 지붕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현재와 같은 시멘트평기와로 바뀌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지붕개량을 위해 2만 원씩 보조를 해 줬다. 그러나 그 돈으로 부족해 돼지 3마리를 팔아서 마련한 돈 9만 원 중에서 일부 보태 지붕개량을 했다. 국가에서 보조한 2만 원 중에서 1만 5,000원은 상환하고 5,000원은 상환하지 않았다. 안채는 거의 원형인데 건넌방 두 칸 앞의 툇마루가 장작을 때는 함살아궁이가 있을 때는 고상식 마루였다. 그러나 난방이 보일러로 바뀌면서 사용이 불편해 대청마루와 같은 높이로 낮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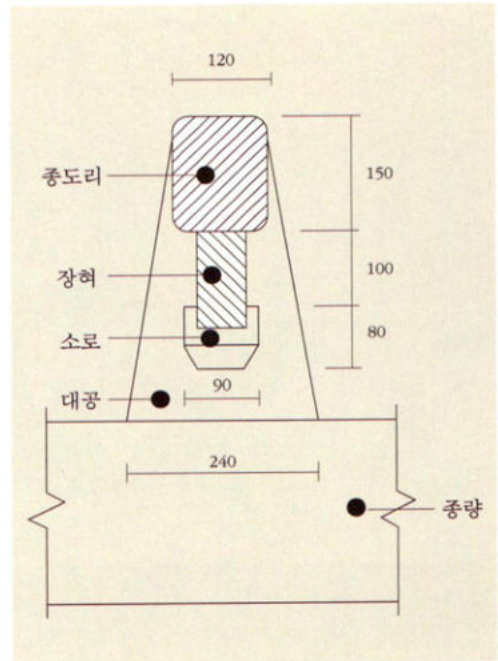
‘ㄱ’ 자형 안채에 일자형 문간채가 붙어 중정 서쪽이 트여 있는 좌우가 바뀐 ‘ㄷ’ 자형 배치를 하고 있다. 문간채 앞에는 넓은 바깥마당이 있는데 현재는 재활용품 분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안채와 문간채를 연결하는 서쪽 측면에는 가설집을 덧붙여 공구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그 앞에는 독립된 단 칸짜리 야외 화장실이 있다. 안채 북쪽 후원은 약간 경사가 있는데 외곽으로는 함석패널panel을 이용해 담장을 쳤다. 안채와 담장 간의 폭은 6m 정도이다. 후원은 별다른 시설은 없고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안채 서북쪽으로는 뽕죽하게 경계선이 빠져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안채 동남 모서리까지 역삼각형으로 콘크리트 빈지널로 담장을 쳐 경계삼아 동쪽 후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역삼각형으로 생긴 후원에는 장독대와 우물이 있고 야외화덕 2개가 있다. 부엌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부엌에서 연결된 가까운 동선상에 우물과 장독, 화덕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물은 자연석을 이용해 쌓아 올라왔으며 우물통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우물통 하부 직경은 1.2m 정도이며 깊이는 다음 식으로 추정해 보면 약 30m 정도  $S=1/2gt^2$  (S: 거리, g: 9.81, t: 낙하시간-초)이다. 우물은 안방 동쪽에 있으며 우물과 연이어 동쪽으로 장독이 있다. 장독에는 작고 큰 전통 항아리 16개가 있으며 시루 하나가 있다. 장독은 자연석으로 높이 한 자 정도로 쌓았으나 지금은 표면

1. 문간채 전경
2. 서측 전경
3. 안채와 문간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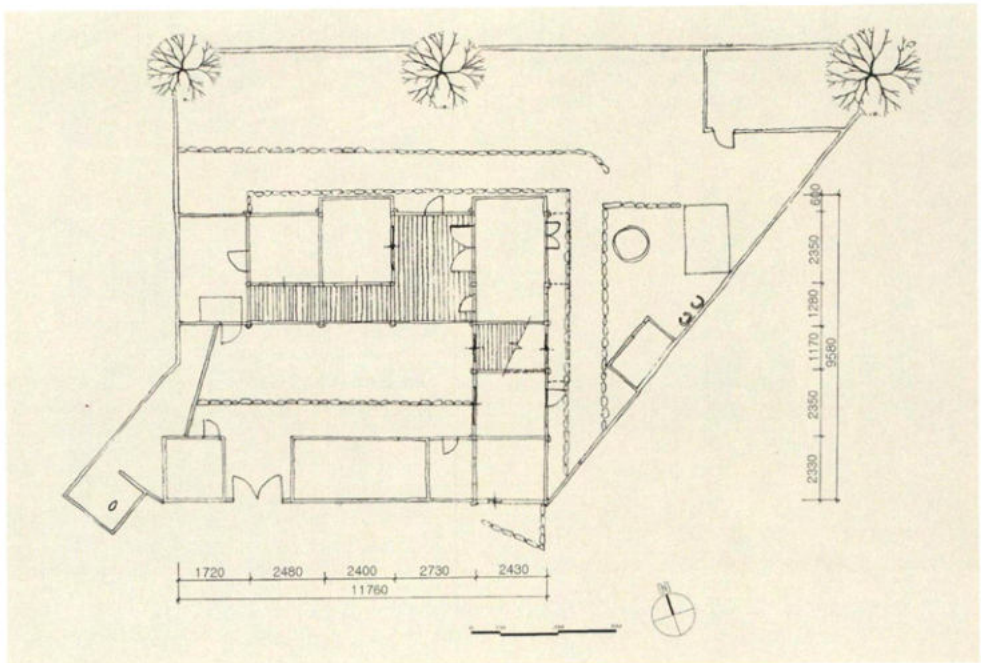




추정복원도



가구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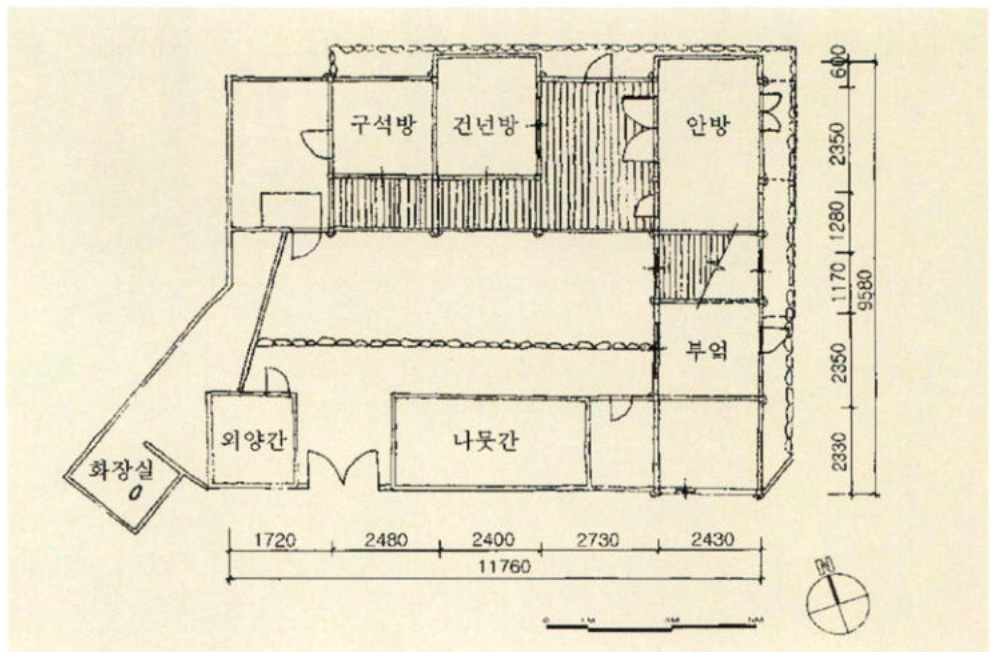


배치도

에 시멘트를 발랐다. 그리고 장독대 남쪽 담장 밑에는 붉은 벽돌로 만든 야외화덕 2기가 있고 무쇠 솥이 걸려 있다. 후원 동서 모서리와 가운데에는 감나무가 각각 하나씩 서 있다.

## 2. 가옥의 평면

안채는 상량문에 따르면 임좌병향(壬坐丙向)이라 하였으므로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남향이 다. 방위에 따르면 거의 정남에 가깝다. 평면의 구성은 가운데 대청마루 한 칸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건넌방 두 칸이 이어진다. 그리고 대청마루와 건넌방 앞에는 퇴가 있으며 동쪽에는 안방이 배치되었다. 안방 앞으로는 ‘ㄱ’자로 꺾여 부엌 한 칸 반과 창고 한 칸이 달려 있다. 1964년에 지어진 관양동의 오천교 가옥과 거의 유사하다. 오천교 가옥은 대청이 두 칸이고 건넌방이 한 칸이었는데 김인태 가옥은 건넌방이 두 칸인 대신에 대청이 한 칸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동쪽에 안방과 건넌방이 각각 한 칸 반씩 구성되고 ‘ㄱ’자로 꺾이는 부분에도 기둥이 있으며 이 부분에서 안방과 부엌 부분에 반 칸 간살이를 한다는 것도 공통



평면도



대청



대청에서 본 안들



안채 전경

접이며 부엌 앞에 창고 한 칸이 덧붙이는 것도 일치한다.

안양지역의 전통 민가가 대개 대청이 한 칸이라는 측면에서 오천교 가옥보다 김인태 가옥이 고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락 가옥이나 이길자 가옥에서도 시대가 떨어지면 대청이 두 칸으로 확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천교 가옥은 가장 늦게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청을 두 칸으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인태 가옥은 대청을 확장하지는 않았다.

대청은 도리칸이 2,730mm로 9자인데 다른 칸의 기둥 간격이 8자인 것과 비교하면 대청을 넓게 만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보칸은 2,350mm로 8자가 조금 안 되는 옆으로

긴 장방형을 이루는 특이한 간살이다. 퇴칸은 1,280mm이다. 대청 바로 옆의 건넌방은 도리칸이 2,400mm이고 구석방은 2,480mm인 8자 주칸으로 거의 같다. 안방은 도리칸이 2,430mm로 다른 방들과 같이 8자가 기준이다. 부엌은 안방 앞으로 빠져 나와 있기 때문에 서쪽이 정면이다. 따라서 도리칸은 1.5칸으로 구성되었는데 안방 쪽 북쪽이 반 칸이고 남쪽이 한 칸이다. 반 칸 도리칸은 1,170mm이고 한 칸은 2,390mm로 합이 3,560mm이다. 12자가 조금 안 되는 간살이다. 부엌 앞 창고 역시 서쪽이 정면이며 도리칸이 2,330mm이고 보칸은 2,430mm이다. 5량집으로 제법 격식 있게 지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칸과 보칸의 기둥 간격이 같지 않고 횡이나 종으로 장방형 간살이를 하는 것이 안양지역의 특성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집에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청은 대개 한 칸이지만 다른 칸에 비해 좀 크게 간살이 하는 것도 이 지역의 공통된 특징이다.

대청마루와 뒷마루에는 현재 비닐 장판을 깔았으나 장판 밑에는 남북으로 길게 깔린 장마루가 남아 있다. 대청 뒷문은 알루미늄 외쪽창으로 바뀌었으나 원래는 두 짝 여닫이창으로 추정된다. 안방으로 출입하는 문은 원래 것이 남아 있다. 두 짝 여닫이로 세살청판문이다. 안방 퇴칸 쪽에는 현재 목재울거미에 유리를 낀 외쪽 여닫이가 달려 있으나 원래는 세살한식 창호였을 것이다. 이 창은 비교적 크기가 크지만 그 용도는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눈썹찌기창이었을 것이다. 안방 동쪽 창호는 윗목 쪽에는 용자살 2짝 미단이 유리창문이고 아랫목은 아자살 한식 외쪽창인데 지금은 불박이처럼 되어 있다. 부엌 쪽에는 두 짝 미단이 다락문이 있는데 벽지로 싸 발랐다. 건넌방은 대청에서 출입한다. 지금은 미단이 2짝 유리창문이 달려 있으나 원래는 안방과 같이 세살문이었을 것이다. 구석방은 건넌방과 통해 있지 않으며 출입문도 서쪽에 별도로 나 있다. 원래 출입구는 남쪽 퇴칸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부엌은 현재 아궁이가 있던 자리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바닥은 비록 낮지만 입식으로 개조했다. 외부 창호의 모습과 배치를 비교해 보면 오천교 가옥과 일치하므로 부엌의 모습은 오천교 가옥이 원형이라고 생각된다. 즉 안방과 인접한 쪽에 부뚜막이 설치되고 부뚜막 위에는 안방에서 이용하는 벽장이 있었으며 부엌 전체에는 다락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벽장은 모두 철거 되었으나 상부 다락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부뚜막 서쪽 벽에는 역시 외부에서 이용하는 벽장이 부엌 쪽으로 감실처럼 설치되었으며 벽장 아래에 일조를 위한 낮은 창이 있다.

지금도 이쪽 부분에는 오천교 가옥과 같이 3단의 창호가 남아 있다. 가장 위쪽 창은 아자 유리살창으로 두 짝 미단이인데 상부다락을 이용할 수 있는 창호이다. 중간은 두 짝 미단이 유리창인데 부뚜막 쪽에 붙은 벽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창호이다. 그리고 하단의 창호는 부뚜



대청과 건넌방 I



대청과 안방 I



대청과 건넌방 II



대청과 안방 II

막 쪽의 일조를 위한 광장이다. 부엌의 출입은 서쪽에서 이루어지며 현재는 알루미늄 두 짝 미닫이 유리문이 달려 있다. 그리고 출입문 위에는 상부 다락을 이용할 수 있는 아자살 4짝 미닫이 유리창문이 달려 있는데 오친교 가옥과 모양이 같다.

부엌 남쪽 창고는 서쪽에서 출입한다. 부엌에는 뒤쪽동쪽에도 출입문이 있어서 후원으로 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동쪽에도 후원이 있으므로 안방과 부엌 일부에 걸친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안방 북쪽에는 굴뚝 흔적이 남아 있다. 평면의 기본 골격은 변한 것이 없으며 단지 연료가 나무에서 보일러로 바뀌면서 부엌이 입식으로 바뀌고 건넌방과 구석방은 전면 뒷마루가 고상식이고 그 아래에 함실아궁이를 설치하여 불을 땀는데 지금은 마루를 대청과 같은 높이로 마루를 낮췄다. 그리고 출입도 전면 고상마루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건넌방은 대청에서 구석방은 서쪽에서 출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창호들이 유리창으로 바뀐 것 등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아래채는 현재 없어지고 대문간 양쪽에 비닐을 치고 중정에 지붕을 씌워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 위치도 안채 쪽으로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좀 더 바깥마당 쪽으로 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가옥의 구조

구조는 대청마루를 기준으로 본다면 1고주 5량 가구이다. 초석은 사다리형 방형초석이며 기둥은 방형이고 직경은 4치이다. 높이는 2,040mm로 7자가 조금 안 된다. 기둥모는 외사모로 했으며 면접기는 하지 않았다. 고주는 평주보다 오히려 약간 직경이 작다. 기둥머리에서는 보와 도리가 직교하여 사괘맞춤으로 했다. 도리는 납도리로 방형으로 정연하게 다듬었으며 하단을 둥근실모로 접었다. 도리의 직경은 110mm이며 높이는 130mm이다. 뒷보는 방형이며 직경은 140mm이고 높이도 140mm이다. 보 하단 모서리는 빗모접기를 했다. 보 머리는 숭어턱으로 했으며 말구는 사절하였다. 뒷보와 대들보는 고주에서 같은 높이로 만나며 장부 맞춤으로 했고 원형 썰기를 박아 고정하였다. 대들보 역시 방형이며 그 크기는 뒷보와 거의 차이가 없다. 폭은 120mm이며 높이는 150mm이다. 다단은 둥글게 모접기를 했다. 대들보 위에서는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를 걸었는데 3분변작이다.

종보의 직경과 모양은 뒷보와 거의 일치한다. 종보 중앙에는 사다리형 통으로 만든 관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걸었다. 관대공의 상부 폭은 120mm이며 하부 폭은 240mm이다. 종도리는 방형이며 하단 모서리는 빗모 접기를 했다. 그리고 종도리 하부에는 장여를 보냈다. 장여와 대공이 만나는 곳에는 소로를 꽃았다. 종도리는 직경이 사방 150mm 정도이고 장여는 폭이 80mm이고 높이는 100mm이다. 서까래는 자연목을 사용했지만 비교적 곧은 나무를 이용했으며 서까래 간격도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서까래 위에는 잡목을 쪼갠 것으로 산자를 엮어 올렸으며 양토는 초벌과 재벌로 했다. 초벌은 짚을 섞어 두껍게 했으며 재벌은 모래를 섞어





초선과 하방



뒷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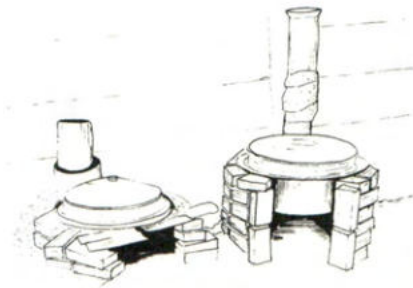
안방 전경



안방 디락

얇게 발랐다. 재벌 위에는 회칠로 마감하였다.

건넌방과 구석방 앞 뒷기둥에는 측면에 쌍장부 구성이 남아 있다. 함실아궁이 위에 고상마루가 설치되었을 당시 마루 귀틀을 꽂았던 장부구멍이다. 기단에서 장부구멍 위까지는 1,100mm이다. 즉 고상마루는 기단을 기준으로 약 4자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청마루의 높이는 280mm로 한 자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1. 뒀안 전경
2. 야외 회덕
3. 뒀안 장독대와 우물
4. 장독대
5. 우물가
6. 우물 속

1	1	2
3	1	4
5	1	6



대청마루와 고상식 툇마루는 3자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건넌방과 구석방은 툇마루에서 출입했다고 하므로 초창 당시에는 대청에서 툇마루로 오르는 계단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고주 오랑 기구



건넌방 쪽 추녀와 마죽연



평주와 도리

#### 4. 가옥의 특성

안채는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운데 대청 1칸을 중심으로 서쪽에 건넌방 두 칸이 연이어 있었다. 대청과 건넌방 앞에는 반 칸 퇴가 설치되어 있다. 대청 동쪽으로는 안방이 놓였고 안방은 1×1.5칸이다. 안방 앞으로는 부엌 1.5칸과 창고 1칸이 연이어 있다. 곱은자집의 전형을 보여 준다. 난방이 장작에서 보일러로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은 건넌방과 부엌이다. 건넌방 앞의 툇마루는 지금은 대청과 높이가 같지만 원형은 기단으로부터 1,100mm 높이의 고상식 마루였다. 마루 밑에는 함실아궁이가 설치되어 각각 불을 땀다. 이때 건넌방의 출입은 고상마루를 거쳐 남쪽 정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청 쪽 건넌방은 대청 쪽에 출입문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구석방을 가기 위해서는 툇마루를 거쳐야 하는데 대청과 툇마루는 높이 차이가 3자 정도 나므로 대청에서 연결되는 툇마루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청과 툇마루는 모두 남북방향으로 장마루를 깐 것이 이 지역의 특성상 원형일 것이며 대청 뒷문 또한 판문이 아니고 지역적 특징에 따라 창호지를 바른 한식 창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방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눈썹짜기창도 한식 창호였을 것이다. 부엌은 입식으로 바뀌면서 부뚜막 및 벽장 등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인 형식은 오천교 가옥의 부엌과 거의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부엌 전체에 고상식 다락이 있어서 안마당 쪽에서 이용했으며 안방 쪽 벽에는 고상다락 아래로 벽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방에서 이용했고 벽장 아래로 부뚜막이 있었을 것이다. 또 부뚜막 서쪽 벽에도 판재로 만든 벽장이 있어서 마당 쪽에서 이용하였다. 부엌 출입문은 오천교 가옥에서는 양식이었으나 김인태 가옥에서는 시대가 앞서므로 전통적인 2짝 판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부엌 뒷문도 한식이었을 것이며 구성은 오천교 가옥과 같다. 부뚜막 반대편 동쪽 벽에는 오천교 가옥에서는 판재로 만든 찬장이 있었는데 이 집에서는 알 수 없다. 부엌 앞 창고는 주로 부엌에서 이용하는 살림 창고로 사용되었다. 초창 때와 달라진 것은 간살이는 같고 단지 툇마루가 낮아졌으며 부엌이 입식으로 바뀐 것이 차이점이다.

## 1. 가옥의 위치와 배치

안양 비산동 107-2번지 장순태의 집 앞길을 따라 북쪽으로 50m 가다 보면 왼쪽 길가에 있다. 집을 빙 둘러 아래쪽으로 흙벽돌 군대군대에 직경이 15mm 채 안 되는 구멍이 송송 나있다. 여쭙어 봤더니 집이 험해지면서 몇 해 전부터 호박벌 같은 것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가 살고 있다 한다. 이제 4월이면 슬슬 움직인다고, 아궁이에 불을 안 땀 지 오래되어 연기(煙氣) 자욱할 리 없고, 사람의 자취(人跡)마저 뜸하니 이 생태(生態)건축의 흙집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아 자연으로 돌아갈 수순을 밟는가 보다. 환경친화(環境親和)란 이런 것일까?

이 집을 처음 대면했을 때, 문득 초가삼간(草家三間)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문집(文集)류에서 본 두옥(斗屋)이란 말도 새삼스럽게 기억이 났다. ‘일간두옥(一間斗屋)’, ‘삼간두옥(三間斗屋)’ 또는 ‘수간두옥(數間斗屋)’이니, ‘말집’이라고도 한다. 작은 집을 때로는 와려(蝸廬), 와사(蝸舍), 와실(蝸室), 와옥(蝸屋) 등 달팽이집에 비유하듯 말하기도 한다.

송채남은 남자이름 같기도 하지만 할머니 성함이다. 2006년 72세로 이곳에서 반백 년을 사셨다. 이웃집 말로는 생활이 어려워 땅주인이 땅을 빌려 주어 집을 지었다고 한다. 2남 2녀 중 딸들은 다 출가시키고 이곳에서 49살 된 아드님과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신다. 3월 10일 다시금 들렀을 때, 할머니 얼굴이 마치 한가위 보름달 보듯 환하다. 집이 팔려서 4월 중순쯤 아파트로 이사 가시게 되었다고 한다. 22세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서 그야말로 50년을 고생하시다 떠나자니 내심으론 시원섭섭하신 모양이다.

시집을 온 해, 콩과 보리를 심던 밭을 갈아 집터를 닦고, 여기서 나온 흙으로 벽돌을 찍고 말려서 집을 지었다. 나무는 누가 쓰던 걸 사다 썼으며 안채에는 방이 있지만 거의 창고로



안채 후면(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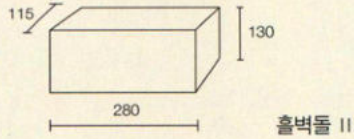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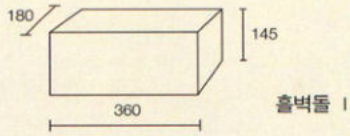


안채 전경(남측)



안채 측면(북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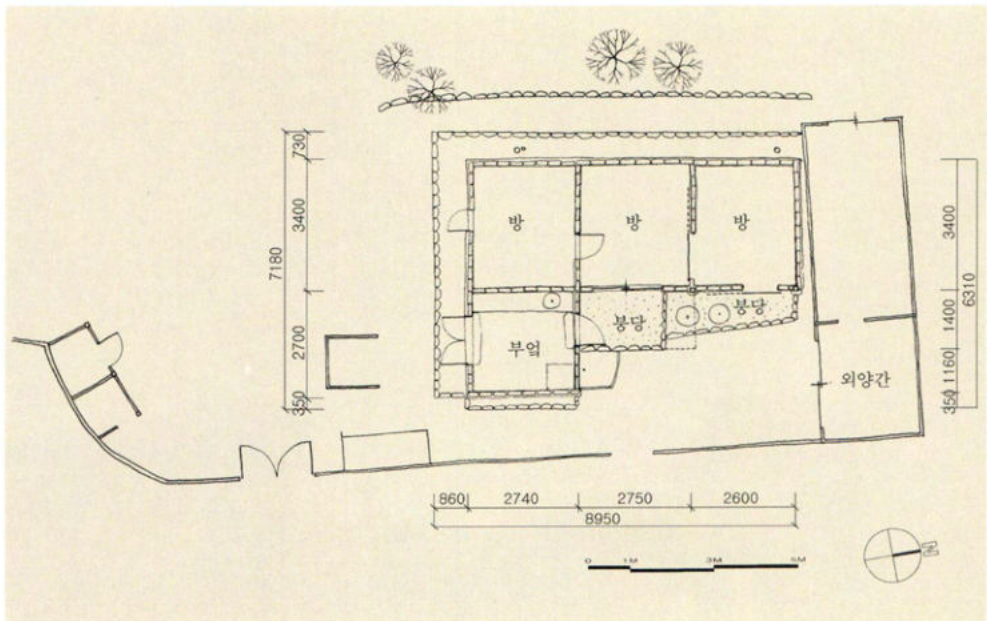


1. 안채 전경(남측)
2. 안채 남측 벽면
3. 안채 후면 전경
4. 장독대와 현관
5. 앞마당 전경
6. 장독대와 앞마당

1 | 2  
3 | 4  
5 | 6







배치도

쓰는 듯싶고, 현재 살림은 예전의 외양간을 헐고 지은 블록 집에서 한다.

남북으로 난 길을 따라서 길게 집터를 잡았다. 이 집터는 서쪽이 언덕바지로 경사가 졌다. 정지작업을 해서 터를 내려앉혔고 다시금 석축을 쌓은 후에 경사면을 따라 나무를 심었으니, 여름에 따가운 서쪽 햇볕 한 줍도 들어오질 못했을 것이다. 집 뒷벽에는 개구부가 하나도 없다. 지금은 뒤 석축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물이 잘 빠졌다는 배수로도 신통치 않다.

긴 터의 북쪽으로는 살림집터로 하고, 건넌방 옆으로 1980년대 초까지도 외양간이 있었다 한다. 남쪽 마당 일부분이 시멘트 바닥이다. 돼지우리가 있어서 많게는 20여 두까지 키웠다고 한다. 당시에 근처 군부대도 있었지만 안양시내에 나가 사료를 사서 키웠다 한다. 남쪽 끝 대지 경계에는 재래식 변소와 잣간이 있다. 살림채 남쪽 부엌문 바로 앞에 땅을 파서 항아리 3개를 묻고 김치광을 만들었다.

김치광과 대문 옆 담장에 기댄 장독대 사이의 통로가 유일한 안채 진입로이다. 원래, 대문은 봉당 앞에 있었다 한다. 병목을 통과하는 기분으로 안마당으로 들어선다. 안마당이 너무 협소하여 답답하다. 제 판에서 할머니를 위한답시고, “앞길이 나면서 대문간이 안쪽으로 밀려들어 온 거지요?” 하니까 “원래부터 그랬어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 왠지 괜한 질문을 했다 싶어 송구스럽다. 이런 땀 얼른 대화를 바꿔 주는 게 좋다. 길이 넓혀지면서 담장이 안쪽

으로 약간 밀려들어 오고, 길이 높다 포장되다 보니 안마당을 덩달아 높였다 한다.

붕당 앞에 수도가 있지만 아직도 지하수를 쓰고 있다. 주변에서 농업용수를 빼어 써서 점차 지하수가 깊어져 파이프를 50m는 족히 땅속으로 박았다 한다. 예전에는 이 밑집현재는 음식점에 우물이 있어 너댓 집이 같이 물을 길어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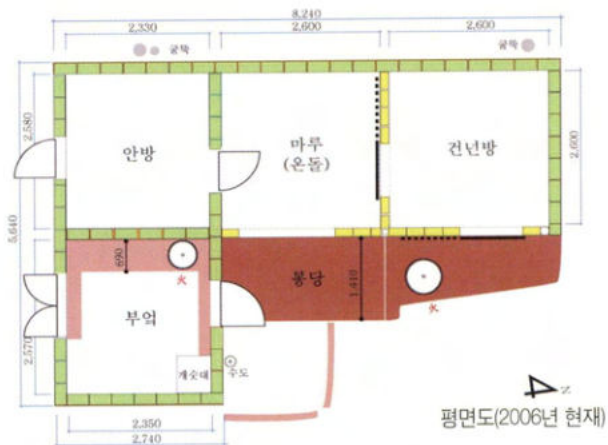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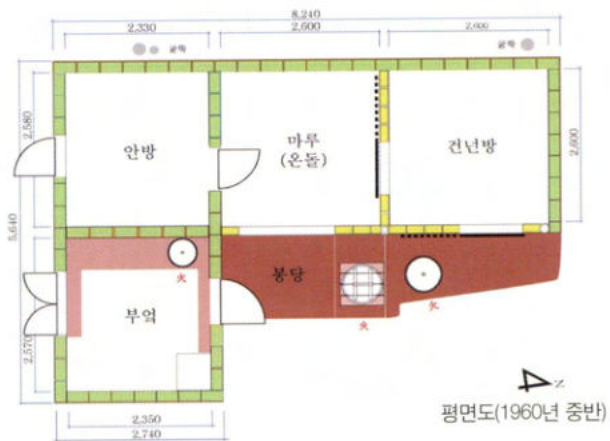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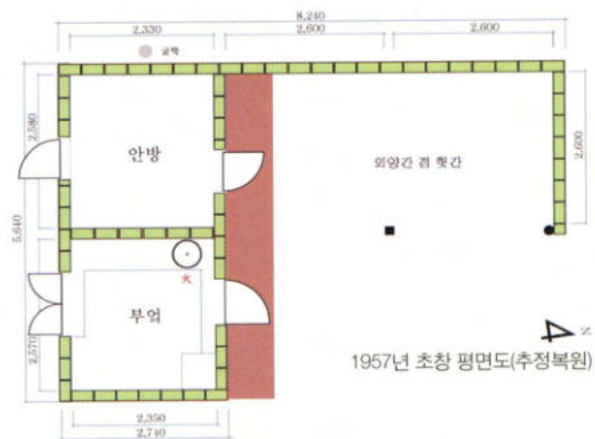
## 2. 가옥의 평면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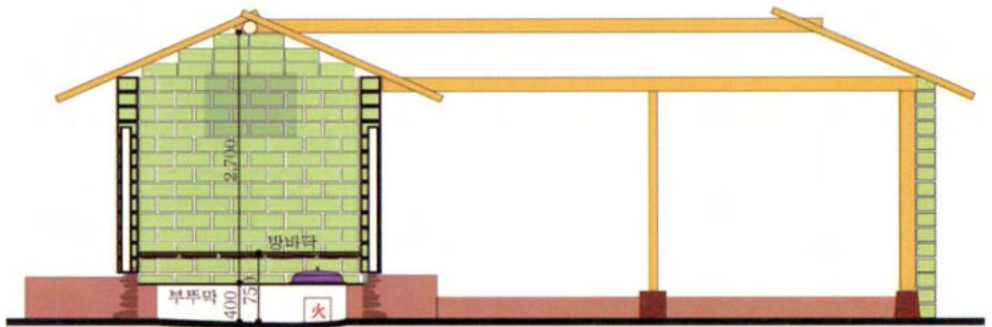
안채의 평면은 좌우가 바뀐 ‘ㄱ’ 자이다. 마루를 기준으로 남향으로 5도 정도 기울어진 동향집이다. 길을 바라보면서 정면을 취하니 동향집이 되었다. 그러나 초창 당시는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이었으므로 남향집이었다. 초가였던 이 집도 새마을 물결을 타고 붉은 시멘트기와로 탈바꿈하였다. 초가의 잔형이 남은 우진각 지붕이다.

원래는 안방과 부엌만이 있던 ‘ㄱ’ 자 집이었다 한다.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 투덕투덕 지은 흙집으로 초창 당시에 마루와 건넌방을 마저 하기에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 한다. 그래서 훗날을 기약하고 집의 외벽만 큰 흙벽돌로 공간을 구획해 놓고 지붕을 씌워서 외양간과 창고로 사용하다가, 신금식의 기억으로는 중학교 들어갈 즈음, 1960년대 중반경에 지금의 ‘ㄱ’ 자 집이 완성이 되었을 거라고 한다. 그리고 보면, 왜 건넌방 앞에 나무기둥이 2개이며, 북쪽 벽이 나무기둥 바깥으로 둘러져 있는지 얼마간은 의문이 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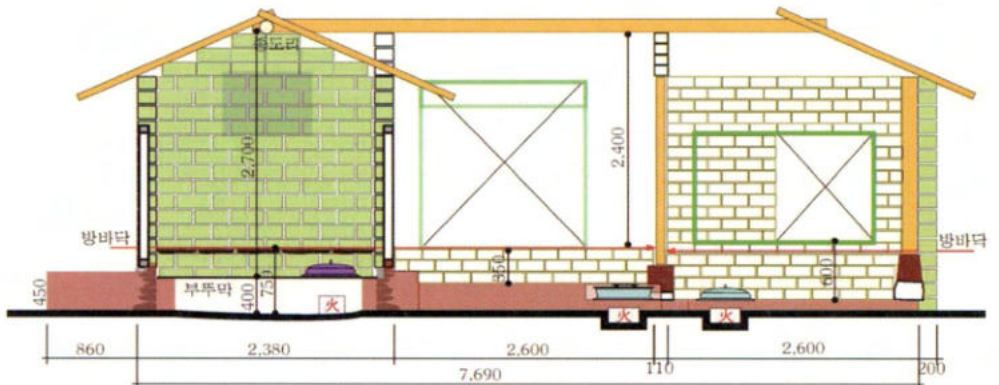
조적식 구조인 흙벽돌집은 벽의 중심을 찾기가 힘들어 편의상 외벽의 양끝과 내부의 안치수를 기준으로 길이를 잴다. 외부의 치수는 안방과 부엌이 5,740mm, 안방과 건넌방이 8,245mm, 부엌 동쪽 벽의 길이는 2,740mm이다.

집의 기초는 일단 250mm 높이로 콘크리트 지대를 조성하고, 그 위에 땃돌을 놓았는데, 도로 경계적으로 쓰였을직한 230×230×500~550mm 정도 크기의 콘크리트 장대석이 사용되었다. 굵지 않고 말린 흙벽돌(土坯, Adobel)은 대소大小 2종류가 사용되었다. 대 360×180×144, 소 280×130×115. 줄눈의 두께는 일정치 않으나 15~25mm 정도가 된다. 안채의 땃돌 위에서 50mm 정도 높이로 다시 콘크리트 기초를 조성한 뒤 외벽을 두른 흙벽은 위로 13줄을 쌓아 완성했는데, 땃돌에서 벽체의 높이는 2,150mm에 달하였다. 흙벽돌집인 관계로 풍우에 잘 견디게 곁에 흙바름을 했다. 큰 벽돌을 쓴 벽체의 두께는 200mm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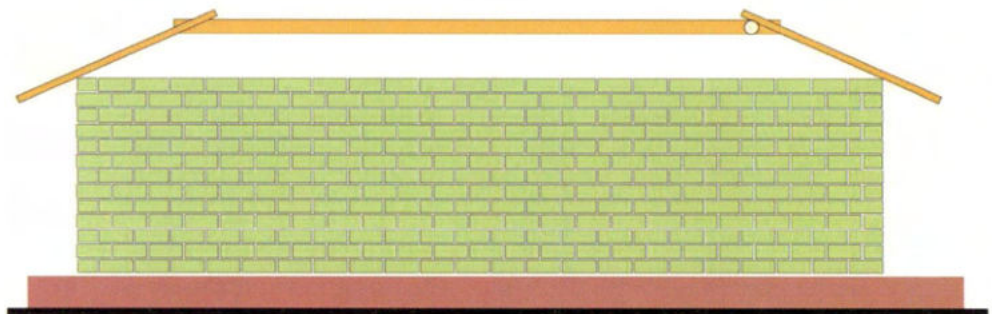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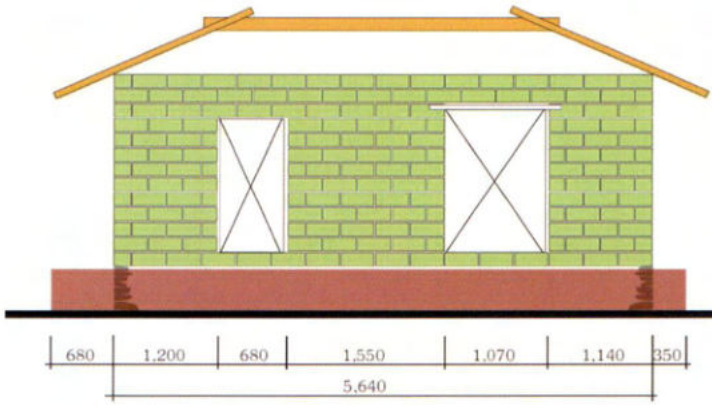
1957년 초창 입면도(추정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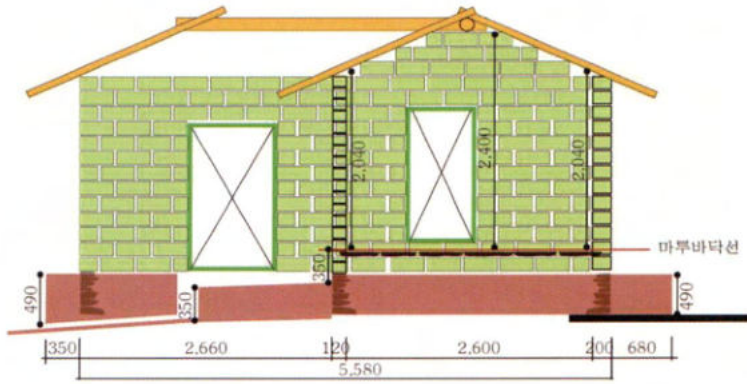
정면도 겸 단면도(부엌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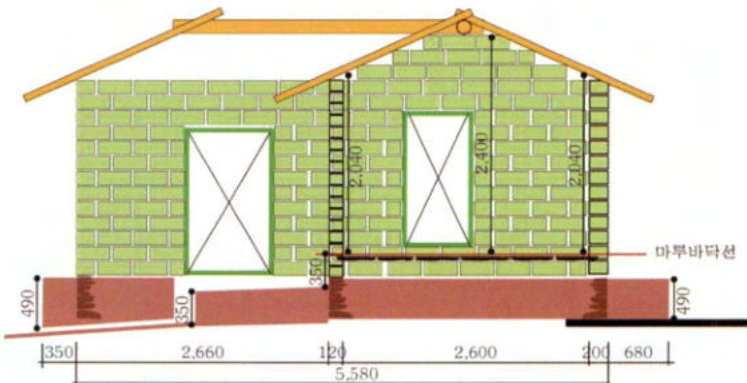
배면도



남측면도



단면도2(부엌과 안방을 바라봄)



단면도2(부엌과 안방을 바라봄)

## 1) 안방

내부는  $2,580 \times 2,330\text{mm}^{1.73}$ 평이고 동서로 조금 길다. 천장은 서까래가 그냥 노출된 연등천장인데 도배를 했다. 천장 높이는 우진각지붕의 형태를 이루므로, 부엌 쪽 벽과 방 가운데 그리고 북쪽 방문 쪽이 다소 높아 각각  $2,400\text{mm}$ ,  $2,300\text{mm}$ ,  $2,400\text{mm}$ 이고, 외벽 쪽으로는  $1,950\text{mm}$  내외이다. 남쪽 벽과 북쪽 벽으로 마주보게 외쪽 여단이 살문을 달았다. 가로살은 3-5-3의 구성을 취하였다. 마루로 향한 지게문은 방안에서 볼 때 왼쪽 문설주에 돌쩌귀를 달아 나들기 편한 방향으로 열리게 했다. 4식구가 안방에 모여 한꺼번에 누워서 자려면 2평도 채 안 되는 좁은 방에는 이렇다 할 가구를 놓을 여지가 없다. 긴 서까래 2개를  $270\text{mm}$  사이를 두고 나란히 걸쳐서 북쪽 문 위로 2줄 시렁을 설치하였다. 여름에는 안방 문들을 죄 열어 놓으면 집안이 시원하기가 이를 데 없다 한다. 안방 뒤편 처마 밑 땃돌에 굴뚝이 2개 있다. 안방과 가운데방의 것을 사이좋게 나란히 두었다. 건넌방 뒤편 땃돌에도 1개의 굴뚝 흔적이 엿보인다.

## 2) 마루방

‘ㄱ’자 평면의 곱은자집인데 마루가 없다. 안방과 건넌방 사이는 분명 ‘마루’ 이어야 하는데, 아니라고 하신다. 할머니 마루잖아요? 근데 정말이냐고 되물었더니 연신 그렇다 하신다. 이럴 땐 정말이지 머리가 돈다. 뛰어올라 가 마룻바닥을 두드려 봤다. 퐁퐁거리지도 퐁퐁거리지도 않는다. 나무소리가 아니라 분명 구들장이 반향하는 소리다.

마루와 건넌방은 안방과 부엌이 만들어진 10년쯤 후에 태어났다. 안방에 덧달려 있던 외양간과 헛간이 늘어난 식구들을 위해 방이 되었다. 실의 크기는  $2,600 \times 2,600\text{mm}$ 로 2평이다. 애당초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 미리 정확하게 길이를 정해 놓았다. 마루방에는 온돌을 들였다. 마루 앞에 2짝 미서기문 울거미가 있다. 문짝을 떼어내면서 아래문 흠을 없앴다. 윗문 흠은 파낸 게 아니라 가늘고 긴 쥘대를 3줄 대고 흠 2개를 만들었다. 미서기문 위로 붙여서 광창이 있는데, 문짝이나 문살이 없이 앞쪽에서 덜렁 얇은 베니어판을 대고 대충 못질해서 붙여 놓았다. 그래서 마루가 어둡다. 뒷벽에는 창호가 없으며, 연등천장에 종보가 제대로 보인다. 굵기는 지름  $160\text{mm}$ 이다. 그런데 처마도리는 없다. 곧이곧대로 말하면 도리 한 개로 지은 집은 1량 집이다. 마룻바닥에서 높이가 종도리 밑까지는  $2,400\text{mm}$ , 벽에 걸친 서까래 밑까지는  $2,040\text{mm}$ 이다.



안채 전경



안채와 안마당



안채와 봉당 전경



부엌과 안채 마루방



부엌과 봉당 전경



봉당



1. 안채와 부엌
2. 안방 시렁
3. 안방 시렁과 창문
4. 안방 시렁과 외딴 여닫이 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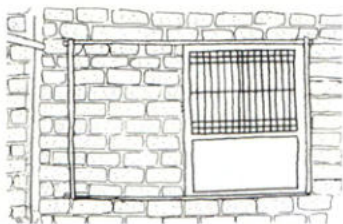
1 | 2  
3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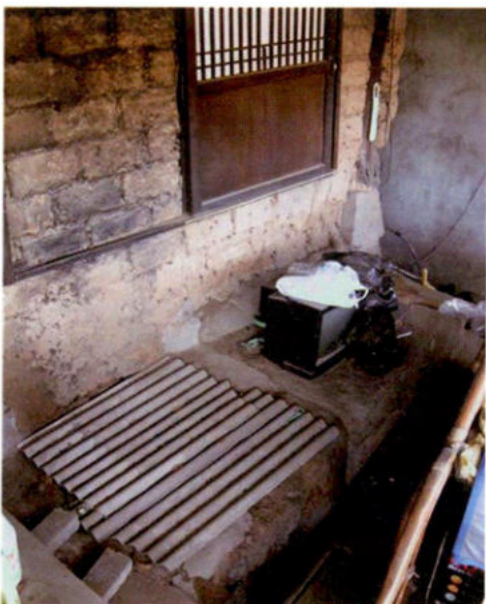
### 3) 건넌방

실의 크기는 마루와 마찬가지로 2,600×2,600mm, 안방의 두 문이 여닫이인데 반하여, 여기는 두 문 모두 미닫이 살문으로 가로살을 2-1-2로 간결하게 구성하였다. 밖에서 문을거미가



1. 건넌방 전경
2. 건넌방 미닫이 살문
3. 건넌방 외쪽 여닫이 살문
4. 건넌방 앞 봉당

1 | 2  
3 | 4



보이게 했다. 이 집은 여단이, 미단이, 미서기가 총출동됐다. 안방 바닥과 마룻바닥의 높이는 같으나, 건넌방은 40mm 낮고 문짝은 930×1,340mm이다. 외부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양쪽의 나무기둥이다. 왼쪽 것은 네모기둥, 오른쪽 것은 둥근기둥이다. 그런데 이 기둥들을 떠받고 있는 주초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 네모기둥의 주초가 둥근기둥의 주초보다 벽돌 1단 정도의 높이만큼 더 내려와 있다. 아마도 주초는 헛간에 방을 만들면서 원위치에서 들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마루가 방으로 된 사연은 뭘까? 2가지 이유가 찾아진다. 첫째는 이 집의 초창과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다. 이 집에서는 많을 때는 두 내외에 아들 2명, 딸 2명 이렇게 6 식구가 살았다. 단칸방으로 턱도 없고 해서 방을 늘이기로 했는데, 적어도 2개의 방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과년한 딸들이 출가하기 전까지 어려서부터 안방에서 줄곧 같이 잠을 잤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가운데 방은 온돌을 들였으나 그냥 마루였던 셈이다.

집 식구들도 이렇게 온돌을 들였어도 가운데 방을 그냥 '마루' 라고 부른다. 둘째는 마루 온돌의 아궁이 위치에 있다. 마루문 오른쪽으로 기둥 사이에 340mm 되는 벽이 있는데, 그 앞에 있었다. 마루문과 이 벽의 경계가 봉당을 구분하는 선이 된다. 그 아궁이에 쇠죽술을 걸쳤다. 남아도는 것이라곤 없는 빈한<sup>貧寒</sup>한 살림에서는 매일 쇠죽 끓이며 생기는 잔열일랑 그냥 버리기 아까웠으리라. 우리는 지금 50년 전 안양 비산동에 사셨던 한 위대한 농부의 손에 의해 탄생된 "에너지 초절약형 난방시스템" 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 1980년대 초 이후에는 집에서는 더 이상 소죽을 끓이지 않았다.

#### 4) 부엌

1.83평이고 크기는 2,570×2,350mm이다. 댕돌과 문턱을 오르내리게 되어 있는, 움푹 들어간 재래식 부엌으로 높낮이를 따져 보니, 마당의 지면과 같다. 집을 지을 때, 터만 다지고 그냥 부엌 바닥을 조성하였다.

부뚜막은 폭과 높이가 690×400mm이고 왼쪽에도 술을 건 흔적이 보이거나 아니라고 하신다. 부뚜막 높이는 계단의 높이와 같다. 이 집의 아궁이는 안방은 오른쪽 끝, 마루방은 오른쪽 끝, 건넌방은 왼쪽 끝에 두었다. 술구멍은 지름이 530mm이다. 부뚜막에서 종도리 밑까지는 2,700mm이고 검게 그을린 추녀와 서까래는 엉성하게 형성한다<sup>馬尾椽</sup>. 벽 꼭대기에서 그냥 서



1. 부엌 바닥
2. 부엌 닻들과 문턱
3. 부엌 판장문
4. 부엌에 있는 농기구

1 | 2  
3 | 4



까래가 걸리는데, 할머니께 혹시 큰 태풍이 왔을 때, 지붕이 들썩인 일이 있느냐니까, 단연  
코 없었다고 하신다. 지붕 무게가 충분했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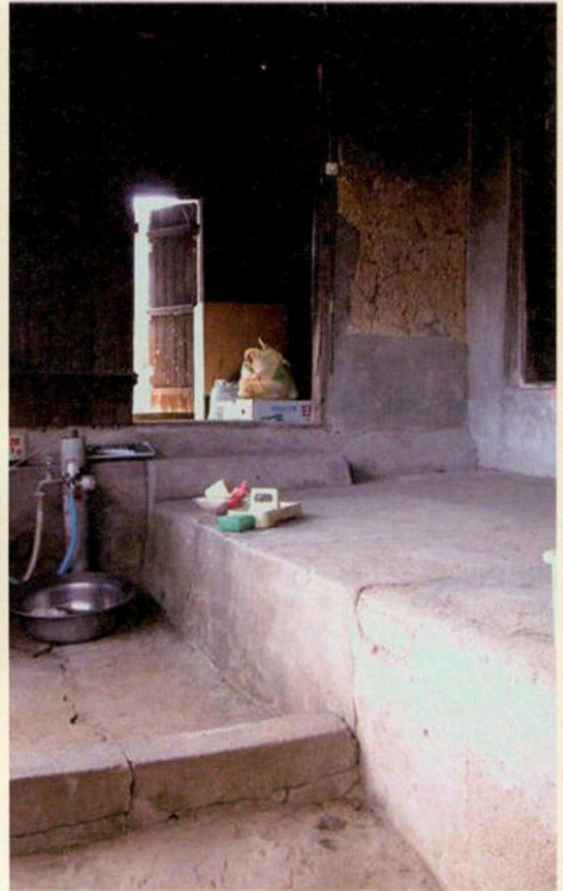
지붕 추녀



안마당 우물



마루방 연등천장



봉당과 부엌 전경



마루방 광창

안방과 같은 위치에 출입문을 냈다. 봉당으로 향한 문은 긴 관재 8쪽을 대어 만든 외짝여단으로 크기는  $790 \times 1,440\text{mm}$ 이다. 맞은편 관장문은 양쪽 여단으로 관재 5장씩을 사용하였다. 문울거미는  $1,070 \times 1,560\text{mm}$ 이다. 흙벽돌집은 구조상 문울거미를 지지할 기반이 약하다. 그래서 여단이인 경우에는 반드시 문울거미에 좌우로 150mm 정도 긴 문인방을 덧달았다.

안방을 경계한 부엌 벽에 부뚜막에서 1,400mm 높이에 창문 $950 \times 700\text{mm}$ 을 만들다 만 흔적이 역력하다. 경제적인 문제였다고 한다. 부엌 바닥과 안방 바닥과의 높이 차는 750mm 정도이다. 즉 아궁이와 구들장 사이의 높이 차를 말한다. 숯 걸린 아궁이 뒤편 한구석에 양쪽 벽에 기대어 홀로 작은 단을 쌓았는데 가로 $\times$ 세로 $\times$ 높이 $=910 \times 620 \times 580\text{mm}$ 이다. 부엌의 여건으로 봐서 설거지를 하는 개수물통을 놓았지 않나 싶다. 남은 한 구석 벽 아랫부분은 길을 싸발랐던 흙이 떨어져 흙벽돌을 쌓기 전 납작한 돌로 쌓았던 집의 기초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 5) 봉당

이 집에서는 봉당이 또 다른 마루인 셈이다. 안마당에서 안채의 부엌이나 마루로 오르려면 댓돌을 올라야 하는데, 여기서는  $2,000 \times 1,400\text{mm}$  크기로 흙 돌음을 하여 높였다. 『한국의 살림집』을 보면 봉당의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다. '토담집의 토상土床: 흙마루인 뒷간을 봉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봉당이란 말은 안방과 건넌방의 사이, 즉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흙집의 구성에서 대청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맨바닥인 채 남겨 둔 부분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경우의 봉당은 뒷간과는 다르다. 봉당은 뒷간과 마루 없는 대청과의 두 구역을 가리키는 용어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자면 마루 없는 대청 부분을 국한시켜 일컫는 것이다. 현재 봉당은 시멘트로 포장을 했다.

봉당 앞 작은 안마당을 뒤엎은 채양은 건넌방을 만든 뒤 가설되었다. 봉당 밑에 마당과 격리가 되게 벽돌로 낮게 단 $100 \times 100 \times 100\text{mm}$ 을 휘둘러 조그맣게 빨래터 경계를 만들었다. 수도꼭지에서는 지하수가 나오고, 여기서 물을 버리면 구멍만 보이는 수채(隱溝)를 통해서 밖으로 빠지고, 안마당의 물은 미련 없이 담장 밑구멍으로 나가도록 했다.



안채 남측 기단



건넌방 외부 흙벽돌과 초석



흙벽 밑 기초



부엌 아궁이(불목돌과 불고개)



흙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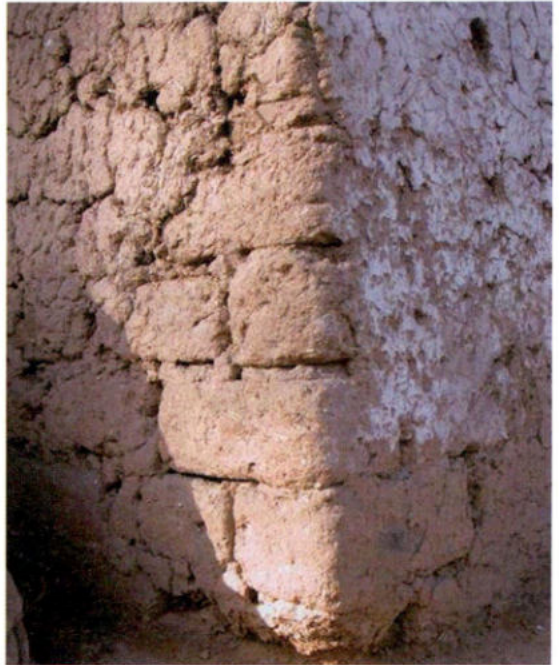
안채 후면 굴뚝 상세



부엌측 외부 벽면



안채 후면 굴뚝 전경



외부 흙벽돌

## 6) 외양간

안채의 건넌방 옆으로 2칸 규모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곳에 블록 집에 슬레이트를 씌워서 살림을 하고 계신다. 실의 크기는 1,000×6,000mm이다.

### 1. 가옥의 위치와 배치

복잡하고 분주한 인덕원 사거리를 지나 안양 시내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한 200m쯤 지나다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들어오면 관양1동으로 동편, 간촌, 중촌, 부림마을이 있다. 과천시와 경계를 이루는데 관악산 남쪽 끝자락에 이런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들이 다소곳이 숨어 있었다. 이관우의 집은 동편마을에 있다. 조사대상가옥 중에서 그리 큰 규모는 아니나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조선기와집이다. 뒷동산을 등지고 있는 전형적인 동향집이다. 집터는 남북을 잇는 2차선 도로에서 뒤로 주춤 물러앉아 있다. 가까운 주위에는 ‘안양시건축문화상’ 명패를 자랑스럽게 벽에 내붙인 단독주택이며 지어 진 지 얼마 안되는 좋은 집들이 있어 쾌적하면서도 깨끗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언제부터인지 비닐하우스에 꽃을 키워서 팔기 시작했는데, 장사가 되는 듯싶더니 우후죽순(雨後竹筍)식으로 너도나도 돈 벌겠다고 나서 마을 어귀부터 이곳 가까이까지 화원이 즐비하다.

78년 되었다는 집이다. 할아버님<sup>82세</sup>의 조부께서 웅<sup>翁</sup>이 4살이 되던 해에 지어 주셨다 한다. 3칸 되는 대청마루에 몸매가 잘빠진 대들보가 기둥 위를 지나가나 상량장여에는 이렇다 할 상량문구가 없다. 11살 터울의 아내 김영희<sup>72세</sup>와의 사이에 2남 3녀를 두었다.







후면 전경



대문간 전경



대문간



대청 전경



건넌방에서 대문을 바라봄



부엌과 마루방



안채 배면



화계



헛간 화방벽



뒤안



부엌간 전경



장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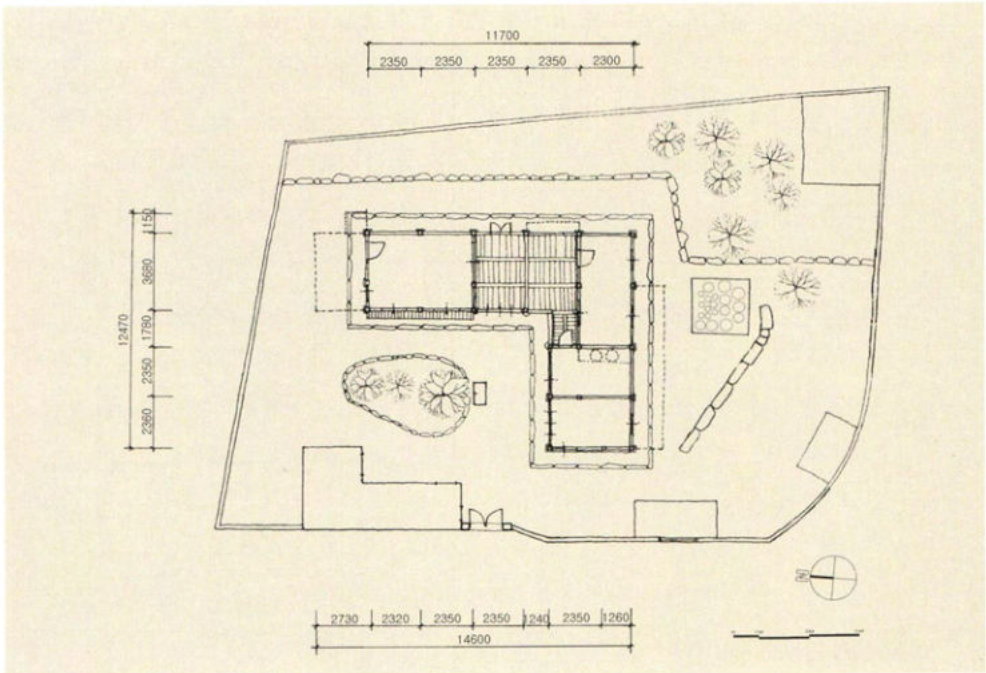
블록담장으로 둘러싸인 울타리 안에 안채와 대문간채가 들어섰다. 안채에는 바른 ‘ㄱ’ 자 형태를 취한다. 대문 앞 오른쪽에는 연자매로 들었던 둥근 돌이 버젓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 계단 2단을 올라서야 보도블록을 깬 안마당에 이른다. 안채의 대청이 정면에 들어온다. 안마당 중간에는 정원을 꾸렸는데 향나무와 사철나무가 심어져 있다. 원래는 안마당은 한 단 정도 낮았다고 한다. 부엌문 앞마당에 정원에 붙어서 조그맣게 구획을 하고 수도를 놓았다. 그 주위로 다듬잇돌 3개와 얹어 놓은 돌절구통이 있다. 북쪽 담장가에 문간채에서 쓰는 장독대가 보인다. 블록으로 새로 지은 문간채에는 현재 세 들어온 사람들이 산다. 부엌 뒤편 남쪽으로 장독대며 창고가 있다. 안채 뒤에서 시작된 석축 쌓은 화계(花階)가 장독대 뒤까지 이어지고, 강들로 연상되는 둥그스름한 호박돌로 1,500mm 높이의 석축을 쌓았다. 장독대에서 비스듬히 꺾여 부엌 쪽으로 800×480×100mm 크기가 되는 넓적하게 다듬은 화강석 7매가 외벌대를 구성하였다.

## 2. 가옥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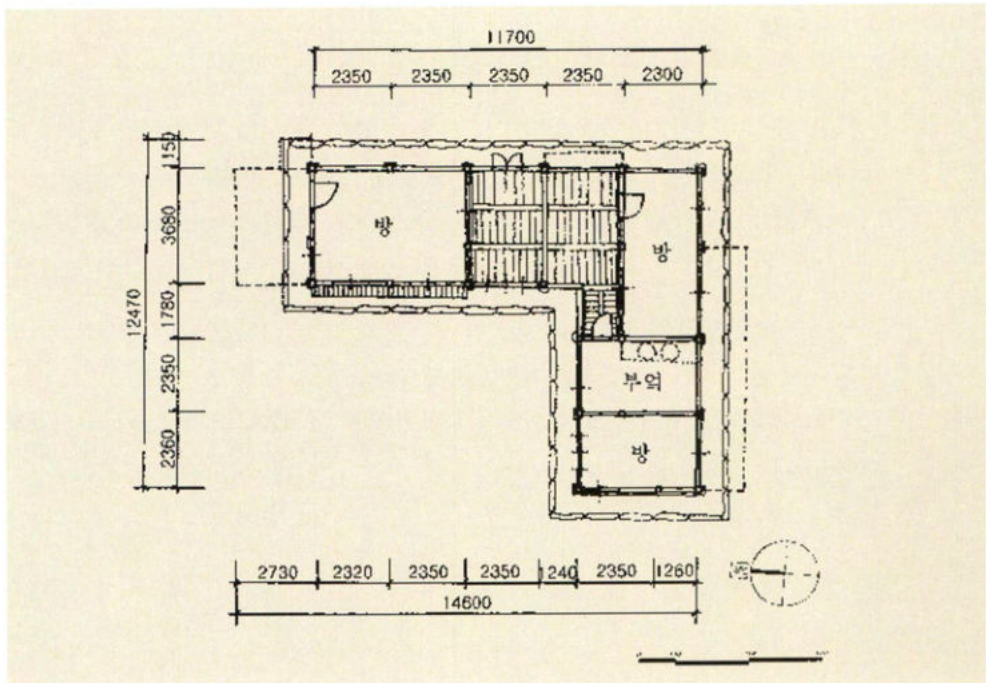
### 1) 안채

안채는 ‘ㄱ’ 자가 반듯한 평면으로, 11.25칸측면 1칸반×정면 7칸반이다. 간살의 길이는 2,350mm 내외이다. 정면 가운데 3칸1칸반×2칸은 대청이고, 오른쪽 1칸 반이 안방 그리고 왼쪽은 건넌방으로 대청 크기와 같은 3칸이다. 이렇게 ‘ㄱ’ 자를 이룬 평면에 안방에서 아래로 90도 꺾여 1칸 반×2칸 반의 크기로 부엌과 마루방을 두었다. 마루방의 기둥 위치가 안방의 기둥열과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1칸 반 크기의 마루방을 1칸은 마루방으로 쓰고, 나머지 반 칸은 부엌에서 나뭇간으로 활용토록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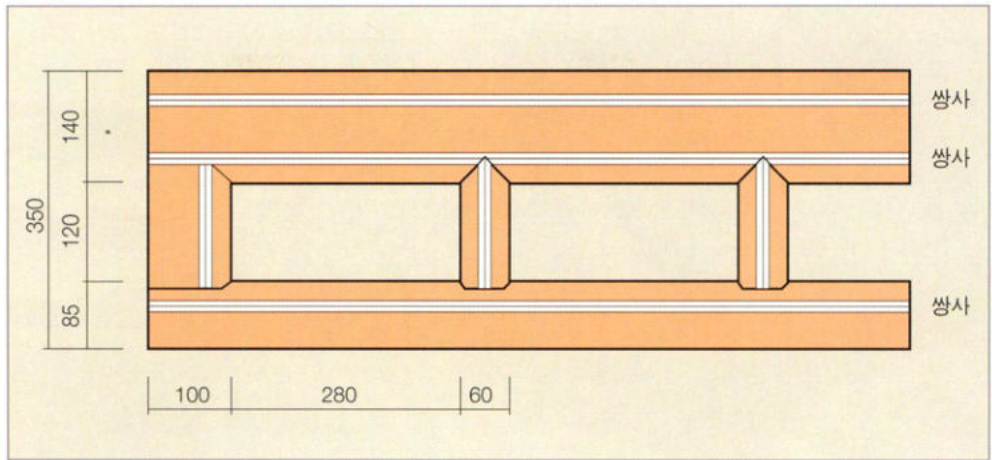
안방은 2칸통 크기이다. 부엌 위쪽 1칸이 안방, 그 위쪽 1칸이 옷방이었다고 한다. 결국 옷방을 거쳐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현재는 옷방 쪽으로 출입문이 나있다. 안방에서 마루를 면한 쪽에는 머름을 들인 2짝 미서기가 있다.



배치도



평면도



머름상세도

부엌을 실내로 직접 연결이 되게끔 대청 쪽으로 반 칸을 내달아 뒷마루를 만들었다. 그러는 바람에 정면 2칸이어야 할 대청이 1칸 반으로 답답해졌다. 기능성의 강조가 정면성에 손상을 가져왔다. 그래서 훗날 기둥 낀 반 칸 대청 쪽에 마루를 귀집이해서 대청마루의 가운데 기둥과 부엌기둥을 어긋하게 연결하면서 유리문을 달게 되었다.

건넌방 앞에서 내다보는 곳에 원래의 대문은 있었다고 하니 대문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약간을 꺾어야 대청을 바라볼 수 있었으므로 지금 대문을 대청과 마주하게 위치했을 때보다야 덜 부담이 갔지 않았나 싶다. 대청마루는 3칸으로 우물마루를 들였다. 2칸의 뒷벽에는 왼쪽 1칸에 2짝 바라지를 달고, 오른쪽 1칸에는 벽 위쪽으로 감실이 있었다.

건넌방은 대청과 접한 면은 1칸 반이다. 1칸에는 2짝 유리미서기문을 달았다. 나머지 반 칸에는 벽으로 보이나, 도배된 뒤에 머름을 둔 2짝 미서기 형식의 눈썹재기창이 있다고 했다. 이 지역에서는 눈썹재기창이 주로 안방문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볼 때, 특이한 점이다. 건넌방 출입문 위에 멋진 글씨로 장수를 기원하는 ‘壽如金石’ 글씨를 새긴 나무 현판이 걸려 있다. 대림산업을 다니던 아들이 구해 온 것이라 한다. 건넌방 출입문과 마주한 벽 뒤로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한다. 안마당을 향하는 창문 쪽으로 쪽마루를 달았다. 2칸에 내밀기 360mm 높이가 430mm으로 상판 17쪽을 이어서 붙였다. 끝 건넌방 1칸 앞에는 햇빛 차단을 위해서 서까래에 대자리를 매달아 늘어뜨렸다.



오랑 구조



고주와 맞보



부엌의 회침



壽如金石 현판



대청 뒷벽



건넌방 문



안방 창문과 부엌 문



부엌은 원래 재래식으로 바닥이 깊었다고 하나 지금은 입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안마당을 향한 쪽으로 부엌문 위에 4분합이 당시 다락이 있었음을 대변하고 있다. 아궁이는 2개였고, 뒤안으로 나가는 부엌문이 따로 있다. 마루방을 곁에 두고 있어 이곳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부엌 상부 다락은, 안방 4짝 다락문으로 올라가서 물건을 마루방 쪽으로 내리도록 했다. 마루방의 외벽은 화방벽이다. 화방벽에 기대어 장작더미를 쌓아 놓으면 수시로 부엌 나뭇간으로 들여 놓아 때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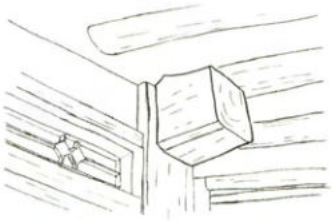
## 2) 대문간채

원래 대문간채는 밖에서 볼 때, 가운데 대문을 두고 왼쪽에 외양간 오른쪽에 헛간을 두었다. 따라서 대문은 건넌방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헛간이었던 위치로 대문을 옮겼다. 지금은 철대문이다.

## 3. 가옥의 구조

1고주 2평주 5랑 집이다. 관양동과 비산동 일대 초가였던 집들의 가구 구성은 1고주 2평주 4랑 집이 기본이다. 따라서 기와집의 구조가 달라져도 기둥의 구성에서는 지역적 보편성을 보여 주고 있다. 종량은 장여가 밑에서 받고, 장여는 소로를 동반한 들실한 판대공이 받치고 있다. 중도리는 굴도리라 장여가 받고, 중도리와 처마도리는 납도리이나 모를 확실히 죽였다. 방 쪽에서는 뒷기둥에서 고주로 대량이 끼고 고주에서 앞기둥으로는 퇴보를 대량과 같은 높이로 맞보형식을 취한다. 이 대량 중간에 동자기둥을 두어 중보를 받는다. 즉 중도리는 3분변작법에 의하여 자리를 잡았다. 고주에서 보의 결합 시 대량은 2개, 퇴량에서는 1개의 산지를 박았다. 기둥과 보는 사괘맞춤이며 보뿔목은 170mm 정도인데 등 쪽에 새우각처럼 모양을 냈다.

외곽 기둥 굵기는 밑 부분이 155~175mm, 높이는 2,156mm이다. 기둥은 모두 민흘림을 주었는데 윗부분과는 10mm의 편차를 주었다. 또한 꺾기둥에서는 눈으로 표시가 날 만큼 안솔림을 확연히 주었다. 귀솨음기법은 눈이 밝지 못해 아쉽게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처마도리창방 크기는 135×180mm이다.



알추녀



회침



기둥 안쓸림 I



기둥 안쓸림 II

처마에 알추녀를 썼다. 보통 일반민가에서는 사랑채에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사랑채가 따로 없어서인지 안채에 알추녀를 썼다. 알추녀를 쓰는 까닭은 추녀를 조금 굽게 만들면 같은 굽기의 서까래로도 처마를 좀 더 길게 뻗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쓰인 서까래 굽기는 지름이 95~100mm 정도이고, 서까래 내밀기는 960mm, 서까래 간격은 300mm 내외이다. 처마에 다시 양철 차양을 400mm 이상 덧달아 냈으니 '처마가 깊은 집'은 이 집을 이른다.

건넌방과 부엌에 붙은 마루방에는 밖으로 높직하게 통머름을 두었다. 부재 춤이 120mm와 185mm 되는 부재를 아래위로 놓아 머름을 꾸몄다. 뗏돌은 길이 1,500mm 정도의 장대석을 사용해서 대들혹자는 기단내밀기라고도 한다 폭을 900mm 정도로 조성하였다. 서까래 내밀기보다 60mm 정도 짧다. 그래야 낙숫물이 마당으로 떨어져 집안으로 튀질 않는다. 지금은 외별대이나 바닥을 높게 돋았다는 말씀으로 짐작하면, 두벌대 정도였다고 생각된다.

## 제6장 이길자 가옥

### 1. 가옥의 위치와 배치

이길자 가옥은 안양시 관양1동 산29-2번지에 위치한다. 관양동은 관악산<sup>629m</sup> 주산으로 하고 있으며 주봉으로부터 정남으로 빠져 내려온 산맥이 끝나고 넓은 평지가 펼쳐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관양동은 과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관양동 동쪽 과천과의 경계에는 관양동 선사유적이 있는 낮은 능선이 있다. 또 비산동과의 경계에는 역시 관악산에서 빠져 내려온 낮은 능선이 있다. 이 두 낮은 구릉을 좌청룡과 우백호로 삼고 있는 곳이 관양동이다. 이길자 가옥은 그 좌청룡 능선을 타고 있어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서향 경사지에 배치되었다.

인덕원사거리에서 관악로를 따라 비산사거리 쪽으로 약 600여m를 가다가 2차선 과천길로 우회전해 들어간다. 우회전해 150여m를 가다가 다시 좌회전해 북쪽 관악산 방향으로 동편길을 이용해 오르다 보면 우측에 있다. 동편길 84호집이다. 동편길은 아스팔트포장 왕복2차선이며 이길자 가옥은 동편길에서 한 블록 뒤에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의 고리형으로 연결된 마을길을 따라 약간 들어가야 된다. 이 마을길은 약 4m 도로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는 정도이다.





1. 대문간
2. 중정에서 본 대문간
3. 대문간에서 본 중정(좌)
4. 대문간에서 본 중정(우)
5. 중정에서 본 대문간(좌)
6. 중정에서 본 대문간(우)

1 1 2  
3 1 4  
5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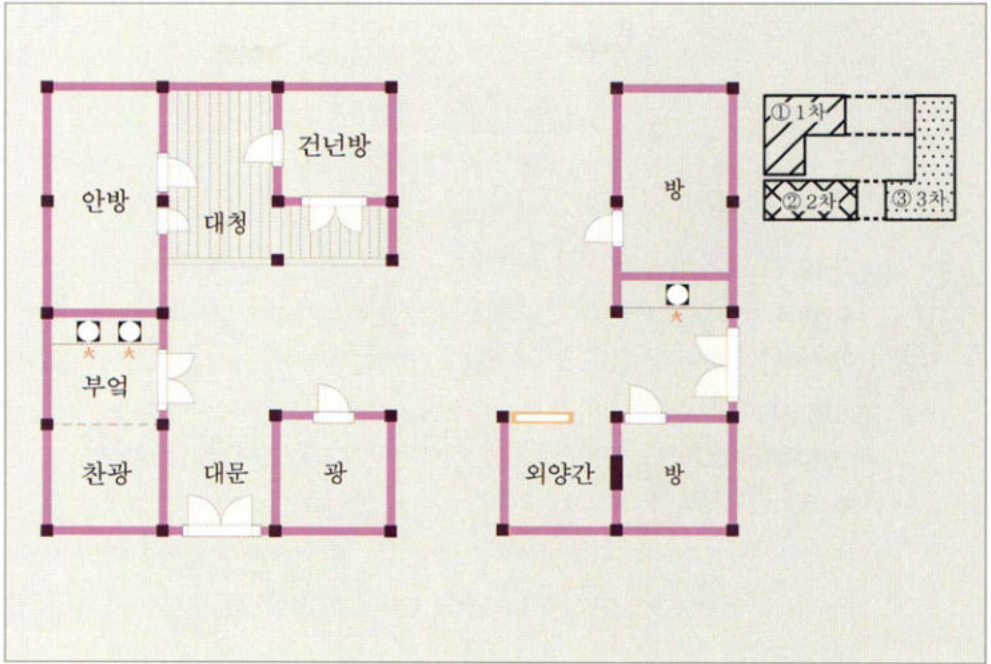


안채 현 거실 천장에는 종도리에 목서가 남아 있다. “太歲在壬申二月十七日亥時豎柱上樑 運主甲辰生 壬申 癸卯 癸未 癸亥 辰坐 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태세 임신년은 1932년으로 추정된다. 즉 1932년 2월 17일에 상량식을 했으며 목서상의 집주인은 갑진甲辰생이므로 1904년생 아니면 1844년생이다. 그러므로 집 지을 당시의 나이는 29세 아니면 89세가 된다. 아마도 29세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이길자 할머니의 시아버지가 가주家主가 되어 이 집을 처음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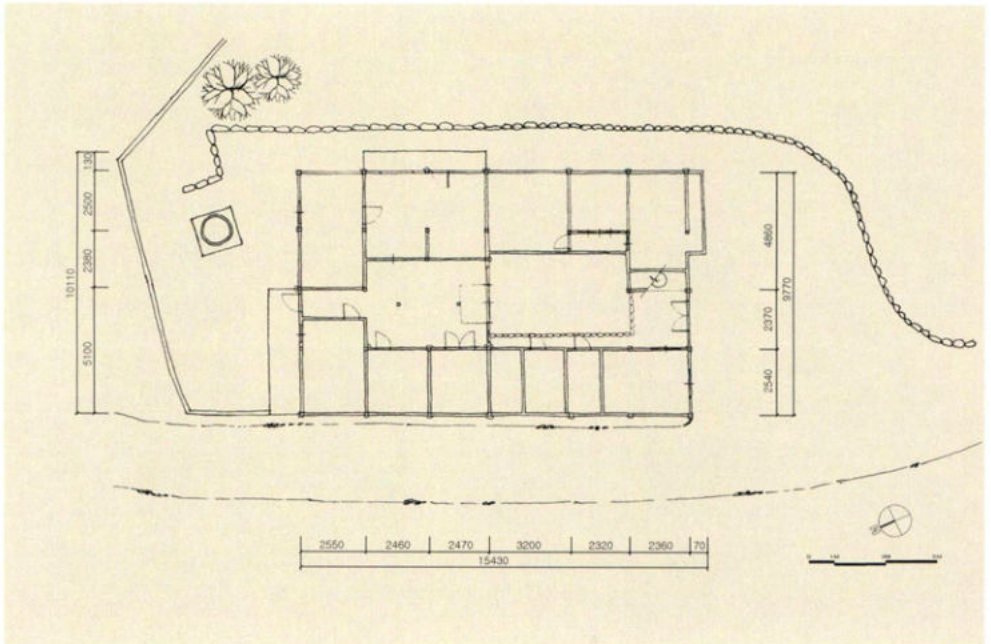
초창 당시에는 초가였는데 지금은 골합석 우진각지붕으로 바뀌었다. 1970년대 지붕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바뀐 것이며 현재는 문간채 겸 사랑채가 덧붙여 ‘ㄱ’ 자형을 이루고 있으나 초창 때에는 좌우가 바뀐 ‘ㄱ’ 형 앞에 ‘一’ 자형 대문간채가 붙은 ‘ㄷ’ 자형이었다. 현재의 대문간채는 안채가 완성된 후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은 것이라고 한다. 공간의 쓰임과 난방방법이 현대식으로 바뀌면서 실의 용도가 거의 바뀌었다.

목서에는 향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관양동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낮은 능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대지의 전체 경사는 서향을 하고 있다. 집은 ‘ㄷ’ 자형 안채에 좌우가 바뀐 ‘ㄷ’ 자형 사랑채가 덧붙여 전체적으로 좌우가 긴 ‘ㄱ’ 형을 이루고 있는데 대지가 좌우로 길기 때문에 집도 좌우로 길게 구성되었다. 집은 안채 현 거실을 중심으로 본다면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서향을 하고 있으며 대문은 사랑채에 있고 남쪽에 위치한다. 건물 앞쪽은 도로가 붙어 있으며 뒤쪽은 능선의 경사가 바로 이어져 전혀 여유가 없다. 뒤쪽의 능선은 향 우측까지도 빠져 내려왔다. 그리고 이 능선과 대문간 사이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바깥마당을 이루고 있다. 향 좌측은 평평한 대지가 이어져 이웃집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건물 앞뒤로는 전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후원은 향 좌측 평지에 만들어져 있다.

향 좌측 후원에는 우물과 장독이 마련되었고 경계에는 콘크리트 빈지널로 담장을 둘렀다. 집 뒤쪽과 향 우측은 산 경사를 이용해 울타리를 삼았으며 별도로 담장을 쌓지 않았다. 남쪽은 건물 벽이 도로에 바로 면하고 있으며 사랑채 사랑방 모서리에서 도로 건너편에는 단칸 별동으로 변소를 두었다. 바깥마당을 제외하고는 대지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경을 하지 않았다.



추정복원도



배치도



## 2. 가옥의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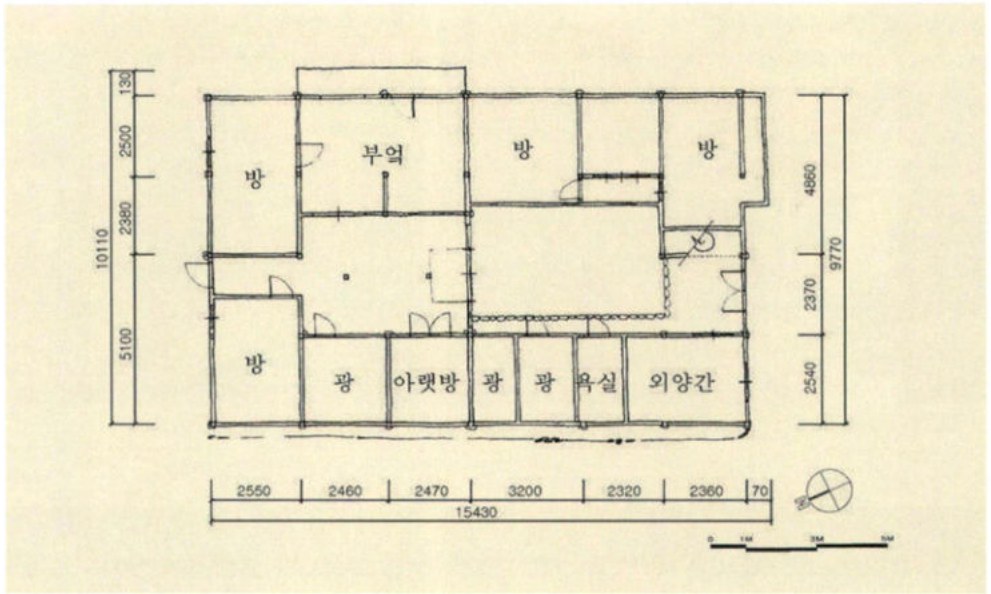
### 1) 안채

지금은 안채와 사랑채가 붙어 있어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대문간을 들어서서 작은 중정을 지나 알루미늄 유리 새시(sash)문이 시작되는 곳부터가 안채이다. 원래는 안채와 사랑채가 붙으면서 중정이 길었으나 지금은 중정을 반으로 나눠 안채 중정 쪽에는 문을 달고 지붕을 만들었으며 바닥에는 장판을 깔아 실내공간처럼 사용하고 있다. 안채 중정을 기준으로 안쪽에는 전면 2칸, 측면 1칸 반의 거실을 두었고 거실 향 좌측에는 전면 1칸, 측면 2칸의 안방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안방 앞으로는 반 칸의 통로를 두었고 이 통로는 안채 중정에서 향 좌측에 있는 후원으로 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로 앞쪽으로는 전면 1칸, 측면 1칸 반의 아랫방을 연결하였다. 즉 안방과 아랫방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다. 안채 중정 앞쪽은 가운데 칸이 광이고 광을 기준으로 향 우측이 뜰아랫방이다. 그리고 광 향 좌측은 안방에서 빠져 내려온 아랫방이 연결되어 있다.

안방의 도리칸 기둥 간격은 2,550mm이고 보칸 역시 2,500mm로 비슷하다. 그러나 거실이나 광 및 뜰아랫방의 도리칸 기둥 간격은 2,460mm 및 2,470mm로 8자 정도이다. 그러나 보칸은 안방과 같이 2,540mm로 8자가 좀 넘는다. 이로 미루어 일정치는 않지만 안방은 보칸과 도리칸을 좀 더 크게 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으며 같은 실이라고 해도 도리칸보다는 보칸이 약간 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안채 평면 간살이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 달랐다. 즉 안채 중정이 지금은 비닐 장판을 깔 실내공간이지만 5년 전에는 사랑채 중정처럼 외부공간이었다. 또 안방은 온돌방 두 칸이 나란히 이어져 아랫방을 이루고 있었으나 안방 쪽 온돌방에 반 칸으로 통로를 내면서 온돌방이 합쳐져 1칸 반의 아랫방으로 바뀌었다. 안채 중정에는 난방을 하지 않으나 방은 모두 현대식 기름보일러로 바뀌었다. 그리고 출입문과 창은 거의 알루미늄 유리문이나 창으로 바뀌어 원형을 남기고 있지 않다.

또 안채는 안방을 제외하고 초창 당시의 실의 용도와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변형되었다. 그러나 기둥과 평면 형태의 기본골격은 초창 때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현재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두 칸 중에 안방 옆 가운데 칸은 대청이었고 안방과 대청을 이루는 건너편은 건넌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붕의 가구형식을 보면 추정할 수 있다. 즉 대청을



평면도

기준으로 향 좌측에 안방이 있고 향 우측에 건넌방이 있으며 대청과 건넌방 앞으로는 퇴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안방은 앞으로 한 칸을 더 내 2칸이었으며 안방 앞으로는 부엌 한 칸이 달려 있었다. 기본 구조에서 이재락 가옥과 똑 같은 ‘ㄱ’ 자 평면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안채 앞으로는 3칸짜리 ‘一’ 자형으로 아래채가 붙어 있었는데 가운데는 문간이고 양쪽으로 광과 외양간이 있었다. 그래서 안채와 아래채가 합쳐져 ‘ㄷ’ 자를 이루는 평면이었는데 지금도 그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2) 사랑채

사랑채는 안채가 지어지고 약 10년 후에 지어졌다고 한다. 현재는 안채와 연결되어 있고 전체적인 모양은 좌우가 바뀐 ‘ㄷ’ 자 형태이지만 초창 때의 모습은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랑채는 문간채를 겸하고 있으며 사랑채의 기능은 사라지고 세를 놓고 있다. 평면의 구성은 대문간을 들어서는 것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대문간은 향으로 보면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남향이다. 대문간 앞에는 비교적 넓은 바깥마당이 있다. 대문간의 도리칸 기둥 간격은 2,370mm이고 보칸은 2,360mm으로 8자가 조금 안 되고 안채 기둥



안채 중심의 실내공간화



전 부침



안채 중정에서 본 후원 연결통로



안채 중정에서 본 외부 중정

간격에 비해 좁은 것이 특징이다. 사랑채는 대문간을 기준으로 향 좌측이 한 칸 향우측이 두 칸으로 구성되었다.

대문간 좌측에 사랑방이 놓였는데 전면은 1칸이고 안채 쪽으로 길게 1칸 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랑방에 이어서 안채 쪽으로 반 칸짜리 욕실과 반 칸짜리 광 두 개가 이어져 있다. 욕실과 첫 번째 광은 중정에서 출입하며 두 번째 광은 바깥 도로 쪽에서 출입했으나 지금은 벽으로 막았다.

대문간 향 우측은 옆으로 나란히 문간방 두 칸이 이어졌으며 문간방의 아궁이는 대문간에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안채 쪽으로 꺾여 방 한 칸과 부엌 한 칸이 이어졌다. 문간방의 도리 칸 2칸은 4,860mm로 기둥 간격은 8자가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보칸은 2,360mm로 약간 작으며 문간방과 부엌 사이의 작은 방은 2,320mm로 더 작다. 현재는 문간방과 작은방을 터 'ㄱ'자로 하나의 방을 만들었다. 부엌은 보칸이 3,200mm로 다른 기둥 간격에 비해 현격히 넓다. 이와 대응되는 것이 사랑방에서 연결되는 광 2칸이다. 따라서 이 부엌과 광은 초창 때에는 내부 실이 아니었고 사랑채와 안채가 분리된 통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흔적은 지붕의 서까래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즉 이 부엌과 광은 세를 놓으면서 부가된 시설로 판단된다. 사랑채 중정은 외부이며 가운데 수도가 설비되어 있다.

### 3. 가옥의 구조

내외부에서 초석은 모두 묻혀 있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기단은 대문 전면과 중정에서 살아 있는데 외벌대 장대석기단이다. 하지만 장대석의 단면은 그리 크지 않다. 바닥은 모두 콘크리트를 발라 마감하였다. 기둥은 방형이며 4치 정도로 굵지 않다. 기둥에는 모접기나 면접기를 하지 않았다. 안채는 이재락 가옥과 마찬가지로 평사량구조이다. 기둥머리에서는 도리와 보가 사괘맞춤으로 결구되었으며 아무런 장식도 없다. 도리는 납도리이며 하단 모서리는 둥글게 모접기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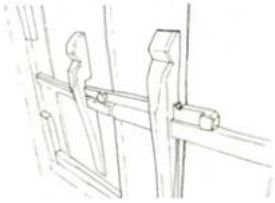
대들보 역시 방형으로 고주와의 맞춤은 장부맞춤인데 췌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대들보 위에는 판형 동자주를 세우고 중도리를 걸었는데 고주상부 중도리와 동자주 상부 중도리는 모두 납도리로 잘 가공된 도리를 사용하였다. 이재락 가옥의 원목에 가까운 굴도리에 비한다면 잘 가공된 납도리라고 할 수 있다. 평사량구조라는 측면에서 이재락 가옥과 같으나 이

길자 가옥에서는 종보를 걸지 않았다. 고주 상부에서는 사갈을 트고 한쪽은 도리를 걸었으며 도리와 직교하는 보 방향으로 보를 걸지 않고 양쪽으로 보 뿔목 정도의 짧은 부재를 끼워 넣어 도리와 직교로 결구하였다. 결국 종보를 생략하고 보머리 정도만 고주상부에서 도리와 결구되도록 한 것이다. 보머리는 장식 없이 말구는 직절하였다.

측면으로는 이재락 가옥과 같이 도리 방향으로 한 쪽은 동자주 및 고주 머리에 결구되고 한 쪽은 측면 처마도리에 얹은 충량을 걸었다. 그리고 충량 등에는 중간쯤에 외기삼아 멍에 보뿔보를 건너지르고 그 꼭짓점에서 추녀를 걸었다. 서까래는 중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수평으로 나란히 걸었으며 이 서까래는 멍에보 위치까지 이어진다. 측면 처마 서까래는 멍에보에 의지해 걸었으며 추녀 양쪽으로는 말굽서까래를 걸었다. 서까래 굵기는 3~4치로 일정치 않으며 굵은 자연목이 많고 간격은 1자에서 1자 5치 사이로 넓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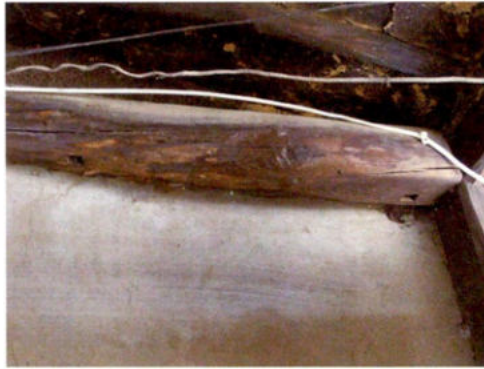
거실 부분의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서까래가 노출되어 보이며 치받이 한 앙토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이재락 가옥과 같이 도배지로 서까래를 싸 바르는 소경반자는 하지 않았다. 방에서는 달대에 의해 반자를 꾸미고 도배지를 바른 지반자이다. 서까래 사이는 이재락 가옥과 같이 잡목을 쪼갠 것을 이용해 산자 엮기를 했으며 앙토 바르기로 마감하였다. 앙토는 맞벽 치듯이 초벌과 재벌로 마감하였다. 초벌은 벗짚을 섞어 두텁게 발랐고 재벌은 모래를 섞어 얇게 발라 트지 않도록 했다. 벽체는 맞벽이었을 것이나 지금은 모두 시멘트를 발라 알 수 없다.

대문간채는 3량 가구이다. 기둥위에서는 보와 도리가 사괘맞춤이 되었으며 별다른 장식은 하지 않았다. 처마도리는 방형이며 종도리는 굴도리이다. 보도 안채와는 다르게 원형단면의 자연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동자주는 방형이며 서까래는 직경이 3치 이하에서 4치 정도로 일정치 않고 간격은 1자 5치가량으로 넓다. 서까래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스럽게 흰 원목을 꺾질만 벗겨 사용하였다. 대문은 2짝 안여닫이 판문이며 양쪽에 문설주를 세우고 위아래도 문둔테를 따로 설치해 달았다. 문설주와 기둥 사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는 판재로 막았으며 중간에는 2줄로 띠장목을 보내 판벽의 격식을 갖췄다. 대문은 3쪽 정도의 널을 띠장목에 의해 고정시켜 만들었는데 빗장과 빗장둔테는 격식을 갖추어 제대로 만들었다. 문상방 위에는 홍살을 두지는 않았다.



1. 보와 기둥의 맞춤
2. 대문간채 서까래와 종도리
3. 대문간 빗장 I
4. 대문간 상부 문둔테
5. 대문간 빗장 II
6. 대문간 하부 문둔테

1	1	2
3	1	4
5	1	6



1. 안채 건넌방 현 부엌 쪽 총랑
2. 안채 대청 평사랑 가구
3. 안채 건넌방(현 부엌) 전경
4. 안채 대청(현 부엌) 전경



#### 4. 가옥의 특징

초창 때 안채 평면 구성은 이 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계승한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가운데 대청 한 칸을 기준으로 향 좌측에 안방 한 칸, 향 우측에 건넌방 한 칸이 배치되었으며 대청과 건넌방 앞으로는 반 칸 퇴가 붙고 안방 앞으로는 온돌이 한 칸 더 이어져 2칸 안방이었다. 또 안방 앞으로는 부엌 한 칸이 빠져나와 전체적으로 좌우가 바뀐 ‘ㄱ’자 평면을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안채 앞으로는 3칸 일자형 아래채가 붙어 ‘ㄷ’자형 배치였다. 아래채는 가운데가 문간이고 양쪽으로는 외양간과 헛간이 구성되었다.

지금도 안채는 이러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실의 용도가 달라지고 벽체가 약간씩 변형되었다.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을 둔 정면 3칸 집으로 안방 앞으로 부엌을 달아낸 ‘ㄱ’자형 평면은 비산동 이재락 가옥과 관양동 이영소 가옥을 비롯한 안양지역의 지역적 특징을 잘 반영한 것이다. 또 대청과 뒷마루에 우물마루가 아닌 장마루를 간 것도 이 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1900년대 초라는 시기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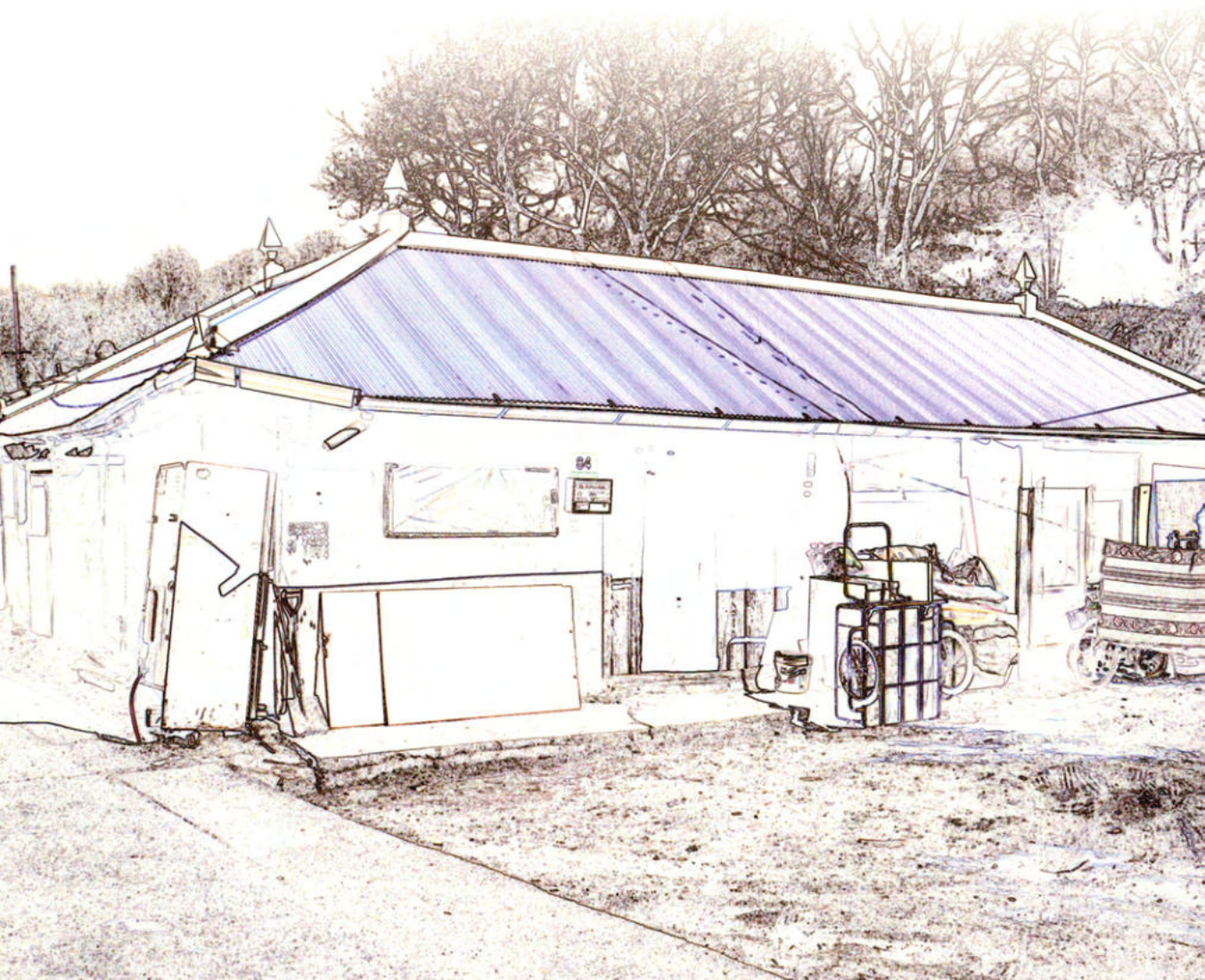
안채의 이러한 원형은 보일러의 보급과 용도의 변화로 대청과 건넌방을 통합하여 하나의 큰 거실을 만들고 사랑채로 대문간이 옮겨 감에 따라 안채의 부엌과 원래 아래채의 광과 외양간으로 쓰던 실이 방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즉 안채에 이어 사랑채가 지어지면서 원래 안채의 헛간과 대문간채로 사용하던 아래채에 방을 들여 기거할 수 있는 행랑채 성격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채의 중정에 문을 달고 바닥에 장판지를 깔아 실내용도로 바꾸었으며 여기서 후원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내면서 방이 잘렸다.

사랑채는 안채 남쪽, 향 우측에 놓였다. 안채보다 10년 후에 지어졌다고 하며 초창 때의 모습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창 때의 사랑채는 가운데 대문간을 중심으로 향 좌측에 방이 한 칸 있고 우측에도 방이 옆으로 나란히 두 칸이 연이어 있었다. 이 방의 난방은 대문간에 마련되어 있으며 술을 걸 수 있는 부뚜막이 있었다. 조리용은 아니고 소여물 등을 쐐는데 사용했을 것이다.

좌측 방에서는 안채 쪽으로 한 칸을 덧달아 외양간으로 이용하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랑채는 ‘ㄴ’자 형태로 추정된다. 이것이 안채와 붙어 있었으며 사랑채와 안채 사이는 완전히 붙지 않고 공간이 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던 것이 외양간을 없애고 방을 확장하고 욕실을 만들었으며 안채와의 통로도 막아 광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문간방 쪽은 안채



쪽으로 확장해 방을 한 칸 더 만들고 안채와의 통로는 벽으로 막아 문간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엌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현재는 안채와 같은 ‘ㄷ’ 형이 되었다.



### 1. 가옥의 위치와 배치

오천교 가옥은 동안구 관양1동 478번지에 있다. 관악산 주봉에서 정남향으로 뻗어 내려온 산줄기 끝자락에 위치한다. 관양1동의 종산자락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집은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이길자 가옥과 같은 동편길에 위치하는데 이길자 가옥보다는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인덕원사거리에서 비산동사거리 쪽으로 약 600m를 가다가 2차선 과천길로 우회전해 들어간다. 우회전해 150m를 가다가 다시 좌회전해 북쪽 관악산 방향으로 동편길을 이용해 1.2km 정도 들어가면 도로 남쪽으로 있다. 동편길은 고리형으로 북쪽으로 오르다가 큰 곡선을 그리며 남쪽으로 내려온다. 오천교 가옥은 바로 그 고리 정점 정도에 위치한다. 동편길은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도로이며 동편길 정점에서 남쪽으로 60m 정도 남쪽에 있으며 동편길 135호집이다. 안채 대청마루 부분 종도리 장여에는 목서가 남아 있다. “西紀一九六四年甲辰九月一日巳時立柱上樑成造主右成造后萬事大吉”이라고 하였다. 즉 1964년 9월 1일에 상량한 집임을 알 수 있다.

이 집은 고목나무집으로 유명한데 현재도 사랑채 앞에 수령 500년 된 느티나무가 본줄기는 사라졌지만 본줄기 그루터기와 거기서 자란 셋가지가 6m 이상으로 자라 있다. 그루터기 직경만 해도 4자 이상은 되어 보인다. 이 느티나무 가에는 상석이 놓여 있으며 제를 지낼 때 사용한다고 한다. 또 사랑채 동쪽에는 자연적으로 잘 쌓은 깊지 않은 샘이 있는데 이 샘 또한 전하는 말에 따르면 500년 이상 된 것이며 마을에서 모두 이 물을 이용했다고 한다. 샘물은 밑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나온다고 한다. 아마 관악산에서 흘러든 지하물줄기가 여기에서 분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샘에는 1급수에서나 자란다는 중태가 지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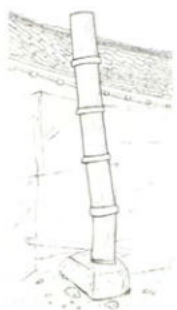
오천교 가옥 전경

살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사할 때는 20여 마리가 눈에 보였는데 항상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한다고 한다. 현재 이 우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오천교 가옥은 상량문에 따르면 1964년에 지은 것으로 느티나무나 우물의 나이에 비한다면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역대 마을을 이루고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에 새로 집을 지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을을 오천마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집이 오천마을의 유래가 된 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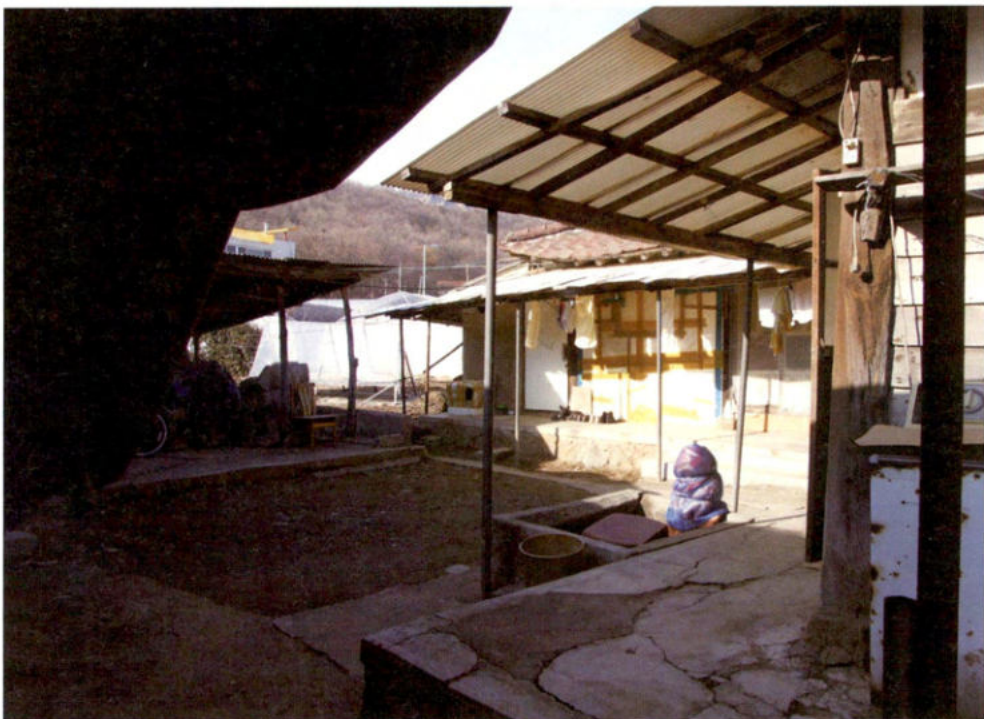
오천교 가옥의 진입은 동편길이 집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빠져 내려온 안채 동쪽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측면에서 안채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아마 이러한 진입은 전통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동편길이 생기면서 진입로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령 500년 된 오천마을의 느티나무가 이 집 남쪽 대문간채 앞에 있으므로 이곳부터가 마을의 시작이라고 보면 남쪽으로부터 진입해 마을 초입에 있는 집이 바로 오천교 가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집은 거의 평지에 가깝지만 북쪽이 높은 완만한 경사지에 들어서 있다. 동쪽으로는 매우 낮은 완만한 구릉이 있고 서쪽은 평지로 이웃집이 이어지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낮은 산이 위치한다. 북쪽은 동편길까지는 완만한 경사로 이어지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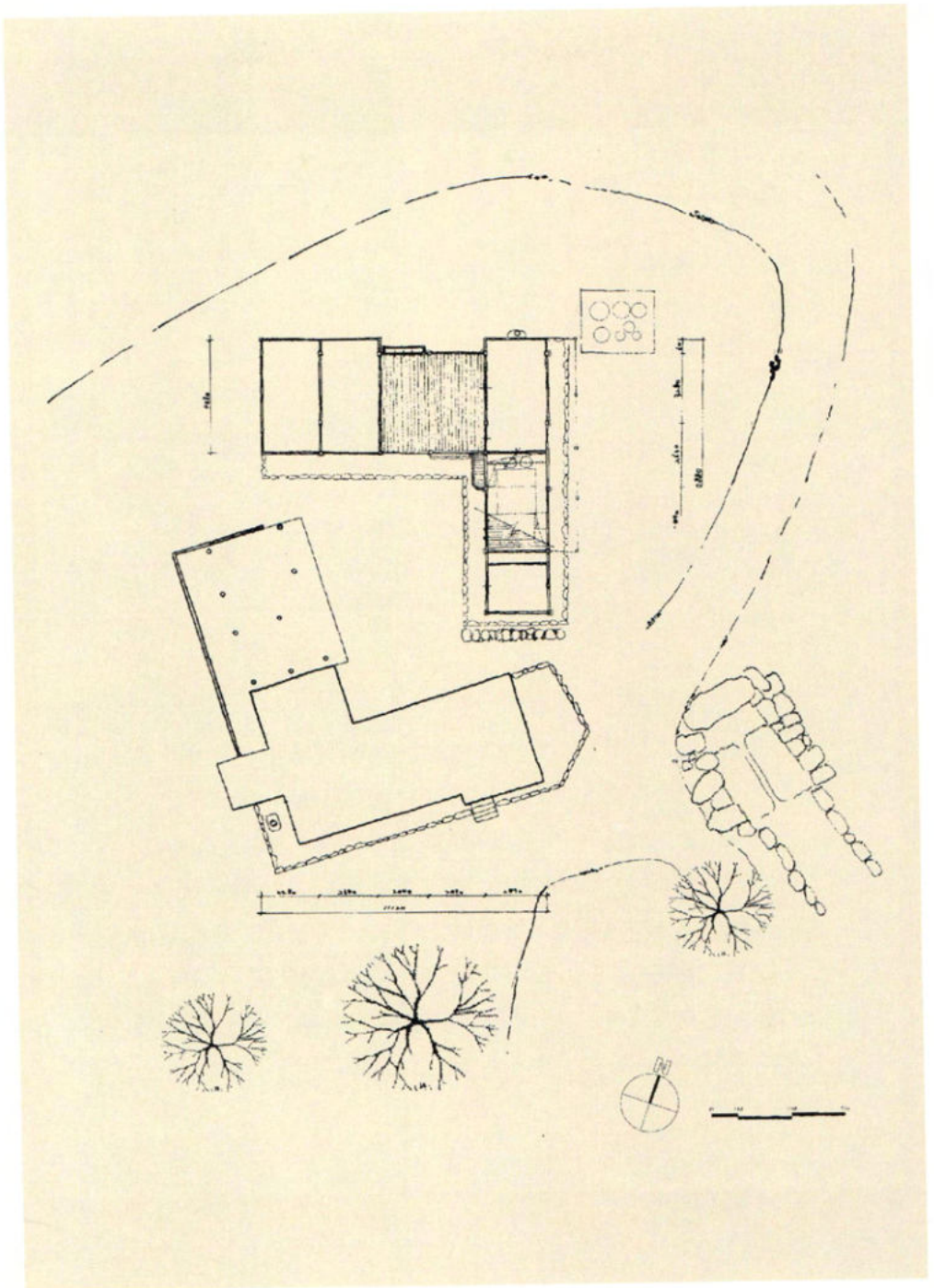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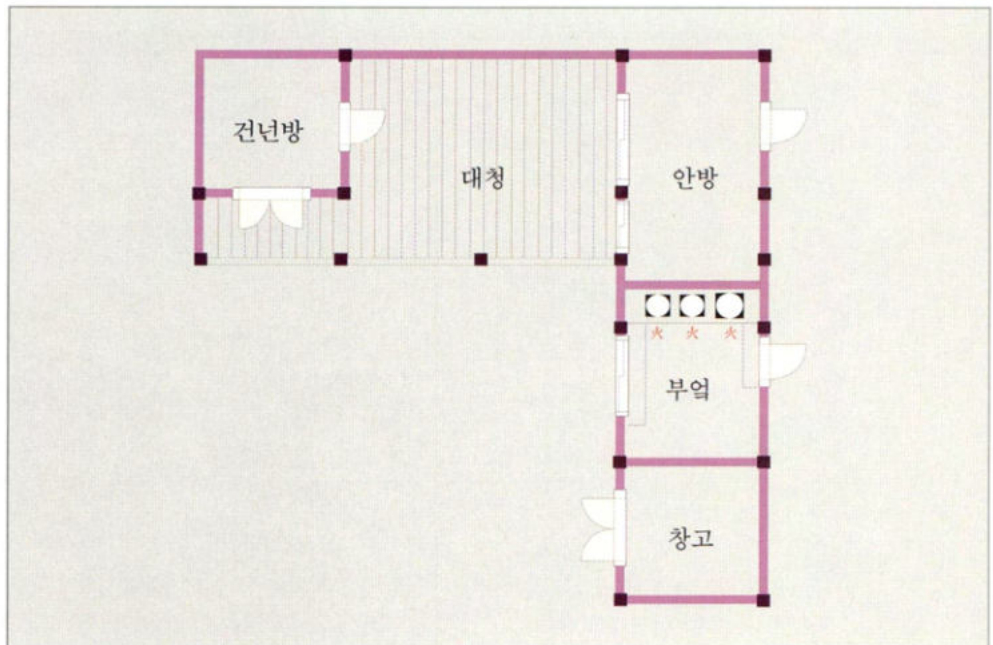
1. 마당 전경
2. 부엌과 헛간
3. 안채 대청 부분 전경

1 1 2  
3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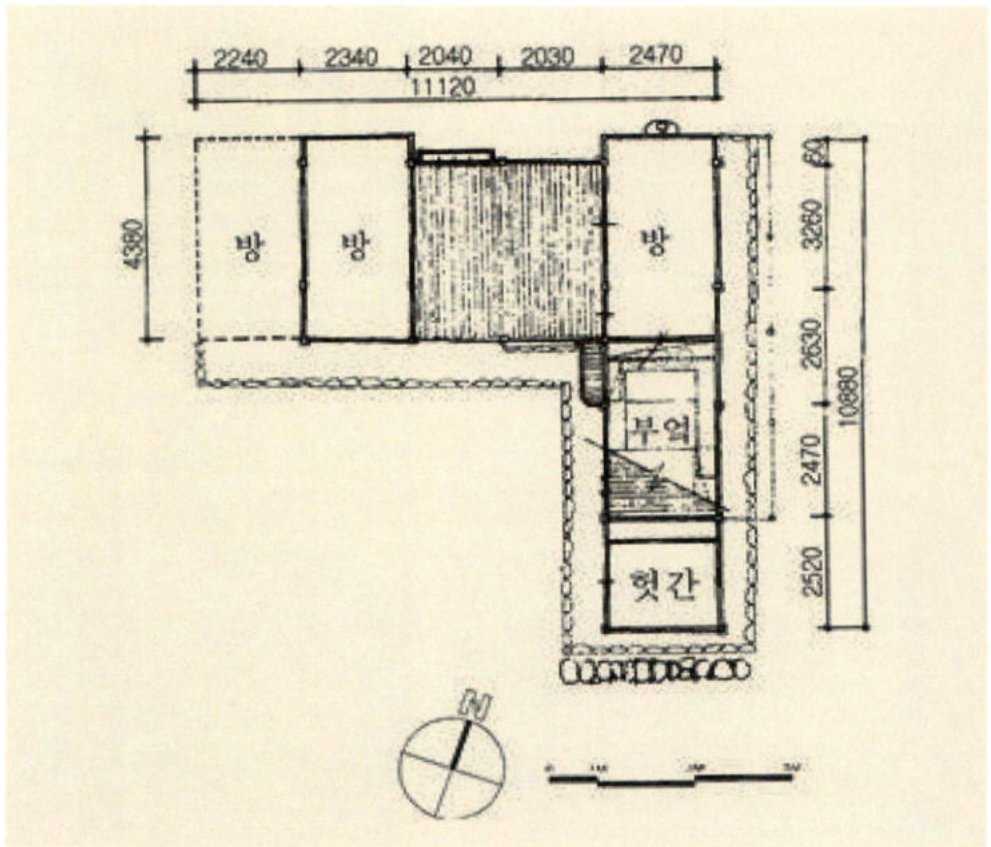
추정복원도

동편길 건너부터 경사가 심해져서 관악산 주봉에서 남쪽으로 빠진 능선에 이어진다. 주산이 든든하고 비교적 좌청룡 우백호가 갖춰진 혈맥의 좋은 터에 자리 잡고 있다.

안채는 'ㄱ' 자형이고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남향이며 안채 앞으로는 'ㄴ' 자형의 사랑채가 안채와는 방향을 약간 틀어 남서향으로 배치해 전체적으로 튼 'ㄴ' 자형의 배치를 이룬다. 사랑채 앞으로는 바깥마당이 약간 있고 마당 건너에는 500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있다. 그 앞으로는 경작지가 펼쳐져 있다. 또 사랑채 동쪽에는 진입로 건너 500년 되었다는 우물이 있다. 서쪽은 이웃집이 연이어 있으며 북쪽은 북서쪽이 튀어나온 타원형으로 대지의 경계를 이루고 경계에는 북서풍을 막고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사철나무를 심었다. 안채 서쪽과 후원은 텃밭을 경작했던 흔적이 있다. 그리고 안채 서북쪽으로는 장독대가 놓였다.

## 2. 가옥의 평면

사랑채는 'ㄴ' 자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벽도 시멘트로 바뀌었고 덧붙이고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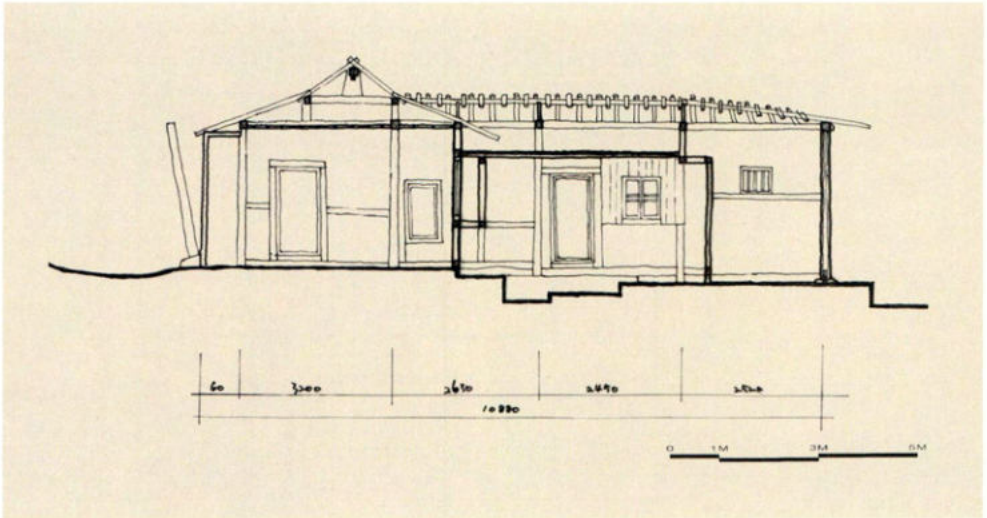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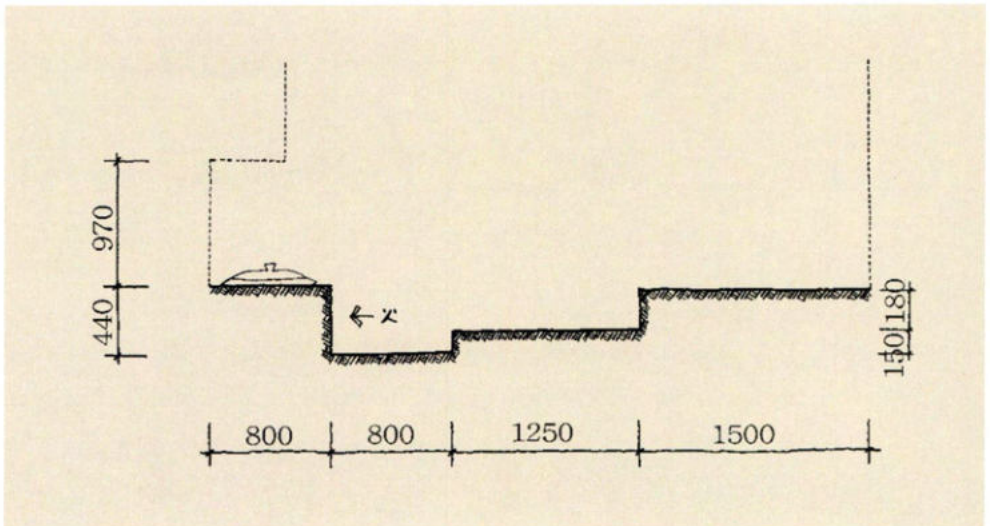
아닌 것들이 많고 변형이 심해 안채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안채는 이 지역의 평면적 특징인 'ㄱ' 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어진 연대가 다른 민가에 비해 늦고 넓은 대청마루가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경제적 뒷받침으로 처음부터 두 칸 대청마루를 구성했으며 가구도 1고주 5량으로 격식을 갖췄다. 가운데 2칸 대청은 도리칸이 2,040mm와 2,090mm로 7자가 조금 안 되는 매우 좁은 간살이 이지만 보칸은 고주에서 후면 평주까지 3,260mm로 매우 크다. 안방과 건넌방도 각각 도리칸은 2,470mm와 2,340mm로 8자 정도이고 보 칸은 대청과 같다. 방은 대청보다 도리칸 간격이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2자 이상 차이를 보이는 장방형 모듈로 계획되었다는 것이 이 집 간살이 계획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청은 도리칸은 2칸, 보칸은 한 칸 반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 전퇴의 고주는 생략하고 대들보를 건너질렀다. 바닥은 남북 방향으로 장마루를 깔았다. 대청 서쪽 뒷벽에는 상부에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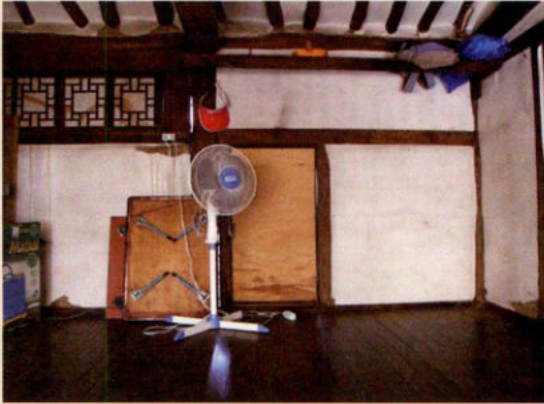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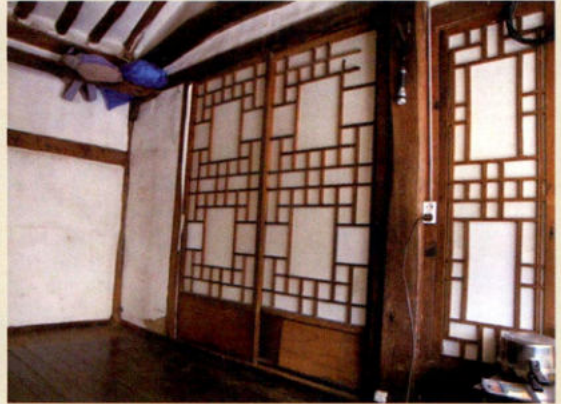


부일 단면도

감을 두었는데 조상의 신위를 모셔 두고 제사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벽감의 창은 아자살창으로 네 짝 미닫이이다. 대청에서 후원으로의 출입을 위해 대청 뒷벽에는 동쪽 칸에 중앙 처마기둥에 붙여 외쪽 여닫이문을 달았다. 머름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청 전면에는 양관 유리창문이 달려 있는데 동쪽은 2짝, 서쪽은 3짝이다. 후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청



안방쪽 창문



안채 안방 쪽 가구



헛간 상부 처녀와 서까래



부엌 상부 가구



기둥 상부 맞춤



부엌 측 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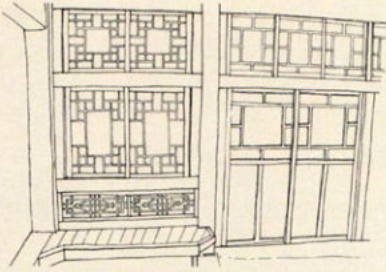
헛간 살림

대청 동쪽에는 도리칸 한 칸, 보칸 한 칸 반의 안방을 두었다. 대청과 안방 사이에는 고주칸에 2짝 아자살 미단이문이 달렸으며 퇴칸에는 아자살 외짝 여단이창이 달렸다. 퇴칸 쪽의 창호도 미단이만큼 크지만 하단에 높은 머름이 있어서 창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눈썹 째기창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겨울에는 출입문으로도 이용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안방 앞쪽 남쪽으로는 부엌 1.5칸과 창고 1칸을 달았다. 부엌은 기단 면보다 많은 단차가 있다. 아궁이를 설치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는 민가에서 일반적인 형태이다. 부뚜막의 폭은 800mm이며 높이는 440mm이다. 부뚜막에는 2개의 아궁이가 마련되었고 부뚜막 상부는 안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벽장이 가설되어 있다. 그리고 부뚜막 서쪽 벽에는 판재로 벽장을 만들고 외부 쪽마루 쪽에 2짝 미단이 아자살 유리창을 달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벽장 밑에는 미단이 유리창을 달아 빛이 들어오도록 했다. 아궁이 반대쪽 남쪽 벽에는 장작을 쌓아 두었으며 동쪽 벽에는 판재로 만든 찬장을 두어 그릇을 보관하고 있다. 부엌 상부에는 전체적으로 다락을 두었으며 부엌 출입문 상부에 5짝 아자살 미단이 유리창문을 설치하였다. 부엌은 전면에 두 째 미단이문을 설치해 출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짝은 상부는 아자살에 유리를 끼웠고 하단은 세로살로 중앙을 나눠 판재를 끼운 형태이다. 부엌 남쪽으로는 창고 한 칸을 두었는데 출입은 동쪽에서 이루어진다. 출입문은 두 째 여단이인데 문의 모양은 상부는 가로살로 두 단으로 나눠 유리를 끼웠고 하단은 세로살로 중앙을 나눠 판재를 끼운 형태이다. 창고 남쪽 벽은 중방 이하에 가로로 빈지널을 댄 판벽으로 했다.

대청 서쪽의 건넌방은 도리칸 한 칸, 보칸 1.5칸인데 대청 쪽은 냉장고와 찬장이 막혀 있고 전면은 합판이 붙어 있어 출입문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 건넌방 서쪽으로는 ब्ल록으로 다시 한 칸을 덧달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재락 가옥이나 이길자 가옥과 같이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을 두고 안방 앞으로는 부엌을 달아내는 곱은자집의 기본 골격은 오천교 가옥도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또 대청에 우물마루가 아닌 장마루를 끼는 것도 같다. 그러나 대청이 한 칸이 아닌 2칸이라는 점과 가구가 평사량이 아닌 1고주 5량이라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이재락 가옥이나 이길자 가옥에서도 공간을 확장할 때 건넌방을 옮기고 대청을 먼저 두 칸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천교 가옥도 안양의 전통적인 곱은자집 형식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벽장창호 상후 창호
2. 벽장창호 상세
3. 벽장창호
4. 삼부다락 광창
5. 부뚜막 광창

1	2
3	4
6	





부엌 찬장과 살림



부뚜막과 아궁이



부엌 부뚜막 광창



부엌 살림

### 3. 가옥의 구조

오천교 가옥은 다른 집에 비해 비교적 기단의 원형이 잘 남아 있다. 대청과 부엌 앞쪽은 시멘트로 싸발라 원형을 볼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기단 상부에만 시멘트를 발라 측면 원형은 볼 수 있다. 얇은 자연석을 사선으로 엮비슷하게 쌓았는데 이러한 쌓기법은 이재락 가옥의 담장과 기단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쌓기법이다. 초석은 화강석이며 정밀하게 다듬지는 않았지만 대략 방형의 사다리꼴 초석이 숫자가 많다.

기둥은 방형이며 면접기는 하지 않았지만 모서리는 외사모로 접어 초석과 함께 그 격식을 맞췄다. 기둥 직경은 5치 정도이며 높이는 2,370mm 정도로 8자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이다. 이 지역의 민가가 7자 반이 일반적인 것과 비교한다면 조금 높은 편이다. 기둥머리에서는 납도리와 보가 사괘맞춤으로 되어 있으며 보머리는 장식 없이 직절하였다. 대청부분의 가구는 1고주 5량이다. 고주에서 대들보와 퇴보는 같은 높이에서 만나며 장부맞춤으로 하였는데 췌기를 박지는 않았다. 대들보는 구형보이며 등이 굽은 자연목을 잘 활용하였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와 도리가 고주와 동자주 위에서 사괘맞춤으로 결구 되었다. 중도리는 하단을 둥글게 모를 접은 납도리이며 종보는 역시 구형보이다. 종보 위에는 사다리형의 판대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걸었는데 도리 밑에는 장여가 별도로 있으며 대공과는 소로로 결구되었다.

민가이면서도 결구법에서 반가의 격식을 일부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는 3분변작이며 5량 가구로 이 지역의 민가가 대부분 평사량이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시기적인 차이점과 비교적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가구법은 김인태 가옥과 유사하다.

서까래는 자연목을 이용해 굽은 것이 많으며 간격은 일정치 않으나 한자 이상으로 보통은 1자 5치 정도이다. 대청은 연등천장으로 벽과 함께 회를 발라 마감하였다. 부엌 부분의 가구는 3량식이다. 보는 등이 굽은 나무를 양 옆면만 다듬어 사용하였다. 대공은 동자주형인데 단면은 장방형이다. 외벽 쪽은 사다리형이다. 종도리는 납도리형이고 하단은 둥근모 접기로 했다. 대청과 같이 도리 아래 장여를 걸지 않았다. 서까래는 대청과 같으며 산자의 치받이는 회로 마감하였다. 벽체는 맞벽을 쳤는데 중깃은 가공된 각재를 사용했고 외위기 끈은 침을 이용하였다. 진흙에는 여물을 썰어 넣어 갈라짐을 방지했고 정벌은 매우 얇게 모래를 섞어 발랐으며 표면에는 회를 발랐다.



기단 상세 I



기단 상세 II



초석과 기단



초석 I



초석 II





1. 헛간 중깃 상세
2. 우물구조
3. 광창과 중깃 상세
4. 우물 전경 II

1 | 2  
3 | 4



#### 4. 가옥의 특징

이 집은 초창이 1964년으로 늦고 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넌방 옆으로 한 칸이 증축되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원형을 남기고 있다. 다만 건넌방과 안방이 북쪽으로 처마 밑까지 확장되었는데 이 부분이 원형인지 후에 증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에 증축한 것으로도 추정된다. 기단에 시멘트를 바른 것과 벽 하부에 시멘트를 바른 것 등은 원형이 아니다.

대청 앞과 부엌 및 창고 등의 외곽에 달린 창호는 대개 양관문이며 부엌 벽장에 달린 창도 살창에 유리를 끼운 것인데 이러한 창호들도 이 시기 정도면 원형이라고 추정된다. 사랑채는 현재로서는 조사가 어려워 어디까지 원형인지 추정하기 어려우나 위치와 방향 전체 외곽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지금도 기단은 원형대로 살아 있다.

## 집필

김지석 안양시청  
류현희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철하 의왕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안중수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원  
이동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이진희 지역사 연구자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기획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안양 근대사 산책

발행인 신기선  
발행처 안양문화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53  
Tel 031-449-4499 Fax 031-442-0230  
<http://www.anyangculture.or.kr/>  
발행일 2017년 12월 22일  
편집·인쇄 홍익문화인쇄사  
서울시 중구 수표로23 인농빌딩 104호  
Tel 02-2274-8110 Fax 02-2271-0951

ISBN 978-89-87738-98-7

### 비매품

이 책의 내용을 안양문화원의 사전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양 근대 100년의 변화

경부철도, 안양을 달리다  
일제 말기 안양지역의 강제 동원과 수탈  
안양 사람들의 한국전쟁 경험  
중심지를 따라 이동하는 안양의 시장  
안양의 공업화와 노동자들의 삶  
안양 1번가의 역사 그리고 기억  
너른들, 별말이었던 평촌의 상전벽해

#### 사라진 안양 전통 가옥에 관한 짧은 기록

이재락 가옥  
장순태 가옥  
김인태 가옥  
송채남 가옥  
이관구 가옥  
이길자 가옥  
오천교 가옥



바네트  
03910  
9 788987 758887  
ISBN 978-89-87728-98-7